차　례

장편소설

중, 단편소설

예술산문

시

《해방전녀류문학작품선》에 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인멸되였거나 파묻혀있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찾아내야 하며 작가와 작품을 우리 나라 문학사와 예술사발전의 견지에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해방전녀류문학작품선》에는 해방전 우리 나라 녀류작가들이 창작한 수십편의 시, 소설, 수필, 단상, 평론들이 올라있다. 이미 형태별에 따르는 년대별선집에 나간 작품들은 제외하고 새로 발굴하였거나 재선별된 작품들을 묶은 이 작품선은 해방전 녀류작가들의 창작활동과 그들의 사상미학적리상을 새롭게 리해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주고있다.

일제의 극악무도한 폭압정치와 후안무치한 민족문화말살정책속에서도 우리의 민족문화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으며 백두의 태양이 뿌려주는 희망의 빛발속에서 민족문단의 꽃들은 시들지도 퇴색되지도 않고 찬바람을 이겨내며 오히려 꿋꿋이 생생하게 피여났다.

여기에는 《카프》출신작가들과 함께 녀류작가들의 눈물겨운 창작적고행의 자욱도 뚜렷이 새겨져있으며 그들이 심고 가꾸어온 작품들도 적지 않게 있다.

오래동안 2중3중의 사회적억압과 질곡속에서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한숨과 눈물의 하소연으로 시름에 겨워 노래부르던 그들은 규방문학의 문턱을 대담하게 넘어서서 계급문학, 사회정치문학의 격류속에 용감하게 뛰여들었다.

《카프》동반자작가로서 맹활약을 한 강경애를 필두로 하여 김명순, 박화성, 장덕조, 리선희, 백신애, 김말봉, 최정희, 김자혜, 혜원, 로천명, 홍순옥, 리해월, 장정심, 주수원, 김오남, 신진순 등 수많은 녀류작가들이 소설, 시, 수필, 단상, 평론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문학작품을 창작하여 일제의 포악한 식민지정책이 빚어낸 온갖 비인간적이며 반인륜적인 사회악을 폭로, 비판, 타매하였으며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라고 목청껏 호소하였다.

해방전녀류작가들은 소설창작에서 많은 공적을 쌓았다.

고조선시기 《공후의 노래》를 지은 려옥이로부터 시작하여 력대로 우리 나라의 녀류문인들은 많은 경우 시가창작으로 조선문학사에 이름을 남기였다. 물론 산문들도 있으나 그 창작이 활발하지 못하였으며 창작가의 이름도 명백치 않다. 근대말, 현대초에 들어서면서 녀성들의 사회적진출이 적극화됨과 동시에 그들의 소설창작이 폭발적으로 진행되였다. 이것은 일제의 강도적인 조선침략과 폭압정치로 인하여 산생된 필연적인 현상이였다.

그들은 예리한 정치적안목과 남다른 동정심을 가지고 일제통치가 낳은 우리 나라의 비참한 현실을 예리하게 해부하고 해결방도를 모색하였다.

해방전녀류작가들이 창작한 소설의 주제방향은 매우 다양하다.

특별히 주목을 끄는것은 항일무장투쟁의 현실을 배경으로 반일성전에 떨쳐나선 혁명가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투쟁을 열렬히 긍정, 옹호, 찬양하고있는것이다. 항일의 열기가 들끓던 룡정에서 살면서 드높은 반일기세를 폐부로 체험한 강경애는 중편소설 《소금》, 단편소설 《모자》에서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조선의 참다운 혁명가들을 작품에 직접 등장시켜 그들의 위업을 열렬히 옹호하였다.

이 작품들은 이미 다른 작품집에 올라 널리 소개되였으므로 이 문집에는 올리지 않았다.

강경애의 시야에는 손에 무장을 잡고 항일대전에 참가한 투사들의 모습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에 고무되여 새로운 신심과 의지를 가다듬고 반제계급투쟁에 떨쳐나서는 인민대중의 모습도 비껴들었다.

련작소설 《젊은 어머니》(제4회)의 녀주인공은 혁명가인 남편이 《굳센 어머니가 되여주시오, 굳센 어머니가―》라고 간절히 부탁하던 그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겨안고 신념을 변치 않는 녀인이다.

단편소설 《축구전》은 더욱 적극적이다. ×시안의 부자집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와 가난한 집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와의 축구경기를 소재로 하고있는 작품이다. 가난한 집 자식들은 뽈은 잘 차지만 축구화도 없고 쌀밥을 먹지 못해 기력도 약하다. 패할수도 있다. 어떻게 할것인가 모두가 망설일 때 학우회 회원인 주인공 승호는 단호히

결심한다.

《지금과 같은 반동기에 있어서는 지배계급의 적극적탄압에 대중이 락망을 하고 비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활동이 어느 면으로나 더욱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지배계급이란 곧 일제의 폭압정치를 의미한다. 일제의 탄압에 휘여들거나 꺾이지 않고 결코 굴복을 모르는, 굳세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축구를 해야 한다는것이 학우회 회원들의 의지이고 신념이였다. 경기가 끝난 후 그들은 피빛처럼 붉은 기발을 앞세우고 씩씩하게 행진해갔다. 대오의 앞에서 기세좋게 휘날리는 붉은 기발이 그들의 신념과 의지, 투쟁정신과 불굴의 기상을 다 말해주고있었다.

강경애는 장편소설 《어머니와 딸》에서도 봉건적가정의 노예로 살것이 아니라 《몇백만의 로동자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해 바친 영실오빠》처럼 살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이처럼 그의 소설작품들에는 룡정의 반일열기, 항일의 투쟁정신이 뜨겁게 흐르고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강경애문학의 품위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고 새로운 높이에서 느끼게 된다.

해방전녀류작가들이 탐구한 주제분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우리 인민이 겪은 불행과 고통, 인권도 고향도 조국도 빼앗긴 식민지민족의 설분을 토로하고 이러한 불행을 강요한 사회계급적요인을 적극적으로 파헤치면서 그 해결방도를 일정하게 모색하고있는것이다.

단편소설들인 《해고》(강경애), 《산남》(강경애), 《검둥이》(강경애), 《논갈 때》(박화성), 《홍수전후》(박화성), 《고향없는 사람들》(박화성), 《신혼려행》(박화성), 《부부도》(장덕조), 《정현수》(백신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주제의 작품들에는 아직 계몽적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품도 있고 현실비판적성격이 예리한 작품도 있으며 소극적이나마 운명해결의 방도를 모색한 작품도 있다. 이 계렬의 작품들은 모두가 다 기아와 빈궁, 가난과 설음, 천대와 울분을 토로하면서 이 비참한 현실을 빚어낸 일제와 그의 턱밑에 붙어 잔명을 유지하는 착취계급들의 략탈성과 비인간성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고있으나 그 해결방도는 각이

하다. 해결방도를 사회계몽에서 찾는 작품도 있고 아직 여물지는 못하나 인민들의 단합과 투쟁에서 찾는 작품도 있으며 폭로비판에 그친 작품도 있다. 여기에 바로 이 시기 녀류작가들이 창작한 소설의 진보적측면과 함께 미숙성도 있다.

녀류소설가 박화성은 단편소설 《신혼려행》, 《고향없는 사람들》, 《홍수전후》, 《논갈 때》에서 이러한 경향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다.

박화성은 1904년 4월 6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출생하였다. 15살에 숙명녀고를 졸업하고 7년간 교원생활을 하다가 메지도녀대 영문과에서 3년간 수업을 받은 후 본격적인 창작생활을 하였다.

그는 《카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그러나 창작 초기부터 착취받고 압박받는 무산계급의 생활에 남다른 동정심을 가지였으며 누구나 갖지 못한 대담성을 가지고 경향성이 강한 작품을 쓰기 시작하였다. 1925년에 녀직공의 생활을 그린 단편소설 《추석전야》를 들고 조선문단에 등장한 그는 1931년에 《하수도공사》를 가지고 다시 등장하였다.

그 이후 창작한 장편소설 《북극의 려행》, 장편소설 《비탈》을 비롯한 여러편의 소설들과 수필들은 다 경향성이 뚜렷하였다. 특히 《고향없는 사람들》(1937), 《불가사리》(1936), 《홍수전후》(1934), 《논갈 때》(1934)는 그의 창작에서 봉우리를 이루는 가장 우수한 작품들이다. 1925년 처음으로 문단에 등장한 때로부터 해방후에 이르기까지 그의 창작생활은 오래였으나 확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무산자계급의 넋을 지키고 정의의 얼을 분출시킨 작품은 1932년부터 5～6년간에 창작한 소설들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그의 공적은 이 몇년간에 집적되여있다.

단편소설 《신혼려행》은 사회계몽적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성대 의과 4학년생인 준호와 R보육학교졸업반인 복주는 결혼한 다음날 신혼려행차로 아름다운 피서지가 아니라 3등칸에 앉아 목포를 향해 떠났다. 호남선에 앉아가는 그들의 시야에는 수해입은 땅, 수해입은 마을, 수해입은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이 펼쳐지며 A섬에서는 온몸에 감탕칠을 하고 게잡이, 낙지잡이, 조개잡이를 하면서 어린 자식들에게

젖조차 변변히 먹이지 못하는 불쌍한 녀인들, 《바다를 지배하는것이 아니라 바다에 매인 동물》같은 녀인들의 참상이 안겨온다.

먼 친척되는 아주머니집에서는 3살난 아이가 사탕, 과자대신 젓갈을 들고다니며 먹다가 구토설사하는 가슴아픈 모습도 보았다.

이 나라의 가난한 백성들이 겪고있는 눈물겨운 모습을 실지 체험한 이들은 서울에 큰 병원을 차려놓고 박사, 박사 부인으로 떠받들리울 황홀한 꿈에서 대담하게 탈퇴하여 바로 여기 A섬에 와서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고 구제하리라 굳은 결심을 다지게 된다.

이 소설에서 제기하고 해명한 작가의 사상미학적주장은 애민의 감정이 북받쳐올라 뜨겁기는 하나 아직 계몽적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점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단편소설 《고향없는 사람들》, 《홍수전후》, 《논갈 때》에서는 한갖 동정의 세계에서 벗어나 사회비판적성격이 강렬하며 천대와 멸시를 묵묵히 앉아서 감수할것이 아니라 일어나 싸워야 한다는 사상적주장도 적극적이다.

단편소설 《고향없는 사람들》의 문제제기는 매우 심각하며 사상적주장도 강렬하다.

나라를 빼앗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살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차고 무정한 고향을 박차버리고 나가는 영웅》이라고 주장하는 이 작품의 사상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누구에게나 태를 묻고 나서자란 정든 고향이 있다. 그러나 왜놈에게 짓밟힌 이 땅, 이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고향이 없다. 차고 무정한 고향, 산 사람을 죽여내보내는 고향, 이 고향 아닌 고향을 못잊어 애달파할것이 아니라 호랑이같이 사납게 싸워 정든 고향을 되찾자는것이 바로 이 작품에서 작가가 호소하는 사상미학적주장이다.

짙은 서정속에서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을 강렬하게 호소한 이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은 동시대작품들속에서 특별히 이채를 띠는 작품으로 되게 하였다. 물론 명확한 방도는 없으나 싸워야 한다는 주장만은 적극적이고 열렬하다.

단편소설 《홍수전후》에서 제기한 사회적문제는 보다 심각하며 해

결방도도 집단적인 투쟁이라는 적극적인 형태를 모색하고있으며 주인공의 성격도 발전과정속에서 진실하게 그리고있다.

온 마을을 휩쓸어간 홍수, 이 엄청난 재난을 누가 몰아왔는가? 작품에서는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세웠다.

자연재해로 보기에는 너무도 가슴아픈 재해였다.

자연재해인가, 아니다. 이것은 명백히 파렴치한 인간들이 몰아온 재해였다. 저주로운 이 사회가 몰아온 엄청난 재난이였다.

작품에서는 이 리치를 명백히 깨달아가는 주인공 송서방의 성격발전과정을 진실하게 그리고있다.

송서방은 처음 허부자를 욕질하며 이 고장을 뜨자고 하는 아들 윤성이를 되게 꾸짖는다. 부자들이 땅주고 집주고 하였는데 왜 부자들을 욕하는가, 다 팔자탓인데 그들을 욕질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라고 아들을 타이르군 하였다.

송서방이 그토록 믿던 부자의 세계는 홍수방지대책 하나 세우지 않아 땅도 집도 딸 쌀레도 다 잃게 하였다. 박정한 부자들의 사회는 홍수가 밀려간 후 그들에게 한평방의 거처지도, 한홉의 쌀도 주지 않았다.

송서방은 순간에 모든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아들 윤성이가 오늘 밤 시령산에서 홍수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 무슨 의론들을 하는데 참가하겠는가고 하자 기꺼이 참가하겠다고 대답한다.

이 의론이란 명백하다. 의지가지할데 없는 피해자들을 왼눈으로도 보지 않는 일제놈들과 부자세계에 싸움을 거는 모임일것이다.

《모든 일을 천기와 팔자로만 알어버리던》주인공 송서방은 《홍수로 인하여 땅과 집과 가축들과 곡식들을 잃어버린 대신 그보다도 더 크고 귀중하고 위대한 무엇을 찾게 되였다.》

그 크고 귀중하고 위대한것이란 홍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것, 이 악으로 가득찬 사회를 반대하여 모두가 뭉쳐 싸워야 한다는 진리였다. 송서방은 이 진리를 피눈물속에서 찾았다.

단편소설 《논갈 때》는 이 진리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보여주고 있다.

읍내에 있는 용곡농장에서 백여명의 작인들이 들고일어났다. 농

장측에서 작인들을 떼버린데 대한 항거였다. 이 투쟁에서 서봉이는 잡혀가고 몇사람은 희생되였지만 농장측은 굴복하고 해고한 작인들을 모두 다시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소설은 이 과정을 화폭으로 펼쳐놓지 않고 4촌오빠가 섬에 와서 해선이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있지만 피의 투쟁으로 쟁취한 승리의 의미는 충분히 파악시키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박화성의 소설은 당시 무산계급의 대중적투쟁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카프》계렬소설들의 높이에 오르려고 몸부림친 그의 창작적흔적을 쉽게 찾아볼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기 소극적인 개인항거에 머무른 작품도 나왔다. 그것이 바로 백신애의 단편소설 《정현수》이다.

백신애는 1908년 5월 19일 경상북도 영천읍에서 출생하였다. 15살까지 한문공부를 하다가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후 대구보통학교에서 3년간의 교원생활을 거쳐 영천고보, 자인고보 등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창작을 진행하였다.

1933년 단편소설 《나의 어머니》가 《조선일보》에 1등으로 당선된 후 《적빈》, 《정현수》를 비롯한 10여편의 소설과 《금비녀》, 《자수》와 같은 수필도 창작하였다. 그는 정열이 강하여 문학이 그 기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창작적특성을 갖고있었다.

단편소설 《정현수》는 치과의사 정현수의 형상을 통하여 허위와 가식으로 가득찬 식민지사회를 타매하고있다. 얼핏 보면 정현수는 정신이 여차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주인공 정현수의 시야에 비껴드는 모든것은 화만 나고 신경만 건드린다. 먼지를 말아올리며 읍거리를 달리는 승용차도 횡포무도해보이고 아픔을 참지 못하고 소리치는 환자도 못난이로 여겨진다. 이것은 사회적모순과 불공평이 지배하는 당대 현실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정현수나름의 울분과 반발의 표시였고 식민지사회에 항거할줄 모르는 무맥하고 굴종적인 인간들에 대한 타매의 표현이였다.

현실에 대한 순종을 극도로 질색하는 정현수는 환자들의 돈주머니를 탐내여 발라맞추며 굽신거리는 의사들을 경멸한다. 이때문에 형님의 병문안을 해야 할 동생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것과 같은 본의아

닌 잘못까지 범하고 나중에 뉘우친다. 여기서 그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뜨겁게 대해주는것이 허위와 가식으로 가득찬 세상을 미워하는것과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적인 성실성을 잃지 않고 량심적으로 살아가는데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반항해나서는 진리탐구의 길이 있다는것을 확신한다.

《…형님병실에 자주 가보는것이 왜 부끄럽겠나. 남다른 생각을 한다는것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허위, 가식으로 된 세상에 있다.》

정신적고통을 겪은 후 정현수가 찾은 이러한 결론은 식민지사회현실에 항거해나서기 위한 방도를 인간적인 미덕을 발휘하며 미풍량속적인 륜리를 지키는데서 찾은 주인공의 개성적인 체험세계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작품은 특색있는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해방전 녀류소설가들이 제기한 주제분야에서 특징적인것은 녀성들의 비참한 운명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문제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있는것이다.

세습적인 봉건적악습과 비인간적인 녀성천시사상, 식민지착취사회가 강요한 온갖 멸시와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굴종할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 시기 녀류작가들이 자기들의 작품에서 제기한 중요한 사회적문제였다.

설음과 눈물의 고초를 거쳐 밝혀낸 녀성해방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비록 운명해결의 출로는 명백히 제시하지 못한 약점은 있으나 일제의 포악성과 착취계급의 악랄성에 의하여 녀성들의 순결한 애정의 세계가 이 거친 풍랑속에서 어떻게 파멸되여가는가를 가슴아프게 그리고 있다.

단편소설 《부부도》(장덕조)와 단편소설 《산제》(최정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있다.

단편소설 《부부도》를 창작한 장덕조는 1915년 10월 경상북도 자인읍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배화고녀를 졸업하고 리화전문에 다니였다. 도중에 중퇴한 후 《개벽》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소설창작에 열중하였다. 그는 재능있는 작가였다. 《손재주가 내용에 비하여

넘치는 작가》라는 사회적평가를 받군 하였다. 《부부도》가 그를 실증하고있다.

단편소설 《부부도》는 장편소설 《녀인도》의 다작내용에 속한 하나의 소설이다.

한편의 서정시와 같은 《부부도》는 꽃피울수 없는 부부간의 사랑, 한때는 행복의 웃음이 피여났으나 찬서리를 맞아 시들고 죽어버린 사랑을 눈물겨웁게 노래부르고있다. 녀주인공 판선이는 가난속에서도 그처럼 사랑하여주는 남편의 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핵으로 죽어간다. 죽지 말라고, 너 죽으면 나도 죽겠다고 곡성을 터치는 남편의 애절한 부르짖음도 듣지 못하고 싸늘한 달빛속에 고요히 누워있는 판선이.

그처럼 정열에 넘치고 그처럼 깨끗한 사랑을 죽인 찬서리는 누가 몰아왔는가. 그것은 바로 악으로 가득찬 저주로운 사회였다. 작가가 제기하고 해명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였으며 그 의미는 매우 심각하다.

단편소설 《산제》(최정희)가 파헤친 녀성해방문제는 더욱 심각하고 예리하다. 이것은 작가의 창작적개성과도 관련된다.

최정희는 함경북도 성진 (오늘의 김책시)에서 1912년에 출생하였다. 그는 숙명고녀를 거쳐 중앙보육을 졸업하고 1931년부터 《삼천리》에서 기자생활을 하는 한편 창작을 하였다. 그는 《산제》, 《흉가》를 비롯한 20여편의 소설들과 여러편의 수필들을 창작하였다.

단편소설 《산제》의 주인공 쪼간의 운명은 비참하다. 그의 나이는 14살, 아직도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붙들고 응석을 부릴 어린 소녀였다. 그러나 빚때문에 곡식은 립도차압당하고 째지게 가난한탓에 《나락》 닷섬과 《보리》 열섬을 받고 나이 30이나 되는 애꾸에게 시집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결혼생활의 행복이란 아직 알수도 없는 그로서는 모든것이 무서웠고 그리운것은 어머니의 품이였다. 결국 그는 시집을 불태우고 감옥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쪼간의 운명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열네살의 쪼간이가 죄인인가, 아니다, 죄인은 바로 가난을 빚어낸 일제식민지사회였다. 작가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녀류작가들은 사랑에 속고 돈에 우는 녀인들, 사회

의 버림을 받고 인권의 불모지에서 눈물만 흘리는 녀성들만 그리지 않았다. 눈물속에서도 사랑을 지키고 자기의 존엄을 지킬 그 무엇인가 방도를 찾아 모색하였다. 빌어도 보고 애원도 해보았다. 때로는 대담하게 갈라도 지고 불도 질러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방법으로는 그들의 운명을 해결할수 없었다. 그 무엇인가 적극적인 방도, 자기의 운명을 해결해야 할 더 크고 합리적인 방도가 필요하였다. 이 해결방도를 찾는데서 역시 강경애가 앞장섰다. 아직은 지향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강경애는 자기의 장편소설 《어머니와 딸》에서 합리적인 해결방도를 찾았다.

작품의 주인공 옥이가 이 형상과제를 안고 울고 흐느끼며 몸부림치고있다.

소설은 비인간적인 착취사회에서 버림받는 세 녀인의 수난기를 그리고있다. 옥이의 어머니 예쁜이는 가난이 죄로 되여 인생을 망친 녀인이다. 인물 곱고 바느질 잘하기로 소문난 예쁜이는 둘째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한채 농사군의 명줄인 소작지를 떼울가봐 지주 리춘식의 첩으로 들어가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다 받으며 나중에는 어린 딸 옥이와 함께 쫓겨났다. 딸의 복수를 한다고 나선 아버지도, 그를 찾으러 떠난 어머니와 동생도 다 잃은 예쁜이는 타락하여 술과 통곡속에 자기의 젊음과 인생의 전부를 파묻어버린다.

옥이의 시어머니 산호주 역시 천한 기생으로서 부자집난봉군들의 시달림속에서 살아가던 불행한 녀인이였다. 원래 천품이 도고하고 깨끗한 산호주도 좋은 남편을 만나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남부끄럽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것이 평생소원이였고 희망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 소박한 소원도 저주로운 사회는 용납하지 않았다. 산호주는 임신한 몸으로 평양을 멀리 떠나 송화에 와서 살림을 꾸리고 아들 봉준이를 낳아 조용히 살아간다. 그는 타락은 하지 않았으나 불의에 맞서싸울 용단은 내리지 못하였으며 하느님께 자기 운명과 아들 봉준이, 며느리감 옥이의 앞날을 맡기고 불우한 한생을 마쳤다.

옥이의 운명도 순탄치 않다. 시어머니의 소원대로 봉준이와 결혼한 옥이는 그의 끈질긴 리혼소동으로 한숨과 눈물속에서 힘겨웁게 살아간다.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걸어간 길이 옥이에게도 차례졌다.

옥이도 그들처럼 숙명적인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가. 봉준이를 버리지 말아달라던 시어머니의 절곡한 당부대로 가느다란 실로 이어진 부부간의 이 끈을 붙잡고 설음속에서 어리숙하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 실끈을 대담하게 끊어버리고 남편이 아니라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인간이 되겠는가.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모대기던 옥이는 드디여 용단을 내렸다. 죄수 아닌 죄수가 되여 붉은 수인복을 입고 간수들에게 끌려가는 영실이 오빠처럼 살리라는 결심을 다진다. 《오빠가 밟고간 이 길로 우리도 가야 한다! 영실아!》, 이것이 바로 옥이가 내린 용단이고 맹세였다.

옥이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가 걸은 길이 아니라 수백만녀성들의 권리를 찾는 투쟁의 길을 선택하였다. 여기에 바로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결코 소홀히 대할수 없는 이 작품의 진보적의의가 있으며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의미가 강렬하게 내비친다.

해방전 녀류작가들이 창작한 소설작품들은 이처럼 주제탐구의 다양성과 문제제기의 적극성, 그 해명의 심각성으로 하여 해방전 조선문학사에서 결코 소홀히 대할수 없는 지위를 차지한다.

여기에 형상세계의 진실성과 예술적기교, 통털어 그의 예술적성과로 하여 그 지위가 더욱 뚜렷해진다.

생활반영의 진실성은 이 시기 녀류작가들의 소설이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이들은 녀성들만이 가질수 있는 고유한 생활체험과 동정심을 가지고 천대와 멸시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불우한 인생의 고행길을 걸어가는 이 나라 녀인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고있다. 억지로 꾸민감, 인위적인 맛은 조금도 없다.

서로 극진히 사랑하면서도 정을 나누지 못하는 《부부도》의 가슴아픈 인정세계, 열네살 어린 나이에 가난의 희생물이 된 《산제》의 쪼간이, 장편소설 《어머니와 딸》의 예쁜이, 산호주, 옥이의 기구한 운명, 이 모든 생활화폭은 당시 우리 녀성들이 당한 불행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펼쳐놓고있다. 아직은 작가들의 사상미학적리상이 높은 경지에 올라서지 못하고 소설로서의 형태적갖춤새도 완벽

하지 못하지만 강한 인상과 예술적감명을 주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성격창조에서도 이 시기 녀류작가들의 소설은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성격발전과정이 진실하고 뚜렷한것이다.

소설들의 주인공들은 거의다 착취사회에서 버림받은 녀인들이다. 인생의 막바지에서 거치른 세파에 부대끼며 고달프게 살아가는 이들은 결코 악의 희생물로만 되지 않는다. 무엇인가 이 거치른 사회를 뚫고 나갈 지향을 안고있다. 다시말하여 작품들에는 불행속에서 얻은 체험에 기초하여 불합리한 사회적모순을 인식하고 각성하여 투쟁을 다짐하는 주인공들의 성격발전과정이 놓여있다. 물론 작품에는 그들의 투쟁생활, 투쟁과정이 놓여있지 않으나 투쟁의 지향은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그들의 성격발전을 새 세계에로 추동하고 극적으로 전환시켜주는 상대인물, 혁명가가 서있는것도 특색있다. 주인공들의 가장 가까운 인물로 설정한 인물들은 그들의 사상적성장을 이끌어주는 따뜻한 손길이였고 억센 힘이였으며 말없는 선도자였다.

《논갈 때》의 서봉이, 《젊은 어머니》의 남편, 《축구전》의 승호, 《어머니와 딸》의 영실 오빠, 이들모두는 남편과 자식, 오빠와 애인인 동시에 혁명가들이였고 사회운동자들이였다.

예술적묘사에서도 이 시기 녀류작가들은 자기들의 재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녀성고유의 예민한 감각과 섬세한 관찰력을 가진 그들은 생활을 회화적화폭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있다.

작품들에는 인상깊고 특색있는 생활세부들이 수많이 탐구묘사되여 생활과 성격의 진미를 한층 돋구어주고있다.

련작소설 《젊은 어머니》의 흰 매화를 새긴 손수건세부, 단편소설 《편지》(김말봉)의 찢어버린 편지와 퇴색된 사각모자세부, 단편소설 《논갈 때》의 개수물에 비낀 반달세부, 단편소설 《신혼려행》의 대조되는 누룽지와 카스테라세부, 단편소설 《부부도》의 멜끈세부, 이 모든 세부들은 착취사회의 본질을 예리하게 밝혀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으며 성격의 특징을 부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다.

자연묘사, 심리묘사도 이채롭다.

단편소설 《논갈 때》의 살구나무꽃잎이 흩날리는 모양은 현실을 방불하게 떠올린다. 단편소설 《편지》의 주인공 은희의 심리적체험과정을 내면독백의 방법으로 헤쳐놓은 심리묘사는 매우 섬세하고 서정적이며 장편소설 《어머니와 딸》의 주인공 옥이의 심리적굴곡에 대한 묘사는 매우 절절하다.

해방전녀류작가들의 창작에서 수필은 중요한 형태의 하나로 되였다.

이미 년대별수필집이 나간 조건에서 구태여 더 다치지 않고 다만 이 문집에 오른 수필의 기본특성만 몇가지 음미해본다.

리선희의 수필 《그 늙은 인력거군》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이 글줄마다에 눈물겨웁게 어려있다.

기침을 하며 힘들게 인력거를 끄는 늙은이에게 겨우 일전을 준것이 가슴에 걸려 이제 다시 만나면 백잎의 백배라도 손에 쥐여주고싶은 마음을 진실하게 그리고있다.

김자혜의 수필 《비에 젖은 아침》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더러운 것들을 폭우가 내려 깨끗이 씻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동생은 쏟아지는 비에 화단의 꽃송이들이 부러진다고 애석해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자신이 그렇게 비줄기에 갈가리 찢기고 부러져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인간의 세상에는 진정한 비가 퍼붓기를 바래요.

온갖 추악한것과 차마 눈으로 바라보기에 구역이 나는 더러운 일들이 이 인간세상에서 다 씻어져나갈수만 있다면 우리따위 풀포기쯤은 물속에 싸여 흐른들 무슨 한이 있겠소.》라고 오히려 폭우가 더 쏟아지기를 바란다.

필자의 사색은 더한층 심화되여 비온 뒤의 깨끗한 세상, 아름답고 희망이 차넘치는 행복한 새 세계를 그려본다.

《언제 우리에게는 비가 쏟아질것입니까? 이 음울하고 혼란된 흐린 날씨가 언제 끝나고 아침의 이 시원한 경치를 바라보고있는 날이 언제나 올것입니까? 비는 끊임없이 퍼붓습니다.

형이여!

이 비가 그치고 밝은 해가 날 때 그 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나는 그리여봅니다.》

이 작은 한편의 수필에서 우리는 김자혜의 진보적세계관전체를 충

분히 엿볼수 있다.

이 문집에는 이외에도 강경애의 평론 《커다란 문제 하나》와 여러 편의 수필, 단상이 올라있다.

그의 평론 《커다란 문제 하나》를 통하여 우리는 세계를 굽어보며 세계혁명에 관심을 돌리는 강경애의 넓은 시야를 새삼스럽게 느낄수 있으며 《나의 유년시절》, 《불타산 C군에게》, 《기억에 남는 몽금포》, 《약수》, 《내가 좋아하는 솔》을 통하여 고국산천에 대한 그의 그리움이 얼마나 절절하였는가를 뜨겁게 되새기게 된다. 또 백설을 떠이고 모진 광풍에도 굽힘없이 서있는 소나무의 기상을 신념으로 삼고 비록 연약한 녀성의 몸이지만 나라위한 마음 변치 않을 그의 정신세계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

해방전녀류작가들의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의 하나는 시문학이다.

이 문집에는 강경애의 시 7편과 혜원, 로천명, 홍순옥, 리해월, 장정심, 주수원의 서정시들과 김오남의 시조들이 올라있다.

이들이 창작한 시들의 주제방향은 매우 폭이 넓고 방대하며 다양하였다.

나라잃은 슬픔과 일제에 대한 증오심의 폭발, 녀성의 작은 가슴에서 대담하게 분출시킨 반일투쟁에로의 호소, 혁명가들에 대한 열렬한 호소, 혁명가들에 대한 열렬한 찬양, 자유롭고 행복한 새 세계를 기다리는 열렬한 그리움, 녀성의 인권옹호와 참다운 사랑에 대한 열렬한 갈망,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노래, 실로 그들이 탐구하고 격정을 터친 주제방향은 다양하고 방대하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방향은 일제에게 빼앗긴 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반일투쟁에로 대담하게 호소하고있는것이다.

혜원의 《북별 10유여년》, 강경애의 《참된 어머니가 되여주소서》, 홍순옥의 《자장가》, 로천명의 《국화제》등의 작품이 여기에 속한다.

이 작품들은 시적계기와 양상은 서로 달라도 시인들의 사상미학적 주장은 대담하게 분출시킨 반일투쟁의 호소로서 공통적인 지향을 담고있다.

서정시 《북별 10유여년》에서 시인 혜원은 북으로 떠난 남편을 한없이 그리워하나 혁명의 길에서 절대로 굽히지 말고 끗끗이 싸워달라는 서정적주인공의 절절한 부탁을 격조높은 서정으로 터치고있다.

…
그대여 나의 님이여!
그대여 나의 님이여!
북극의 한설이
맵기도 몹시 맵답디다마는
겁내지 말고 나가소서
굽히지 말고 나가소서

북극, 이것은 지형학적인 북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이 세차게 벌어지던 만주일대를 의미한다. 만주의 설한풍속에서 일제와 싸우는 혁명가들에게 보내는 서정적주인공의 지지성원이며 부탁이고 념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별 10유여년》은 해방전조선문학사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말할수 있다.

서정시 《참된 어머니가 되여주소서》(강경애) 역시 불쌍한 고향의 어머니에게 딸의 운명때문에 눈물짓는 어머니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참된 어머니가 되여달라고 호소한다.

…
어머니
며칠후에 내 동무가
그곳 갈테니
부디 잊지 말고 회에 들어주세요
그래서 나의 참된 어머니가 되여주세요

××회, 이것은 그 뜻을 정확히 해결할수는 없어도 일제를 반대하는 독립단체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경애의 사상적립

장은 명백히 알고도 남음이 있다.

홍순옥의 《자장가》 역시 이 나라의 모든 자식들이 어서 커서 나라를 되찾고 삼천만 우리 겨레에게 밝은 웃음을 가져다주라는 조선독립의 념원이 깊은 서정으로 울리고있다.

로천명의 서정시 《국화제》는 형상적비유의 수법으로 참다운 인생관을 뜨겁게 가지도록 호소하는 인상깊은 시이다.

시에서는 유혹의 바람에 붙들려 투쟁의 길에서 물러선다면 그런 삶, 그런 인생은 살아도 죽은 목숨과 같다는것을 아늑한 방 책상우에 놓인 병에 꽂혀 시들어 죽어버리는 들국화의 모습에 견주어 주장하고있다.

이름없는 들가에서 뭇꽃들이 시들어버린 늦가을까지도 싱싱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지켜가는 들국화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서정적주인공은 한아름 꺾어들고 들어와 책상우의 꽃병에 꽂아넣고 매일 맑은 물을 부어주며 더 활짝 피기를 고대한다.

하지만 자기의 정든 보금자리를 떠난 들국화는 이내 시들어버리고 만다.

이를 통하여 시인은 유혹의 바람에 물젖어 나라의 독립과 무산대중의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물러나 향락과 안일한 생활을 택한다면 결코 그 생활은 행복할수 없으며 그 삶은 참다운 삶으로 될수 없다는것, 따라서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만 참된 삶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의미심장하게 주장하고있다.

이 시기 녀류작가들의 시문학에서 중요한 주제방향의 다른 하나는 자유롭고 행복한 새 세계를 애타게 기다리는 열렬한 그리움의 세계를 진실하게 노래한것이다.

여기에는 서정시 《책 한권》(강경애), 《다림불》(강경애), 《편물》(주수원), 시조 《실패》등이 있다.

강경애의 서정시 《책 한권》은 새로운 선진사상에 심취되고 새로운 리상사회를 동경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서정세계를 소박하나마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그는 1924년－1926년, 평양숭실녀학교에 재학하는 기간 당시 급속히 보급되던 맑스－레닌주의사상과 장성하는 로동운동의 영향

밑에 친목회와 독서조에 망라되여 계급의식과 반일의식을 가지게 되였으며 3학년때에는 동맹휴학의 선두에 서서 싸웠다. 물론 이 사건으로 그는 학교에서 출학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이 기간은 그를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성장시킨 잊을수 없는 나날들이였다.

그는 투쟁속에서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에 접근하고 그에 심취되였으며 반일독립운동의 지지자, 무산계급의 열렬한 옹호자로 자라날수 있었다.

이 과정에 그의 달아오른 심장은 《책 한권》이라는 첫 서정시를 분출시켰다.

이 시는 1924년 5월에 발표되여 문단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시는 특별히 착상이 새롭거나 화려한 문구로 엮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사상에 대한 열렬한 공감이 있고 마음의 진실이 비껴흐르고 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리고 또 외롭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책 한권이 있습니다

일제의 학정과 착취밑에서 가난하고 외로운 녀인, 사랑도 재부도 없는 녀인,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의 사랑이 있었다. 그것은 황금도 사랑도 아닌 책 한권이였다.

그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슴속에서 그 책을 꺼내보며 《영원의 나라》를 그려본다. 그러면 새힘이 솟고 희망은 부풀어오른다. 너무도 보아 보풀이 일면 일수록 더더욱 《귀여워지는 책》, 그 책은 과연 어떤 책인가. 그 책은 분명 맑스주의서적이 아니면 첫 사회주의국가를 소개한 책일것이다.

가난속에서도 희망의 리상향을 펼쳐주고 외로운 속에서도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인간사회를 보여주는 귀중한 책이여서 그 책 한권을 가지고있는것을 그토록 보물처럼 귀중히 여기는것이다.

우리는 이 시 한편으로 강경애의 사회적리상전체를 알수 있다.

그의 시 《다림불》도 일제식민지통치의 암흑속에서도 새세상의 도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녀성들의 모습을 랑만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주수원은 서정시 《편물》에서 생명의 실로 1년 365일 슬픔과 기쁨을 편물로 짜나가는 서정적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일제의 파쑈적폭압으로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얼마나 큰 원한의 상처가 새겨지는가를 가슴아프게 호소하면서 자유로운 새세상이 펼쳐질 그날을 향해 꿋꿋이 살아가려는 지향을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노래하고있다. 시인의 이러한 지향은 시의 마지막련에서 집중적으로 울리고있다.

…
한코 우으로 한코 아래로
생명의 실에 걸어 짜올립니다
나머지 실끝이 언제 올른지
그때까지 고운 무늬 짜보렵니다
엄숙하고 상쾌한 새날의 해빛
오늘도 웃으며 재촉합니다

서정적주인공이 기다리는 《엄숙하고 상쾌한 새날의 해빛》은 시적표현 그대로 이 땅우에 밝아올 해방의 새날이다.

녀성의 인권옹호와 참다운 사랑에 대한 열렬한 갈망도 해방전녀류시인들이 탐구한 중요한 주제분야의 하나이다.

주수원은 시조 《실패》에서 일제식민지사회가 강요하는 비인간적인 학대와 천대도 우리 녀성들의 가슴속에 얽히고 서린 울분을 풀어도풀어도 끝이 없는 실패에 비유하여 가슴저리게 노래하고있다.

풀려라 한바람씩 풀려라
이 실이 끝이 나면 내 설음도 끝나려니
풀어도 다함없으니 가슴 답답하여라

이처럼 시조는 짤막한 시구속에 녀성들이 흔히 리용하는 실패에 비

겨 그들의 가슴속에 맺힌 원한의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다는 답답하고 가슴아픈 심정을 토로하고있다.

시 《맑은 그 눈》(장정심)에서는 깨끗하고 진실한 사랑을 갈망하는 이 나라 녀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집약적으로 반영하고있다.

그들은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하여 뜨거운 사랑을 담아 노래부르기도 하였다.

시 《평양가》(홍순옥)에는 아름다운 조국산천 경개 수려한 평양의 절경에 대한 끝없는 긍지와 자랑이 넘쳐흐르고있다.

대동강의 맑은 물이 모란봉, 을밀대의 모습을 담아싣고 청류벽을 흐르는 아름다운 평양은 금수의 강산, 천하의 제일강산이라고 소리높이 자랑하면서 수천년의 력사로 유명한 우리 평양은 아들을 낳아도 영웅을 낳고 딸을 낳아도 일색을 낳는 유명한 명승지라고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서정적주인공의 자랑과 긍지속에는 일제의 민족동화정책에 대한 타매와 반발이 있으며 그 어떤 광풍도 꺾을수 없는 애국주의정신과 민족적존엄이 깔려있다.

이 시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해방전녀류작가들이 창작한 시문학의 주제방향은 다양하고 방대하다.

해방전녀류시문학은 주제방향도 다양하지만 그 형식과 양상, 언어형상에 있어서도 민족적이고 인민적이며 매우 이채롭고 생동하다.

해방전녀류작가들이 창작한 시문학의 예술적특성은 우선 녀성의 섬세성으로 파헤친 서정의 독특한 세계로 개성이 뚜렷한것이다.

그들은 어머니와 딸, 안해와 누이의 시점에서 녀성들만이 보고 느낄수 있는 체험세계를 섬세하게 감수하고 특색있는 서정세계를 펼치고있다.

《참된 어머니가 되여주소서》, 《다림불》, 《북별 10유여년》, 《자장가》 등 그들의 모든 시에서는 눈등이 붓도록 우시면서도 빚때문에 애어린 딸을 남의 집 민며느리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 남편을 애타게 그리워하면서도 혁명의 길에서 굽히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라고 고무해주는 안해, 어서어서 자라서 나라를 되찾고 삼천만 우리 겨레에게 밝은 웃음을 주라는 어머니의 간절

한 소원은 남성들은 들어서지 못할 녀성특유의 감정으로 절절하게 노래되고있다.

해방전녀류작가들이 창작한 시문학은 또한 간결하고 명백한 서정구조로 특징적이다.

그들의 시는 계기설정과 정황제시, 서정의 발전과 절정에서의 결정적인 분출, 서정의 마무리와 같은 기승전결의 서정구조를 차례로 갖고있지 않다. 일정한 시적계기에서 받은 정서적충동을 그대로 소박하게, 혹은 적극적으로 터뜨리고있다.

물론 《참된 어머니가 되여주소서》, 《북별 10유여년》과 같이 긴 시도 몇편 있다. 이러한 시인 경우에도 서정구조는 간결하고 명백하다.

이러한 서정구조의 간결성과 명백성은 강한 대조의 수법으로 이루어진것이다. 혜원의 시 《북별 10유여년》은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 설한풍 몰아치는 북쪽땅으로 떠난지 《10년하고 또 몇해》되나 소식 한장 없는 야속함과 그리움, 그러나 싸움의 길에서 굽히지 말고 나가기를 바라는 절절한 부탁의 서정세계가 쌍벽을 이룬 강한 대조속에서 작품의 사상이 뚜렷이 강조되고 서정구조의 간결성도 보장하고 있다.

해방전녀류작가들이 창작한 시문학은 또한 특색있는 운률조직으로 음악성도 강하게 살리고있다.

그들의 시들은 아름답고 유연한 운률조직으로 시의 서정을 정가롭고 이채롭게 하여주고있다.

아름답고 정제된 운률이 살아나 음악성을 강하게 살리게 된것은 그들의 피눈물나는 생활체험이 뜨겁고 시의 정서적내용이 앙양되여있는 것과 관련된다고 말할수 있다.

운률조성의 다양한 수단, 수법들도 능숙하게 활용하여 운률을 특색있게 살리였다.

그들의 시에는 4·3, 4·4, 4·5조의 음수률배렬로 동요적성격을 강하게 살리는 시도 있으며 (《산딸기》, 《자장가》) 6·5, 6·6조의 음수률조직으로 민요풍의 성격을 이채롭게 살리는 시들도 있으며 (《평양가》) 반복법을 능숙하게 리용하여 시의 운률도 살

리고 정서적색갈도 진하게 채색하고있는 시도 있으며 수사학적감탄과 부름의 수법으로 자기의 넘치는 격정을 뜨겁게 터뜨리는것도 있다.

해방전녀류작가들의 시문학은 다감하고 섬세한 언어형상으로 특징적이다.

그들은 우리 인민들이 늘 쓰는 고유어휘로 된 입말체를 그대로 시줄에 옮겨놓고있다. 강경애의 《참된 어머니가 되여주소서》는 멀리에 있는 딸이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입말체 그대로 되여있다. 인상깊고 진실한 세부의 선택과 입말체 그대로 쓴 이 시는 화려한 말마디로 엮은 그 어떤 시보다도 더 뜨거운 눈물이 고이고 더 절절하다.

다양한 시형식을 탐구하고있는것도 그들의 시문학에서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그들의 시작품에는 비교적 긴 형식의 시도 있고 담시적성격을 띤 시도 있으며 단시와 시조도 있고 민요풍의 시와 풍경시도 있다.

《참된 어머니가 되여주소서》는 애지중지 키운 딸을 민며느리로 보내는 눈물겨운 극적인 이야기가 놓여있어 담시적성격이 강하다고 말할수 있으며 《산딸기》, 《평양가》는 민요풍의 시로 특색을 살리고 있다.

이처럼 해방전녀류작가들이 창작한 진보적시문학은 그의 사상적내용에서뿐아니라 녀성고유의 독특한 서정세계를 예술적으로 감미롭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해방전시문학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해방전녀류작가들이 창작한 작품들은 일련의 제한성도 가지고있다.

그들이 창작활동을 벌리던 시대는 일제의 폭압이 야수적으로 감행되던 민족수난의 시기였다. 반면에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항일대전의 포성이 높이 울리던 민족재생의 력사적시기였다.

이 위대하고 격동적인 시기에 녀류작가들은 투쟁의 한복판에 뛰여들어 혁명가들의 투쟁생활을 직접 폭넓게 그릴 용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혁명가들을 그린 경우에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는 못하였으며 그들을 신뢰하고 찬양하는데 그치고말았다. 물론 일제의 끈질긴 검열제도라는 조건부가 있었으나 기본은 그들의 세계관적미숙성과 사상미학

적주장의 불철저성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녀류작가들의 문학은 비참한 인생고와 눈물의 세계를 기본으로 그렸으며 운명해결의 방도는 모색은 하였으되 가장 합리적인 투쟁방도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약점이 있었다. 이러한 관계로 강경애의 일부 작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작품들이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높은 경지에 오르지 못하였다.

예술적형상면에서도 아직은 미숙한 점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평면적인 구성수법을 구태의연하게 답습하고있는 점,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의 기본형태를 살리지 못한 점들은 이 시기 소설문학의 중요한 약점의 하나였다.

시문학에서는 서정성이 미약한 측면도 나타났으며 산문화의 경향도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점은 규방문학의 문턱을 대담하게 뛰여넘어 사회정치문학의 격류속에 과감히 몸을 내대고 온갖 모순과 악으로 가득찬 일제식민지통치사회를 예리하게 폭로단죄하고 독립성업이 이룩된 자유롭고 행복한 새 세계를 열렬히 갈망한 녀류작가들의 창작적성과를 결코 무시할수 없으며 애써 꽃피우고 자래운 문학세계의 꽃들은 비록 억세지는 못하고 짙은 향기는 없어도 찬서리속에서 꿋꿋이 피여나 조선문단의 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교수 박사 김용부

장편소설

어머니와 딸

강 경 애

1. 번민

부엌 뒤대문을 활짝 열고 나오는 옥의 얼굴은 푸석푸석하니 부었다. 그는 사면으로 기웃기웃하여 호미를 찾아들고 울바자뒤로 돌아가며 끼적거린 후 박, 호박, 강냉이씨를 심는다. 그리고 가볍게 밟는다.

눈등이 따끈따끈하자 코잔등에 땀이 방울방울 맺힌다. 누구인지 옆구리를 툭툭 친다. 힐끔 돌아보니 복술이가 꼬리를 치며 그에게로 달려든다. 까만 눈을 껌벅이면서…

옥은 호미를 던지고

《복술이 왔니!》

복술의 잔등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멍하니 뒤산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과 마주 띄는 이끼 돋은 바위틈에는 파래진 이름 모를 풀포기가 따뜻한 볕과 맑은 바람결에 흔들거리고있다. 그옆으로 돌아가며 봄맞이아이들의 손에 다 꺾인 나무가지에는 노란 꽃, 빨간 꽃이 송이송이 피였다.

나비 한마리가 펄펄 날아든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높았다 낮아지는 나비를 따라 시선을 달음질쳤다. 눈깜빡일 사이에 나비는 벌써 산비탈을 넘어 까뭇거린다.

그의 눈은 스르르 감겨지며 볼우로 눈물흔적이 보인다.

《무엇하셔요?》

사립문밖에서 건넌집 애기어머니가 자루같은 젖을 흔들며 발발 기여달아나는 애기를 잡아안고 일어선다. 옥은 빙긋 웃으며 말하였다.

《호박씨 심으러 나왔어요.》

그가 손톱사이에 낀 흙을 파내고보니 애기어머니는 어디로 가버리

였다. 그는 방문턱우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두다리를 내려다볼 때 저켠 산너머로 작은 새소리가 그의 가슴을 한두번 두드리고 잠잠하여진다. 순간에 떠오른것은 엊저녁에 받은 남편의 편지다. 그는 한숨을 길게 쉬였다.

(그가 그렇다니… 인골(인두겁)을 쓰고야 차마… 그렇게… 하는 수야 있나!)

어머님의 말씀이 오죽이나 잘 알으시고 하신 말씀이랴! 《믿지 말아! 남자를 믿지 말아라!》 몇번인지 되뇌이고난 그는 눈물이 그득해졌다.

《어머니, 나는 이 일을 어찌해야 좋아요?》

향하여 정면벽우에 걸린 약간 미소를 띤 남편의 사진을 쳐다보았다. 언제나 틈만 있으면 이렇게 하는것이였다.

따라서 일어나는 그의 과거, 시어머니 생전에 자기와 남편이 천진스럽게 놀던 꼴 그리고 시어머님이 림종시까지도 《봉준을 잘 길러라. 둘이서 싸우지 말고 잘살아야 한다, 옥아!》 어린 옥은 곤한 잠에 들기 전까지는 입속으로 외우건마는… 사정없이 잡아뗀 남편의 지독한 편지, 이것이 자기의 정성이 부족함일가, 혹은 남편이 철없는 탓일가를 탓하기 전에 먼저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대하여서는 죄스러웠다. 어쨌든 싸움이였던것이다.

그의 시어머니는 옥에게 무슨 말이든지 부탁할 때에는 두손을 꼭 잡고 들여다보며

《옥아, 너는 내 딸이지, 내 말을 잘 듣지?》

이렇게 묻고나서야 뒤말을 계속하시는것이였다.

옥은 펄썩 주저앉았다. 방바닥은 산뜻한 맛이 있다. 뒤를 이어 보름달같이 선연히 떠오르는 시어머니의 그 눈, 코, 입모습, 부지런하기로 댈데 없는 그의 손발, 어느것 하나 빼놓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것이다.

책상앞으로 다가앉아 그는 책을 펼쳐들었다 놓았다. 연필을 쥐고 무엇을 쓰다가 박박 뜯어 두손으로 꼬깃꼬깃하여 뒤문밖으로 내쳤다.

말쑥하니 치워놓은 책상우를 다시 들어내여 먼지를 턴다.

이렇게 뒤질 때 남편이 어려서 읽던 뚜껑 없는 책 몇권이 나왔다. 책장 떨어진것, 연필로 죽죽 내려그은것, 먹점이 뚝뚝 박힌것들이다. 따라 남편의 두둑한 손이 보였다. 언제나 흙장난하는 탓이라 손거스

러미는 항상 일고있었다.

이런 남편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문턱에서 책보를 방안으로 팽개치고 선길로 나가는것이였다. 옥은 뒤로 따라서며 물었다.

《어데 가?》

그는 휘끈 돌아보고 두말없이 나가고 혹간

《저기.》

하고는 도망질치는것이였다.

옥은 저녁을 퍼놓고 기다리다못해 사립문까지 나와서 머리를 배죽하고 가고오는 사람들을 남몰래 살펴보았다.

아득아득할 때 남편은 사립문으로 뛰여들자

《오마이!》

냅다 소리치고는 팍 꼬꾸라지는것이였다. 가뜩이나 요리조리 궁리하던 옥은 이 소리에 가슴이 찌르르 울리며 시어머님이 죽게 보고 싶었다. 자기네들을 남기고 먼저 간 어머님이 원망스러워졌다. 그러나 꾹 참고 남편을 껴안고 방으로 들어가며 물었다.

《왜 그래?》

남편은 한층 더 느껴울며 옥의 무릎우에 탁 실린다.

《누가 때려?》

《장손이가 여기를 때리지…》

볼을 가리켰다. 옥은 바투 들여다보고 어루만지며

《정, 나쁜 놈들! 울지 말라오. 후일 내 보면 대신 때려주고 욕해줄게. 어서 밥 먹자오. 응?》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울음을 그치게 한 그는 상옆에 마주앉아 밥을 물에 말아주고 반찬에 가시를 뽑아가며 불룩이는 그의 두볼을 바라볼 때 대견한 끝에 두줄기 눈물이 앞을 캄캄케 하는것이였다.

이러한 과거를 돌아볼 때 그나마 옛날이 다시 오지 못할 행복한 날이였음에 그의 가슴은 뻐근하여졌다. 따라서 어머니를 잃은 자기네들의 외로운 신세가 눈앞에 선하니 보인다.

그의 볼은 능금빛으로 타오르고 머리가 들썩들썩 아프기 시작하였다. 그는 홰대에 걸린 수건으로 힘껏 머리를 동인 후 책상우에 푹 엎드렸다가 벌떡 일어나 아래웃목으로 왔다갔다하며 자신의 장래를 어림하여보았다.

남편은 언제나 자기를 버리고 어떤 말쑥한 녀학생과 함께 살 때가

있을것 같았다.
(그러면 나는 어쩔가? 리혼을 해주어야 옳은가? 이대로 견뎌배겨야 할가?)
그는 한참이나 바람벽을 노려보다가 입술을 꾹 다물고
(망설이는것부터도 벌써 어머니의 유언을 잊은 나다. 견디자! 어머님의 둘도 없는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나의 남편인것이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책상서랍을 열었다.
그는 봉투속으로부터 편지를 꺼내여 몇번이든지 되읽어본 후 가슴에 꼭 갖다대였다. 그리고 조심성스러이 남편의 사진을 쳐다보았다. 밖에서 신발소리가 났다. 그는 손재게 편지를 서랍속에 밀어넣고 얼른 일어났다.
앞문이 열리자 영철선생이 들어선다.
《어디 아픈가!》
옥은 그제야 머리에 동인 수건을 슬그머니 벗어서 뒤로 감추며 말했다.
《아뇨, 언제 오셨나요?》
《지금 오는 길일세. 어디 아픈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며 묻는다.
《아니야요. 》
《그새 동경서 편지 왔겠지?》
《네, 어제 왔습니다. 》
《음, 잘있다던가?》
《네. 》
《다른 말 없어?》
옥은 머리를 숙였다. 갑자기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왜? 무어랬던가?》
《저… 아니요. 》
그의 입은 굳이 다물어졌다. 그리고 그의 흰 목덜미에 새파란 힘줄이 불끈 일어나는것이였다. 선생은 그의 입술을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속에서 그의 속을 어림하여보았을 때 가엾음보다도 감복됨이 앞서는것이였다.
《공부에 재미 많지? 어디 얼마나 배웠나 보세. 》
선생은 이렇게 화제를 돌려서 그의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려 하였다.

그는 책보를 당겨서 풀어놓았다. 선생은 다가앉아 그가 가리키는 페지를 들여다보며
《그새 많이 배웠지.》
빙긋이 웃어보였다.
《열심으로 공부나 하고 모든 괴로움은 하느님께 바치게나. 세상사람치고 근심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줄 아나. 원체 괴로운 세상이니까. 먼저 깨닫고 달게 받아야 하네.》
옥은 잠잠하여 고름끈을 만지작거렸다.
《이번 공부시키러 가서 자네 어머님 뵈였지.》
《네? 어머님!》
《요새는 영업도 그만두시고 무던한 령감님 얻으셔서 평안히 계시는 모양이야. 장차로는 교회안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네. 어머님 위하여 많은 기도 올리게.》
《한번 오시겠다는 말씀 없어요?》
《오시겠다데.》
시계는 4시를 땅땅 친다. 선생은 시계를 바라보며 모자를 들고 일어섰다.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열심으로 공부하게. 그러고 자조자조 기도해. 래일 례배당에 꼭 가지?》
그는 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옥은 발부리를 굽어보며 대답하였다.
《네.》
선생은 대돌로 내려서며 저편 구석에 석유초롱이 반만큼 눈에 띄자 물었다.
《무엇 떨어진것 없나?》
《아뇨.》
선생은 해빛을 안고 집모퉁이로 돌아갔다.
옥은 앞이 허전해지며 머리를 갈래갈래 풀어헤친 어머니의 환영이 떠오르는것이였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친정어머님에 대한 인상이란 남자들의 무릎과 무릎사이로 쥶아다니며 갖은 아양을 다 피우다가도 그들의 발길에 툭툭 채여 질질 울고다니는 꼴이였다.
그러나 오늘에 생각키운 어머니— 그의 과거를 짐작해볼 때 한번도 보지 못한 자기 아버지란 사나이가 어딘지 모르게 그리우면서도 안타

깝게 미워졌다. — 어머니의 타락된 원인이 아버지의 소위인것을 깊이 깊이 깨닫게 되였다.

그는 사립문안으로 들어서자 맨땅에 풀썩 주저앉으며

《어머니! 당신도 깨끗한 처녀였겠지요. 아부지를 만나기 전에는… 아, 얼마나 쓰림을 당하시다 못해서 곱고고운 어머니의 그 깨끗한 마음이 흐리여졌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어머님의 쓰라렸던 가슴을 알겠습니다. 괴로움을 잊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울지 않았습니까? 오, 그 쓰림은 나에게도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는 일어났다. 해는 산발을 타서 뉘엿뉘엿 넘어가고 멀리 들리는 버들피리소리 차츰차츰 가늘어진다.

2. 추 억

지루하나마 옥의 친정어머니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자.

옥의 어머니는 송화읍에서 은률목으로 빠지는 막바지에 사는 김창문의 맏딸이였다.

아버지의 부지런한 탓으로 조밥이나마 배불리 먹고 갈나무라도 미루어가면서 뜨뜻이 땠다.

금년 열일곱살난 창문의 딸은 동네의 자랑거리였다. 바느질 잘하고 얌전하다는것, 더구나 우선우선 웃는듯 한 그의 얼굴은 동네의 인기를 끌고도 지나친것이였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를 대할 때에는 《예쁜이.》 이렇게 불러서 그의 이름은 예쁜이로 되여버리고말았다.

아침만 되면 그의 부모들은 4살된 세인이를 맡기고 들로 나간다. 예쁜이는 집에 남아있어 물 길어 밥짓기, 진흙투성이 된 옷 빨고 바느질하기였다.

그의 동무들은 김매기를 뽑혀다니였건만 그는 터밭을 매는 외에 벌김이라고는 매여보지 못하였다. 그만큼 그의 부모들이 그를 아끼였던것이다.

어느날 저녁때 그는 세인을 데리고 물을 길러 갔다. 앞으로 뿔뿔 달아나는 세인을 보고

《아가, 세인아.》

하고 불렀다.

세인은 말똥말똥 누이를 쳐다보며 달아난다.

《놀며 가자우. 넘어져, 응?》
몇걸음 천천히 걷던 세인은 금시로 달음질쳤다.
예쁜이는 따라가서 붙잡고 흘겨보며 말했다.
《넘어진대도.》
세인은 몸을 빼치려고 어깨를 흔들며
《고기고기나!》
조그만 손을 쑥 내밀었다.
《무엇?》
손길을 통하여 바라보니 새노란 망망꽃이 풀포기에 숨어 반만큼 배움하고있다.
《꺾어주랴?》
《응.》
그는 가만가만히 풀속을 헤치고 꺾어다주었다. 세인의 얼굴은 한층 더 둥그래보였다.
파란 풀포기에 숨어 흐르는 흰 물줄기는 쭉 둘러싼 차돌틈으로 졸졸 흐르고있었다.
예쁜이는 그의 그림자를 물속에 던지며 바가지를 들여밀었다. 퐁 소리가 나자 눈달치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동이에 물을 채우고나서 예쁜이는 한모금 마신 후 돌아보며
《물 안 먹어?》
바가지를 들어뵈였다. 세인은 그에게로 다가서며
《감구감구.》 한다.
휘끈 돌아보다가 번개같이 웬 사람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머리를 푹 숙이고 얼른 동이를 이였다.
《어서 가!》
겨우 한마디를 입속으로 중얼거리고 세인의 손을 잡아끌었다.
저편 사나이로부터
《아기, 싱아 줄가?》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세인이는 예쁜에게로 칵 달려매며 망망꽃을 공중에 내던지고 울먹울먹하였다. 옥의 두귀밑은 빨개지며 세인의 손을 홱 잡아뿌리치고 잦은걸음으로 달아났다. 세인은 《으아.》 소리를 치고 두발을 동동 굴렀다.
이 꼴을 본 사나이는 이편으로 달려와서 그의 손에 싱아를 들려주

었다.
《아기, 울지 말아.》
세인이는 싱아를 집어내치고 예쁜이를 따라 허방지방 따라오다가 팍 꼬꾸라졌다. 사나이는 뒤로 와서 그를 부둥켜안고 예쁜이네 집 사립문까지 왔다.
《아가, 잘 들어가라. 또 넘어지지 말고, 응?》
세인이는 눈물을 좌우로 씻으며 봉당대문사이로 갸웃이 내다보고는 쏙 들어가버렸다. 사나이는 돌아서서 머리를 푹 숙이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였다.
부엌에 숨었던 예쁜이는 세인이를 꽉 쓸어안고 문사이로 사나이의 뒤맵시를 보았다.
커다란 사나이가 산비탈을 넘어서자 힐끗 돌아보는것이였다.
그후로 세인이는 밖에만 갔다오면 싱아단이나 과자봉지를 들고 달려들어오며
《이거 봐, 사탕이야 씨. 너 안 줘.》 하고 빙빙 돌아가며 사탕봉지를 들었다놓았다 하였다.
예쁜이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다.
《웬거냐? 누가 사주디?》
세인은 밖을 흘끔흘끔 돌아보며
《감구, 감구가 사줘.》
예쁜이는 문밖을 바라보며 어디 숨어서 엿보지나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전신이 오싹해지며 눈앞에 전날 본 사나이의 그 눈매가 무섭게 떠오르는것이였다. 그는 가는 소리로
《세인아, 얻어먹으면 거렁뱅이 되여서 못쓴다. 후댐에 또 사주거든 〈우리 집에 사탕 많아요.〉 하고 받지 말아라. 응? 그러면 내가 아부지더러 하얀 돈 많이 달라고 해서 사탕 이만큼 사주마, 응.》
그는 손을 벌려뵈였다. 세인이는 들은체도 안하고 사탕만 들여다보는것이였다. 그는 세인이를 꼭 잡고 들여다보며 또 말했다.
《아가, 남한테 사탕 받아먹으면 곱다저고리 해서 너 안 줘.》
그는 사탕을 입에 넣고 예쁜이를 쳐다보았다.
《후일에 감구가 사주면 받아가지고 올테냐? 후일에는 안 그렇게 하지, 응? 대답해.》
세인이는 두리번두리번하며 덮어놓고 《응.》 하였다.

예쁜이는 세인이를 꼭 껴안으며
《우리 세인이 용치, 정말 용해.》
볼과 볼을 마주댈 때 달콤한 냄새가 구미를 스르르 돌게 하였다.

예쁜의 집 문앞을 감도는 그 사나이는 송화읍에서 한 등너머 사는 최용문의 일군으로 있는 둘째였다.
그가 예쁜이를 먼빛으로 보기는 벌써 여러번이였으나 이렇게 마주당해보기는 처음이였던것이다.
그후로부터는 일하다 중턱에도 나무짐이나 걸머지고 뻔질나게 읍으로 오는수가 잦았다. 그리하여 지고온 나무짐을 되는대로 팔아버리고 예쁜이네 집주위를 몇바퀴든지 돌아서 세인이라도 만나보고 나오면 한결 마음이 나았다.
둘째는 어제 밤 비에 와짝 달라진 조밭머리에 앉아 호미를 움직이였다. 침묵속에 몇이랑 매고난 그는 긴 한숨을 후 쉰 끝에 김매기를 내쳤다. 굽이쳐 올라가는 노래소리는 스러져가는듯, 꺼져가는듯 삼아삼아하였다. 곁의 동무는
《좋다!》
하며 제 엉덩이를 툭툭 치고 벙글벙글 웃었다. 소리가 끝나자
《웬일인가? 자네도 소리 할줄 알아?》
하면서 두리번두리번 쳐다보았다. 그는 픽 웃어보이고 잠잠하였다.
《한마디 또 하게.》
밭머리에서는 왁자지껄하였다.
《어서 들어들 가세.》
이편을 향하여 한사람이 고함친다. 곁에 동무는 일어섰다.
《가세.》
《먼저 가게나.》
동무는 꾸역꾸역 그들의 뒤를 따랐다.
둘째는 매던 이랑을 마치고나서 밭머리로 나왔다. 이밭저밭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밀려나왔다. 그는 사람들의 지껄이는 소리가 귀찮아서 맨 꽁무니에 떨어져서 산비탈지름길에 들어섰다.
딱 막아선 다박솔포기옆에 붙어앉아 그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리고 정신없이 읍등새만 바라보고있었다.
뒤에서는 잦은 발소리가 차츰차츰 가까와졌다.

그는 무심코 힐끗 돌아보니 새하얀 손수건으로 귀밑까지 푹 눌러쓴 색시가 노란 바구니를 옆에 끼고 이편을 향하여 오다가 인기척 있음을 알고 피하여 가만가만 저편으로 가는것이였다.

둘째의 눈은 차차 둥그래지며 멀어가는 색시의 뒤맵시를 살피는 순간 (예쁜이다!)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고 벌떡 일어났다. 그의 가슴은 점점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최후의 용기를 내여 색시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였다. 열 눈이 자기 한몸으로만 쏠린듯 하여 뒤잔등이 오싹오싹해지며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는것이였다.

이 눈치를 챈 색시는 두팔을 허우적거리며 재게 걸었다. 뒤에 발소리가 가까와짐을 알자 그는 바구니까지 내치고 달아났다. 일삼아 다듬어가며 뜯어넣은 풋나물은 길가에 쫙 헤쳐지고 바구니는 데굴데굴 구르기 시작했다.

둘째는 구르는 바구니를 붙잡고 헤쳐진 나물을 주섬주섬 주었다.

솔밭속을 지나치는 색시는 뒤를 돌아보자 수건이 공중 벗겨지며 삼단같은 머리채가 어깨우로 미끄러져 빨간 댕기가 나풀거렸다.

둘째와 색시의 눈이 마주치자 색시는 머리를 푹 숙이며

《아이고, 어마이!》

하고 펄썩 주저앉았다.

침묵은 계속되였다. 둘째는 겨우 머리를 들어 푹 숙인 그의 얼굴을 옆으로 자세히 보니 틀림없는 예쁜이다. 그리던 예쁜이를 꿈밖에도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만났으나 무엇이라고 말할는지 감감하였다.

빽빽이 들어선 소나무사이로 그윽한 송진냄새와 함께 새 속잎에 짙은 뭇냄새가 그들의 코를 스칠뿐이였다.

둘째는 예쁜이가 숨도 크게 못 내쉬고 바들바들 떠는것을 내려다보고는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만 갈가 하고 발길을 돌렸으나 발은 꽉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자기로서도 생각지 못한 어떠한 큰 힘의 지배를 받고있었던것이였다.

(어떻게 할가?)

가는 바람만 불어와도 사람인듯, 이상한 소나무라도 눈에 띄면 사람이 숨었는가? 하며 전신경이 긴장되였을 때 까치 한마리가 그들을 굽어보며 깍깍 하였다.

그는 얼결에 바구니를 예쁜이앞으로 놓았다.

《예쁜아! 너 집에 가고싶지?》

떨리는 소리다. 힘을 들여 해놓고보니 그의 생각한바가 아니고 딴청을 끌어내였다.

(한마디만 물어보고 보내야 할텐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속으로 궁리하면서도 역시 같은 말을 뇌이는데 지나지 않았다.

《예쁜아, 어서 가라.》

누가 이런 말을 시켜주는지 안타까왔다. 둘째는 있는 힘을 다하여 옆으로 비켜섰다.

예쁜이는 죽나보다 하고 두눈을 꼭 감고 엎드렸다가 《가라.》는 둘째의 말이 그의 귀에 어렴풋이 들리자 공포와 의문이 그의 전신을 억눌렀다. 그는 한층 더 떨었다.

이 꼴을 본 둘째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서 로송나무뒤로 숨어버렸다.

그제야 예쁜이는 겨우 일어나 바구니를 들고 달음질을 쳤다.

《예쁜아, 나를 잊지 말아!》

그는 전신이 화끈함을 느끼자 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소나무를 콱 쓸어안고 웨쳤다.

《예쁜아, 예쁜아!》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 바라다보니 한길가 나무가지사이로 숨박곡질하는 그의 댕기끄리는 해빛을 받아 피같이 붉어뵈였다.

어제 밤 늦게까지 순희네 벼마당질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예쁜이네 차례였다.

창살이 푸릇푸릇하자 예쁜의 아버지는 부시럭부시럭 일어났다.

《여보, 일어나 밥 하게.》

그는 안해를 깨우고 밖으로 나갔다.

예쁜의 어머니는 예쁜이를 깨워가지고 부엌으로 나와 등에 불을 켜놓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며 햇팥을 일어 안쳤다.

예쁜이는 아궁이앞에 앉아 무럭무럭 일어나는 불을 들여다볼 때 두무릎이 따끈따끈해지며 졸음이 포르르 왔다.

눈이 감길수록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는 선히 들려왔다. 어머니는 쌀을 안치며 말했다.

《불 때려마!》

깜짝 놀라 깬 예쁜이는 나무를 끌어다넣고 벼 태질소리에 머리가 뒤숭숭하여졌다.

어느덧 밥이 우구구 끓어오르자 예쁜이는 불을 멈추고 일어나서 소매를 척척 걷고 설겆이를 하며 한편으로 상을 놓았다.

어머니는 등의 불을 훅 끄고 널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차츰차츰 새여오는 회색빛하늘에는 별들이 까뭇거렸다.

어머니는 예쁜이가 주는 주걱을 받아들고 그릇을 포개 담은 양푼을 부뚜막우에 놓은 후 솥깨를 열었다. 무역무역 올라오는 훈훈한 김이 그의 볼을 스치고 올라갔다.

《진지들 잡수시오.》

뒤이어 예쁜 아버지도 일군들을 불렀다.

《밥들 먹고 하지.》

그들은 우증우증 사립문으로 들어서 방안으로 들어앉았다.

《상 들여라.》

방문턱에 비껴서서 딸이 가져오는 상을 받아 차례로 그들앞에 갖다놓았다.

예쁜이는 통통 걸음을 쳐서 잔심부름을 다하고 숭늉까지 퍼들인 후 뒤대문옆에 가만히 붙어서서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분간하여 들으며 읍등새 좌우로 총총 들어선 솔밭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눈결에라도 이 솔밭이 띄게 되면 지난 일이 번개같이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것이였다. 무섭고도 어딘가 모르게 귀염성스러운 둘째의 얼굴은 항상 솔밭속에 숨어있는듯이 생각되였다.

컴컴하던 솔밭도 새여온다. 옆으로 돌아가며 간 고추밭에는 빨간 고추가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수수하는 바람결에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놀라 굽어보니 밤 한알이 앞으로 굴러왔다. 깜짝 잊었음을 느끼고 그는 치마앞을 벌리고 울바자밑에 서있는 밤나무아래로 달려갔다. 주먹같은 밤알이 여기저기 흩어져 보암직스러웠다.

밤알을 다 줏고난 그는 치마앞을 연해 들여다보며 밤나무를 쳐다보았다.

예쁜이는 가을철이 들자 눈만 뜨면 밤나무아래로 달려가서 살펴보다가 밤 아람이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옹골차고 그중 큰 알로 따로 골

라서 어머니도 세인이도 모르게 뜰안 독속에 깊이깊이 간수해두었다가 마가을에 장에 가는 어머님께 부탁하여 팔아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가지고싶던것을 사서 가지군 했다.

그는 가만가만히 허청간으로 달려가서 방석을 열고 독속으로부터 커다란 시승 (옛날 장마당에서 쓰게 되였던 되) 배아지를 꺼내자 치마앞에 밤을 골라 옮겨놓고보니 배아지 전과 비슷하였다. 그는 쫑깃 웃고 배아지를 독속에 넣은 후 허튼 짚으로 덮고 부엌으로 나왔다.

방안에서는 담배대 터는 소리가 나자 웃음소리가 왁 쏠어나왔다. 뒤미처

《상 받아라.》

하는 소리가 나고 그들은 밖으로 밀려나갔다. 예쁜이는 짐짓 섰다가 어머니가 주는 상을 받아 부엌으로 날랐다.

어머니는 세인에게 젖을 빨리며 밥을 먹였다. 세인은 예쁜에게로 손을 내밀었다.

《나 밤.》

예쁜은 부엌으로 나가서 밤 담은 종다래끼(작은 다래끼)를 갖다 세인의 앞에 놓았다. 그는 종다래끼를 잔뜩 껴안고 갸웃갸웃 들여다보며 어머니가 떠넣어주는 밥을 먹었다. 세인의 보기 좋게 볼록이는 두볼에는 오목오목 우물이 잡히였다.

밖에서는 벼알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났다. 저녁때가 되여 말되는 소리가 들렸다. 예쁜이는 밥을 잦혀놓고 밥상을 보아놓은 후 사립문뒤에 붙어서서 졸이는 가슴으로 엿보았다.

아버지는 그 커다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말 수를 세고있었다.

옆으로 농장지기, 낯설은 양복쟁이, 돈장사하는 김만수, 그밖에 마당질한 일군들이 쭉 둘러섰다. 벌써 열섬째 묶는것이였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이 빛난다.

《열한섬 반.》

여러 사람 입에서 똑같이 굴러떨어졌다. 만수는 데리고온 일군에게 눈짓하여 닷섬을 손달구지우에 탕탕 실어놓았다.

예쁜이 아버지는 하도 어이가 없어 멍하니 바라보자 손달구지는 털털 구르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처신이도 벼섬을 손달구지에 실어놓고 앞서거니뒤서거니 굴러갔다.

예쁜이 아버지는 벼씌움을 한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쓴채 짚북데기를 손에 들고 금방 울듯울듯한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멀리 들리는 손달구지바퀴소리는 마치 그들의 가슴 한복판을 굴러가는듯 요란스럽게 울리는것이였다.
예쁜네 모녀는 설겆이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다. 일군들은 벌써 가버리고 담배내만 자욱한 방에 예쁜이 아버지는 시름없이 째한 앞문만 바라보고있었다.
그러자 밖에서 기침소리가 났다.
《진지들 잡수셨나요?》
《어, 그 누구이?》
예쁜이는 웃방으로 올라갔다.
《처신이요.》
그는 의외라는듯 벌컥 일어났다.
《무엇이 잘못된것이 있습니까?》
처신은 방안으로 들어와앉았다. 예쁜이 어머니는 등불을 켜놓았다.
《아뇨, 오늘 퍽 섭섭하셨겠지요.》
이 말에 그는 너무 황공하여 눈물까지 글썽글썽해졌다.
《오늘 나와 같이 오셨던 어른이 우리 농장 주인이십니다.》
《뭐?》
예쁜이 아버지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전에는 늘 대리로 보내시더니 올해는 친히 오셨습니다.》
한층을 낮추어서
《마침 참한 소실을 구하신다는 말을 하기에 내가 집의 따님 이야기를 하였더니 령감님께 말씀해보라고 하시기에 왔습니다.》
예쁜이 아버지는 너무나 생각밖인 까닭에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칵 막히였다. 령감의 잠잠함에 예쁜이 어머니는 답답하여 먼저 말을 떼였다.
《그런 어른이 우리 딸같은것을 어떻게…》
이제야 예쁜 아버지도 입속말로 중얼거리였다.
《글쎄, 그런 돈 많으신 어른이…》
《원, 별 말씀도 다하십니다. 전에 세월같으면야 어림이나 있습니까마는 요새 세월은 그렇지 않다오. 그런 걱정은 말으시고 얼른 작정하시오.》

부부는 잠잠하였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담 처신의 말이 미덥지 않았다. 한참후에 령감은 말을 떼였다.

《글쎄, 원… 그럴리가…》

처신이는 눈을 슴벅슴벅하였다.

《어서 작정하십시오. 이런 때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런 부자를 사위로 맞이하는 판인데 설마한들 령감님네를 굶으라 하겠수?》

부부의 머리는 지끈해지며 나오려던 말이 한층 더 막혔다.

처신이는 부부를 번갈아보았다.

《어찌하겠수… 좀 좋소? 딸은 호사에 치여 죽을 지경이겠구려. 동자도 바느질도 안하고 오도카니 앉어 손톱에 물만 튕기구 앉았겠구려. 수 생겼소.》

령감은 예쁜이 어머니를 보았다.

《어쩔가?》

《글쎄요… 어찌했던 한번 가셔서 손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봅시다. 갑자기 말을 내니 알겠소.》

처신은 벌컥 일어났다.

《가십시다.》

령감은 왜자자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났다.

《뭐 그러고 가시렵니까?》

《그럼.》

아래를 굽어보았다. 처신은 문밖으로 나가며 재촉하였다.

《원, 어서 가십시다. 농사군이 아모러면 상관 있습니까.》

령감은 두말없이 뒤를 따랐다.

예쁜이 어머니는 그들의 말소리가 멀어질수록 아까 일이 활동사진 모양으로 나타났다 없어졌다하였다. 어느덧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무엇보다 나이 많은 자기 남편이 여름내 그 달디단 잠도 못 자고 밤새워가며 보등의 물을 논에 대느라고 애쓰던것이 아까왔다. 벼이삭이 보암직스러이 패여올 때 령감이 좋아하던 꼴, 그는 푹 엎드려서 흑흑 느껴울었다. 한참 울고나니 이번에는 예쁜의 일, 아까 본 그 양복쟁이가 새삼스럽게 뚜렷해보였다.

《참이라면 어쩔가?》

이렇게 부르짖으며 웃방을 향하여

《예쁜아!》

몇번이나 불렀으나 잠잠하였다. 그도 세인의 옆에 입은채로 누워서 하던 생각을 되풀이하였다.
밤이 적이 깊어서 남편은 돌아왔다. 곁에 펄썩 주저앉자 술내가 훅 끼쳤다.
《무어랍디까?》
그는 아무말없이 일어서서 비틀걸음으로 웃방문을 열었다.
《예쁜아!》
텁텁한 소리였다. 뒤로 따라선 예쁜이 어머니는
《자요, 자요. 할말 있으면 래일 하구려.》
하고 남편을 붙어잡았다.
《응, 취한다. 내 딸 자니?》
눈을 지리쳐감고 예쁜 어머니께로 탁 실린다.
《우리는 살았네. 내 딸때문이지, 에이! 고얀 놈! 이놈아! 만수란 놈아! 날도적놈아!》
시뻘건 눈을 부릅뜨고 부들부들 떤다. 그는 겨우 남편을 끌어다 옷을 벗기고 자리우에 뉘였다. 눕자마자 코를 골아넘긴다.
그는 한층 더 눈이 똑똑해졌다. 고요한 방안에 숨소리만이 가득하고 이때마다 들리느니 가을벌레울음이다. 훅 불을 끄고나니 뒤문에 달이 비쳤다.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하면 딸의 혼인은 이미 결정된듯싶었다. 무엇보다도 섭섭한것은 소실이라는것이였다. 자기의 귀한 딸을 남의 눈에 가시로 보내는것이 아무래도 못할 짓으로 생각되였다.
그는 남편곁에 누워 어느덧 잠이 들고말았다.
이튿날 새벽에 남편에게 흔들리여 깨여난 그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혼인은 다 되였네.》
《뭐야요? 좀 생각해보고 하지.》
《공연한 소리를 또 하네그려. 그런 자리가 쉽겠나. 그리고 며칠 있다가 가겠다니까 예쁜이를 따라보내야 하겠네.》
예쁜이 어머니는 기가 막혔다. 이어서 눈물이 좌우로 흘러내렸다.
《이 사람은 쩍 하면 울기는… 그럼 시집도 안 주고 끼고있을텐가?》
마누라는 돌아누우며 세인을 꼭 껴안았다.
훤히 밝자 예쁜이는 일어났다. 가만히 새문을 열었다.
《왜 벌써 일어나니? 곤할텐데.》

그는 아무 대답없이 부엌으로 나가서 앞뒤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산뜻한 바람이 그의 정신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는 우두커니 차츰 새여오는 하늘을 쳐다볼 때 컴컴한 솔밭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제 새벽만 하여도 무섭던 솔밭이 이 순간에 있어서는 눈물이 날만치 정들어보였다.

그도 모르는 사이에 긴 한숨을 내쉬고 저적저적 밤나무아래로 가보았다. 어제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 그는 맥없이 치마앞을 벌려 한알씩, 두알씩 줏기 시작할 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밤을 채 줏지도 않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방문소리가 나자 어머니가 나왔다.

《아부지가 너 들어오란다.》

그의 가슴은 지끈하였다. 예쁜이는 머리를 푹 숙이고 나무꼬챙이로 부엌바닥만 이리저리 긋고있었다. 그 꼴을 본 그의 어머니도 저 애가 벌써 다 들었구나 하였다.

《어서 들어가라. 왜 그러고있니, 아모려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훌쩍훌쩍 울음이 터졌다.

방안에서는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다.

《예쁜아, 들어오너라.》

어머니는 딸의 우는 양을 보니 가슴이 뻐근해지며 (저런것이 어찌 남의 첩노릇을 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비, 어미밖에는 모르는 저것이…) 이렇게 생각하고나니 저절로 눈물이 앞을 가렸다.

예쁜이 아버지도 부엌으로 나왔다.

《내, 내 딸 왜 우니, 너무 좋아서, 허허허…》

그는 너털웃음을 내치고

《어서 들어가자. 밥을랑 네 어미더러 하라자. 응.》

그는 예쁜의 곁으로 바싹 대들었다.

《그만둬요. 저도 다 들은 모양인데.》

《어디서 들었어?》

안해를 쳐다보았다. 그는 령감을 밀치며 말했다.

《그만둬요. 새벽부터 말 안하기로서니 틈이 없을가?》

그는 하는수없이 중얼중얼하며 방으로 들어간다.

《야! 울지 말아라. 누구나 다 한번씩은 겪는 일인데 무얼 내가 열네살에 너의 아부지한테 왔겠니.》

예쁜이는 가만히 일어서서 뒤안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밤나무옆에 착 가리여앉아 치마폭으로 얼굴을 푹 가리고 흑흑 느껴울었다.
조반을 펴놓은 예쁜이 어머니는 뒤안으로 나와서 밤나무옆으로 왔다.
《들어가서 밥 먹자. 야, 말 들어, 속 태우지 말고.》
예쁜의 손을 잡아끌었다. 그는 하는수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내 딸 왜 그래! 공연히 그리누나. 이제 서울 가면 좋은 구경하고 좀 좋으냐?》
《그만둬요. 자꾸만 우는 애를 가지고 여러말 하시우… 괜히 밥도 못 먹게스리.》
어머니의 들려주는 숟갈을 들고 밥을 퍼먹으려니 기가 꽉 찼다. 며칠만 있으면 아버지의 말대로 가야 하니 그러면 다시는 어머니, 아버지, 세인이도 못 보겠지, 이런 생각에 슬그머니 숟갈을 놓고 웃방으로 올라갔다. 그의 어머니도 따라 밥술을 놓고말았다.
세인이가 기지개를 켜며 벌떡 일어나앉는다.
《오마이!》
령감은 세인이를 껴안았다.
《아가, 밥 먹자.》
세인은 도리를 치고 어머니께로 가서 젖가슴을 헤치고 팠다. 아버지는 새문을 열고 예쁜이를 불렀다.
《밥 먹어라, 울기는 와! 어서 내려와!》
세인은 토닥토닥 아버지곁으로 와서 갸웃하고 보았다.
《오마이, 누나 울어, 이렇게 울지.》
조그마한 손으로 눈을 부비치며 어머니 앉은 곳으로 달려온다. 그는 본체만체 하고 한숨만 후후 쉬였다.
조반상을 물리자 리춘식이와 처신이가 들어선다.
령감은 황망히 일어났다.
《이리 오시오. 집이 루추해서…》
아래목을 가리키고 방안을 휘휘 둘러보며 웃목으로 앉았다.
춘식은 들어오자마자 어떤 토굴속에 들어온듯 하였다. 한참후에야 방안속이 어림해보였다. 도배하지 않은 바람벽이며 불그죽죽한 장농짝, 엉성그려물은 갈자리입, 어느것 하나 원시시대를 상상케 아니할것이 없었다. 더구나 먼지내가 코를 벗튀우는것 같았다. 그는 수건을 내여 코를 가리고있었다. 령감이 새문을 열고보니 딸이 없었다. 그

는 부엌으로 나갔다.
《이 애 어디 갔노?》
세인이를 업고 왔다갔다하는 안해를 쳐다보았다.
《글쎄요, 이제 곧 나갔는데…》
령감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어서 데려오게.》
그는 새침하고 밖으로 나갔다.
령감은 방으로 들어오며 어줍게 말했다.
《촌년이 돼서 몹시 부끄러워합니다.》
얼마후에 말소리가 들렸다. 령감은 밖으로 나갔다.
《왜 혼자 오누?》
《어디 있습디까?》
《에잇…》
춘식은 부부의 이야기를 듣자 처신이를 찔러가지고 일어났다. 령감은 돌아보고 얼굴이 벌개지며
《어째서 가시랍니까. 곧 올터인데요.》 하였다.
그들은 웃으며 말하였다.
《보나 다름 있겠습니까? 래일 가겠습니다. 옷은 다 맡기였습니다.》
그들은 가고말았다.
이튿날 아침 여덟점 차로 예쁜이는 그리운, 그리운 고향을 등지고 떠나게 되였다.

가을이 깊었다. 창문의 딸 예쁜이는 부자 리춘식의 호강첩으로 팔려갔다는 소문이 읍촌간에 자자하게 퍼졌다.
둘째는 처음에는 곧이 듣지 아니하였다. 보다도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그러나 새록새록이 들려오는 소문은 그로 하여금 괴로우나마 믿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였다.
가슴을 졸이며 알아본 결과는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였다. 그의 다만 하나인 과부의 외아들같은 희망은 빼앗기고말았던것이다.
지금 그의 짤막한 과거를 돌아본다면 그나마 희망에 넘친 행복한 날이였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본 그 순간에 다만 한번만이라도 시원한

말을 나누고 떠났다면 차라리 나을것 같이 생각되였다.
그는 모든것을 잊어보려 하였다. 자기로서도 알지 못할 쓰림과 질투의 불길이 날이 갈수록 무섭게 타올랐던것이다. 그는 자기의 생사를 헤아리지 않을만큼 되였었다. 그리하여 그의 얼굴은 파리해가고 가뜩이나 무거운 입이 철문같이 굳게 닫혀버렸다.
그는 밤마다 발길 가는대로 맡겨두며 빈번히 읍등새 솔밭을 찾게 되는것이였다.
그는 소나무밑에 펄썩 주저앉아서 로송나무를 힘껏 껴안고 차츰차츰 깊어가는 가을밤에 고즈넉이 잠든 송화읍을 내려다보았다. 전에 볼수 없던 함석집들이 가운데 들어앉아 둘러앉은 초가집들을 노려보는듯 비웃는듯이 달빛에 빛나고있었다.
찰나에 떠오른 눈, 비웃는 그 눈, 천진한 어린 자기를 속인 말끔한 거짓말이 그의 전신경을 비상히 흥분시킴에 따라 쓰라렸던 과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젊어서 남편을 잃은 그의 홀어머니는 어린 그를 하늘같이 믿고 여름이면 김품 팔고 겨울이면 삯바느질 같은것으로 그날그날 겨우 살아갔다.
둘째가 열두살 나던 해 가을이였다. 여름철이 들면서부터 그의 어머니는 소화불량증을 얻어 노상 굶다싶이 하면서도 삯김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철이 바뀐 어느날 그는 견디다못하여 하던 일을 겨우 대강대강 마쳐버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정신없이 자리에 눕고말았다.
어린 둘째는 솔가리를 긁어다놓고 방으로 들어왔다.
《오마이!》
언제나 그는 방문을 열어잡고 이렇게 부르는것이였다. 여러날 신고에 두눈등이 푹 꺼진 그의 어머니는
《왜?》
하며 겨우 눈을 뜨고 아들을 보았다. 군데군데 해진 잠방이, 적삼이라든지 발꿈치가 쑥 나온 목달이가 새삼스럽게 그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였다.
곁에 앉은 아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배고프겠구나. 아파서 나는 밥 못하겠으니 식은 밥이라도 갖다 먹어라. 아이고…》
그는 긴 한숨을 푹 내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렸다.

《응.》
둘째는 부엌으로 나가서 들그렁들그렁하더니 조밥바리와 된장그릇을 안고 들어왔다. 그는 씩씩 하며 나무단 끌어들이듯이 밥술을 큼직큼직하게 떴다. 부리나케 푹푹 퍼먹은 그는 숟가락을 공중 던지였다.
《오마이, 나 배 불러.》
《오냐.》
어머니 대답을 들은 그는 그릇을 버려둔채 어머니곁으로 달려와서 눕자마자 코를 골아 넘긴다.
그의 어머니는 똑 부러지게 아픈 곳은 없다 하더라도 전신의 맥을 출수가 없으며 따라서 호흡이 곤난해졌다. 나중에는 가래까지 올랐다.
방안은 찬바람이 실실 돌았다. 새여드는 달빛은 아들의 얼굴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하여 이불을 끌어다 아들에게 덮어주었다.
자기의 병이 위중할수록 막연하게 어린 아들의 신세가 불쌍해보일뿐이였다. 따라서 저 어린것을 놓고 내가 아주 죽나보다 하는 끔찍한 생각은 하늘이 무서워서 못하여보았던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가래가 성해지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나무잎의 와삭이는 소리와 요란스럽게 들리던 벌레울음소리가 차츰차츰 가늘어지며 주위가 암흑으로 변해지는것을 느낄 때 그의 가슴은 죽음이란것앞에서 마지막으로 울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잠든 아들을 깨워보렸으나 태산준령이 콱 내려앉는듯 하며 손가락하나 까딱하는 수가 없었다. 그의 눈은 점점 흰자위만이 남기 시작하였다.
별안간 둘째는 왈칵 일어났다.
《오마이, 오줌 눠.》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흔들었다.
《요강 달라오!》
오줌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는 눈을 딱 감고 시원하게 누고나서 그 자리에 되는대로 누워버렸다. 그러나 눈 오줌은 사정없이 그의 해진 옷속으로 푹 젖어먹었다. 그는 잠결에 괴로움을 느끼고 벌떡 일어났다.
《오마이!》

갑자기 추움과 무서움이 휘딱 들어 두눈이 올랑해졌다.
둘째는 어머니곁으로 바싹 다가앉아 흔들었다.
《오마이!》
어머니는 정신이 뻔하였다. 그러나 마치 가위눌린 사람모양으로 말도 할수 없으며 움직일수도 없었다. 하도 대답이 없음에 안타까와서 둘째는 머리맡으로 가서 어머니의 눈을 보았다. 그는 갑자기 무서움을 느꼈다.
《오마이, 왜 그래. 응야.》
그는 어머니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아들이 우는것을 번연히 아는 어머니는 어떻다고 말할수 없어 슬펐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순간이고 아무것도 분간치 못하는 의혹으로 변해지는것이였다.
둘째는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 밤마다 켜지던 등불이 없었다. 그는 한손으로 눈물을 씻으며 또 한손으로 성냥을 더듬어 불을 켰다.
《오마이! 나 보라우, 어서야.》
어머니의 감겨지는 눈을 뻐기고 들여다보았다. 어머니는 무엇이라고 중얼거렸다.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입만 놀렸다.
《무어! 에그 정 크게 하려마.》
어머니의 입술을 똑똑히 들여다보며 그대로 입술을 놀려보았다.
《주부, 응 주부!》
얼핏 작년 여름에 엉뎅이의 종기로 인하여 어머니와 주부 (의원)네집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응, 주부, 주부. 내 갔다와.》
그는 우뚝 일어났다. 문밖으로 뛰여나오자 무서운김에
《오마이! 난 가, 응.》
이런 말을 남기고 앞으로 뛰였다.
오불꼬불한 논두렁을 지나고 밭머리를 지나 읍등새 솔밭사이로 들어섰다. 바람에 솔포기 흔들리는 소리가 동무들에게서 들은 옛날이야기에서 나오는 무서운 범이 나오는듯 하였다. 그리고 자기 발자취소리에 놀라 힐끔 돌아보면 둥그런 달이 자기를 따르는것이였다.
그 무서운 솔밭도 지나고 외나무로 건너지른 쪽다리를 기여 건너서 새로 닦은 큰길우로 들어서 줄달음질쳤다.
의원집까지 다 온 그는 팍 꼬꾸라지자 두 걸음을 쳐서 일어났다. 단

숨에 돌층계를 올라서 차디찬 대문짝에 착 달라붙었다.
《오마이, 문 열어!》
얼결에 빽 소리치고 숨을 죽이고 엿들었다. 여기저기서 짖는 개소리만이 점점 요란스럽게 들렸다.
《문 열어요!》
전신에 땀이 훈훈히 흐르며 눈물이 그렁그렁 떨어졌다.
눈을 딱 감고 대문짝을 쳐다리고나니 안으로부터 인기척이 나며 문이 방싯 열리자 뚱뚱한 주부가 나타났다.
《웬 아이냐?》
자다 나온 텁텁한 소리였다. 둘째는 반가움에 와락 달려들어가 콱 매여달렸으나 한참동안은 말을 못하여 애만 썼다.
그는 달빛에 둘째의 얼굴을 비춰보니 한번 본 아이 같았다. 그는 머리를 돌려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너 종기로 앓던 애지?》
《네, 울 오마이, 저 울 오마…》
숨이 찼다.
《그래 너의 오마니가 어떻단 말이냐?》
《저 죽어가요. 아파서…》
《어디가 아프다든?》
《겨워요. 그리고 말 못해요.》
《음.》
의원은 둘째를 물리쳤다.
《앓다가 낫지. 울지 말아. 래일 아침 내 갈것이니 어서 가거라.》
《나 혼자요?》
안타까운듯이 의원을 쳐다보았다.
《그럼.》
의원의 머리에 아직 새로운것은 작년 약값도 절반도 받지 못한것이였다. 그리고 밤도 깊었고 더구나 촌이 되여 가고싶지 않았다.
《올 때도 너 혼자 왔니?》
《네, 갑시다. 우리 집에, 네?》
바투 대들어 그의 손을 잡아끌었다.
《래일 가겠으니 어서 가거라!》
자기 어머니같은 사람인줄 알고 대들었으나 사정없이 그를 몰아

낸다.
《래일 간다. 잘 가거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문빗장을 걸고 들어가버렸다. 둘째는 멍하니 섰다가 문사이로 들어가는 의원의 뒤덜미를 바라보았다.
《정말 오겠수우?》
아무 대답없이 안대문까지 쾅 닫겨버렸다.
둘째는 대문밖에 우두커니 서서 누가 또 나올가 하고 기다리다 못해 두주먹을 부르쥐고 앞으로 뛰였다. 나무도 산도 얼씬얼씬 움직였다.
집까지 달려온 둘째는 방문을 벼락같이 열고
《오마이!》
뛰여들어 어머니가슴에 팍 엎어졌다. 문바람에 등불마저 꺼져버렸다.
둘째는 어머니 얼굴우에다 얼굴을 마주대였다.
《주부가 안 오지. 래일은 오겠대, 응.》
뜨거운 눈물이 차디찬 송장우에 한방울, 두방울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곁집 닭은 홰를 치고 꼬끼요 하고 울었다.
여기까지 생각한 둘째는 깊이깊이 가라앉았던 분까지 왈카닥 치몰려 하늘을 뚫을듯 하였다. 그는 두주먹을 다져쥐고 벌떡 일어났다.

예쁜이는 예쁘장한 계집애를 낳게 되였다. 두눈이 분명하고 얼굴 판장은 어머니 비슷하면서도 어머니보다 생김생김이 뚜렷하였다. 우리의 녀주인공이 될 옥이였었다.
외롭던 끝에 계집앨망정 생기고보니 몇달동안 갖은 수모와 입으로 담지 못할 악형을 당한것도 꿈속으로 사라지고 더할나위없이 위안이 되였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것에다가 혼자서 중얼중얼 주고받고 하는것이였다.
주옥이 어머니가 혹간 지나가다 귀결에 들으면 벼락같이 문이 열렸다.
《그 잘난 계집애만 가지고 빈둥빈둥 놀테야!》
평시 말할 때에도 달싹도 못하는 판에 긁어닥치는듯 한 큰소리에 금방 무슨 변이라도 나는듯싶었다. 그리하여 머리를 푹 숙이고 가슴은

울렁거리기 시작하였다.
《반편, 반편 하니, 저런 반편이 어디 있다가 내 속을 요다지도 태워주니! 야, 이 못난 년아!》
하고 달려들어 어린애를 빼아가지고 안방으로 홱 들어가버렸다.
어린애는 발악을 하고 운다. 뒤이어 어떻게나 하는지 죽는 소리가 난다. 울음 마디마디가 예쁜이의 뼈끝마다 새여드는듯, 가슴이 찢어지는듯 하였다.
그는 더 참을수 없어 벌컥 일어나서 방안으로 빙빙 쏘다니다가 두 눈이 벌개져서 안방으로 건너가는것이였다.
눈치를 챈 주옥 어머니는 앞질러 딱 막아서서 노려보았다.
《잘못했습니다… 네, 애기 주시오. 참말이야요.》
그의 눈은 애처롭게 타올랐다.
주옥 어머니는 일종의 통쾌감을 느끼였다.
《그래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그는 무엇이라 대답할것이 난처하여 마지막에는 울음으로 대하였다.
《아씨, 저 입 보시우.》
둘러선 행랑어멈, 침모는 눈짓을 하며 입을 막고 웃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의 잔인한 흥미도 다해지면 사정없이 어린애를 내쳐주었다.
그는 어린애를 안고 비실비실 자기 방으로 건너가서 맞은 자리를 어루만지며 볼과 볼을 남몰래 마주대였다. 어린애는 눈을 맞추자 방싯방싯 웃었다.
어슬막에 대문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뒤이어 흐트러진 신발소리가 들리자 《나리 오신다!》 하는 소리가 거퍼 들렸다.
예쁜이는 애기를 멀찍이 눕히고 밀장문사이로 바라보았다.
얼근히 취하여 비칠비칠 들어오는 남편의 탁 트인 얼굴, 안방에서 마주 나오는 다닥다닥 붙은 주옥 어머니, 첫눈에 벌써 외모만은 기운 짝이였다.
주옥 어머니는 생글생글 눈웃음치였다.
《아빠 오신다, 주옥아.》
주옥이는 빠르르 나와서 아버지에게 안겼다. 부부는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며 방으로 들어가자 밀장문이 스르르 쾅쾅 닫히고만다.
멍하니 바라보던 예쁜이는 어쩐지 허전함을 느꼈다. 역시 순간이였

다. 그는 어린애를 끼여안고 전등불아래 빛나는 조그만 눈을 말없이 언제까지나 들여다보았다.

방으로 들어간 주옥 어머니는 남편의 기분이 좋은 때를 리용하여 예쁜이의 말을 꺼내리라 하고 눈치만 슬슬 보며 갖은 아양을 다 떨고있었다.

저녁상이 들어온다.

《난 먹었어.》

춘식은 벌렁 누웠다. 어멈은 도로 부엌으로 나갔다. 주옥이는 아버지 팔에서 잠들었는지 색색 하는 숨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할테요? 저 반편은.》

《왜 또 갑자기.》

《정말 반편부려 못 보겠소, 여보.》

《마음대로 하지.》

이 말에 생긋 웃었다.

《내야 어찌 알겠소. 당신 마누라를… 집으로 보내면 어떠우?》

《보내지 그럼.》

순간에 그는 아찔하도록 좋았다.

《애는 떼여서 젖유모 주지요.》

벌써 예쁜이의 안타까와하는 꼴이 눈에 보였다.

《글쎄.》

《려비는 얼마나 줄가?》

《한 십원 주게나.》

춘식은 귀찮다는듯이 가만히 팔을 베고 모로 누웠다.

《래일 보내겠소.》

《마음대로 해.》

그는 주옥의 베개를 내려 베여준 후 가만히 밖으로 나와서 한바퀴 돌았다.

아침이 되자 주옥 어머니는 전에없이 일찍 일어나서 안팎으로 나다니며 새살랑하였다.

문밖까지 나와서 남편을 보낸 주옥 어머니는 상노를 데리고 건넌방으로 와서 담박 달려들어 어린애를 잡아안고 일어섰다.

《가라! 네 집으로! 옛다, 이것 가지고. …》

포갠 일원짜리 지페를 예쁜이의 앞으로 던졌다.

예쁜이는 가슴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숱하게 많은 돈을 보기가 처음이나 가라는 째는듯 한 소리는 그의 귀를 아프도록 울리였던것이다.
상노는 돈을 집어 그의 손에 들려주었다.
《어서 갑시다.》
얼결에 예쁜이는 따라 일어섰다. 방문턱까지 나온 그는 앞이 허전하였다.
《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부르짖고 돌아보았다.
주옥 어머니품에 안긴 어린애는 그와 눈을 맞추고 방싯방싯 웃고있었다.

남편 춘식이는 낮에는 어느 회사 사장으로 출근하고 밤이 되면 기생아씨들에게 둘러싸여서 밤새우는것이 거의 일과 되다싶이 하였다.
예쁜이를 같이 데려다놓고는 마누라의 새우는것도 돌아보지 않고 도리여 욕질까지 하면서 밤이 되면 끈히 건너오더니 며칠 지나서 역시 싫증이 났는지 발길을 뚝 끊어버리고 혹시 어쩌다 마주치는 때가 있어도 본둥만둥하여두는것이였다.
따라서 안방 아씨는 나날이 기승스러워가는것이였다. 별로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여쥐는것이 매일 되다싶이 하였다.
그리고 온갖 일을 다 시키는것이였다. 마루걸레, 방걸레, 빨래질, 동자… 손대지 않는것이 없었다. 오히려 피로우라고 시키는것이 그에게는 갑갑하지 않고 십상 좋게 생각되였다.
어느날 그는 밥을 퍼들이고 밥 한그릇, 국 한사발을 가지고 건넌방으로 건너가려 하였다.
《여기저기 벌리지 말고 어멈과 같이 먹지!》
안방에서 나오는 표독스러운 소리였다. 그는 놀라 꿈칠하여 하마트면 국그릇을 짓몰번 하고 겨우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는 한숨을 푹 쉬였다. 무엇보다도 그릇 깨뜨리지 않은것이 적이 안심되였다. 어멈은 안방으로부터 빈그릇을 가지고 나왔다.
《개밥 주었수?》
《아니요.》

《아이구 입대 무얼 했수, 그래? 촌량반이 왜 개밥 주는것도 몰우? 기차라!》
부뚜막에 끓여놓은 솥치에다 식은 밥을 뒤섞고 찌개국물을 타서 개밥통에 들썩 부어주는것이였다.
《에스, 에스!》
부르니 새까만 강아지가 꼬리를 저으며 달려들어 처럭처럭 먹기 시작하였다.
그는 속으로 (〈에스〉는 무엇일가? 우리 곳에서 검둥이, 복술이란 개 이름을 그렇게 부르나?) 어쩐지 에스라는 이름이 서먹서먹하여 다정한 맛이 없었다.
그는 멍하니 서서 개주둥이속으로 차츰차츰 없어져가는 허리가 길쭉길쭉한 흰 밥알을 보았다.
사명절때나 아버지 생일이라야만 먹는줄 알았던 흰쌀밥을 이 집에서는 개에게까지 먹인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문득 떠오르는것은 아버지의 피나던 손이였다.
어느날 아버지는 벼를 베시다가 엄지손이 벤것이였다. 빨간 피가 죽죽 흐르는것을 예쁜이가 달려가서 제 고름끝을 잘라 처매여드렸다.
피는 점점 더 흘러 옷에 묻고 벼이삭에까지 발려도 아버지는 탐스러운 벼이삭에 끌려 아픈것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모양이였다.
륙칠월 된 해빛속에도 구슬땀을 흘리시며 만지고 또 만져서 키워놓은 쌀알! 비가 안 오면 안 온다고 걱정, 너무 오면 온다고 걱정, 한시 한초를 마음놓지 못하고 키운 눈물, 땀, 피로써의 결정인 이 쌀알을 아버지는 만져도 못 보고 지주와 빚쟁이에게 홀랑 빼앗기고마는것이였다.
이리하여 다 늙으신 아버지는 장, 위도 성하지 못하시건만 파슬파슬한 호좁쌀밥을 잡수시며 잘 넘어가지 않는탓으로 이따금 물 한모금씩 마시던것이 방금 보이는듯 했다.
어느 사이에 그는 눈물이 흘렀다. 그는 남몰래 눈물을 씻고나서 다시 개밥을 보았다. 어김없는, 아버지가 애써 지어놓은 쌀밥이였다.
만일 아버지가 저 쌀밥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아끼실 쌀알이랴! 얼마나 대견할 쌀알이랴! 그러나 이 집에서는 아까운것도 귀한것도 모르는 모양이였다.
그는 이 집안 사람들은 자기와는 딴 나라 사람들과 같이 생각되였

다. 그런 사람들과 한솥에 밥을 먹고 한집에서 살아간다는것은 결국은 기막혀 죽을것 같았다.

어멈은 그를 말똥히 쳐다보았다.

《밥 먹우… 개 먹는것이 아깝소, 그래?》

그는 어멈을 돌아보며 밥상을 보자 가슴이 멍청해지며 먹고싶은 생각이 없고 도리여 끔찍해보였다.

주옥이가 토닥토닥 나왔다.

《나, 물!》

그는 주옥이를 볼 때마다 세인이가 그리워졌다. 따라서 귀여운 마음으로 주옥이를 보았다.

그는 떠놓은 물을 입에 대여주었다.

《싫어!》

안에서는 《찬물 주어라.》 한다.

그는 수도물을 뽑아서 주옥의 입에다 대였다. 꿀꺽꿀꺽 마시고 나서 말똥말똥 쳐다보았다. 예쁜이는 빙긋이 웃었다. 별안간 찰싹 하고 예쁜의 따귀를 갈겼다.

《반편! 가야! 네 집으로 가야!》

하고 침을 탁 뱉고나서 방으로 들어가자 무엇이라고 종알종알하는 소리가 들렸다. 따라 하하 웃는 소리가 들렸다.

어멈도 《너무하다. 어린 계집애가!》 이런 생각을 하며 숟갈을 놓고 일어났다.

《살아 무얼 해요. 어린애한테 그런 모욕을 받고…》

귀에말로 중얼거리는것이였다.

예쁜이는 골치가 우썩하며 전신의 열이 머리로 치떠밀어오르는것 같았다. 그는 눈을 푹 내려감고 찬물을 벌떡벌떡 들이키고있었다.

행랑어멈은 발 빠르게 안방으로 냉큼 들어갔다.

예쁜이는 어멈의 사라지는 뒤꼴을 바라보자 펄썩 주저앉았다.

《못 가요! 난 못 가요!》

처음으로 내는 요란스러운 목소리였다. 모두가 눈이 둥그래질뿐이였다.

주옥 어머니는 오목한 눈이 한층더 옴쑥해졌다.

《이년, 이 오라질 년, 어디 못 가나 보자. 렴치없이 왜 우리 딸 가

져가겠다니? 흥, 이년아 글쎄.》
침을 탁 뱉으며 암팡지게 노려보았다.
《끌어내게!》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다. 상노는 또다시 달려들어 예쁜의 두손을 사정없이 나꿔챘다. 그는 푹 꼬꾸라지며 두팔을 마음껏 뿌리쳤다.
《애기 주어요! 내가 낳았지 누가 낳았단 말이야!》
예쁜이의 입술에서는 빨간 피가 흘렀다. 상노는 예쁜의 허리를 깍지 끼였다.
별안간 대문이 활짝 열렸다. 뒤이어 나타나는 키가 들어꽂은듯 한 험상스럽게 생긴 한 사나이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상노를 잡아 나꿔채 팽개쳤다.
둘러섰던 계집들은 《악!》 하고 뿔뿔이 도망질쳤다.
사나이는 예쁜이의 앞에 딱 막아섰다. 예쁜이는 어리둥절하여 고개를 푹 숙였다가 상노를 밟아치운데 눈이 뜨였다. 예쁜이는 최후 용기를 다하여 그를 쳐다보았다. 점점 뚜렷이 나타나는 이 사나이. 예쁜이의 눈은 찢어질듯이 둥그래졌다.
《둘째야!》
나는듯이 일어나 그의 가슴속에 자기의 흐트러진 머리를 푹 파묻었다.
《예쁜아!》
두멍깨 같은 그의 시커먼 손이 그의 어깨로 돌아가자 꽉 껴안았다.
《잊지 않았구나!》
따르르 하는 소리가 들렸다. 예쁜이는 머리를 번쩍 들고 《애기! 가지고 어서 갑시다. 네, 누가 올테야요!》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무슨 소리인지 잘 아는 까닭이였다.
둘째는 담박 안방으로 뛰여들자 잡히는대로 잡아나꿔챘다. 주옥 어머니는 어디로 숨은 꼴이였다.
어린애는 《악.》 하고 울었다. 둘째는 어린애를 껴안고 밖으로 나왔다.
예쁜이는 어린애를 받아안고 죽어 넘어진 상노놈을 건너서 허방지방 나왔다.
《어디 가나?》
벼락같은 소리와 함께 우중우중 들어서는 경관들은 달려들어 항쇄,

족쇄로 둘째를 얽어놓았다.
예쁜이는 기절해 넘어지고말았다.
며칠후 예쁜이는 경관들에게 호위되여 남대문정거장까지 나왔다.
눈 딱 불거진 형사가 차표를 사서 예쁜이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는 차표를 내던지였다.
《난 못해요, 둘째를 놔주어요. 아모 죄 없는 사람이야요. 내가 상노를 죽였어요! 이년이 죽였어요!》
《가만히 있어, 둘째도 곧 내보낼테야.》
예쁜이는 순사에게 대여들었다.
《참말이야요? 거짓말 말으세요. 나는 혼자는 안 가겠어요!》
그는 팔싹 주저앉았다. 순사는 달려들어 일으켰다.
이 꼴을 본 모든 사람들은 예쁜이에게로 눈이 쏠렸다.
차는 미끄러져 들어왔다. 꾸리묶어선듯 한 사람의 물결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예쁜이는 차안으로 끌려왔다. 차는 움직였다. 순간에 예쁜이의 정신은 펄쩍 들었다. 그는 아기를 마루바닥에 팽개치고 미친듯이 창앞으로 달려갔다.
《둘째야! 둘째!》
소리를 치고 뛰여내리려 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꽉 붙잡았다.

예쁜이가 내려온 그해 봄에 창문네 생명줄은 떼이고말았다. 몇식구의 살아갈 길은 하루아침 가볍게 떨어지는 말 한마디로 캄캄하게 되였다.
창문이는 딸이 내려온것, 더구나 근 이태동안에 갖은 고생당한 이야기를 듣고 치밀어오르는 분을 억제하기가 힘들었으나 그러나 밥줄이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꿀떡꿀떡 삼키고있었던것이다.
양과 같이 순하던 그는 며칠밤 새운 끝에 맹호같은 기세로 일떠나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아들, 딸, 늙은 마누라도 보이지 않고 다만 원쑤인 리춘식이만이 딱 막아섰다. 그리하여 그는 어떤 날 새벽에 안해를 가만히 흔들어깨웠다.
《어디 잠간 다녀오겠네.》
《어디를 가셔요?》
예쁜 어머니는 선뜩함을 느꼈다. 남편의 성질을 잘 알기때문이였다.

《어디요, 말씀하고 가시오.》

그는 안해를 꾹 찔렀다.

《애들 깨겠구만.》

세인의 옆으로 가서 얼굴을 맞대보고 예쁜이를 어루만지며 한참이나 우두커니 앉았다가 벌컥 일어났다.

《혹시 이번 갔다 며칠 걸릴지 모르니까 세인이 울리지 말고 예쁜이에게도 잘 위로하여주게.》

여기까지 말한 그는 앞이 캄캄함을 느꼈다. 그러나 꾹 참고 어둠속으로 달음질쳤다.

신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예쁜이 어머니의 가슴은 터지는듯 하였다.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것만 같았다.

다음날부터 세식구는 날마다 아버지를 기다리나 날이 가고 달이 바뀌여도 점점 막연하였다.

세인이는 눈만 뜨면 아버지를 부른다.

《오마이, 오늘은 아부지 과자 사가지고, 응?》

하도 여러번 거짓말을 하다나니 입이 썼다. 그러나 세인의 안타까와하는 꼴을 보고는 번번이 《그래.》 하였다.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였다.

나중에는 세인이도 곧이듣지 않고 덮어놓고 어머니 손목을 잡아끌고나섰다.

《아부지한테 가자! 아부지한테.》

어머니는 모든것을 단념하고 다음날 세인의 손목을 잡고나섰다.

《야, 난 가겠다.》

예쁜이는 부엌으로부터 나왔다.

《어디?》

《견디겠니? 야때문에.》

모녀의 눈에서는 약조나 한듯이 일거에 눈물이 핑 돌았다.

《오마이, 나도 가!》

따라나선다.

《너까지 그러지 말아. 하도 조르니 바람이라도 쏘이랴고 촌으로 슬슬 돌아다니다가 올테다. 어서 어린것 데리고 집이나 잘 보아라.》

등에 업힌 애를 들여다본다.

《엄마, 엄마!》

《오, 다녀오마. 아가.》
이렇게 이르고나서 령감이 떠난 길로 정처없이 나섰다.
예쁜이는 하는수없이 신작로까지 따라나섰다.
《그럼 이내 와, 오마이 안 오면 나도 곧 갈테야.》
머리를 푹 숙이고 울었다.
《오냐.》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무밑둥같은 딸 하나를 남겨놓고 다시 오게 될지말지한 길을 떠나는 어머니의 가슴은 무엇이라 형용할수 없었다.
어머니와 세인은 산모퉁이를 돌아갔다. 그는 펄썩 주저앉아 어린애를 집어 동댕이쳤다.
《이년의 계집애! 네 애비때문에 우리 어머니, 동생은 떠나누나. 죽어라!》
어린애는 《악.》 하고 어머니에게로 달려들었다.
한참 성풀이를 하고나니 도리여 후회가 났다. (어린것이 무슨 죄가 있나. 내 팔자 사나와 그렇지.)
이렇게 위로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떠난지 며칠, 몇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이러한 풍문이 돌았다. 예쁜 아버지가 춘식이를 죽이려다 못 죽이고 도리여 잡혀서 몇달후에 애통이 터져 죽었다는것, 어머니와 세인이도 이 소식을 듣고 한강에서 자살했다는것이였다.
예쁜이는 그만 실신상태에 빠졌다. 먹을것 없고 입을것 없는데다 하늘같이 믿고 바라던 어머니, 세인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희망조차 물거품이 되고만것이였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입에 대였다. 그리고 난봉가를 불렀다.
냄새를 맡은 사내놈들은 수개처럼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달려들었다.
《여보세요, 이리 와 앉으세요.》
처음 보는 사내에게도 탁탁 매여달려 손을 잡아끌었다.
《술, 술을 사주어요. 술 아니면 난 못살아요.》
그의 눈은 가느다랗게 되는것이였다.
그는 사내를 얻게 되였다. 그통에 몇놈이 저마다 주먹담판을 하는 바람에 게딱지같은 집이 몇번이나 무너질번 하였다. 그러나 그중 힘

센 매질군으로 호난 김명구가 이기고말았다.

어머니를 빼앗긴 이제 네살된 어린 아기는 웃방구석에서 해종일 혼자서 놀다가는 안타깝게 어머니가 그리워서 새문사이로 고개를 갸웃하고 엄마를 찾았다.

《엄마!》

어머니는 사내놈의 무릎에 올라앉아 갖은 아양을 다 피우다가

《이 계집애, 가만 있어라.》

소리를 냅다 치는 바람에 어린애는 눈을 꼭 감고 숨어버리고말았다.

예쁜이가 사내 얻으면서부터 아기는 웃목 구석에서 혼자 자게 하였다. 밤중에 한번씩이라도 깨보면 고양이 나드는 웃방이 무서웠다. 그리하여 눈을 꼭 감고 이불을 치덮을수록 여전히 무서워졌다. 그러다 혹시 오줌이 마려우면

《엄마!》

가만히 불렀다. 이마끝에 땀이 쭉 흐른다. 대답을 기다리던 그는 차마 또 다시는 불러보지 못하고 자리에 그냥 싸버리고만다. 아침이 되면 예쁜이는 아기를 차고 던지고 하며 때렸다.

《다시 또 오줌 싸겠니?》

망치를 둘러메면

《안 그래. …》

조그만 손을 눈에 꼭 붙였다.

끼니때가 되면 사내는 빈번히 아기를 미워하였다.

《밥을 작작 처먹어야지.》

그 커다란 눈을 흘깃흘깃하였다. 예쁜이는 자기가 욕하고 때릴 때에는 모르다가도 사내가 무어라면 화가 바짝 치밀었다.

《여보, 먹는건 죄 아니랍데다. 밥 먹는것까지 그렇게 밉소?》

밥숟갈을 뎅그렁 내치고 새침하여졌다. 사내는 눈을 부라리며

《그래 밉다. 꼴 못 보겠다. 모두 나가.》

발길로 예쁜이를 내밀쳤다. 예쁜이는 얼굴이 빨갛게 되여 사내놈을 노려보고있었다.

이 꼴을 본 아기는 나푼 술을 놓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 뽕나무옆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지나가고 오던 사람들은 어린것이 하도 괴망스럽게 무엇을 생각하는듯 한것이 귀엽고도 불쌍하였다.

《아가, 엄마가 무어라든?》

손을 잡고 들여다보면 잠자코 머리를 흔들어보였다.

《그럼 아빠가?》

뒤를 돌아보며 가만히 있었다. 그들은 아기를 덥석 안고 자기 집으로 갔다.

한참후에 예쁜이는 아기를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그리하여 사내의 골을 풀어주려고

《아가, 아빠라고 해보아라.》

하며 웃으면서 아기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눈이 동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아빠다! 그래야 과자도 사오고 명절빔도 해준다.》

예쁜이는 성이 와락 났다.

《아빠라고 불러봐!》

아기는 눈을 꽉 감았다.

《아니야, 아빠는 없어. …》

사내는 골이 한층더 났다. 예쁜이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나가라, 이 계집애. 너같은것 길러서 소용없다.》

사내 할 말을 미리 앞질러서 그의 입을 막으려는것이였다. 사내는 《흥.》 하고 머리를 외로 꼰다. 예쁜이는 아기를 내밀쳤다.

《나가라, 이 계집애!》

그는 문턱을 꽉 잡았다.

《아빠!》

소리없이 눈물이 샘솟듯 하였다.

《아비라는 소리 듣기 힘들다.》

씩 돌아앉았다. 예쁜이는 웃으며 변명하였다.

《아직 철없으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사내와 딸사이로 다리를 놓다가, 놓다가도 결국은 명구와 예쁜이는 갈라지고야말았다.

예쁜이는 밥 먹을 턱은 없고 하여 하는수없이 읍으로부터 몇고개 넘어가 무초리라는 곳에서 술장사를 시작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아기는 열살이 되였다. 지금은 제법 물길어 밥을 곧잘 하였다. 그리하여 예쁜이는 술상이나 차리는 외에 량끼니때는 내다보지도 않았다.

인물 고운 새 술장수 났다더라 소문이 나니 어디놈이 다 안불려오는지 몰랐다. 그리하여 밤낮으로 장구소리 그칠 사이가 없고 싸움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예쁜이는 술만 취하면 둘러앉은 사내놈들에게 혓욕질을 대고 퍼부으며 보기 싫게 입을 벌리고 우는것이였다. 그리고는 휘몰이장단을 쳐서 사내놈들을 쫓아버린 후 앞마당 풀에 털썩 주저앉아 고함을 치며 울었다. 옛날 둘째를 생각하였던것이다.

딸은 어머니 팔을 부여잡았다.

《오마니, 들어가자우. 남들 욕해.》

그는 목에 피대줄을 올리였다.

《욕하면 어떠냐. 개같은 놈들, 내가 저의 덕에 산다드냐!》

한참이나 악설을 퍼붓다가는 금시로 아리랑타령을 스러져가는듯이 눈물섞어 부르는것이였다.

아침마다 아기는 어뜩새벽에 일어나서 조그만 동이를 이고 물길러 갔다. 웃집 봉준 어머니는 마당을 쓸다가 어린것이 매일 아침 다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키워서 자세히 보았다.

《아가, 춥지 않니?》

《아니요.》

쳐다보는 그 눈은 별같이 빛났다.

《어마이 무얼 하니?》

《술취해서 자고있어요.》

《응.》

머리를 끄덕이였다.

《네가 밥하니?》

《네.》

《용쿠나. 애기 어서 가 밥해라. 그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오너라.》

《네.》

돌아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의 뒤맵시를 한없이 바라보던 그가 즉각적으로 범상한 애가 아닌것을 알았다. 그리고 탐스러운 생각이 났다. 자기는 아들이 있으면서도 항상 알찌근한 마음이 한편에 있었던 것이다.

동네에서는 그 부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 다만 소년과부로 유복자를 데리고 유족한 생활속에서 남부럽지 않게 산다

는 그것뿐이였다. 따라서 한날 부인으로서도 남자 못지 않은 수단이 있는 녀자라는 밑에 맹목적으로 그를 존경하고있었다.

그 부인의 과거를 잠간 얘기하고 지나가자.

이 부인의 기억에 아직 새롭게 남아있는것은 자기는 사생아라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의 손을 빌어 평양고아원에서 일곱살까지 자란 후에 어떤 사람의 손을 거쳐 기생학교에 들어가게 된것이다.

이리하여 기생학교를 졸업한 그는 나날이 소문이 높아져서 17～18살에 평양의 유명한 예기 산호주라면 누구나 모를 사람이 없게 되였던것이였다.

나면서부터 별난스러운 그는 쓰라린 현실속에서 다소 침착하여졌으나 그러나 여전히 좀 남아있었다. 그리하여 누구나 그를 초면으로 대하게 되면 다소 환멸을 느끼고 말 한마디라도 헛놓고 하다가는 번번이 코방을 맞고나서 며칠, 몇달을 지내는 사이에 그의 엄연한 인격에 여지없이 굴복이 되고마는것이였다.

부호 자제들이 날마다 그의 무릎앞에 꿇어 돈으로나 기타 무엇으로든지 그의 마음을 사보려고 갖은 아양을 다 피우나 넘어갈듯넘어갈듯하면서도 아주 넘어가지 않는 그만큼 그의 이름은 나날이 올라갔던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성격을 가진 그는 항상 혼자 있기를 좋아하였다. 그때에 자기의 본성이 발로되는것이였다. 두눈을 가만히 뜨고 끝없이 무엇을 생각하는 그는 평상시와는 딴판인것을 엿볼수 있었다. 어느때나 위급한 때를 당하게 되면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모든것을 후회없이 결정하는것이였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든지 무심히 듣고보는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모든것을 자기에게 대조해보고 끝없이 자기의 처지를 불만히 생각하였다. 따라서 자기의 장래라는것은 눈물나리만큼 불쌍하게 보였던것이다.

(어쩌면 나도 남과 같이 남편을 얻어 아들딸 낳고 재미있게 살아볼가. 에라! 생각하면 무엇하리. 나같은 년에게.)

나이가 한두살 많아갈수록 그의 가슴은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찼던것이다. 하지만 그의 앞길은 갈수록 험산이였다.

그에게는 돈, 그것이 악마같이 생각키웠다. 그리고 알뜰한 인정, 그

것이 안타깝게 그리웠던것이다. 세상에는 사내가 많고많건마는 이 년에게는 사내 하나가 태이지 않았담! 이렇게 탄식하고 남몰래 우는 적이 많았다.
그가 스물한살 잡히던 때, 우연한 기회에 어떤 보기에도 초라한 고학생을 만나게 되였다. 그후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남몰래 그의 하숙으로 자주 방문하게 되였던것이다.
어떤 여름밤 비는 느실느실 오기 시작하였다. 졸이는 가슴으로 손님들을 억지로 쫓다싶이 하고보니 새로 두시반이였다. 그가 분주히 옷을 갈아입고 미리 약조한 곳으로 가보니 그는 기다리고있었다. 그때에 그는 감격의 치밀리는 기쁨이 진하여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기가 힘들었다.
《입때 기다리셨소?》
그를 만나면 어쩐지 수줍어지는것이였다. 그리고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앞으로 슬금슬금 걸었다.
《그러믄요.》
침묵속에 그들은 걸었다. 이따금 번개질을 하였다. 잔잔히 흐르는 물소리는 차츰차츰 가까이 들렸다.
《공부도 그만둘테야요.》
그는 놀라 어둠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묻는 사이에 돈때문에 혹은 나때문일가 하는 의문이 일어났다.
《공부도 아무것도 귀치 않으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숨김없이 저에게 말씀해주십시오, 네?》
《별한 사정도 없이 그저 모두가 귀치 않고 당신…》
그는 여기까지 끊고는 잠잠하였다. 듣던 그는 반가우면서도 한켠으로 겁이 났다.
《강수씨, 당신은 그러한 번민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송할 때가 아닙니다. 만일 당신께서 이사람으로 인하야 공부도 치워버린다면 단연코 당신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을 깊이깊이 알아주시지요. 그리고 앞으로 부족하나마 당신의 학비까지도 저의 힘 미치는데까지는…》

머리를 숙였다. 한참이나 말없이 걷던 그는
《고맙습니다.》
겨우 이렇게 대답을 하고 부끄럼을 느꼈다. 그리고 그의 고상한 말에 감복되였다.
그들은 송림사이로 들어섰다. 강수는 어떤 소나무아래 앉으며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자기 양복 웃저고리를 벗었다. 그는 분주히 도로 입히였다.
《모두 낡은 옷입니다. 새옷이라면… 이까짓 옷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강수옆에 그저 걸터앉았다.
별안간 강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는 잠잠히 그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었다. 번개불이 번쩍했다.

이리하여 돌이라도 녹일듯 한 사랑이 계속될수록 반면에 산호주의 격렬한 후원은 강수의 용맹스러운 힘이 되고야말았다. 무사히 중학을 마치고 일본까지 건너가게 되였다.
애인을 보낸 산호주는 사내놈들의 단련을 받다못해 어떤 때는 매까지 맞는 때가 종종했지만 모든 모욕이 남편을 위해 하거니 하여 스스로 위로받으며 오히려 그들을 골려서 한푼이라도 빼앗을 궁냥만 하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다. 어느덧 형설(부지런하고 꾸준히 학습함을 이르는 말.)의 공을 쌓아가지고 그리운 고향으로 나온 강수는 평양 모 중등학교 교편을 잡게 되였다.
중화로부터 그의 부모들이 아들의 뒤를 따라 평양성내에 들어오자마자 아들의 혼사담은 바짝 일게 되였다.
하여 산호주에게는 말 한마디 전함없이 그곳 사립 모 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깨끗한 녀학생과 드디여 약혼되여서 문밖 례배당내에서 목사의 주례하에 성대한 결혼식은 끝나고말았다.
바로 결혼식을 열흘 앞두고 산호주를 찾아온 강수는 아무러한 눈치도 그에게 보이지 않고 간 후 발길을 뚝 끊고말았다.
소문을 들은 산호주는 새삼스럽게 놀라지는 않으면서도 자기의 기대가 너무도 컸던것을 얼핏 깨달았다. 《세상은 그런것이다!》 이 한

마디로 오륙년간 받은 자기의 상처를 눌러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용이히 메워지지 않는 그 상처는 마침내 그로 하여금 벙어리라는 별명까지 듣게 하였다.

그는 손님맞기를 싫어하고 불러도 가기를 싫어했다. 그저 방안에 우두커니 앉아서 끝없는 침묵속에 별 신기맹통한 공상도 못하면서 꽁하니 앉아있었다.

어떤 날 그는 모란봉우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쐬였다. 잔잔히 흐르는 대동강물, 다정히 모여앉은 릉라도 수풀도 별한 아름다움과 흥미를 그에게 주지 못하였다. 그저 그렇다 할뿐이였다. 그는 자기스스로도 이상히 생각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실련의 쓴맛인가? 무엇때문에 내가 이럴가? 강수때문에? 딱히 강수때문인것 같지 않았다. 어쩐지 자기 가슴속에 열이란 하나도 없어지고 차디찬 송장같이 생각되였다. 그러면 세상을 버릴가 하는 최후까지 마음 키워보았으나 그다지 염증나게 세상이 싫지도 않았다. 그저 그만그만하였다.

몇사람의 지나치는 신발소리도 들었으나 돌아보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 그는 발길을 돌렸다.

그의 앞에 딱 막아선 사람이 있었다. 얼른 쳐다보니 강수였다. 한참동안 강수를 쏘아본 그는 천천히 발길을 옮겼다.

《산호주, 잠간만 기다리오.》

그는 우뚝 섰다. 빨갛게 상기된 그의 얼굴은 느긋느긋함이 돌았다. 산호주는 머리를 돌렸다. 강수는 바싹 다가섰다.

《한번 집까지 가려는중에 잘 만났습니다.》

《네.》

그는 머리를 끄덕이며 주춤 물러났다. 씨근씨근하는 그의 숨소리가 불쾌했던것이다.

《용서하여주시겠소? 물론 령리한 당신인것만큼 이번일에 대하여는 관서(용서)할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네? 용서하시지요?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리 맨들었소마는 그러나 당신만은 내가 잊을수가 있소?》

우두커니 서서 듣고있던 그는 말하였다.

《그래요?》

《용서하시지요. 나는 믿습니다.》

《더 할말 없지요?》

그는 다시 돌아섰다. 그리하여 천천히 내려왔다. 멍하니 바라보던

강수는 빽 소리질렀다.
《산호주!》
그는 돌아보았다.
《전과 같이 나를 사랑하겠소? 안하겠소?》
사랑이란 말을 들을 때 그는 웃음이 콱 쓸어나왔다. 그는 입을 틀어막고 한참이나 진토록 웃었다. 강수는 몸이 바싹 달았다.
《그새 다른 놈 붙인것이로구나!》 하고 노려보았다. 웃는것이 무엇보다도 불쾌했던것이다.
산호주는 쓸쓸한 코웃음을 던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후 몇번이나 지나치는 길가에서, 혹은 료리집에 불리워가서 강수를 만나게 되였다. 여전히 인사를 건네는것뿐 아무 다른 눈치를 볼수가 없었다.
그럴수록 강수는 행여나 하여 그의 뒤꽁무니를 따라본 때도 있으며 오밤중에 산호주 자는 방문을 두드린적이 많았다.
몇달이 지나자 산호주는 자기가 홀몸이 아닌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달밝은 밤, 소리도 인적도 없이 진절머리나는 평양을 벗어나 이곳으로 오게 되였던것이다.
우선 얌전한 집을 사고 논밭 합하여 십여마지기를 샀다. 그리고 대강한 세간살이를 마련하여 재미를 알아볼만 한 때 해산을 하게 되였다.
그가 원하던대로 아들을 낳게 되였다. 그는 처음으로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되였다.
어린것을 안고 들여다볼수록 신기맹롱스러웠다.
따라서 차츰차츰 차디차던 그의 가슴은 따스한 모성애로부터 녹아갔다.
어린 봉준이는 매일 달라갔다. 몇달이 지나자 젖살이 포동포동 오르고 꽃송이같은 입을 벌려
《엄마, 엄마.》
하였다. 빼빼 말라붙었던 그의 눈에서 감격에 넘치는 눈물이 그의 볼을 적시게 되였던것이다.
봉준이가 자라날수록 그의 희망은 커졌다. 하여 일감을 만들어가며 잠시도 놀지 않고 살림살이를 아글타글 해나갔다.
일군을 데리고 밭 몇마지기를 손수 부쳤다. 그리하여 여름에는 농

사뒤치기에 눈코뜰짬이 없이 바쁘게 지냈다.

《엄마.》 하는 소리만 들으면 어려운줄을 모르고 악하고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동네에서도 이 부인을 흠모치 않는 사람이 없었다. 비록 농사하는 집일망정 깨끗하여 먼지있는것을 볼수 없으며 심지어 뜰앞 구석에 박혀있는 돌 한개라도 사람의 발부리에 채이지 않도록 자리를 잡아놓는 일이며, 항상 손부리에서 노는 호미, 괭이, 걸레, 비, 화로, 성냥갑, 바느실, 그릇함질러 잃어버리지 않도록, 급한 때 얼른 찾도록 교묘히 정돈해두는것이였다. 그리고 성냥 한개비를 무단히 없애지 않고 실 한바람을 유효하게 썼다. 하여 점점 늘어가는 그의 가세는 매해 달라갔다.

그러는 사이에 봉준의 나이 일곱살이 되였다.

그는 분주히 그곳 예수교학교에 아들을 입학시켰다.

그후부터는 아침이 되면 봉준이가 책보를 들고 학교로 달아나는것이였다. 그는 말없이 아들의 가는 뒤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저것을 사람을 만들어놔야 할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 어머니란 책임이 무겁고도 막연함을 깨달았다.

동네 새 술장수집이 생긴 후로 잠잠하던 촌동네가 뒤숭숭하게 되였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내여쫓자는 사람으로, 덮어놓고 욕질하는 사람으로, 한동안은 그에게로 부산히 문안 겸 로친네, 젊은 부인네들이 저녁이 되면 모여들었다.

그는 언제나 말없는 웃음으로 그들을 대해주면서 밤낮으로 우는 예쁜이의 정형이 불쌍하였다.

한편 그의 앞으로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그의 어린 딸은 연중에 탐스러웠다. 무엇보다도 꼭 다문 입술, 사려깊은듯 한 그의 눈은 장래가 있다는것을 그로 하여금 상상케 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수록 예쁜이에게서 이 아이를 자기에게로 빼앗을 마음이 들었다. 자기가 예쁜이보다 어머니로서의 모든 책임리행이 낫다해서 그렇다는것보다도 영업이 영업인만큼 그 어린 천진한것에게 벌써부터 술냄새와 사내놈들의 꼴을 보이는것이 자기 경험을 미루어 가엾은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이리하여 그가 마당에 나왔다가도 처녀애만 보면 손짓을 하여 손목을 꼭 잡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가서 밥이든지 무엇이든지 먹여보내군

하였다.
처녀애는 눈만 뜨면 봉준 어머니가 보고싶었다.
언제나 고요히 웃는 눈, 항상 쓰다듬어주는 그의 흰 손 그리고 가늘고도 부드러운 그의 음성이였다. 더구나 봉준의 고운 옷감을 끊어다 손수 만드는것이 무엇보다도 처녀애의 눈에 띄였던것이다.
그는 가만히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보았다. 구석구석에 때묻은 옷을 내버려두는것 그리고 술이나 마시고, 해종일 마시고는 사내놈들의 무릎과 무릎사이로 옮아다니는 꼴이였다. 그는 울고싶었다. 아니, 남몰래 우는적이 많았다. 그는 쓰라린 현실로부터 그의 리지는 엉뚱하게 발달되였던것이다. 그는 틈만 있으면 봉준네 집으로 달려갔다.
《아가, 밥 먹었니?》
《네.》
《더 먹지?》
《싫어요.》
봉준이는 공부한다고 책을 벌려놓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 그는 옆구리로 다가앉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아기도 공부하고싶으니?》
그는 머리를 푹 숙였다.
《학교 가고싶어?》
봉준이 어머니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처녀애의 대답이 없음에 (아마도 아직 공부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나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의 눈물이 봉준이 어머니 손에 떨어졌다. 봉준 어머니는 놀라 그를 들여다보았다.
《어째 우니?》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한테 꾸지람 들었니?》
봉준 어머니는 너무 안타까와 그의 목을 얼싸안고 들여다보았다. 봉준이도 멀거니 바라보았다.
《아가, 말해라. 응?》
《학교 가고싶어…》
울음섞어 말하였다. 순간에 봉준 어머니의 가슴은 쾅 하고 내려앉음을 느꼈다.

《오냐, 너도 물론 배우고싶을테지. 내가 어리석게 네 마음을 몰랐구나.》

그의 눈에도 눈물이 괴였다.

(그렇게 알뜰한것을 공부를 못시켜주나. 배우지 못함에 그 어린 가슴이 얼마나 안타까왔으랴.) 이렇게 생각하였다.

《아가, 래일부터 학교 가라, 어머니보고 물어보고. 학비는 내가 물어주마, 응?》

그는 금시로 눈물 괸 눈에 웃음이 돌았다.

《어머니가 못 가게 하면…》

애처롭게 그를 쳐다보았다.

《오냐, 내 말하마.》

그후부터 처녀애는 봉준의 집으로 아주 옮아오고 예쁜이는 사내놈을 달고 멀리 뛰여버렸다.

봉준 어머니는 처녀애의 이름을 옥이라고 지었다.

십여살이나 먹도록 이름없는 한낱 생명이였던것이다.

봉준 어머니는 옥이를 데려다놓고 가지각색옷을 맵시있게 해서는 입히군 하였다.

따라서 옥이도 나간 어머님 생각은 아주 잊어버리고말았다. 그러나 이따금 봉준이가 툭 부러지게 《가아, 너의 엄마한테로 가야.》

이런 소리를 듣고나면 어린 가슴이 찌르르 울리는것이였다. 봉준 어머니는

《봉준아, 나는 너의 엄마는 아니고 옥이 엄마다! 내가 나가라?》 하고 웃지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았다.

《아니야, 엄마.》

그에게로 와서 안기려면 물리치였다.

《또다시 그런 말 할테냐?》

봉준이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며 잠잠하였다.

《안 그러지, 봉준아, 옥이도 이리 온.》

두 아이를 무릎우에 올려놓고 옛말 영웅이야기 같은것이나 짤막한 동화 같은것을 하여 들리군 하였다.

옥이가 열네살 잡히고 봉준이 열한살 나던 해 가을, 그의 어머니는 감기에 걸려 십여일 끙끙이 앓은 결과로 아주 세상을 떠나게 되였다. 그는 마지막까지 봉준과 옥이 손을 붙잡고 차마 눈을 감지 못한채 가

고말았던것이다.
피가 흐르는듯 한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으로 무거운 짐을 한 어깨에 짊어진 영철선생은 그 둘이 아플세라, 혹은 공부를 잘못할세라 안팎으로 마음을 졸여갔으며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들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언을 따라 옥이 스무살잡히던 해에 그곳 례배당에서 그들의 혼례식이 있었다.
시어머님의 본을 따라 옥이는 세간살림을 나무랄 여지가 없이 잘하였다. 남편인 봉준이는 곧 평양으로 공부보내고 혼자서 농사뒤를 쳐가며 남편의 학비를 보냈다. 이리하여 동네에서는 입 든 이마다 《나어린것이 용해.》 이렇게 일컬음을 듣군 하였다.
봉준이가 평양서 공부를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자 영철선생의 권으로 옥이는 읍으로 이사를 하게 되였다. 무엇보다도 송화읍내에 예수교안으로 경영하는 청년학원에 그를 입학시키고자 함이였다.
그는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공부에 재미를 붙여 밤잠을 못 자고서라도 남에게 떨어지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학교 선생들까지 옥이를 사랑하고 학생들한테까지 질투심을 받게 되였다.

3. 남편

남편이 동경으로 간 후부터는 행동이 수상쩍은 일이 한둘이 아니였으나 이러한 편지를 하기 전까지는 차마 그에게 대하여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역시 편지가 온 후에라도 제가 셈이 없어 그러거니, 철만 들면 어머니를 생각하기로서니 설마 그렇게까지 하랴, 이러한 위로로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혔다.
하나 며칠에 한번씩 온다는 편지는 돈 보내라는것 외에는 어서 리혼하고 당신도 다른 남편 얻어가라는 충고비슷한 형식을 취하여 협박을 하는것이였다.
여기에서 좋게만 해석하던 옥이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하여 그 잘하던 공부도 차츰차츰 뒤로 물러감에 따라 밤이면 꼬박 일어나 앉아 새우는 밤이 점증(점점 증가함)하였다. 자기를 생각하여서 그러는것보다도 나어린 남편의 장래를 위하여 어쩌면 그로 하여금 편하게 마음대로 해주는 동시에 일생을 행복스럽게 만들어줄가, 자기의 신

세를 망쳐버리게 된다더라도 남편에게 행복함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감행할것 같았다.

옥이는 바느질그릇을 앞으로 당겨놓고 일감을 들었다. 그러나 바늘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움직일뿐이고 벌써 왔어야 할 남편이 아직 아무런 기별없이 잠잠하니 기막힐노릇이였다. 하여 혹은 중로에서 무슨 남다른 일이나 만나지 않았나, 또는 동무집에 중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뒤숭숭하여졌다.

바라보니 조그만 거미 한마리가 옥이앞으로 조르르 내려와서 바느질그릇우에 떨어지더니 다시 줄을 거두어가지고 천정으로 올라간다. 그는 물끄러미 쳐다보며 (거미가 내려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일어났다.

뜰앞 뽀뿌라나무가지우에서는 매미소리가 요란스럽게 난다. 옥이는 가만히 가만히 밖으로 나가서 나무가지를 살펴보았다. 매미는 푸르릉하고 날아갔다. 숨이 답답하도록 해빛이 내리눌렀다.

옥이는 골방문앞으로 왔다.

《나무 또 하러 가겠나?》

《가기요.》

기성이는 일어났다.

《그만두게. 그리고 차부에 나가보게.》

《오늘은 꼭 오시나요?》

매일같이 냄새나는 차부에 우두커니 나가섰기가 열적었던것이다.

《글쎄, 나가보게나. 늘 나가다가 오늘따라없이 안 나가는 날 마침 오늘 오신다면 여직 나가던 보람이 없어지지 않나?》

그는 마지못하여 옷을 툭툭 털고 어정어정 걸어나갔다. 그리 댐치 않은 꼴이였다.

《어서 빨리 가보게!》

소리치고나서 안방으로 들어왔다.

밖으로부터 기성이가 가방을 들고 뛰여들어온다. 순간에 그의 가슴은 쿵 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도 확실히 들렸다.

《주인님 오십니다.》

기성이는 아까와는 딴판으로 엉덩춤을 추며 지게를 얹어가지고 밖으로 나간다.

그는 몸둘곳을 알지 못하여 두루두루 보다가 부엌으로 나왔다.

어쩐지 가슴이 둘렁둘렁하기 시작하였다.
(행여나 오늘 온다면 어쩔가. 어쩌기는 무엇을 어째?)
이렇게 생각하며 픽 웃었다. 그러나 여전히 뒤숭숭하였다. 그의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똑딱똑딱 시계를 따라 점점 가슴이 답답해질뿐이였다. 그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쉰 후 가만히 일어났다.
구두소리가 나자 남편이 들어왔다. 성큼 올라서서 방안을 들여다보며 소리친다.
《옥씨, 어디 가셨소?》
부엌뒤문에 비켜선 옥이는 두눈이 캄캄해지며 땅속으로라도 풍당 들어가면 좋을것 같았다. 이때처럼 자신이 무겁고 귀찮을 때는 처음이였다.
기성은 지고온 고리짝을 내려놓고 땀을 씻으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점심 어떻게 하나요?》
옥이는 머리를 돌렸다.
《한그릇 시켜 오게.》
말소리가 들리자 봉준은 부엌새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옥씨, 안녕하시댔소?》
그의 얼굴은 아주 담홍빛으로 되였다. 기성이는 옥이를 한번 더 쳐다보고는 빙긋이 웃고 밖으로 나갔다.
《어서 이리 들어와요. 왜 그러고만 있소? 반갑지 않아요?》
묻는 말에는 그리 탐탁히 굴지 않던 사람이 이번에는 아주 딴판이였다. 그럴수록 옥이의 가슴은 점점 더 의문으로 꽉 채워졌다.
국수그릇이 들어오자 상을 차려 기성이를 주었다. 그는 받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남편이 나왔다.
《여보 옥씨, 들어와요.》
옥의 등을 밀었다. 그는 안타깝게 얼굴이 확확 달았다.
《어서 들어가세요.》
그는 벙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는수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상을 들어 옥의 앞에 갖다놓았다.
《기성이, 공기 들여오게. 빈 그릇이라야 잘 알아듣겠군. 여보게,

빈 그릇 들여다주게.》
빈 그릇을 받아놓고 국수를 덜어 자기앞에 놓았다.
《갈이 먹읍세다, 우리.》
저를 들어주었다.
《금방금방 먹었어요.》
《먹기는 나도 먹었소. 하, 권할 때 못 이기는것처럼 하고 들구려.》
옥이는 그가 하는대로 내버려두었다. 입은 쨰쨰 썼다. 남편은 얼른 먹고 저를 놓았다.
《잘 먹었습니다, 옥씨.》
그도 따라 저를 놓았다.
《요새 방학했지요. 당신네 학교에서도!》
《네.》
《공부 재미나요?》
《그렇지요 뭐.》
《김선생님 늘 오셨소?》
《네.》
남편은 벌컥 일어나서 양복을 훌훌 벗었다.
《기성이, 고리 끌르게!》
그는 분주히 달려가서 고리짝을 벗기고 가로세로 줄진 하오리(덧옷)를 내여 입었다.
멍하니 바라보던 옥이는 (저것은 또 무엔고.) 하였다.
그러나 어쨌든 남편이 하는것은 다 좋아보였다.
남편은 꺾두기(나막신)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다.
《여보게 기성이, 자네 다락 지을줄 아나?》
그는 이상하다는듯이 주인을 자세히 훑어보았다.
《글쎄요. 지으면 짓겠지요.》
《그렇지. 자네쯤 해서 다락 못 짓겠나?》
그는 벙글벙글 웃으며 뽀뿌라나무아래로 왔다.
《여기다 짓게. 빨리 지어야 하네. 정, 울짱 있나?》
《좀 있지요.》
《잘되였네. 어디 있나?》
복술이는 밖으로부터 들어오자 컹컹 짖었다. 그는 복술이를 어루만졌다.

《강아지가 이렇게 컸나?》
마루에서 고리를 뒤지고있는 옥이를 쳐다보았다.
밤낮으로 쓰다듬어 기른 복술이를 어루만질 때 옥의 가슴은 오싹해짐을 느꼈다.
기성이는 울짱을 한아름 안고 뜰안모케로 나왔다. 그리하여 구뎅이를 파고 기둥 네개를 세웠다.
기성이가 땀을 씻는 동안 봉준은 괭이를 둘러메고 헛괭이질을 하였다.
《것도 못하겠네그려. 자네 용허이.》
기성이는 허허 웃었다.
이리하여 봉준은 잔심부름 번뜩케 하며 해질녁에 겨우 다락을 지어놓았다.
《수고 단단히 했네. 고맙네.》
부엌으로 뛰여들자 그는 개수물에 손을 씻었다.
《저봐요. 옥씨!》
옥이는 따라보았다.
《좋지요? 기성이는 밥 많이 주.》
기성이를 쳐다보고 빙긋이 웃었다.
그들은 어리둥절해졌다. 따라 어림상은 없어지고 떨리던 옥의 가슴도 적이 가라앉았다.
저녁을 물린 그들은 봉준의 권으로 다락우에 올라앉았다. 그는 자기 손끝에 노는 기구를 전부 다락으로 옮겼다. 그들은 멍하니 바라볼뿐이였다.
남편은 바이올린을 내여 켰다. 무슨 곡조인지는 몰라도 어쩐지 처량하게 들렸다. 그도 시원치 않은지 이번에는 하모니카를 내여 불었다. 어깨까지 들썩들썩하였다.
모든것에 능통한 남편을 쳐다보는 옥이는 속으로 (어머님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니 남모르게 눈물이 흐르는것이였다.
기성이는 두눈을 똑바로 뜨고 봉준의 몸세 놀리는대로 따라 움직였다. 하모니카도 싫증이 난 봉준은 하품을 하며 말하였다.
《자리 올려다 주우.》
이제야 기성이는 제정신이 들었던지 후닥닥 일어나 내려왔다. 뒤를 이어 옥이도 내려와서 자리를 올려주었다.

《옥씨, 편안히 주무시오. 나 위해 오늘 수고 많이 하였소.》
늦게 일어난 남편은 다락문을 열고 부시시 나왔다. 미리 떠다놓은 세면물에 세면을 하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한참후에 나오는 그의 얼굴은 한층 더 환해졌다. 그는 밥상을 마주앉았다.
《옥씨도 잡수어야지요?》
《먹었습니다.》
몇술을 뜨는듯 하더니 상을 물리였다.
《오늘 주일날이지요?》
《네.》
남편은 양복을 바꾸어 입고 연해 거울속으로 자기를 비춰보았다.
《기성이, 다락에서 솔 들여다주게.》
가져오는 솔을 받아 우에서부터 내려쓸었다. 해빛에 일어나는 먼지는 오색으로 빛났다.
《례배당에 갑시다. 당신 예수 잘 믿지요? 그래서 나 위해 기도 많이 하신댔지요?》
옥의 얼굴은 빨개졌다. 오밤중에 일어나 눈물 먹어 쓴 편지 일면이 그의 앞에 빤히 나타나는것이였다.
《그래서 나도 예수를 진실히 믿게 되였지요그려.》
빙긋 웃으며 밖으로 나갔다.
남편이 나가는 뒤꼴을 물끄러미 바라본 그는 (빠른것은 세월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재종 소리에 놀란 그는 분주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와서 부엌문을 걸고 사랑문을 들여다보며 기성이에게
《집 잘 보게.》
하고 사립문을 지치고 골목새로 빠졌다. 복술이가 뒤를 따랐다.
례배당가까이 오자 우렁차게 울려나오는 찬미소리가 들렸다. 문안을 들어서며 (참으로 남편이 왔을가?) 하는 호기심으로 남자방을 힐끔 쳐다보았다.
《왜 언니 늦게 오시우?》
옥의 손을 꼭 잡아 제결에 끌어앉히는 학생을 바라보니 상애였다. 따라 학생들은 눈으로 옥에게 인사를 건네였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상애는
《숙희라는 녀자 왔어.》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어디?》
그의 가슴은 호기심에 들떴다.
《언니 뒤 네사람 건너서.》
이번엔 입을 막고 말하였다.
그는 조심히 돌아보았다. 트레머리 한 얌전한 처녀들이 가지런히 앉았다. 순간에 그는 일종의 질투 비슷한 감정이 떠올랐다.
《어때?》
《곱구나.》
《곱기는 무어 고와? 그렇게 치장해서 안 고울 년이 어디 있담. 정, 신랑도 왔겠시다래?》
《응.》
《반가와?》
《그렇지.》
그는 의미있는 웃음을 웃고나서 찬송가를 불렀다.
례배 다 마치기까지 옥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리고 남편과 숙희가 번갈아 떠올랐다. 따라 점점 자신은 아무것으로도 생각되지 않았다.
(그들은 많이 알고 쓰기도 잘할터이지. 나도 배우면 되겠지.)
이리하여 겨우 가라앉히는 사이에 벌써 례배는 끝났다.
욱욱 밀려나가는 사람들틈에 섞여 두 녀자의 가는 뒤맵시를 바라보았다. 날씬한 허리, 알맞는 키와 새노란 구두, 하얀 팔뚝속으로 비치는 손시계.
등을 툭 치며 돌아보니 기순이였다.
《언니, 남편도 왔구려.》
저켠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두 녀자의 가는 뒤맵시만을 눈이 뚫어지도록 바라보는것이였다. 순간에 그의 얼굴은 화끈 달았다. (그렇겠지!)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남편이 어째서 이곳까지 오게 된것을 잘 알게 되였다. 따라 그의 전신의 맥은 탁 풀리고 앞이 캄캄하였다.
《언니, 오후에 또 오지.》
《글쎄.》
이렇게 맥없이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벌써 복술이는 앞장섰다.
(나에게는 복술이밖에 없다.) 하고 눈물이 쑥 삐여졌다.

《얼마나 기쁘나?》
남편과 영철선생이 마주앉았다.
《방학하고 곧 내려오지 무엇하기 여직껏 있었담. 옥이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네.》
빙긋이 웃어보였다.
《글쎄올시다. 동무집에서 붙잡아서…》
옥이는 웃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은 후 부엌으로 나갔다.
《자네 이번 학비는 전보담 많이 썼지. 될수 있는데까지는 절약해 쓰게.》
돈이야기를 꺼내면 언제나 그는 듣기 싫었다.
《조선과 달라서…》
《음, 그런줄은 잘 아네마는… 내장골 논을 또 팔아야겠네.》
《팔지요.》
선생을 쳐다보았다.
《지금 곧 팔게 하지요.》
철없이 덤벙대는 봉준이를 물끄러미 바라본 선생은 난처하게 생각되였다.
《아무때나 팔겠나. 래일모레 벼를 비게 되였는데… 늦은 가을쯤 가서 내여놓겠네. 아껴쓰도록 하게.》
봉준이는 벌컥 일어나 왔다갔다 하며 마루로 나왔다. 그의 발밑은 산뜻한 쾌감을 느끼였다.
《무얼 하시우?》
옥의 이마끝에는 땀이 방울방울 맺히고 불빛에 두볼이 빨개졌다. 첫눈에 (과연 미인이다.) 하고 봉준은 속으로 중얼대였다.
옥은 땀을 씻으며 말했다.
《점심 하지요.》
《여보, 그만두. 더운데 시원하게 국수나 사다 먹고 말지. 어서 들어오우.》
점심을 먹은 봉준은 방안에 앉았기가 어째서 불쾌하였다. 그는 모자를 들고 일어났다.
《참, 지독히 덥군.》
이렇게 혼자말로 중얼거린 후
《저는 놀러 나갑니다.》

하고 나가버렸다.
《이번은 좀 나아진것 같으네. 자네께 구는것이.》
옥이는 잠잠히 머리를 숙였다.
《그렇지 않나? 말하는것이나…》
숙인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두볼은 붉어지는것으로 대할뿐이였다.
《논은 팔기로 되였네. 봉준이까지 팔라니까.》
《네? 팔라고 합데까?》
감추었던 설음이 왁 쓸어나왔다. 선생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돈을 들이면 돈이 나오겠지. 그렇지 않나? 어쨌든 하던 공부는 마쳐야겠으니까…》
언질을 못 얻어 잔뜩 들이켰던 눈물은 좍 쏟아졌다. 선생도 마음이 언짢아졌다. 한참이나 묵묵히 앉았던 그는 말을 떼였다.
《우는것으로 일 치우겠나? 그런데 봉준의 말을 들으니 오는 봄에는 자네도 서울로 다리고 가겠다대.》
그의 귀는 번쩍 띄였다.
《내 생각에는 그것만은 잘 생각했다고 하였네. 이곳에 박혀 앉아있다가는 결국은 자네만 속을 일일세.》
옥이도 그렇다고 생각되였다. 따라서 그가 어떻게 자기까지 공부시킬 마음을 먹었을가? 여기에서 실낱같은 희망이 붙었다. 그러나 점점 패하여 들어갈 자기네 가세형편이 무엇보다도 캄캄하여졌다.
《하나 공부하기도 어려운 판에 저까지 올라가면 아주 못살게 되게요.》
《하여간 가는데까지 가보세구만. 몇해후에 제가 졸업을 할터이니 그때에는 무슨 수가 나겠지.》
선생도 이렇게 쓸어치고말았으나 역시 걱정 아닌것은 아니였다. 그렇다고 옥이를 이곳에서 살림살이나 맡아가지고 엄벙덤벙 지나가다 공부 없다고 차던지든지 하면 그 역시 난처한 일이였다. 그러므로 우선 둘을 다 내세워가지고 공부를 시킨 후 나중문제는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더라도 우선은 옥이로 하여금 여한이나 없게 하자는것이였다.
선생은 일어섰다.
《자네의 한번 생각에 달린것일세. 몇달동안 꾸준히 생각해두게.》
그도 따라 문밖까지 나왔다. 높았다 낮아지는 잠자리 나는소리가 은은히 들렸다.

밤이 되면 옥이는 한잠도 못 잤다. 전에는 남편이 오면 낫겠거니 하고 기다렸더니 남편이 막상 오고보니 말 못할 새 설음이 한가닥 더해졌다.
남편 역시 번민하는 모양이였다. 낮이나 밤이나 오래오래 쏘다니다가는 얼근히 취하여 벼락치듯 다락으로 기여올라가서는 목을 놓고 종종 우는 때가 있었다. 그리하여 옥이는 까닭도 모르고 다락주위로 빙빙 다니다가는
《어째 우시우?》
하고 떨리는 손으로 다락문을 열었다.
그는 문을 쿡 닫았다.
《당신 참견할 일이 아니요.》
그는 부끄러움과 노여움이 일시에 폭발이 되여 가슴을 짓모는것만 같았다.
그는 몇번이나 발길을 돌렸다가도
《에라! 아직 철없어 그러는것이겠지.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고 참자!》
이렇게 중얼거리고 방안으로 뛰여들어갔다.
뒤문사이로 흐르는 차디찬 달빛은 옥의 얼굴을 한층 더 새하얗게 만들어주었다. 그는 애꿎은 뒤문을 발로 차던지고 발을 늘였다.
울바자 울짱과 울짱사이로 걸린 거미줄은 달빛에 빛났다. 길같이 들어선 감탕나무, 칡넝쿨같이 엉킨 호박줄기, 별같이 빛나는 박꽃, 이 모든것이 고요히 잠든듯 하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여나왔다. 그리하여 마루우에 털썩 주저앉았다. 방보다 훨씬 시원한 맛이 있었다.
몇시간후에 다락문이 열리자 남편이 샤쯔바람으로 기여나왔다. 그는 전신에 랭수를 끼얹는듯 한 쾌감을 느끼며 부끄러움이 앞을 콱 막아쳤다.
나막신 끄는 소리가 들렸다. 이리로 향하여 오는것만 같았다. 한참후에 또 신발소리는 났다. 뒤이어 다락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최후 용기를 다하여 바라보는 순간 남편의 흰 발목이 천천히 다락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얼결에 우뚝 일어섰다. 미친듯이 마루기둥을 얼싸안고 돌아갔다.
한참이나 정신없이 돌아가던 그는 나중에 기운이 진하여 마루바닥

에 쿵 하고 엎어졌다. 갈가리 흩어진 삼단같은 그의 머리카락속으로 빛나는 그의 흰 볼이 아담스러웠다.

잠꼬대에 낑낑하던 복술이는 쿵 소리에 놀라 툭툭 털고 일어났다.

한참후에 선뜩선뜩함을 느끼자 가만히 정신을 차려보니 복술이가 자기 얼굴을 내려핥고 치핥으며 낑낑하였다. 순간에 흰 발이 문득 떠올랐다. 그는 이를 부드득 갈고 일어났다. 그래 복술이를 껴안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았다.

달이 뽀뿌라나무가지에 비스듬히 걸려 쌜쭉쌜쭉 웃는듯 하였다.

그는 머리를 푹 숙이고 복술이를 놓아주었다. 산뜻한 바람이 그의 볼을 스치자 전신이 산뜻함을 느꼈다. 그는 일어서 방으로 들어서자 매시시하니 잠이 푹 들었다.

옥이는 며칠전에 빨래질한 남편의 샤쯔, 목달개, 넥타이, 양말들을 차곡차곡 얌전히 꿰맬것은 꿰매고 하여 고리에 개여넣었다.

《언니, 무얼하시우?》

발을 들치는 소리가 들렸다. 바라보니 기순이였다.

《올라오너라. 용히 우리 집에를 오는구나. 어서 올라와.》

《아무도 없지?》

《그래. 누가 우리 집에 있겠니?》

《그런데 다락은 언제 지었소?》

《요즘 지었다. 좋지?》

방긋이 웃었다. 기순이는 마루로 올라앉았다.

《언니, 숙제 다 했소?》

방으로 들어가자 책상밑으로 갔다.

《야, 숙제가 다 무어냐, 넌 다 했겠구나.》

《언니두… 나같은것이 벌써 숙제를 다 했으면… 정말 공부 잘한다고 하게? 언니 신랑도 쉬이 가겠구려?》

《글쎄 가겠지.》

옥이는 밖으로 나가더니 바구니를 들고 들어온다.

《어제 십전어치 산것인데 퍽 달더라.》

《이제 점심 먹고 왔어요.》

노란 참외를 들고 껍질을 벗긴다. 기순이는 혼자서 싱긋싱긋 웃었다.

《언니, 이번 숙희라는 녀자 자세히 보았지?》

옥이 주는 참외쪽을 받아든다.
《보았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선뜩하였다.
《왜?》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 들은것 있는데 말할가 말가.》
남편에 대한것임을 직감하자 간질간질하였다.
《말하렴.》
《언니, 골 안낼테야?》
《왜, 무슨 말이기 그러니?》
《그만두겠소.》
그리고 참외를 깨물었다. 옥이는 바짝 대여들었다.
《어서 하려무나. 조롱만 하고마니? 내 언제 골내는것 보았니?》
《그래두…》
그를 똑똑히 쏘아보았다. 그리고 자주자주 밖을 내다보았다.
《이따 저녁에나 온다. 마음 놓고 놀라우.》
《언니야 뭐 미리 알겠지?》
《무슨 말인지 하려무나.》
그는 음성을 낮추었다.
《숙희라는 녀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매일 편지하다싶이 한대. 그래서 이번도 동경서 오기는 벌써인데 서울서 따라다니느라고 그렇게 늦게 왔다두만.》
말끄러미 옥이를 쳐다보았다. 그의 예측한바와 비슷이 들어맞았다.
《누가 그러던?》
《언니두, 누가 그러던것까지 내가 말할것 같애?》
《말하면 어떠냐?》
《그래, 숙희가 이리로 왔더니 분주히 따라왔다지.》
이 말에는 그는 불쾌함을 느꼈다. 그는 약간 미소를 띠워 언짢은 빛을 가리려 하였다.
《알수 없지. 안해인 내가 눈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어찌 알고.》
《그래 어느날 몰래 떠나겠다는 소리를 들었어. 너무 따라다니는게 귀치 않아서.》
싸고도는 옥이가 미웠다.

《숙희란 녀자가 얼마나 잘났는지는 몰라도 우리 그가 그렇게까지는 아니할게다. 그건 다 너희들 수작이지.》

남편을 깎아누르는것이 싫어졌다. 기순이는 웃었다.

《보아. 저렇게 성을 내니까 내가 얼른 말할수가 있나.》

그도 따라 웃었다.

《성이 아니라 글쎄 들을세 짐작이 아니냐?》

《무얼 언니두, 너무 싸고돌지 말아요.》

그는 참외꼭지를 바구니에 던지고 수건으로 입을 씻는다.

《에, 배불러.》

책상을 뒤적거려 과제장을 내여놓고 벌컥벌컥 뒤져본 후 일어섰다.

《어째서 일어나니?》

《래일 과제장 가지고 와. 어디 가던 길이야.》

기순이를 보낸 그는 기운없이 앉아있었다. 모든것이 사실일것이라고 생각되였다. 그리고 생각하니 남편이 그지없이 불쌍하여졌다.

저녁을 먹고 나간 남편은 아홉시쯤 하여 뛰여들어오자 휘휘 둘러보더니

《기성이!》

찾으나 대답이 없었다. 그는 부엌으로 나가더니 새끼를 한아름 안고 들어와서 구석구석에 놓인 고리를 끌어당겨 꽁꽁 매였다.

물끄러미 바라본 옥이는 래일이나 가려나부다 하고 생각될 때 울음이 콱 쏠어나왔다.

다 동인 고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자 자전거우에다 실어놓았다. 그리고 다락으로 들어가 한참이나 버석버석하더니 얼른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옥씨, 난 갑니다.》

뒤이어 자전거소리가 들렸다.

옥이는 전신이 매시근해지며 정신이 까뭇해지는것 같았다. 그는 용기를 다하여 따랐다.

《어디, 어디 가셔요?》

《동경 가지요.》

여름내 참았던 분이 바짝 치밀었다. 하여 남편에게 매달렸다.

《여보쇼, 당신 몸에 해롭습니다. 당신은 어머님의 외아들이 아닙니까.》

봉준이는 사정없이 옥이를 밀쳐버리고 자전거에 올라 바퀴를 소르르 굴렸다.

옥이는 미친듯이 그의 뒤를 따르다 기진하여 풀숲에 푹 꼬꾸라졌다.

4. 세 친구

재일은 늦게 일어났다. 하여 세면도 하기 전에 원선의 하숙을 찾았다.

그는 새로 깐 다다미우에 비스듬히 책상켠을 의지하여 책을 보고있었다. 아침 산뜻한 해빛에 그 얼굴은 한층 더 윤택해보였다.

《여보게, 벌써 책인가?》

그는 빙긋이 웃으며 아까보다도 줄을 빨리 타내려갔다.

《그만두게. 밤낮 책만 들고…》

책을 뺏으려 하였다. 그는 책든 손을 물리며 말했다.

《마자 보아야겠네. 잠간만 기다리게.》

재일은 후닥닥 일어났다.

《가겠네.》

그제야 책을 놓고 눈을 부비치고 바라보았다.

《놀다 가게나.》

《아니, 나 밥 안 먹었어. 봉준군과 놀러오게나. 재미있는 일이 있어.》

어차피 잘되였다 하고 책을 들었다. 예정한 페지까지 보고난 그는 책을 덮고 기지개를 하였다. 그리고 어제 밤 봉준군에게 들은 말을 다시금 되풀이하며 보았다. 따라 자기의 막연한 장래가 새삼스럽게 걱정되였다.

《난처한노릇이지!》

그는 천장을 쳐다보며 이렇게 웨쳤다. 봉준의 처지에 있어서는 딱히 리혼하라고도 못하겠고 하지 말라지도 못할 형편이였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스스로 해결짓기 전에 제3자로서는 어림도 해보지 못할 것 같았다.

신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누구인지 뻔히 알고 이때껏 하던 생각을 치워버렸다.

《칩지 않은가?》

벌떡 일어나앉으며 문을 닫았다.

《앉게.》
그는 맥없이 주저앉았다.
《편지가 또 왔네그려.》
팡팡한 누런 편지를 꺼내여 읽기 시작하였다.
다 보고난 그는 한숨을 푹 쉬였다.
《불쌍하지.》
원선을 쳐다보았다. 그는 한참이나 묵묵히 있었다.
《난처하지. 세상일이 왜 그런가?》
봉준이는 머리를 숙이며 눈물이 글썽글썽해졌다.
이런 편지를 받아쥘 때마다 동정하지 않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차라리 옥이가 먼발로 친족관계가 된다든지 하면 얼마나 다정한 사이일는지 몰랐다. 그러나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못할 일이였다.
《내 누님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외로운것만큼 누님이라는 명사에 눈물이 날만큼 감격되였다.
원선이는 봉준의 안타까와하는 모양을 바라보면서도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숙희, 오 숙희씨! 나는 숙희씨가 없이는 못살것만 같애!》
봉준의 눈은 불이 붙었다.
《너무 감상적으로 나가지 말고 이왕이면 좀더 자네 마음을 기다려보게. 행여 나중에 사이 좋은 부부가 될는지 누가 아나?》
그는 머리를 흔들어보았다.
《그리 된다면 나는 좋겠네마는… 어림도 없는 소리.》
봉준이는 문켠을 향하여 무슨 생각을 하는듯 하더니
《자네 숙희씨와 친한 사이라지?》
하고 물었다.
《친한다는것보다두 그저 아는 사이지.》
원선은 편지를 도로 돌렸다.
《불쌍하네, 옥씨가.》
그저 아는 사이지. 이렇게 쓸어치는 원선이가 능글능글해보였다. 차라리 솔직히 말하여주었으면 어쩔는지 몰랐다.
《그렇게 진심으로 불쌍히 생각하나? 다만 한마디를 하더라도 참으로 하여주게, 참으로!》

원선이는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나가지 않았다.
《여러 소리 말고 재일군한테나 가보세.》
《흥, 혼자 가게나!》
그는 벌떡 일어났다. 원선이도 따라 일어났다.
봉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였다.
《자네 요새 바짝 더해졌네그려. 병원에라도 가보아야 하겠네.》
근심스러운듯이 들여다보았다.
《자네 가고싶은 곳에 가세나. 그리 역정낼것이 무언가?》
봉준이도 실은 재일이를 찾고싶지 않은것은 아니나 치밀리는 감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던것이다. 하나 그의 따뜻한 손맛으로부터 절반나마 골이 풀렸던데다가 이렇게 다정스러이 말하는것을 듣고 확 풀리고말았다.
《가세, 재일군한테.》
눈물 고인 눈에 웃음이 돌았다. 원선이도 따라웃고 밖으로 나섰다.
골목을 돌아서는 봉준은
《여보게! 저기 오는것이 숙희 아닌가?》
손짓을 통하여 바라보았다. 녀학생 둘이서 가지런히 걸어갔다.
《아닐세. 원…》
숙희면서도 자기에게는 숨기는것 같았다. 그는 분주히 앞서가며 알아보고야 안심이 되여 돌아왔다.
《아니데.》
번번이 그를 의심하다가도 곧 돌리여 난처한 자기를 도리여 불쌍하게 보았다.
그들은 재일의 하숙문을 열었을 때 첫눈에 책상우에 놓인 파란 꽃봉투가 보였다.
그들이 앉자마자
《편지 보게. 우리 숙희가 자네한테 한것일세.》
하고 재일은 원선에게로 편지를 던졌다. 번연히 봉준이를 놀리려고 하는줄 알면서도 다소 가슴이 울렁거렸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
정색을 하여보였다. 재일은 슬쩍 웃으며 봉투속으로부터 사진을 꺼냈다.
《편지 보기 싫으면 사진이나 보게.》

원선에게로 내여주었다. 그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이나 보더니
《올해는 더 부해졌네그려.》
봉준에게로 돌렸다. 그는 사진을 받아들자 얼굴이 빨개졌다.
《안해 있는 사람은 처녀의 사진이 필요치 않을걸?》
봉준은 못 들은체 하고 언제까지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숙희를 사모한지 근 몇해동안에 사진이나마 이렇게 보게 되기도 처음이였던것이다.
숙희에게 보내는 편지마다 《사진이라도 한장 보내주시오.》 하고 애걸하다싶이한 구절이 생각키우며 눈물이 핑 돌았다.
《허, 남의 처녀사진을 보고 울면 쓰나. 이리 내게!》
봉준의 손에서 사진을 빼앗았다. 원선이는 재일에게로 달려들었다.
《그까짓 사진이 무엇하는건가. 자네도 그만해두게!》
그는 사진을 빼앗아서 봉준에게로 던졌다.
《옛네! 실물은 마음대로 못 보나 그래 사진이나 못 가져보겠나.》
성이 날줄 알았던 재일은 허허 웃었다.
《매우들 잘 논다. 상당한 극일세그려, 응? 자네들도 배우노릇 상당히 하겠네.》
눈을 슴벅슴벅하였다. 그들도 따라웃었다.
《자네 그 사진 가지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여. 중매를 해달라는 말이야. 중매하겠나, 못하겠나? 말하게.》
《나 같은것이 중매자의 자격이 있는가?》
《어, 없다면 사진 도루 내게. 소용이 뭐람. 자네가 총각이니 련애할 생각을 감히 먹어보겠나. 어떤 리유하에서 가지느냐 말이야? 단단히 대답하게. 그렇지 않으면 사진 내놔!》
그는 눈을 딱 부릅뜨고 대들었다. 봉준이도 처음에는 웃는 소리거니 하고 사진 있는것만 기뻐하였으나 그가 리유를 붙여가며 대여드는것을 보니 가슴이 멍청해졌다.
이 꼴을 본 원선이는
《자네 누이가 그렇게 시집가고싶어 등이 달았다면 내 중매하지.》
그의 말문을 막으려고 이런 말을 하였다.
《응, 자네가 중매 하겠어?》
봉준에게서 사진을 빼앗았다.
《옛네. 자네가 중매하겠다지? 이 사진을 가지겠다는 말이야? 응,

옳지. 자네는 총각이니만치 아주 가지고 말게나. 총각이 처녀의 사진을 가지는것이야 떳떳한 일이지. 거리에 나가서 지나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말이야. 봉준군도 잘 생각해보게. 원선군한테 온 사진을 왜 자네가 어림없이 가지겠다는 말이야? 그렇지 않아, 응?》
그는 돌아앉았다.
《살아가면 별꼴을 다 보겠네. 언제는 사진 청해달라고 매일 조르다싶이 하더니 막상 부쳐오니 시치미를 떼여! 이거 뭐 누구를 놀리는셈인가. 어쩐 일이야!》
원선이를 노려보았다. 그는 웃으며
《쓸데없는 소리 말아. 자네는 너무 허튼소리해서 재미없데.》
봉준이는 더 참을수 없었다.
《가겠네.》
벌컥 일어났다. 그의 가슴은 무섭게 떨렸다. 그리하여 벼락같이 문을 열었다.
《제 이막! 어때?》
원선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 왜 그 모양이야. 가뜩이나 요새 신경병으로 고민하는 판에 위로는 못하나 그렇게 지나치게 놀린담. 아주 재미없어! 후일에는 그런 일 말게. 여보게!》
《아침에 내가 무어라든가? 재미나는 일이 있다고 했지? 그 좀 재미있나? 그래 심심한데 더러 롱삼아 그러면 어떻다는 말인가?》
《아, 글쎄 성한 사람같으면야 무슨 일 있겠나마는 봉준군은 병자이니만큼 삼가해 달라는 말일세.》
원선은 일어났다. 재일도 그뒤를 따라 일어섰다. 한참이나 말없이 섰던 원선이는 돌아보았다.
《봉준군이 아무래도 리혼은 해놓을것이니까 숙희씨에게 권고하여보게. 자네도 보는바라 어디 되겠나? 점점 더하여가니.》
《글쎄 딱하기는 하지만 그 애가 말을 들어주어야지.》
《물어는 보았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말도 해본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낸것이라
《응, 한번 붙여보았네.》

하였다.
재일은 어느덧 앞섰다. 그의 다리마디는 길쭉길쭉하여 언제나 정중정중거려서 남보다 훨씬 앞서 걸었다.
《장래성 있는 청년일세, 봉준군이. 두고보면 자연 알것이니까 어쨌든 힘써보게.》
《참말인가?》
《여보게, 자네처럼 극이나 꾸밀줄은 모르네.》
《음, 좋은 친구야, 봉준군이.》
아까 문차고 나가던 꼴을 생각하고 빙글빙글 웃었다.
앞으로 지나가는 녀학생을 보고
《맵시 좋다!》
하고 웃었다.

5. 짝사랑

모 녀학교 2년급 시험을 치르고난 옥이는 락제냐, 급제냐의 두 의문으로 가슴을 졸이고있었다.
주인집 학생이 나왔다.
《어제 같이 오셨던이가 누구야요?》
옥이 곁으로 앉았다. 그는 입속으로 말했다.
《남편이야요.》
《네.》
《그 학교서 락제가 된다면 다른 학교에 가서 시험쳐볼수도 있겠지요?》
근심스러운듯이 물었다.
《붙으시겠지요. 념려마세요.》
《저 같은것이 어찌 붙기를 바라겠습니까?》
문편을 향하여 바라보았다.
《왜 1학년시험을 치르어보시지요. 아무래도 좀…》
이 말을 듣자 더욱 안타까왔다. 차라리 이 학생의 말과 같이 1년급시험을 보았더면 하는 후회가 났다.
《글쎄요.》
만일 락제가 되면 무엇보다도 남편 보기가 난처하였다.

(어쩔가? 락제가 되였다면 두말없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한해 더 배워가지고 오지!)

겨우 이렇게 가라앉혔다. 그러나 가슴은 울울하였다.

《일본 가서 공부하신다지요?》

《네.》

《무슨 학교야요?》

그는 한참 생각하였다.

《와세다라던지요.》

옥의 얼굴은 빨개졌다. 얼마나 똑똑하면 남편 다니는 학교이름도 자세히 모르나 할것 같았다.

《네.》

대답하는 소리를 듣자 안심되였다. 어쩐지 자기 입으로 학교명을 부르고나니 별로 서투르게 생각되였던것이다.

《그의 친구들도 많다면요?》

《글쎄요.》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세분인가 네분인가 욱욱 밀려왔더군요.》

빙그레 웃어보였다.

《그중에 내 동무 숙희 오빠도 오구요.》

그는 가슴이 지끈하였다. 벌써 우리 그가 숙희를 따라다니는줄 이곳서도 아는가? 그리하여 내 속을 떠보느라고 저렇게 말하지 않는가? 그는 다소 물어보고싶은것이 많지마는 이 말끝에 쑥 들어가버리고말았다.

《숙희 아셔요?》

《몰라요.》

《연희는 아시겠지요? 같은 고향이라지요?》

《네. 말은 못해봤어도 낯만은 여러번 보았지요.》

《숙희도 늘 놀러가던데요, 방학때면.》

《글쎄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요리조리 묻는것이 귀찮았다.

구두소리가 나자 방문이 열렸다. 영실은 얼른 일어났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봉준이는 마루구석에 피하여 섰다가 방안으로 들어섰다. 옥이는 잠잠히 일어섰다.

《편안히 주무셨소?》

이렇게 묻고나서 신문지속에 들어있는 노란 구두를 꺼냈다.

《신어보시오.》

그는 가슴이 두근두근하였다. 그리고 발 내놓을것이 무엇보다도 난처하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살색양말을 꺼냈다.

《이것 신고 신어보시오.》

그의 얼굴은 빨개졌다.

《어서 신어봐요.》

《후일 신지요.》

《공연한 소리만 하는구려.》

봉준은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 속으로 (시골녀자는 할수 없어.) 하였다.

그는 남편의 좋지 못한 기색을 보고는 그만 아무말없이 돌아앉아서 양말을 신었다. 봉준은 양말 대님을 내여주었다.

《다 신었소? 자.》

구두를 들어 옥이 발에다 신겨주었다.

《일어나보시오.》

그는 아찔해지며 방안이 휭 돌아 겨우 바람벽을 의지하여 일어났다. 한참이나 들여다본 그는 웃음을 띠우며 말했다.

《됐소이다. 제법 녀학생이구려.》

《그리고 학교에 갈 때나 안 갈 때나 저 분을 발라요. 크림도. 연지도. 네, 그래야 합니다.》

책상우에 벌려놓은 분병들을 가리켰다.

처음으로 남편의 다정한 말을 듣는 그는 너무 지나쳐서 어쩔줄을 몰랐다.

《그러고 저녁에 우리 친구 몇명을 데리고 올테야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묻는 대답도 얼른얼른 해요. 네? 오늘 분 안 발랐구려. 저녁 먹고 세면하고 분 바르시오. 네?》

얼굴을 말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옥은 확확 다는 얼굴을 푹 숙이고 말았다.

《내 말대로 하시오.》

이렇게 재삼 다지고나서 일어섰다. 그는 따라 일어서서 그의 뒤맵시를 바라보며 (나도 남편이 있구나!) 이렇게 부르짖었다.

뒤이어 영실이가 웃음을 띠우고 들어왔다.
《무얼 사오셨어요?》
책상아래 놓인 구두를 들고 들여다보았다.
《구두 사오셨소. 벌써부터…》
요리조리 굽어보았다.
《꼭 맞아요?》
《네.》
옥의 기뻐하는것을 한번 더 쳐다보았다. 영실 어머니도 웃으며 들어왔다.
《아이구머니, 곱구먼요.》
딸이 주는 구두를 받아들고 보았다.
《얼마 주었대요?》
《글쎄요. 자세히 묻지 못했어요.》
그들이 부러워하는 모양을 바라보며 앞에 놓인 구두를 볼 때 눈물이 날만큼 감격되였다.
그는 속으로 《어머니도 기뻐해주세요!》 이렇게 중얼거렸다.
남편의 말을 외우고있던 그는 저녁먹기 전에 새로 사온 향내나는 비누로 말끔히 얼굴을 씻은 후에 곱게곱게 단장을 하고 저녁상을 받았다. 밥상을 들고나온 영실이는 피여오르는듯 한 그의 맑고 웃는듯 한 얼굴에 도취되여 몇번이나 그를 쳐다보고 마음속깊이 부러워하였다. 과연 남편의 사랑을 받을만 하다 하는것을 당장 깨달았다.
그리하여 이 부부의 짝은 기울지 않는다는것을 무엇보다도 부럽게 생각하였다.
《같이 잡숩시다.》
밥깨를 열며 그는 영실이를 쳐다보았다.
《어서 먼저 자셔요.》
밥상으로부터 가는 김이 곡선을 그리며 올라갔다. 밥상을 물린 그는 어떤 불안에 잠긴 사람모양으로 긴장되여있었다.
불이 반짝 켜졌다. 그는 가슴이 울렁울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가만히 일어나서 마루로 나왔다.
변소간으로 나오던 영실이가 그를 보고 말했다.
《우리 방으로 들어가십시다.》
옥이는 방문턱에서 기웃기웃하며 아무 꺼리낌없을것을 알고 들어섰

다. 향하여 바른편쪽으로 책상이 놓이고 왼편으로 고리짝 두개가 겹 놓였을뿐 별다른 가구를 발견치 못하였다.

《앉으세요.》

주인어머니는 웃음으로 대하여주었다.

대문소리가 나자 구두소리가 거퍼 들렸다. 옥이는 숨을 죽이고 두 귀밑이 화끈 달았다. 무엇보다도 그들과 서로 인사할것이 난처하였다.

가만히 듣던 영실은 옥이에게 말했다.

《여러 사람이 오나 봐요.》

방문 여는 소리가 나자 이쪽으로 향하여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여기 안 들어왔나요?》

영실 어머니는 문을 열었다.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니요. 좋습니다. 여보, 어서 나오시오.》

옥이는 난처하였다. 봉준은 전등불아래 부끄러움을 먹고 앉았는 그를 바라볼 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쁨이 흘렀다. 무엇보다도 어서빨리 그들앞에 보이여 자랑하고싶었다. 언제나 안해인 옥이를 대할 때에는 친구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대하게 되는것이였다.

《어서 나와요.》

그는 마지 못하여 일어는 섰지만 건넌방까지 갈것이 여간 난처한것이 아니였다. 가슴에서 맞방망이를 치고 다리가 사시나무떨듯 하였다.

《학생도 같이 가면…》

영실을 내려다보았다. 영실 어머니도 승낙하였다.

《그럼 너도 동무해서 잠간 갔다오너라.》

말이 끝나자 영실은

《그럼 먼저 나가세요.》

하고 옥이를 쳐다보았다. 그는 도로 앉았다.

《같이 가요.》

이 꼴을 본 봉준이는

《그럼, 같이 나오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고 건넌방으로 갔다. 영실은 책상을 마주하고 화장을 시작하였다.

《부끄럽지요?》

옥이를 바라보며 영실 어머니는 웃었다.

《처음이니까요. …》
머리를 숙였다.
화장을 마친 영실은 새옷을 갈아입고 앞장섰다.
옥이는 죽으러 가는 소모양으로 안타깝게 떨렸다.
영실은 조심성스럽게 문을 열었다. 봉준은 벌컥 일어났다.
《들어오십시오.》
《오셨습니까?》
재일을 향하여 머리숙여보였다. 그들의 눈은 일시에 옥에게로 쏠렸다. 옥이는 가만히 영실옆에 앉았다.
봉준이는 차례로 소개하였다. 옥이는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 보였다.
《자네들 왜 이리 점잖은가?》
이 방안의 인기가 옥에게 쏠림을 알자 그는 견딜수없이 기뻤다. 그는 벙글벙글 웃었다.
《집주인부터 점잖으니…》
재일은 봉준이를 보았다.
원선이는 벽에 기대여앉아 재일의 어깨로 한쪽눈을 가리고 옥이를 뜯어보았다. 눈, 코, 입술, 살빛, 몸집 어느것 하나 흠잡을것이 없었다. 그러나 량미간을 약간 찡긴것을 보아 그의 쓰라린 과거가 알리웠다.
몇해를 두고 의문의 주인공인 옥이는 이름과 같이 옥같은 녀자였다. 그는 스르르 눈을 감고 옥이 쓴 편지 일절을 생각해보았다. 따라서 봉준이가 곧장 부러워졌다.
《숙희도 데리고 오시지요, 왜?》
봉준과 옥이는 일시에 가슴이 찌르르하였다.
《왜 모시고 오지?》
봉준이는 동을 달았다.
《잊었습니다. 후일에는 같이 오지요. 옥씨도 사랑해주십시오.》
어느 좌석에서나 빈정대는 그가 갑자기 여기서만은 점잔을 빼였다.
《당신,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할줄도 모르시오?》
봉준은 웃는 눈으로 옥이를 보았다.
《그런 소리 말게. 우리가 경성 사는것만큼 주인은 우리들이 아닌가. 여보게.》
원선이를 돌아보았다.

《이 사람은 벌써 조으네. 그럼 어디로든지 가십시다.》
휘 둘러보았다.
봉준은 속으로 (이놈이 벌써 미쳤나?) 하며 일종의 승리의 쾌감을 느꼈다.
《나가십시다. 처음이니만큼 구경도 하시구요.》
재일은 옥이를 보았다.
재일의 꼴을 본 영실은 더 앉았기가 퍽 괴로웠다. 그리하여 살짝 일어났다. 옥이는 그의 치마귀를 맘껏 잡았다.
《놓으세요.》
그들은 영실을 보았다.
《앉으셔요.》
뒤를 이어 이런 말이 거퍼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기어코 뿌리치고 나갔다. 혼자 된 옥이는 아까보다 더 안타깝고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원선은 재일을 꾹 찔렀다.
《가세.》
옥의 모양을 보고 더 앉았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재일은 밑이 떨어지지를 않았다. 옥의 수줍어하는것을 볼수록 더 한층 아릿다왔다.
《어디로 갈가?》
재일은 원선이를 쳐다보았다.
《일어나게나. 어디로 가든지…》
그는 문밖으로 나섰다. 재일과 봉준이도 하는수없이 따라일어났다.
《어디 가든지 밑자리는 제일 무거웠는데 오늘은 웬일이야?》
봉준이는 문밖을 나서자 원선이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글쎄.》
재일이는 방문을 배죽이 열고 말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옥이는 머리를 숙인채 일어섰다.
대문밖을 나서자 재일은 봉준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과연 드문 미인인걸!》
《그럴가? 하지만 숙희씨만은 못하지 않어.》
《허, 미친 말이야. 못한게 무언가? 그렇게 미치더람 한번 말해볼가, 숙희에게?》

봉준은 앞이 캄캄하도록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이때가 그의 다만 한때인 기회같이 생각되였다.
《참말인가?》
《이 사람, 또 귀가 바짝 당기는 모양이지?》
웃음으로 쓸어쳤다. 자기로서도 오늘에 한하여만 갑자기 전과 달리 말하기가 좀 점직했던것이다.
봉준도 이 눈치를 알고 더 재치고싶지만 원선이가 꺼리여서 잠잠하고말았다.
《어째서 이야기가 중단이 되나? 마자 마치지?》
봉준이는 슬쩍 화제를 돌렸다.
《자네 전부터 영실이를 알았던가?》
《응, 숙희와 동무라네. 그래서 몇번 우리 집에 놀러 왔어. 그통에 나도 알게 되였지.》
《누이 있는 사람들은 수 나겠네.》
《그럴지도 몰라.》
둘이는 웃었다. 원선이는 멍하니 앞길만 바라보고 수긋수긋 그들의 뒤를 따랐다.
《여보게, 옥씨가 과연 미인이지! 자네는 어떻게 보았나?》
재일이는 뒤를 돌아보며 멈칫 섰다. 봉준이도 돌아보았다.
《글쎄.》
《똑똑한 대답을 해버릇하게. 밤낮 글쎄가 무어야!》
봉준이는 안타까움에 이런 말을 하였다.
쌀쌀한 바람이 그들의 몸으로 스며들었다.
《어디로들 또 가겠나?》
둘이는 씩 돌아보았다.
《무어 좀 먹고 헤지세. 어디로 갈가?》
언제나 먹는 말은 재일이가 먼저 꺼냈었다.
《그만두지. 갈라면 자네들끼리나 가보세.》
《얼른 같이 갔다 가세나.》
《곤해서 못 견디겠네.》
봉준이를 보았다.
《늙으니까 다르다니까.》
전차가 앞으로 지나간다. 그들은 한참동안이나 잠잠하였다.

《자, 난 가겠네.》
원선이는 청진동골목으로 빠졌다. 전신이 오싹해지며 따뜻한 방이 그리워졌던것이다.
《잘 가게.》
둘이는 말없이 걸었다. 어쩐지 적적함을 느꼈다.
재일은 옥의 얼굴을 머리에 그려보았다. 따라서 이때까지의 그의 눈으로 본 많은 녀자들을 되풀이하여보았다. 숙희때문에 대학생들도 퍽이나 알았고 화류계녀자들은 그 수를 헤일수 없으리만큼이였다. 그러나 자기로서 흡족히 생각한 녀자는 없었다. 그저 그렇고 그렇고 하였다.
하나 오늘 저녁 옥이를 보자 세상에 저런 녀자도 있는가 하고 놀랄만큼이였다. 그럴수록 숙희를 미끼삼아 반드시 옥이를 자기것으로 만들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였다.
《리혼은 집어치우게.》
그의 심중을 떠보려 하였다. 봉준이 역시 옥이를 미끼삼아 숙희를 놓지 않으려 하였다.
《숙희씨 같은 녀자는 없으니까 어찌겠나. 내 스스로도 이상히 아는 적이 많았네마는… 물론 옥에게 대하여 동정하지 않는배는 아니야. 그러나 사랑이 안 가는데야 어쩌란 말인가?》
《응, 그렇지. 사랑이 없는데야 동정한들 어찌겠나? 나도 전부터 자네 마음을 모르는배 아니고 따라 숙희를 련모하는것까지도 대강은 짐작하였네. 그래서 그 애를 만나면 자네 말을 늘 하다싶이 하였네. 어찌했든 리혼만 하게나.》
《고맙네.》
봉준이는 눈물이 쑥 삐여졌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다. 한참후에 그는 다시 말했다.
《자네만 믿네.》
재일은 담배를 피워물었다.
《옥씨가 불쌍하지 않아? 그렇게 된다면.》
봉준이를 보았다.

옥이는 아침을 먹고 머리를 풀어놓았다. 얼빗으로 슬슬 가리며 거울속으로 비치는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쫑긋 웃었다. 어제 밤 남

편의 좋아하던 꼴이 눈에 보이는듯 하였다.
(어떻게 붙었을가? 그 많은 사람들이 시험쳤는데 아무래도 선생들이 내 이름을 잘못 불렀지!)
이런 생각을 할 때 가슴이 선뜩하였다.
영실이가 들어왔다.
《머리도 숱하기는 해요.》
그는 얼빗을 빼앗아가지고 몇번 가리운 후에 두갈래로 꽁꽁 땋아가지고 곱슬하게 틀어놨다.
《고운데요. 어쩌면 그리 고울가.》
앞으로 와서 말뚱히 들여다본다. 그는 가쁜함을 느끼며 두귀밑이 빨개졌다.
《그런 소리 말아요.》
얼굴을 돌리며 웃었다.
《웃으니까 더 곱네. 녀자로 태여날바에는 저렇게 고와야지 뭘!》
며칠 전날 밤 재일의 꼴이 나타났다.
《학생도 그만큼 고왔으면 됐지요. 나같은것이 무엇이기.》
그는 머리칼을 일삼아 주어 뭉쳐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영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고개를 갸웃하고 내다본다.
《꽃송이같애요.》
옥이는 이런 말은 귀둥으로도 안 들리고 내가 참으로 붙었는지? 이런 의문으로 가슴이 꽉 차왔다. 그는 손을 씻고 방으로 들어왔다.
《참으로 붙었을가요?》
영실은 거울속으로 자기 얼굴을 비춰보다가 살짝 비켜앉았다.
《그럼 학교서 거짓말을 할가요?》
너무 좋아하는 꼴이 밉살스러웠다.
《거짓말보담도 혹시 이름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는가 해서 하는 말이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지요.》
영실은 일어났다.
《어서 학교나 가십시다. 잔걱정 말고요.》
옥이는 검정치마 흰 저고리를 갈아입었다. 그리고 책상아래 놓은 구두를 꺼내여놓고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신었다.
안방문소리가 나자 영실은 나왔다.

《어서 나와요.》

이러고 나가기가 퍽이나 부끄러웠다. 어쩐지 옛날 자기와는 딴판이 된듯 한 느낌이 생겼다. 그때에 떠오르는것은 숙희와 연희였다.

그는 남빛책보를 들고 영실의 뒤를 따랐다.

다리가 휘청휘청하는것이 좀 페로웠다.

《재미나요. 이렇게 언니와 내가 함께 다니면 오죽이나 좋아요.》

쫑긋 웃어보였다. 그는 숨이 차도록 답답함을 느꼈다. 지나는 사람들이 자기만 보는듯싶었다.

《오늘 저녁 원선인가 그이는 떠나신댔지요?》

《네.》

가까와오는 학교는 빨간 벽돌집으로 점점 높아가고있었다.

개학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은 집으로 오자 옷을 벗고 낡은 옷을 갈아입었다.

옥이는 이때껏 지리쳐두었던 한숨을 푹 내쉬였다. 그리고 교장선생의 말이 다시금 그의 귀를 울려주었다. 그리고 뒤를 따라 나타나는 얼굴 흰 녀선생들은 하늘같이 높아보였다.

점심상을 들고 영실이 들어왔다. 그는 얼른 일어나 받아놓았다.

《어서 먹읍시다.》

영실은 저를 들고 마주앉았다. 권하는 바람에 더구나 다정스러이 마주앉은김에 숟갈을 들었으나 밥은 먹고싶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울울하여서 좋은것도 언짢은것도 판단할 여지없이 어림터분하였다.

상을 물린 옥이는 책상곁으로 다가앉아 생각하였다.

(나도 이제부터는 녀학생인가? 숙희와 연희와 같은…)

맘에 떠오르는것은 영철선생이였다.

(그가 이 소식을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가?)

이런 생각을 하니 물 먹고싶듯이 그리워졌다. 같이 있을 때는 그만그만하여 무던한줄만 알았더니 이렇게 뚝 떠나고보니 돌아가신 어머님 못지 않게 보고싶었다. 보다도 자기의 달라진 옷맵시, 시험쳐서 합격된것을 그에게 자랑겸 눈에 친히 보이고싶었다.

그는 붓을 들었다. 영철선생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저녁이 되자 옥이는 화장을 하고 새옷을 갈아입은 후 책상앞에 마주앉아 갓 사온 책들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어느 사이에 모든 잡생각은 잊고 책속으로 정신이 푹 잦아들어갔다.

《여보, 옥씨.》
깜짝 놀라 휘휘 돌아보며 뒤미처 일어났다.
《나와요.》
뒤창문결에서 남편의 소리가 났다. 그는 몸 돌아볼 여지없이 밖으로 나갔다.
큰 대문을 나선 옥이는 창문곁으로 돌아갔다.
희미한 달빛에 그의 시커먼 륜곽만이 보였다.
《저, 새옷 갈아입고 구두신고 나오시우. 벌써 자우?》
《아니요.》
《그럼 얼른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와요.》
《왜요?》
황황히 날치는 남편이 이상해보였다.
《글쎄 여러 말 말고 바삐 그리해요.》
남편의 말이니 할수없이 돌아서서 들어오면서도 마음으로는 불쾌하였다. 무엇보다도 남자들과 마주앉기가 거북스럽고 싫었던것이였다.
방으로 들어온 옥이는 또다시 나갈것이 거북하였다. 남편과 가지런히 서서 다니는것은 기쁘게 생각이 되나 그러나 남편의 친구들과 섭쓸리기는 안타깝게 싫었던것이다.
《안방학생 데리고갑시다.》
《잔소리 말고 어서 나와요.》
소리치는 바람에 두말도 못하고 그는 밖으로 나갔다.
《어디 가요?》
안방 밀장문사이로 영실의 외짝눈이 보였다.
《저기.》
옥이가 큰 대문밖으로 나서자 봉준이는 허방지방 뛰였다. 남편의 황급히 날뛰는 꼴을 보는 옥이는 무슨 일인가 하여 어리둥절하였다.
골목쟁이를 돌아서자 눈이 시큼해지도록 빛나는 가스불앞에 남편은 우뚝 섰다.
《어서 오르십시오.》
몇사람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소리와 함께 휘발유냄새가 옥의 코를 벗튀였다.
《이렇게 만나보니 반갑습니다.》
옥이가 얼결에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 연희와 숙희였다. 순간에 그

의 가슴은 선뜩하였다.
택시는 달음질쳤다. 문득 자기와 남편이 그리운 고향 떠나던 때가 눈앞에 보이는듯 하였다.
옥의 바른편 무릎사이로 옮아오는 연희의 따뜻한 체온은 같은 고향 사람임을 더욱 느끼게 하였다.
숙희는 연희와 무슨 귀속말을 건네고있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옥씨.》
원선이는 자기앞에 똑바로 앉은 옥의 목덜미를 보았다. 옥이는 머리를 숙이는 외에 잠잠할뿐이다.
《축하합니다, 옥씨.》
이번에는 재일의 목소리였다. 이마우에 땀이 나도록 옥이는 부끄러웠다. 암만 대답을 하려고 하였다가도 목소리가 밖에까지 나가주지를 않았다.
(어쩐 일인가. 내가 벙어리가 되려나?) 하기까지 의문이 들어갔다.
《선생님, 이제 가시면 언제쯤 나오시게 되나요?》
원선이는 무슨 생각을 하다가 얼른 숙희를 보았다.
《글쎄요, 여름방학때나 오게 되겠지요.》
곁에서 듣는 옥이는 한층 더 부끄러웠다. 자기는 묻는 말도 대답 못하는데 숙희는 말을 건넨다. (언제나 나도 저만큼 되여보려나!) 하고 생각할 때 이 세상에는 자기와 같이 못난 사람은 없을것 같았다. 따라서 남편이 배척하는것도 당연한것이라 하였다.
경성역에 내린 그들은 대합실(기다림칸)로 밀려들어갔다.
옥이는 어쩌다 넘어질세라 겁이 나서 미처 그들의 뒤를 따르지 못하였다. 그는 한편구석에 가만히 서서 머리를 숙였다.
낮같이 밝은 불빛아래 흔들리는 그 사람의 동작을 따라 까만 눈만이 반들거렸다.
그들이 의자에 척척 걸터앉아 돌아보니 옥이가 없었다.
《여보게, 옥씨 어디 가셨나?》
휘휘 둘러본 재일은 이편으로 뛰여왔다.
《저리로 가십시다.》
불빛에 빛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뇨.》
옆의 의자에 가만히 걸터앉았다. 자칫하면 푹 꼬꾸라질것 같았다.

옥의 이마끝에 땀이 방울방울 맺혔다.
재일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옥의 옆에 앉았다.
이 꼴을 본 옥이는 시재 걷다가 어푸러져서 망신을 톡톡히 할지언정 같이 앉고있기는 싫었다. 그는 살짝 일어나서 앞으로 걷기 시작하였다. 걸어나니 심상하였다.
눈결에 남편을 보니 그는 자기편으로 외면을 하여 돌아앉고는 얼빠진 놈처럼 머리를 숙이고있는것이였다. 순간에 그의 눈에서는 있는 불이란 다 기여나오는것 같았다.
원선이는 차표를 타가지고 옥이 섰는 편으로 왔다.
《이 사람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머리를 숙여보였다. 그는 발부리를 굽어보았다.
《천만의 말씀을 하십니다.》
며칠동안에 처음으로 듣는 음성이였다. 약간 들리는듯 한 가는 말씨가 원선의 귀에다 귀속말을 하는듯이 장그럽게 들렸다.
《공부 잘하십시오. 그저 배워야 합니다.》
요란한 소리를 따라 차는 들어왔다. 역부의 고함소리에 놀란 옥이는 입속으로 (경성.) 하고 되뇌여보았다.
원선이는 숙희 앉은 편으로 뛰여갔다. 서로 손을 잡고 이편으로 뛰여오자
《어서들 들어가세요.》
꾸리 묶어선듯 한 사이로 들어섰다.
《이번에는 나 혼자 지낼 생각이 난처하네. 이 학기 다 지나기 전에 곧 들어들 오게. 공연히 놀면 뭣하겠나?》
연희가 옥의 곁으로 왔다.
《고향서 편지 왔어요?》
《아직 아니 왔어요.》
연희를 쳐다보았다. 맞은편에서 숙희는 새침히 머리를 숙이는것이였다.
《안녕히들 계셔요.》
바라보니 원선이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잘 보이지 않았다. 역홈에서 차에 올라선 원선이는 이편을 향하여 모자를 높이 들어보이고 차안으로 들어가자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여밀었다.
이편에서도 모자로 손수건으로 내여 흔들기 시작하였다. 원선이

는 그들 틈으로 언제까지나 고요히 섰는 옥이를 보았다.
학교로부터 돌아온 옥이는 옷을 벗고 잠옷 비슷이 만든 통옷을 입은 후 밖으로 나와서 세면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창문까지 열어젖히고 방을 쓸어내였다. 그리고 책보를 책상우에 풀어헤쳐서 책보는 문밖에 활활 털어다 네모반듯이 개여 한옆으로 착 놓았다. 그리고 우선 공부할 책만 따로 놓고는 모두 착착 겹놓았다.
그는 책상우를 이렇게 정돈해놓고는 오늘 온 신문을 들었다. 제1면으로부터 시작하여 차례차례 보기 시작하였다.
영실 어머니는 건넌방으로 건너왔다. 자다 나온 모양인지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눈이 빨갛다.
《영실이는 아직 시간이 남았나?》
이렇게 혼자 하는 말처럼 하고나서 되똑한 파란 곽과 편지를 내여밀었다.
《옛네. 아까 웬 심부름군 애가 가져왔기에 누가 보내더냐고 물어도 대지 않고 가데.》
그는 달갑지 않게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우선 편지부터 보리라 하고 겉봉을 보았다. 주소도 성명도 아무것도 써있지 않았다. 그는 문득 일어나서 의심과 함께 봉투를 뜯고 보았다.
영실 어머니는 말똥말똥 눈치만 따기 졸음도 어디로 달아난 모양이였다.
《무어랬나?》
다 보고난 옥이는 억지로 웃음을 띠웠다.
《장난감 보낸다는 말입니다.》
《응.》
옥이는 곽과 편지를 책상아래로 밀고 여전히 신문을 들었다.
영실 어머니는 펴보았으면 하고 바라보다가 보지 못하게 되매 허수하였다.
《에, 덥다.》
얼굴에 붙는 파리를 쫓고나서 밖으로 나갔다.
발자취소리가 멀어지자 그는 신문지에서 눈을 떼여 문밖을 내다보았다. 신문지도 맥없이 날아떨어지고말았다.
장독에 붙었던 왕파리는 왱 하고 쨍쨍히 들여쬐는 볕을 따라 문턱까지 날아왔다.

자기는 이곳에 오직 남편 하나를 믿고 따라온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차츰차츰 자기를 찾아오기도 싫어하는듯 하였다. 어쩌다 오게 된다면 반드시 재일과 함께 왔다가 가군 하였다. 다소 의논하고싶은 일이 생겨도 가슴에 뭉치고 또 뭉쳐두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 혼자 삭아지고말았다.

이런것을 생각하고나니 바람벽을 마주앉은것처럼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다시 편지를 끌어내여 자세히 몇번이든지 읽어보았다. 글자 한자한자 어그러지지 않고 분명히 쓴 글씨였다. 이것이 참일가? 남편이 일부러 시험해보느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반면에 남편이 자기에 대한 애정이 확실히 있는것이다. 얼마나 기쁜 일이랴! 고마운 일이랴! 하지만 어디까지든지 참인듯싶은 편이 세였다.

남편의 둘도 없는 친구가 이런 일을 내게 감히 할수 있는가? 이것이 계책을 내여서라도 자기와 리혼될 조건을 만들어가지고저 하는 수단같이 보였다.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무엇이라고 말할수 없는 설음이 가슴을 올올이 찢는듯 하였다. 그는 책상우에 푹 엎드려서 흑흑 느껴울었다.

문앞으로 지나치던 영실이는 우뚝 섰다.

《언니 왜 울어?》 된 해빛이 내려쬐여 영실의 머리는 시재 타지는듯 하였다. 그는 마루로 올라앉아 책보를 방으로 던지고 달려왔다.

《왜 울어?》

옥의 어깨를 흔들었다.

《공연히 울지 뭐.》

《언니, 공부 준비하지 않우?》

《해야지.》

그는 눈물을 이리저리 씻고나서 책을 펼쳐들었다. 하나 샘솟듯 나오는 눈물은 뒤를 이어 떨어졌다.

《에, 덥다. 지독히 덥네.》

영실은 후닥닥 뛰여나갔다.

옥이는 도로 책을 놓고 (어머니! 나는 어찌라우!) 이렇게 부르짖을 때 《믿지 말아! 남자를 믿지 말아라!》하는 소리가 번개같이 옥의 가슴을 두드려주었다. 그의 시어머니께서 림종시에 턱을 가불가불 채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부르짖음이였다.

어린 옥이는 무슨 말인고 하고도 너무도 또랑또랑한 힘있는 말이매

그의 머리에 꽉 찔려졌던것이다. 그리하여 항상 그는 입속으로 외우고있었다.

(믿지 말아! 남자를 믿지 말아라!) 다시한번 불러보았다. (얼마나 잘 아시고 하신 말씀이랴!) 그는 한숨을 푹 내쉬였다. 든든한 의지가 생긴듯싶었다. 따라서 북받쳤던 설음이 가라앉고 거뜬해짐을 느꼈다.

이 말 한마디가 오늘날 옥에 있어서는 얼마나 귀한 보배였는지 몰랐다.

(오, 어머니! 당신께서 남기고 가신 그 귀한 말씀은 내 가슴에, 내 가슴에 품었나이다.)

그는 눈을 스르르 감았다.

한참후에 그는 다시 눈을 떠서 앞에 놓은 곽과 편지를 노려보았다.

(흥! 몰랐다! 너희들이 짐작한 그런 어리석은 녀자는 아닌것이다! 시계와 반지로 인하여 일생을 버릴 그런 못난 계집은 아니다. 오! 아니다!)

그는 벌컥 일어났다.

봉준은 저녁을 먹고 문밖으로 뛰여나왔다. 시원한 바람은 그의 머리를 다소 거뜬히 해주는듯싶었다.

한참이나 우두커니 서있던 그는 물먹고싶은듯이 숙희가 그리워졌다. 어제 밤 오래도록 숙희방에서 놀았건마는 불과 몇시간이 지나지 못한 지금에 생각해본다면 몇삼년이나 된듯이 멀어보이고 다시는 숙희와 마주앉아볼것 같지 않았다.

그는 슬금슬금 걷기 시작하여 어느덧 숙희집 문앞에 발길을 멈추었다. 마침 안으로부터 숙희가 길을 굽어보며 나왔다.

《재일군 집에 있나요?》

숙희는 머리를 들고 봉준이를 바라보았다.

《오빠는 금방 나갔는데요. … 아마 봉준씨한데 가셨을것 같애요.》

숙희는 앞으로 걸었다. 봉준이도 따라섰다. 이 녀자가 어디를 갈가? 이런 생각을 하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남몰래 달았다.

《숙희씨!》

그는 발길을 멈추고 섰다.

《조용히 저를 만나줄수가 없습니까?》

《무슨 볼일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봉준은 앞장을 섰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오늘은 제가 바쁜데요.》
봉준은 모처럼 얻은 기회를 놓쳐버릴가 하여 쩔쩔매였다.
《숙희씨! 잠간만 와주십시오, 잠간만!》
그의 음성은 떨렸다. 숙희는 웃음이 나오는것을 겨우 참고 잠잠히 그의 뒤를 따랐다. 무엇보다도 그의 하는 꼴을 보자는 호기심이였다.
봉준이는 숙희가 따르는것을 알자 발길이 허공에 뜬듯이 날아가는지 걸어가는지 분간할수 없었다. 따라서 (이것이 꿈인가?) 하는 의심도 몇번이든지 들었다.
그들은 남산 솔밭사이로 들었다. 로송나무를 사이로 둘이는 마주섰다.
《앉으셔요.》
봉준이는 자기 양복 웃저고리를 벗어 깔아놓았다.
《앉으셔요, 네?》
거의 애걸하다싶이 하였다.
《좋습니다.》
숙희는 여전히 소나무를 기대여 섰다. 아까 거리에서보다는 훨씬 울울함을 느꼈다. 그러나 숙희는 속으로 (제가 어떻게 할테냐? 제까짓것이!) 이렇게 스스로 위로받으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셀수없이 들어선 소나무들은 마치 비밀회의로 모인듯이 무거운 침묵속에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긴장되여있었다. 그리고 군데군데 떨어진 파란 달빛은 봄바람에 떨어진 꽃송이같았다.
《숙희씨, 제가 올린 편지를 받아보셨겠지요?》
《네.》
《어째서 회답을 주시지 않았나요?》
자리가 자리인만큼 숙희로서도 주저치 않을수가 없었다. 그는 한참이나 무엇을 깊이 생각하다가 말을 떼였다.
《회답을 기다리셨습니까?》
모처럼 고대한 대답은 반문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반문하는 뜻은 봉준이로서도 대강 짐작하였다. 그렇지만 이리저리 따져묻자면 공연한 시간을 허비할뿐더러 새삼스럽게 과거일을

탄해가지고 말썽부릴 필요가 없을것 같았다.
《네, 기다렸습니다. 여러 말씀 할 필요없구요. 이미 숙희씨가 편지를 통하여 저의 마음을 다 아셨을테니까요.》
여기까지 말한 그는 숨이 꽉 막혔다. 한참이나 머리를 숙이고 잠잠하던 봉준이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한마디에 달린것이올시다. 저의 사랑을 받으시겠습니까?》
봉준의 씨근거리는 숨소리가 빤히 들렸다.
숙희의 전신은 오싹하였다. 따라서 이 솔밭이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자 그는 소나무를 맘껏 껴안았다.
《봉준씨는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형식상으로는 있다고 볼는지 모르오나 실은 저는 총각입니다.》
이 말에 그는 악이 치받쳤다.
《총각이라구요? 차라리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숙희씨, 당신앞에 거짓말이 손톱만치나 있다면 당장 벼락이라도 맞겠습니다. 차라리 하느님을 속일지언정!》
그는 눈물이 쑥 삐여졌다.
《숙희씨! 나는 생전 처음으로 내 가슴속에 녀자의 흔적이 있다면 당신의 환영이겠지요. 밤낮으로 당신을 그리워 애쓴 죄밖에 없습니다.》
숙희는 속으로 걱정되였다. 언제까지나 끝날줄 모르는 이야기만을 듣고 우두커니 서있을수는 없는터였다. 그렇다고 발길을 돌리려 하니 애걸애걸하는 꼴이 불쌍하다못해 곧 난처하였다.
《봉준씨, 이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생각해주신다는것은 제몸에 지나친 영광으로 압니다만 아직 철없는 저라서 사랑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려가십시다.》
그는 발길을 옮겼다.
봉준이는 아찔하여 얼핏 소나무를 쓸어안고 정신을 가다듬은 후 비실비실 따랐다.
멀리 사라지려는 숙희의 치마폭사이로 은은한 달빛이 풍겨있었다.
정신없이 하숙으로 돌아온 봉준이는 방바닥에 콱 쓰러져 앓는 소리를 끙끙하였다.
주인마누라는 어쩐 일인지 몰라 궁금하였다. 금방까지도 저녁 잘 먹

고 이야기를 시끄럽게 하던 사람이 무섭게 앓는 소리를 하니 아마도 체했나보다 하고 건너갔다.
《어쩐 일이세요? 어디 편치 않으셔요?》
《네, 물 좀 주시구려.》
봉준이는 시뻘건 눈으로 쳐다보았다.
《효주야! 물 떠오너라!》
뒤이어 얼굴 나부죽한 어린 처녀가 두손으로 물사발을 받들고 나온다.
《선생님 아프시다.》
효주는 어머니뒤에 붙어앉아 이따금씩 그를 엿보았다.
《옥이도 오랄가요?》
《그만두셔요.》
보기 좋게 꿀꺽꿀꺽 물을 들여마신 봉준이는 바람벽을 향하여 돌아누웠다. 바람벽에 진 자기 그림자를 보고 외로운 설음이 가슴을 미여지게 하였다. 하여 모르는 사이에 베개밑이 척척해졌다.
멍하니 바라보던 주인마누라가 물었다.
《물수건해서 대드릴가요?》
《수고스럽게…요.》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벽에 걸린 수건을 적시여 머리에 번갈아 대주었다. 훨씬 시원한 맛이 있었다.
신발소리가 나자 재일이가 성큼 들어섰다.
《어쩐 일인가?》
《갑자기 아프시답니다.》
《어디?》
봉준의 곁으로 다가앉았다. 그는 감았던 눈을 슬그머니 떠서 재일을 보자 그의 손을 꽉 잡고 흑흑 느껴울었다.
《어디 아픈가, 응?… 울기는… 왜?》
재일은 그의 머리를 짚었다.
《과하다는데. 옥씨 오셨댔나?》
《웬걸요, 아프신지 알지도 못할터인데요.》
《오라지, 밤에 적적하지 않어?》
친구를 생각함보다도 자기가 그리웠던것이다. 매번같이 이 집을 찾

게 되면 (행여나 옥이를 만날가?) 하는 생각이였다.
《그만두시라니까요.》
《오라게, 원.》
봉준이는 잠잠히 눈을 감아버렸다.
요 며칠동안 재일은 옥이로부터 무슨 회보가 있을가 하여 지나다니는 체부만 조사하고있었다. 그러나 해가 가물해져도 따라 감감해지고 자기의 예측한바와는 지나치게 어긋났다.
처음짐작은 며칠동안이면 옥의 마음을 움직여놓겠다는것이였다. 그러나 반대방향으로 몇개월이 된 오늘까지도 꿀먹은 벙어리모양이였다.
《어쩐 일일가? 내 수단이 틀린것인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난생처음으로 답답함을 느꼈다. 황금이면 만사에 걸릴것이 없다고 굳게 믿었던 그의 신념도 다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최후의 실날같은 그의 희망은 옥의 뒤를 따르다 직접 행동을 취하는것외에 별도리가 없다고 생각되였다. 그러므로 밤이 되면 의례 옥의 하숙집을 몇번이든지 돌았다. 그러나 웬일인지 한번도 기회가 마땅히 없었다.
방금 옥의 집을 들려오는 길이였다.
《곤하신데 나가십시오.》
눈이 거적해진 주인마누라를 쳐다보았다.
《에그 참, 졸립니다. 미안하나마 저는 먼저 나갑니다. 앉았다 가십시오.》
무릎에서 잠든 효주를 깨워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여보게, 오늘 숙희씨를 만나지 않었나.》
《응, 그래. 말 좀 해보았나?》
봉준은 한숨을 푹 쉬였다.
《말하면 소용이 무언가?》
《그래, 거절받았다는 말이지?》
《그럼.》
《직접 행동을 하여야 하지. 말만을 누가 무서워하나. 그래 손 한번 걸쳐보지 못한 모양이네그려.》
그는 씩 웃었다.
《그런 일은 난 못하겠네. 바루 성공을 못하면 말았지.》

《흥! 아직 멀었네. 그렇게 약해가지고야 일이 되나.》
《여보게, 자네 힘써 주게나!》
《물론 힘써 주지. 한데 녀자 암팡진것은 실은 여간 지독한것이 아닌 모양이데.》
옥이를 두고 이런 말한것임을 봉준이도 짐작해보았다.
《아무렴, 자네 전에는 나더러 비웃댔지. 그래, 단단히 지내보게.》
《자네 옥씨랑 꼭 리혼할 생각이지?》
《새삼스럽게 그건 왜 묻나?》
어지간히 몸이 단것을 알았다.
《글쎄…》
빙긋이 웃었다.
《아무렴 숙희씨를 생각하는 나인것을 잘 알지, 자네도?》
《응.》
《그러면 묻는 자네가 그른것 아닌가?》
재일은 멍하니 전등불을 바라보았다. 그는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듯하였다.
봉준은 재일을 사귄 후로 이러한 태도를 처음 보았다.
언제나 쾌활하던 재일이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으랴 하고 생각하니 그가 불쌍히 보였다.
《자네도 사랑의 쓴맛을 이제야 보네그려.》
재일은 자리속에서 눈을 뜨자 엊저녁에 날치던 봉준의 꼴이 마치 활동사진으로 보는듯 하였다.
자기 경험으로 미루어 며칠이나 몇달이나 갈줄 알았던 봉준의 상사병은 자기에게 알려진 후부터도 준 이태가 지나서 올해는 공부까지 전폐하고 봄부터 가을철까지 온전히 전문으로 종사를 하다가도 결국은 무서운 신경쇠약병까지 얻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되였던것이다.
그사이에 지나간 이태는 몰라도 올봄부터는 재일이도 봉준을 동정하여 숙희를 대할 때만은 한마디씩이라도 봉준의 이야기를 건네고 따라 숙희에게 권면하였다. 그러나 언제든지 숙희는 그만그만 하였다.
엊저녁에는 재일이도 겁이 났다. 자기의 친구로서 누이동생을 위하여 생사를 분간치 못하게쯤 된 형편이니 어쨌든 난처하였던것이다. 더구나 옥의 안타까와하는것이란 사람으로선 못 볼것이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컥 일어났다. 그는 옷을 입은 후 숙희방으로 건너갔다.

숙희는 산뜻이 화장을 하고 앞문앞에 앉아 수를 놓았다. 방문소리가 나자 숙희는 힐끔 쳐다보았다.

《숙희야.》

그는 바늘을 든채 재일을 보았다. 아직 이마에는 베개자리가 있었다. 재일은 얼결에 이렇게 부르고나서도 갑자기 어느 말부터 꺼내야 좋을지 몰랐다.

《왜요?》

왔다갔다하다가 재일은 말했다.

《너 어째서 그렇게 사모하는 김군을 싫어하니? 무엇때문이냐?》

숙희는 눈끄리가 샐쭉해졌다. 아무말없이 바늘 꽂았다빼는 소리만 잦아질뿐이다. 숙희의 꼴을 보니 오늘도 틀릴 모양이였다. 재일은 음성을 낮추었다.

《숙희야! 너의 오빠도 생각지 않니? 오늘만 부대 가자. 가서 잠간만 앉았다 오자꾸나. 그것이야 무엇이 힘들것이 있니, 응? 대답해라.》

재일은 애걸하다싶이 하였다.

숙희는 언제까지나 말이 없었다. 재일은 마음대로 하면 달려들어 실컷 쥐여박아 반쯤 용신을 못하게 만들어주면 좋을상으로 생각되였다.

시재 펄펄 뛰는 생때같은 청년이 자기 하나때문에 죽겠다살겠다 하는 판에 말똥말똥히 무엇을 생각만 하고 앉았는것이 재일로 하여금 눈에 불이 나도록 안타까왔던것이다.

그러나 꾹 참았다.

《어찌겠니?》

숙희는 바늘을 저고리섶에 꽂고 재일을 뚫어지도록 바라보았다.

《오빠! 제발 그런 말씀 말아주세요. 세상에는 봉준씨 한분만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것뿐 아니겠지요? 그런것을 어떻게 일일이 동정합니까? 심하게 말하면 죽는대도 할수 없는 일이지요! 네, 오빠, 그렇지 않습니까?》

숙희의 얼굴은 슬픈 빛이 돌았다.

《숙희야! 그러면 너는 봉준군을 죽이려느냐! 응?》

그의 눈에는 봉준이가 보였다. 따라 어여쁜 옥이가 보였다.

《죽는 사람은 약자지요. 못난이지요. 어찌해서 귀한 일생을 일개 미미한 계집때문에 희생하겠습니까. …》
재일은 분이 왈카닥 치밀었다.
《야! 사설만 지껄이지 말아. 너도 무슨 사람값에 가니! 에잇, 저런 매몰스런 계집애하고 말하다가는 아주 기막혀 죽겠어! 어데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는 휙 나가버렸다.
숙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돌부처모양으로 앉아서 꼼짝하지 않았다.
눈물 흘린다는것은 몇분후에 한방울씩 떨어질뿐이였다.
연희가 밖으로부터 황당히 들어왔다.
《어째 그러니? 또 그 일때문이냐?》
연희의 까만 눈에서는 벌써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하여 마치 락수지듯이 흐르는것이였다.
숙희는 말똥히 연희의 들먹이는 어깨를 바라보며 저렇게 속시원히 울어봤으면 하고 오히려 눈물 많은것이 부럽게 생각되였다.
따라 봉준의 일이 난처하였다. 그러자 어여쁜 안해를 가진 봉준이가 또 자기를 생각하여 죽네사네 한다는것은 어쩐지 자기로서는 색마와 같이 생각되였다. 어쨌든 순결치 못한것이 미웠던것이다. 돌이켜보면 한번도 장가 가보지 못한, 이름만이라도 총각이 그 지경이 되였다면 장래는 어찌되였든 우선 그의 순정에 자기의 마음도 어찌 움직여나갈는지 모를것이였다.
무엇보다도 옥에 티가 있을지언정 이십여년 꼭 봉해두었던 자기의 흠도 티도 없는 정조를 안해있는 사람에게 바치기는 암만 눈감고 생각하여도 못할 일이였다.
하지만 눈앞에서 봉준의 꼴을 본다면 자기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아예 가기가 싫다는것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던것이다. 그러므로 몇달째 눈 딱 감고 모른체 하여왔다.
한참이 지나도 연희는 울었다. 숙희는 이상한 생각으로
《언니, 일어나라우.》
그의 어깨를 흔들 때 그의 무릎아래로 새노란 들국화꽃 한송이가 보였다.
요새 며칠동안 옥이는 학교도 결석하고 밤낮으로 봉준의 병간호하

기 눈코뜰 짬이 없었다. 그러나 애쓴 보람이 없이 병세는 점점 더 깊어들어갔다.

아침도 먹는지마는지 한 옥이는 영실을 데리고 숨차게 달음질쳤다.

방안으로 들어서자 봉준의 곁으로 갔다. 두눈이 푹 꺼진 그는 눈을 들어 옥이를 보다가 영실을 보자 갑자기 눈을 둥그렇게 떴다.

《숙희씨!》

벌컥 일어났다. 하여 뚫어질듯이 그를 바라보는것이였다.

《아냐요. 우리 주인집 학생 영실이야요.》

영실은 겁이 나서 방구석으로 쫓겨가 앉는다.

봉준도 도루 자리에 푹 꺼꾸러졌다. 그는 눈물이 쑥 삐여졌다.

《숙희씨! 나는 총각이야요. 당신에게 무슨 거짓말이 있겠습니까?》

정신없이 이런 소리를 연거퍼 하며 돌아누웠다.

주인마누라는 미음그릇을 가지고 들어온다. 옥이는 일어나 받아가지고 남편곁으로 갔다.

《여보셔요, 미음 좀 잡숴봅시다. 네, 이리 돌리세요.》

봉준의 머리를 이편으로 돌리려 하였다. 그는 옥의 손을 탁 갈기였다.

《너희들은 다 가라! 보기 싫다.》

미음그릇은 쏟아졌다.

《에크!》

주인마누라는 안방에서 걸레를 갖다 옥이에게 주었다. 그는 꺼룩한 미음을 다 훔쳐서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주인마누라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나갔다.

곁에서 보는 영실은 어리둥절하였다. 따라 숙희가 한편으로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감정가진 사람같지 않아 보였다.

옥이는 끝없이 남편의 살빠진 돌아누운 편 볼을 바라보고있었다.

《여보 옥이, 숙희 좀 오라소그려. 한번만 봐도… 숙희 좀 제발 데려다 주.》

옥이는 성큼 일어났다.

《영실아, 너 숙희네 집 알지?》

《응.》

《그럼 대문까지만 데려다 주렴.》

《갑시다.》

둘은 밖으로 나왔다.
고래잔등같은 세마루기와집앞에서 영실은 발길을 멈추었다.
《이 집이냐?》
어쩐지 옥이 가슴은 선뜩하였다.
《어찌겠니? 여기 서서 기다리겠니, 가겠니?》
한참이나 생각하던 영실이는 옥이를 바라보았다.
《어떡합니까? 같이 들어갑시다그려.》
옥이는 다행히 생각되였다.
《안되였다, 영실아.》
《언니도 별말씀 다 하십니다.》
영실은 대문안으로 들어서자 뚱뚱한 살빛 좋은 부인에게 향하여 가볍게 머리를 숙여보였다.
《오, 영실이 오니?》
부인의 눈매를 보아 즉석에서 옥이는 숙희 어머니로 알았다. 부인은 뒤에 섰는 옥이를 유심히 보고나서 머리를 돌렸다.
《숙희야, 너의 동무들 왔다.》
건너방 문이 열리면서 숙희의 반신이 나타났다.
옥이는 못 볼것을 보는것처럼 끔찍하였다.
《영실이, 옥씨! 어서 들어오세요.》
그들은 방안으로 들어앉았다. 갑자기 맴돌려다 놓은것처럼 옥이는 어리둥절하였다.
앞에도 번쩍, 뒤에도 번쩍 모두가 어른어른하였다.
그는 가만히 정신을 가다듬어 차례차례 둘러보았다. 첫눈에 띄것은 책상우에 치쌓인 책들이였다. 그리고 대문짝같은 거울이 쭉 둘러놓인것이 놓궤였다.
《용하십니다, 옥씨.》
《이렇게 와야 다 반가이 보지요.》
숙희를 바라보며 웃어보였다. 숙희는 그를 마주 바라보며 전날 옥이와는 딴판으로 생각되였다. 수양이란 사람을 다시 만들어놓는것이다 하였다.
숙희는 살짝 눈을 돌려
《어째서 영실이가 우리 집에 놀러 안 왔니? 아마 공부만 열심으로 하지?》

《공부가 다 무어냐.》
숙희는 밖으로 나갔다.
연희는 옥이를 쇠쇠 들여다보며 물었다.
《어떠신가요, 요새는?》
《글쎄요, 말이 안나옵니다.》
한숨을 푸 쉬였다.
《에그 딱해라! 오작이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무섭던데요.》
영실은 동달았다.
숙희는 과일그릇을 가지고 들어왔다. 오목오목한 손으로 배 한알을 들어 벗겼다.
《이제 곧 밥을 먹고 왔는데요.》
옥이는 숙희의 손을 보았다.
《이것이 배부를것이야요? 일부러 밥먹은 후에는 배 한쪽씩 먹는것이 좋대요.》
생긋 웃었다. 하얀 이가 보였다. 이렇게 천연스레 이야기는 하면서도 가슴은 조급하였다.
숙희가 주는 배쪽을 받아 입에 넣은즉 꽤 시였다. 옥이는 억지로 깨무는척 하면서 어떻게 말하여 숙희를 데려갈가, 이번 자기 말에 따라 자기 남편의 운명은 결정되는듯이 생각되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것이였다.
한참이나 이렇게 생각한 그는 얼굴을 번쩍 들고 숙희를 똑똑히 보았다.
《숙희씨! 이런 말 하는 저를 용서하여주십시오.》
옥의 입술은 푸르르 떨렸다. 그리고 두볼이 화끈 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미리 예측한것인만큼 새삼스럽게 더 놀라지는 않았다.
《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숙희는 심상스레 말하였다.
《숙희씨, 잠간만 우리 집에 놀러 가십시다. 긴급히 볼일이 있는데요.》
《네, 무슨 볼일인지 대강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말이 채 마치지 못하여 옥이가 말했다.
《숙희씨, 당신은 참으로 모르십니까? 한때를 돌아봐주시지요.

그러면, 그러면 얼마나 고마울는지요…》
숙희는 잠잠히 있었다. 연희는 왈칵 일어나 숙희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숙희야, 옥씨가 오신 생각을 해서라도 이번만은 가야 한다. 응? 숙희야.》
연희의 눈에는 눈물이 괴였다.
《언니는 미쳤나 봐요. 왜 이러셔요?》
연희를 흘겨보고나서
《옥씨, 나는 당신이 불쌍해서 못 가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없었다면 벌써 가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남편을 사랑하여 저한테 오신것만큼 저 역시 당신을 생각하여 죽기로써 못 가겠습니다!》
숙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이 말 한마디에 옥이는 절망하였다. 머리끝까지 치밀리는 분함을 따라 그의 앞은 점점 암흑으로 변해지는것이였다.
《숙희야! 넌 나를 사랑하지. 내가 만일 죽게 된다더래도 네 힘으로 구원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둘터이냐?》
숙희는 연희 덤비는 꼴을 바라보았다.
《언니! 왜 그런 말까지 하여요?》
《숙희야, 제발 가다오. 가다오. 오작이나 불쌍한 사람이냐?》
숙희를 잡아 일으켰다.
《흥! 가기는 어데를 가요!》
영실은 옥의 손을 잡아끌었다.
《언니, 가자요.》
《그래, 못 가시겠다는 말이요?》
《무엇하러 가요!》
딱 떼여버렸다. 어물어물하다가는 이때껏 고집해온것이 무효로 돌아가고말것 같았다.
방문이 열리자 숙희 어머니가 들어왔다.
《무슨 일들이냐?》
영실은 손을 슬며시 놓고 앉았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야요.》
숙희는 이렇게 말하고 배쪽을 들었다.
그는 한참이나 우두커니 서서 여러 사람을 휘뚜루 살펴보다가 밖으

로 나갔다. 뒤이어 담배대 터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옥이는 더 앉았을수 없었다. 하여 일어났다.
《숙희씨, 실례 많이 했습니다. 다 용서해주시구려.》
주인은 잠잠히 따라 일어났다. 그들은 정신없이 걸었다.
《언니, 속태우지 말라우. 곧 낫겠지 무얼 그래.》
옥의 애쓰는 꼴이란 그의 눈으로 볼수 없었던것이다. 한참이나 뛰여오던 옥이는 거리바닥에서 공중 넘어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한번씩 돌아보고 씩 웃었다. 아이들이 이리로 달려왔다.
영실의 두귀밑이 화끈화끈 달았다.
《언니, 천천히 가요.》
그를 잡아 일으켰다. 옥이는 앞이 아득해지며 재차 넘어졌다. 영실이는 너무 안타까와서 슬그머니 골이 났다. 아이들은 바싹 대들어 숨답답하리만큼 쳐다보았다.
그는 겨우 옥이를 일으켜가지고 그의 손을 꼭 붙들었다.
《언니, 정신차려요.》
옥이를 쳐다보았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방울방울 맺혀 귀밑으로 흐르는것이였다.
바라보니 붉은 옷 입은 죄수들이 간수들에게 호위되여 지나갔다. 영실은 발길을 멈추고 섰다.
《오빠!》
얼굴 긴 사나이가 이편으로 힐끗 돌아보고 말없이 지나치는것이였다.
영실의 무섭게 뛰는 가슴은 옥이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웬일이냐? 누구냐?》
《저기 가는 세번째로 선 사람이 우리 오빠야요.》
그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오빠?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오빠… 그 오빠냐?》
영실의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아 떨어졌다.
옥이는 그들의 가는 뒤맵시를 바라보았다. 따라서 영실 어머니 눈물 섞어 이야기하던 마디마디가 그의 가슴을 울리게 하였다. 몇백명의 로동자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해 바친 영실 오빠, 이렇게 생각하고나니 정신이 바짝 들었다.
《오빠! 내 오빠도 되는것이다.》

영실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그들이 밟고 간 넓은 길을 끝없이 바라보았다.

영실이는 눈을 부비치며

《언니, 가자우.》

하고 옥이의 손을 잡았다.

《놔라!》

옥이는 우뚝 서서 무엇을 생각하더니

《오빠가 밟고 간 이 길로 우리도 가야 한다! 영실아!》

그의 음성은 떨려 나왔다. 영실이는 멀거니 바라보며

《언니 미쳤나봐. 어서 가자구요!》

6. 옥이

종로에서 영실을 보낸 옥이는 자기의 과거를 곰곰히 생각하며 걸었다.

(나는 어떠한 길을 걸었나? 아니, 나도 사람인가? 밥을 먹고 옷을 입을줄 아니 사람이랄가, 울고 웃을줄 아니 사람이랄가? 응! 아니다! 울었다면 나를 위하여 울었더냐? 웃었다면 진정한 나의 웃음이였더냐? 모두가 봉준을 위하였음이였다. 불쌍한 인간!)

그는 이렇게 부르짖고 대문으로 들어섰다.

방으로 들어온 그는 묵묵히 봉준을 보았다. 봉준이는 벌컥 일어나려다 도로 팍 끄꾸라졌다. 다시 머리를 돌려 눈이 찢어지도록 바라다본 그는

《또 못 데려왔구려! 숙희! 숙희야! 네가 나를 죽이러느냐. 한번만 뵈여다오, 한번만…》

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시름없이 바라본 옥이는 속으로 (불쌍한 인간! 차라리 울바에는 너를 위하여 울어라. 좀더 나아가 여러 사람을 위하여 울어라! 한낱 계집애를 생각하여 운다는것은 너무나 가엾은 울음이 아니냐!) 이렇게 부르짖을 때 아까 본 영실의 오빠가 머리에 똑똑히 나타나는것이였다. 하여 자기 가슴속에 깊이깊이 들어앉았던 남편인 봉준이는 차츰차츰 희미하게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봉준을 물끄러미 보았다. 피기없는 그의 아웅한 얼굴, 징구락지 같은 그의 흰 손은 마치 죽은 송장을 보는

듯 한것이였다. 그리고 이때처럼 아무 미련없이 봉준을 불쌍하게 본 적은 없었다.
옥이는 머리가 지끈해지며 두귀가 울었다. 따라 메슥메슥해지며 밝은 침이 훽 도는것이였다. 방안으로 빽빽이 들어찬 무거운 공기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주었던것이다.
벽을 향하여 누웠던 봉준이는 이켠으로 돌아누웠다.
《여보, 리혼해주겠소, 못해주겠소? 당신 말 한마디에 달린것이니까.》
숙희가 이때까지 자기를 랭대하는것은 오직 옥이때문이라 생각되였던것이다. 옥이는 눈을 똑바로 떴다.
《네, 해드리지요. 이때까지 온것도 그만큼 제가 어리석었던것입니다. 아니, 못난 탓이였습니다.》
봉준이는 너무도 뜻밖의 대답에 오히려 서먹서먹하게 되였다. 하여 이상한 눈치로 그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참말입니까?》
《네, 참말이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에 답답한 토굴속에서 벗어나는듯 하였다.
그들은 한참이나 말없이 있었다. 옥이는 더 앉아있을수 없이 코밑이 달아왔다. 더구나 바라보기부터 뜨거워 보이는 전등불은 안타깝게 고요하였다. 그는 벌컥 일어났다.
《가겠습니다.》
말 한마디 남기고 미련없이 시원스럽게 뛰여나왔다.
대문을 나서자 선들선들 부는 바람이 그의 전신을 날듯이 가볍게 하여주었다. 따라서 그의 앞에 나타나는 모든것은 새것과 새것으로 그의 눈을 둥그렇게 하였다. 왜 이럴가? 자신을 향하여 물어보았으나 일정한 대답이 없이 머리에 떠오른것은 아까 그들이 밟고 간 아득해보이는 훤한 길이였다.
깜짝 놀랐다. 어둠속으로 따뜻한 손길이 자기 손을 꼭 잡았다. 그는 탁 뿌리쳤다.
《옥씨!》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나오는것을 보아 녀자임을 알았다.
《누구세요?》
《저예요.》

순간에 그는 누구일가! 숙희가 얼핏 생각키웠다.
《숙희씨예요?》
《아뇨, 연희입니다.》
《네, 들어가 보시지요. 저는 너무 곤한 끝에 머리가 아파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전같으면 이렇게 돌아가지도 않겠지마는, 더구나 이런 말은 못하였으련마는 심상히 내쳐버렸다.
《옥씨, 잠간만 같이 들어가주세요.》
옥이는 난처하였다. 모처럼 생각하고 온 손님의 말을 거절할수 없는터이다. 더구나 전같으면 의례 자기로서는 안내하여야 할 처지인줄을 번연히 아는 그였다. 그렇다하여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가기는 죽기보다도 싫은 생각이 났다.
《연희씨, 용서하십시오. 제가 극도로 몸이 괴롭습니다.》
안타깝게 거절하는 옥의 말에 그는 이상히 생각되였다. 그러나 요리조리 따져 생각하기는 뒤범벅이 된 그의 머리가 허락치 않았다.
《네! 곤하시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안타깝게 오라는 숙희가 아니 오고 기다리지 않는 자기가 온만큼 당연한 일이다 생각될 때 이 자리에서 금방 죽는다더래도 봉준의 방까지는 들어가고싶지 않았다.
《그럼 실례합니다.》
옥이는 앞으로 달음질쳤다.
숨이 차서 달려온 옥이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밥 주어요.》
며칠동안에 처음으로 듣는 생기있는 말이였다.
《응, 주지. 어찌되였나?》
옥의 손을 잡고 근심스러운듯이 영실 어머니는 들여다보았다.
《그저 그렇지요. 어서 밥을 주어요, 참.》
옥이는 빙그레 웃었다.
연희는 매일밤 가서 봉준의 병간호를 하였다. 그의 열성으로 간호한 보람인지 몰라도 차츰차츰 회복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가슴속에 깊이깊이 들어앉았던 숙희도 저절로 흔적을 감춰버렸다.
반면에 봉준이는 연희에게다 마음을 붙이고 다시 하늘을 보게 되였다. 그만큼 연희의 순정에 눈물날만큼 감복되였던것이다.

그는 완전히 자기의 병이 회복되자 옥이가 원망스러웠다. 누구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생각은 못하는것처럼 봉준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뛰여나간 후로는 발길을 끊었던것이였다.
따라 새록새록이 옥의 신변을 조사하는 반면에 이상하게도 자기의 마음이 옥에게로 돌아가는것이였다. 학교안에서는 우등생으로 선생이나 학생들간에 온갖 사랑을 혼자 받는다는것, 더구나 재일이가 미쳐서 덤비는 꼴을 보고는 야릇한 복수심으로부터 이렇게 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성화치듯 재촉하는 리혼 일체도 그만해두고 도리여 옥의 눈치만 슬금슬금 보는것이였다.
어떤 날 밤 그는 하도 궁금증에 못 견디여 종로 네거리로 휘뚜루 쏘다니다가 그만 새로 한시가 되여 옥의 하숙집을 찾았다.
대문은 걸렸다. 그는 뒤창문곁으로 갔다. 하여 가만히 동정을 살피니 자는 모양이였다. 그래서 깨울가 그만 갈가 한참이나 망설이던 끝에
《옥씨!》
하고 불렀다. 잠잠하였다. 이미 찾은김이라 내처 불렀다.
《여보, 자우? 옥씨, 여보!》
창문을 지긋지긋 잡아당겼다. 첫잠 들었던 옥이는 문 잡아당기는 결에 놀라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여보, 옥씨!》
익히 듣던 목소린데도 얼핏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일어나서 창문곁으로 갔다. 순간에 (봉준이다.) 하였다. (무엇하러 그가 이밤에 우리 집을 찾아왔을가? 무슨 볼일이 있나? 무슨 일일가?) 이렇게 의심을 하였다.
《누구세요?》
《봉준입니다.》
《네! 무슨 볼일이 있어요?》
이 말에 봉준이는 부쩍 의심이 났다.
(누가 방에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저로써?…)
《네, 볼일이 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옥이는 옷을 더듬더듬 주어입고 밖으로 나가서 대문을 열었다.
봉준은 대문으로 들어왔다.
《그새 평안하셨소?》
첫잠에 무르익은 그의 토실토실한 두볼은 달빛에 한층 아담스럽게

보였다.
봉준이는 손목이라도 꽉 붙잡고싶게 그리 반가웠다.
《어떻게 이밤에 오셔요?》
《당신 오지 않으니까 보고싶어 왔지요.》
별로 능청맞게 그의 귀에 들렸다.
방으로 들어온 그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무슨 볼일이세요?》
봉준을 바라보았다.
《볼일은 무슨 볼일이야. 당신 보고싶어서 왔다니까.》
《갑자기 그렇게 보고싶더이까?》
《그럴수도 있지요.》
《왜? 요새 신부인 생겼다는데 나같은것이 보고싶어요?》
옥이는 입을 꼭 다물고 책상우를 보았다. 봉준이는 옥을 뚫어져라 하고 보다가 입을 열었다.
《여보, 당신 마음이 요즈음 달라진것 같구려.》
《네? 달라졌다고요? 어편 점으로 보아 하는 말씀입니까?》
《어편 점으로 보다니?》
그의 눈은 분함과 노여움으로 뒤집혔다.
《물론 당신의 자유를 누가 말릴수는 없지만 너무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함인지 옥이는 번연히 알았다. 하여 그는 그의 뒤집힌 눈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고 맞쏘아보았다.
《네, 나도 이제부터는 나로서의 삶을 계속하여 보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라진 삶이겠지요.》
봉준이는 그의 어딘가 모르게 굳세게 나가는 말에 다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애착심은 점점 더하여지는것이였다.
《여보, 당신도 좀 배웠다는 터세구려. 이를테면… 흥.》
봉준은 아니꼽다는듯이 머리를 외로 꼬았다. 한참후에 봉준은 말했다.
《여보, 그러지 마우. 어머니 생각을 한들 당신으로서야 차마 버티겠소. 나는 아직 셈이 없어 그러든지 천성이 그래 그러든지 막치워놓구라두 당신만은 꾸준히 우리 집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소. 당신은 어머니의 유언을 잊었구려.》
자기의 말에 감격이 되여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찌하시는 말씀인지 나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밤낮으로 리혼해달라고 졸랐지요? 한데 새삼스럽게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그래 내가 그런다고 당신은 다른데로 시집가는구려.》 하고 옥을 껴안았다. 하며 번개같이 옥의 볼우에 볼을 마주대는것이였다.

옥이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를 뿌리치고 훽 일어났다.

《여보! 나는 당신의 안해가 아닙니다. 이런 무례한 짓을 어따가 합니까? 가요!》

그의 소리는 날카로왔다.

봉준이는 어제 밤 지난 일을 생각하면 담박이라도 달려가서 옥이를 쳐죽이고 자기마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끔뻑 잊고싶었다.

어머니께서 코, 침 졸졸 흐르는 옥이를 데려다가 자식 못지 않게 사랑하며 옴상곰상히 키워서 자기의 세대를 전부 밀어맡긴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니어찌니 하는것이 죽도록 미웠던것이다.

첫새벽에 그는 영철선생에게 가는 편지를 써서 부쳤다. 몇달지간에 처음으로 하는것이였다. 편지한지 이틀만에 영철선생은 담박 경성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속히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가 뜻밖에 만나놓으니 말문이 콱 막혔다.

《편지 보셨습니까?》

《보았네. 그래 무슨 소린지 몰라 왔네마는…》

봉준이를 자세히 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속까지 꿰뚫어보려는듯 하였다. 전부터 그를 못마땅히 알므로 인하여 그의 말로만은 신임할수가 없었다.

《이제 옥이한테도 갔었네마는 학교 가고 없데그려.》

《가셨댔나요. … 뭐 아무래도 리혼은 되는가싶습니다.》

《지껄이지 말아. 하면 말인줄 알고 자네는 떠드네마는… 옥이가 그럴리가 있나?》

봉준이는 웃었다.

《예, 물론 선생님까지도 저를 의심할줄은 번연히 알았으니까요. 믿던 나무에 곰핀다든지… 그렇게들 예수믿듯 믿으시드니 아주 잘되였습니다.》

그는 천정을 쳐다보았다.

문이 열리자 재일이가 들어왔다. 그는 아래목으로 가서 펄썩 주저앉아 비스듬히 바람벽을 기대앉았다.
《여보게, 옥씨 오셨댔나?》
《밤낮 옥이, 그렇게 보고싶으면 가서 보게나.》
봉준이는 슬그머니 싫증이 나면서도 겉으로는 웃음으로 쓸어쳤다.
선생은 난봉군 같은 사나이 입에서 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것이 싫었다. 그래서 머리를 외로 꼬고 괴로운 낯빛으로 잠잠하였다.
재일은 봉준을 향하여 눈을 껌뻑하며 선생의 아래우를 살펴보았다. 봉준은 씩 웃었다.
《여보게, 나도 장가가야 되지 않겠나?》
《중매할가?》
봉준의 눈치를 보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대강 짐작하였다. 전부터 영철선생의 이야기는 봉준으로부터 몇번 들었던것이다.
《하게, 연희씨로 하게.》
이 말을 듣자 선생은 괘씸한 생각이 들어 그들이 몹시 아니꼽게 보였다. 그러나 모든 일은 옥이를 만나봐야 알겠으므로 어서 바삐 옥이 오기를 조마조마히 기다리였다.
안방 시계가 다섯시를 쳤다. 신발소리가 점점 가까와지자 방문이 가만히 열렸다.
《선생님!》
옥이는 어린애처럼 뛰여 선생의 곁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따라 아득히 멀어보이는 고향에서 온것이 꿈을 꾸는듯이 생각되였다.
《공부 잘했나?》
선생의 둥글둥글한 웃는 맵시를 보며 어머니나 아버지를 대한듯 하였다.
《에그,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생각할수록 신통하여 선생을 쇠쇠 들여다보았다.
《옥씨, 그새 공부 잘하셨습니까?》
옥이는 재일을 바라보았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신것이 하도 반가와서요.》
《자네 얼굴이 전보다 좋았네.》
선생은 옥이를 쇠쇠 들여다보았다.
옥이는 잠간동안 봉준의 기색을 보았다. 그는 잠잠히 딴곳만 바라

보고 가볍게 한숨만 쉴뿐이였다.
그는 눈을 돌려 선생을 두루두루 살폈다. 그의 풍스러운 옷맵시, 땅파다 온 갈라진 손 그리고 꾸밈없는 절박한 말씨가 농촌의 전경을 련상시키게 하였다.
《선생님, 농사는 어찌되였습니까? 조도 잘되고 벼도 잘되였나요?》
《되기는 다 쏠쏠히 되였네마는… 어찌된 모양인지 전보다는 더 어려워 지내는 모양이니 난처하지. 그리고 자네네 앞집 쇠돌이네는 작년가을에 북만주로 가고 올봄에도 십여가구가 만주로 떠났네.》
옥이는 눈이 둥그래졌다.
《쇠돌 할머니도 가셨겠지요?》
시어머님 돌아가신 후로는 집안에서 답답한 일이 나든지 혹은 아직 서툰것이 있든지 하면 쇠돌 할머니가 찾아오든지 자기가 일감을 떠들고 갔다. 하여 저고리부터 시작하여 속옷 함질러, 더구나 음식에는 겨우 밥이나 끓일줄 알았던 그가 두부, 묵, 떡막붙이, 비지 같은것에 이르기까지 그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았던것이다.
쪼글쪼글한 그의 얼굴, 꼬부라진 허리, 무슨 일 할 때에는 쇠눈같은 안경을 쓰던것이 시재 보는듯 하였다.
《그들이 만주로는 무엇하러 갔나요?》
눈물이 핑 돌았다.
신문을 통하여 농촌형편을 대강 짐작은 했지만 막상 낯익은 자기 고향사람들이 못살고 떠났다는 소리를 들으며 마치 자기 일이나 당한듯하였다.
《만주에서는 누가 이마에 손 얹고 기다린다더이까?》
봉준, 재일까지도 멍하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그곳에는 땅이 흔하다대. 그래서 농사지으러 가지. 우리 근처서 몇몇 들어간 사람들은 아조 넉넉히 지낸다는데.》
옥의 흘리는 눈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당연할것이다 하였다.
《땅이 흔하면 거저 준다나요? 내 땅을 떠나서 가면 무얼해요. 이제도 떠나겠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거들랑 선생님께서 제발 말려주세요. 앞길을 막고 사정없이 때려주세요. 아니, 반쯤 죽여주세요! 굶어죽어도 내 땅에서 죽고 빌어먹어도 내 고향에서 먹어야지요!》
선생은 어리둥절하여 옥이를 보았다.
(아마도 제 마음이 시끄러운데 빙자하여가지고 저러나부다.)

하고 생각하니 더욱 가엾게 보였다. 하여 마음을 풀어줄양으로 말했다.
《말이지, 걱정 말게. 세상은 다 그런것 아닌가. 고생으로 된 세상이니까.》
이 말에 옥이는 또 예수교말이 나온다 하고 생각되였다.
봉준이는 옥이가 떠드는것이 밉광스러웠다.
《옥이, 선생님앞에서 똑똑히 말하오. 선생님께서는 내 말을 믿지 않으시니까. 당신은 내 안해가 아니라지요?》
선생은 옥이를 똑똑히 보았다.
《언제 우리가 부부가 되였던 일은 있어요? 당신도 늘 하신 말씀과 같이…》
봉준이는 선생을 쳐다보았다.
《자, 어떠합니까? 이제도 제 말을 곧이듣지 않겠습니까?》
선생은 멍멍하니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참이나 옥이를 보다가
《여보게, 자네가 아무래도 미친 모양이네. 사람의 정신을 가지지 못하였어. 자네가 참말로 옥인가?》
《네, 옥이는 옥입니다마는 옛날같은 어리석은 옥이는 아니올시다.》
《어리석은 옥이! 그것은 또 무슨 말인가! 흥! 서울이 사람을 못쓰게 만든다고 하데마는 겨우 일년이 지나지 못해서 그렇게 된단 말인가? 자네만은 내가 믿었네마는…》
순간에 선생의 눈에 떠오른것은 봉준 어머니의 새하얀 얼굴이였다. 그리고 《저 어린것들을 선생님에게 맡깁니다. 부디 잘 길러주시오.》 하고 재삼 부탁하던 그의 말이 귀에 들리는듯 하였다.
근 십년동안을 그들의 선생 겸 엄하신 아버지 겸 자상스러운 어머니가 되여 키운 보람없이 글쪼박이나 속에 들었다고 제멋대로 구는것이 무엇보다도 난처했다.
선생은 한숨을 푹 쉬고나서
《내려가! 배우라고 서울 보냈지 그런 수작하라고 보낸것은 아니야!》
소리를 냅다 질렀다. 봉준이는 가슴이 시원하도록 통쾌하였다. 옥이는 가슴이 송구해졌다. 선생의 꾸준한 애호심은 자나깨나 잊지 못하였던것이다.

그의 눈은 빨개졌다.
《어서 준비를 하게!》
봉준이를 쳐다보았다.
《내가 무슨 권리로 자네들을 관리하겠나마는… 알다싶이 돌아가신 자네들의 어머님의 피나는 유언을 잊지 않음일세.》
선생은 주먹으로 눈을 씻는것이였다. 옥의 가슴은 찌르르 울리였다. 그러나 속으로 이렇게 위로받았다.
(어머님의 딸은 나다! 어머님께서 생전에 실행치 못한것을 나는 실행할것이다.)
그는 적이 안심되였다.
《어서 가세, 짐들 다 싸게.》
《선생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선생은 와락 성이 치받쳤다. 그리하여 눈을 벌컥 뒤집고
《뭐라구! 한마디만 더 해보게! 그래, 자네 입으로 나오는 말인가? 저 하늘이 무서워서 어찌 그런 말을 하나? 아무리 마음이 변했다 해두 죽은 사람은 죽었다 하더래두 자네들을 위해 애쓴 이놈만은 알아볼터이지, 이놈만은!》
자기의 가슴 복판을 가리켰다. 옥이는 전신이 오싹해지며 그 넓다란 가슴을 보았다. 확실히 자기네들의 둘도 없는 은인이였다. 하나, 둘, 셋, 넷을 그에게 배우고 이때까지 무사히 자란것이 그의 애쓴 보람이였다.
그러나 한두사람을 돌아보아 자기의 젊음을 무단히 썩어뜨리고싶지는 않았다. 보다도 자기의 젊음을 무가치하게 희생당하고싶지는 않았던것이다.
옥이는 눈을 착 내리감고
《선생님! 잊지 못합니다. 결단코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럴수록 좀더한 용기를 얻어 앞으로 나가게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선생님을 잊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듣기 싫어! 자네 수작은 하나 들어볼 건더기가 없네. 소위 배웠다는것들에게서 나오는 말이 그 모양인가? 내려가!》
그는 옥의 손을 잡아끌었다.
《자네는 짐 다 싸가지고 뒤로 오게!》
이 꼴을 본 봉준이는 선생의 두손을 꼭 잡았다. 토라진 옥의 마음

은 다시 돌리지 못할것을 알았던것이다.

《내버려두시오!》

《어서 가우, 축복합니다.》

옥이는 새하얗게 질렸다.

《선생님! 저는 가겠습니다.》

겨우 내치고 발길을 옮겼다.

선생은 봉준을 밀치렸으나 힘이 딸리였다.

《옥아! 옥아!》

눈물섞어 나오는 인자한 목소리였다. 옥이는 어려서부터 귀에 젖은 그 음성에 발길이 무거워졌다.

《혜성》 1931. 8. —1932. 12.

중, 단편소설

젊은 어머니 (제4회)

강 경 애

호외 (정한 호수외에 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림시로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 돌리는 소리에 놀란 우희는 시가에 들려 무엇을 사려던것도 잊고 분주히 집으로 왔다.

문안을 들어서니 집안은 고요하였다. 전같으면 료리상차리기에 분주했을터이고 혹시 한가한 틈이 있을 때에도 일군들의 롱담이 한창 벌어졌을터인데 웬일인지 오늘은 잠잠함에 의아한 생각으로 부엌까지 와서 들여다보았다.

《료리상주문이 안 들어왔는가?》

맥없이 들어서서 수군거리는 일군들을 향하여 우희는 물었다.

일군들은 그제야 주인아씨가 온줄 알고 일시에 돌아보았다. 그중 한 사람이 우희앞으로 한걸음 나오며

《저 영업간판을 떼래요.》 하고 말했다.

우희는 너무나 의외의 말에 놀랐다.

《뭐?》

순간에 그는 전신이 매시근해짐을 느꼈다.

일군들은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며 입맛만 다시고있다.

《아니, 누구? 누가? 롱담 아니여?》

우희는 진심으로 그들의 롱담이기를 마음속으로 깊이 빌며 무서운듯이 그들의 눈치를 살폈다.

《흥, 롱담이나 되면 좋게요.》

한 일군이 쭈그려앉으며 담배를 꺼내 피우면서 이런 말을 한다.

《이제 금방 순사가 와서 말했어요. 우리 말을 믿지 못하시겠거든 뒤거리마님께 물어보슈.》

뒤거리마님은 우희 친정어머니를 가리킨 말이다.

우희는 그만 더 알아볼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해지며 이 무서운 현실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료리점을 하면서부터 더구나 자기가 말아하게 되면서부터는 일군들이 나고드는 일이며 식료품이 모자라서 금방 들어온 료리주문에 응해주지 못할 때의 초조와 일군들의 월급때문에 온갖 시끄러움을 당하면서 (내가 이노릇 안하구는 못사나.) 하고 탄식을 할 때도 한두번이 아니였으나 막상 이런 일을 당하고보니 그때에 그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였다.

우희가 겨우 방문앞까지 왔을 때 아무 철모르는 유광이가 엄마 신발소리에 좋아라고 뛰여나온다.

《엄마!》

《무엇하기 여기 오느냐?》

아까부터 우희 어머니는 차입하러 가는 우희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불평이 일시에 쏟아져나온다.

《아니, 순사가 왔어요? 뭐래요?》

우희는 유광이를 안으며 풀기없이 바라본다.

《그래. 뭐라기는 뭐라겠니. 영업 그만두라지. 주인이라는것이 그 모양으로 되고 또 일군으로 온 놈까지 잡혀다니니 영업인들 제대로 해먹으라겠니?》

우희 어머니는 담배대로 재털이를 땅땅 두드리며 한숨을 푹 쉬인다.

《어차피 잘되였느니라. 아무래도 시집가야지 혼자 살수 있니? 어서 임자를 맡겼으면 내가 이제 죽어도 눈을 감겠다.》

전같으면 우희는 뭐라고 대꾸했을터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만 말문이 꽉 막히고말았다.

유광이는 젖을 어루만지며

《엄마, 나 과자.》

아까 나갈 때 우희가 약속한 말을 잊지 않고 유광이는 안타깝게 조른다.

딸이 풀기없이 앉은것을 본 어머니는 음성을 낮추어가지고

《그런데 채주사나으리 요새 늘 오시냐?… 어쩌면 사람이 그리 의젓하니. 젊은 사람치고 그렇게 점잖고 의젓한이는 처음 본다. 그런데

요새 폭탄을 맞았다더니 그 어찌 되였느냐? 이 조희 봐라.》
하면서 깔려있었던 호외쪼각을 내여놓는다. 무엇보다도 채지배인의 소식이나 알가 하는 바람이 든것이다.
우희는 깜박 잊었던 호외를 받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찍혀있었다.
《○○은행과 동지배인의 사택에까지 폭탄을 던진 협의자로 ××료리점 이다바(료리사)로 있는 민○○를 체포하여 목하 취조중인데 동시에 그 집을 수색한 결과 ××로의 중요서류를 발견하였으며 이것을 단서로 검거의 선풍은 더욱 확대되여 다수한 청년 남녀가 임의로 검거되였으며 앞으로도 검거될 모양이다. 특히 주목할것은 1년전에 해외로부터 들어온 신○○이 금조(오늘 아침)에 피검(검거)되였다.》
우희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리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였다. 어쩐지 호외를 드는 그 순간부터 아까와는 딴판으로 알지 못할 새힘이 물결침을 느꼈던것이다.
《뭐라고 했니? 채주사나으리 댁은 어찌되였니?》
딸의 눈치를 살피며 상서롭지 않은 내용임을 짐작하였다. 그리고 어서 채지배인의 소식만이 답답이 알고싶었다.
우희는 어머니의 말대꾸할 생각은 전연히 잊고 저편 벽만 끝없이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부터 민씨의 수상한 태도에 막연히 짐작은 되였다. 그러나 지금의 이 사실을 읽고나니 그의 침착한 태도와 헌신적노력이며 꾸준한 힘! 새삼스럽게 뭉클뭉클 깨달아졌다. 따라서 자신도 그만 모든 탈을 벗어버리고 뛰쳐나서 그들과 함께 무슨 일이든지 하고싶은 욕망이 불불 끓어일어났다.
《흥, 영업간판을 뗀다, 누가 그것 아니면 죽을가!》
우희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이 애 어미말을 듣지 않고. 그래, 폭탄던진 놈은 잡었느냐?》
《어머니두, 그것은 알아 뭣해요?》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 하겠다.》
언제나 우희 어머니가 딸을 대하면 성풀이하는 말이다.
《이러니저러니 여러 생각할것없이 일군들은 헤치고 우리 집에 가

서 있자. 그래서 나중 문제는 차차로 해결하더라도…》
　딸의 속이 어떨것을 생각하니 더 말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우희는 새삼스럽게 이 모든 현실이 저주스럽고 원망스러워 못 견딜 지경이다. 그리하여 점점 참았던 분까지 걷잡을수없이 일어남에 입을 벌려 말하고싶지도 않았다.
　《이 애, 내 말 들어?》
　한참이나 아무말없이 있던 우희는
　《어서 가셔요, 내가 처리할것이니.》 하였다.
　어머니가 곁에 있어 잔소릴 하는것이 귀찮아졌다. 이 눈치를 차린 그의 어머니는 지금은 무슨 말을 하여도 쓸데없을줄 알고 일어났다.
　《오냐, 그럼 래일 또 오마. 어서 누워서 진정하여라. 유광인 내가 업고가리?》
　《싫어, 엄마.》
　유광이는 할머니를 흘끔 쳐다보며 어머니곁으로 다가온다.
　우희는 넋잃은 사람모양으로 어머니가 가든지말든지 내 알바 아니다 하는듯이 천연스럽게 앉아 팔짱을 끼고 석양볕에 빨개진 앞문만 시름없이 바라보고있었다. 너무나 복잡해진 머리는 어느것부터 생각할 여유가 없이 뒤범벅이 되여 돌아가고있었던것이다.
　신발소리가 쿵쿵 나면서 문우에 모자그림자가 얼씬 비친다.
　《엄마!》
　진웅이는 언제나 문밖에서 엄마를 찾고 들어오는 버릇이다.
　《오빠 온다.》
　유광이는 맞받아나간다. 다팔거리는 그의 새까만 머리며 기쁨에 아글아글하는 그의 눈동자!
　《이제 오니? 어서 가방 저 못우에 걸어.》
　진웅이는 선채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 어디 갔나?》
　똑바로 쳐다보는 진웅이의 그 커다란 눈! 우희는 생각지 않은 이 물음에 깜짝 놀랐다. 그리하여 진웅의 눈치를 살피며 (저것이 누구에게서 애비없다는 조롱을 받았나?) 하는 의심과 함께 남편의 모양이 스르르 떠오른다.
　《웨, 그것 왜 묻니? 누가 뭐라든?》

우희의 음성은 떨려나왔다. 그리고 금시에 목이 탁 가라앉은듯하였다.

《저 수길이는 저의 아버지가 새 구두랑 모자랑 그리구 가방이랑 또 장난감을 많이 사왔데. 그래서 나두 가서 수길이와 놀다오네. 저 동경서 사왔다지.》

아까 부럽게 바라보던 이 모든것들이 또다시 그의 눈에 비쳐진다. 그리고 그는 맥없이 머리를 숙이며 울멍울멍한다.

《오, 내 다 사주지. 진웅아, 이리 온. 진웅이는 착해.》

말끝을 겨우 마친 우희는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말에 용기를 얻은 진웅이는 빙긋 웃으며 어머니곁으로 와서 펄썩 주저앉는다.

《그럼 나두 다 사줘, 응?》

《오냐, 사주구말구!》

봄바람에 투실투실하게 터진 아들의 손을 잡은 우희는 소리쳐 울고싶은것을 겨우 참았다.

유광이는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도 오빠가 하는대로 어머니곁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새별같은 눈을 반짝 뜨고 《엄마, 나두!》 다섯손가락을 쭉 펴가지고 내여민다. 그 모양을 바라보는 어머니로서의 우희! 새삼스럽게 자신의 어깨가 묵직함을 깨달았다. 따라서 참을래야 참을수 없는 눈물이 앞을 캄캄케 하였다.

《엄마두 우네, 과자 먹고싶어 운다.》

손벽을 치며 유광이는 좋아한다.

우희는 얼핏 눈물을 씻고 그들을 꼭 껴안았다.

《계집애도, 엄마가 다 우늬? 그렇지? 엄마.》

우희의 우는것을 보지 못한 진웅이는 어른들은 울지 않는것으로만 생각되였기때문에 굳은 신념을 가지고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우희는 말대신에 머리를 끄덕여보이며 눈물을 소리없이 목으로 삼키였다. 따라서 6년전 그날 밤! 남편이 최후로 남기고간 그 말이 다시금 생각키웠다.

《굳센 어머니가 되여주시오, 굳센 어머니가—》

그때엔 무심히 들었던 이 말이였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숨이 답답하도록 깨달아졌다.

그때부터 아니, 이 애들을 배는 그 순간부터 자신은 어떤 보이지 않

는 쇠철망속에 얽매여있음을 새삼스럽게 발견하였다. 이제까지도 두 어린것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자신은 남편과 같이, 민씨와 같이 뛰쳐나려고 몇번이나 생각하여보았던가! 그러나 그는 이 두 어린것들에게 붙잡혀서보다도 이 철망속에 걸려 어떻게 벗어날수가 있느냐?

그날 밤, 눈이 부실부실 내리는 그날 밤 남편은 자기들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뛰쳐나섰다. 그때에는 다소 원망스럽기도 하였지만 지금 생각하니 남편의 그 용감함이야말로 칼을 들고 적과 대항하는 그 전사보다도 몇배 더 용감함을 알수가 있었다.

진웅이는 아까 그 물음이 언제이였더냐듯이 죄다 잊어버리고 유광이와 돌가보를 하며 놀다가 어머니를 쳐다본다.

《엄마, 유광이는 가우랑 돌이랑은 할줄 모르고 조희만 한다니까.》

《오, 그러냐.》

우희는 그들의 쥐였다펴지는 조고만 손들을 언제까지나 바라보고있었다.

×

우희는 선뜻 일어나서 놀다가 함부로 쓰러져 잠들은 유광이를 안아다 자리에 눕히며 (잠시만 내가 보지 않아도 이렇구만.) 하고 깔고누워서 빨개진 유광의 손등을 볼우에다 대고 슬슬 문지르면서 애처로운듯이 들여다보았다.

진웅이까지 자리에 눕힌 그는 전기불을 끄고 일부러 잠을 청했다. 그러나 눈은 점점 더 또릿또릿해오고 골머리며 허리까지 아파와서 못견딜 지경이다. 그리하여 그는 신선한 바람이나 쐬우고싶은 생각에 얼핏 일어났을 때 벌써 유광이는 젖꼭지를 꼭 쥔채 평화스럽게 색색거린다.

《어미된 몸은 할수가 없구나.》

무의식간에 이런 말을 하며 가만히 몸을 빼여가지고 문밖을 나섰다.

낮같은 달밤이라 오히려 전등불이 수집어할 그러한 밤이다.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거쳐 나왔다. 그의 칠흑같은 머리며 눈같이 흰 얼굴우에 쌀쌀한 봄바람이 간지럽게 스치고 돌아간다. 그때에 우희머

리에는 웬일인지 남성다운 민씨의 그 굵다란 손이 자기 손우에 힘있게 덮여지는듯이 얼핏 떠올라 가벼운 한숨을 몰아쉬였다.

뒤이어 채지배인의 그날 밤 고백이며 김선생 등이 휙휙 지나친다.

(김선생은 벌써 나왔다니 그는 폭탄사건에는 참가하지 않았는가? 그이 나왔으면 민씨에 대한 말도 물어보고 자신의 금후태도도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머리를 들었을 때 달빛이 찢어지게 드리운 민씨의 방문이 뚜렷이 나타났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손길은 민씨의 방문을 열었다. 훅 끼치는 이 방 독특한 냄새! 좀 역한듯 하면서도 싫지 않은 냄새는 방안이 터져라고 배여있는것을 그는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이나 우두커니 섰던 우희는 전기불을 켜고 두루두루 살펴보았을 때 저켠 벽우에 붙어있는것은 맑스사진이다. 따라서 (저 사진이나 붙이지 말았더면 이번에 잡혀가지 않었을런지 아나?) 하는 후회를 하였다.

저 사진을 붙였던 그때는 민씨가 며칠 앓아누워있을 때다. 그때 마침 김선생이 우희를 찾아와서 슬그머니 내여놓은것이 저 사진이였다.

의미있게 바라보는 김선생의 그 표정! 우희는 김선생의 속뜻여하는 하여간 그 사진에 호기심이 움직이여 감사히 받아두었다. 그래서 농속에 깊이깊이 간직하였다가 마침 민씨가 고독히 앓아누운지 며칠이 되여도 완쾌되지 않음에 그는 한번도 들어가보지 않은 민씨의 방에 병문안인지라 그저 들어가기가 무엇하여 과실과 맑스의 사진을 가지고 들어갔던것이다.

그때에 민씨는 약간 웃음을 띠우며 물었다.

《그것이 누구의 사진입니까?》

《모르세요? 다― 아시면서도.》

슬쩍 민씨의 눈치를 살폈을 때 민씨는 정색하며 말하였다.

《모릅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민씨가 독서하는줄을 잘 아는 우희는 설마 민씨가 이 사진을 몰라볼가 하였다가 참말 모르는듯 한 그 표정에 그는 다소 실망을 느끼였다.

《어쩌나 붙여두고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던 민씨! 우희는 지금에야 그 민씨의 진중한 태도에 한층더 감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저켠 구석으로 놓은 경관의 손에 산산이 부서진 석유상자앞으로 우희는 가서 찬찬히 뒤지기 시작하였다. 몇권의 책과 구겨진 종이쪼각이며 연필자루 같은것이 수북이 나왔다.

우희는 또 무슨 비밀서류 같은것이 있지나 않나 하는 호기심으로 밑바닥까지 손을 넣어 휘저었을 때 무엇이 말큰하고 잡힘에 꺼내여보니 명주손수건이다. 그는 얼핏 전등아래로 와서 살펴보았다.

손수건뒤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백매(흰매화)! 이것이야말로 6년전에 남편에게 준 자기의 솜씨가 아니였더냐? 우희는 눈을 부비고 보고 또 보았다.

색들여놓은 백매의 파란 줄기가 흐려졌을망정 그의 바늘뜸새는 여전하였다.

그때에 번개같이 떠오르는것은 아까 낮에 큰길에서 본 자동차우의 그 청년! 경관에게 포위되여 큰 문안으로 드리달리던 그— 더구나 우희를 보고 머리를 돌리던 그 청년…

《신가정》1933. 4.

축 구 전

강 경 애

어렴풋이 잠들었던 승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이젠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고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그리 번화하던 이 거리도 어느덧 고요하고 전등불만이 가로수사이로 두어줄의 긴 빛을 던지고있었다.

그는 눈을 두어번 부비고나서 밖으로 뛰여나왔다.

한참이나 나오던 그는 싸늘한 볼을 어루만지며 자기의 머리에 모자가 없음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그래서 곧 돌아와서 모자를 눌러쓰

고 총총히 걸었다.
그가 목적지인 S공원까지 왔을 때 하늘을 찌를듯이 올라간 백양나무숲을 바라보면서 희숙이가 와서 기다린지가 오래지나 않았나 하는 불안과 어떤 감격으로 발길이 허둥허둥해졌다.
그러나 그가 S공원안으로 들어와서 정자까지 왔을 때 희숙이가 아직 안 와있으므로 다행하면서도 섭섭하였다.
그는 정자란간에 비켜앉아 어디로부터 희숙이가 나타날지 몰라 두리번두리번 살펴보았다.
그리고 누가 이 공원에 놀러 나오지 않았나 하는 불안도 일어났다.
마침 싸늘한 바람이 소르르 정자안으로 밀려들어오며 나무잎을 데구루루 굴린다.
그는 웬일인지 소름이 오싹 끼치며 무시무시한 생각까지 든다.
벌써 이곳은 완전한 가을이였다. 조선 같으면 아직도 홑옷을 입을터인데 두툼한 고꾸라양복을 입었는데도 이렇게 온몸이 싸늘하게 얼어들어온다.
그는 팔짱을 끼며 (아직 시간이 멀었는가, 어째 안 와.) 하고 무심히 손목을 굽어볼 때 일년전에 전당포에 들어간 시계생각이 문득났다.
일년전 바로 이때 학교에 검거가 일어났을 때 다수한 그의 동무들이 령사관으로 잡혀들어가게 되였다.
그런데 날은 추워오고 그들이 홑옷을 입고 들어갔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솜옷을 만들려고 두루 애쓰다가 마침내 동무들에게 약간 얻은 돈과 시계를 잡혀 솜옷을 지어 차입해주었던것이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한 동무들을 생각하였다.
그 어두운 감옥에서 지금쯤은 잠을 자고있을가? 혹은 우리들을 생각하며 그나마 잠도 이루지 못하고있을것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무어라고 형용 못할 불길이 가슴이 벅차도록 올라온다.
그는 한숨을 푹 쉬며 무심히 정자아래를 굽어보았다. 정자아래로 깔린 련못에는 달빛이 떨어져 유리알갈이 빛났다.
그는 나오는줄 모르게 (달밤이구나!) 하며 머리를 들었다.
어둑컴컴한 수림속으로 약간씩 보이는 저 전등불은 마치 그의 동무

들이 이 Y시에 섞여있는듯이 그렇게 드물었다. 그러나 저 불이 마침내 이 공원을 정복할 때가 멀지 않은것 같았다.

어째 안 올가 하고 그는 가만히 일어나 정자안을 거닐었다.

멀리 이십오세(마차이름)가 지나는 말굽소리가 툭탁툭탁 들리며 지르릉지르릉 울리는 종소리가 가늘게 들려온다. 종소리가 끊어진 후에 자박자박 신발소리가 나므로 승호는 얼핏 몸을 숨기며 바라보았다.

저편 수림으로 아장아장 걸어오는 사람은 확실히 희숙인듯 하였다. 그는 맘을 놓고 앞으로 나갔다.

희숙이는 멈칫 섰다가 승호의 기침소리를 듣고야 이편으로 걸어왔다.

《기다리셨지요?》

《네.》

곁으로 오는 희숙의 가는 숨결소리를 들으며 승호는 맘이 푹 놓였다. 그들은 가지런히 란간에 걸터앉았다.

《동무를 나오라고 한것은…》

희숙이는 머리를 번쩍 들며 승호를 똑똑히 바라본다.

《이번에 ××회 주최로 열리는 축구대회에 우리 학교도 참가하는것이 좋을듯 한데 동무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희숙이는 잠잠히 무엇을 생각하는듯 하더니

《동무! 표면만이 ××회 주최이지 그 실은 이 Y시안의 온갖 ×들이 주최하는것입니다.》

승호는 말끝을 얼른 받았다.

《네,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 틈에 섞여서 뛰논다더라도 과오만 범치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나가야 할 필요를 말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작년 검거사건이래 너무나 죽은듯 한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전하는것은 하필 승리를 거두어보겠다는것보다도 우리들의 꺾이지 않는 존재를 대중에게 알려주고자 함이외다.》

승호는 기침을 칵 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였다.

《지금과 같은 반동기에 있어서는 지배계급의 적극적탄압에 대중이 락망을 하고 비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활동이 어느 면으로나 더욱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희숙이는 작년 이때 검거가 일어났을 때 동무들을 숨겨주느라 밤중에 돌아다니던 기억이 얼핏 떠오르며 그때 몹시도 얄밉던 저 달이 또 솟았구나! 하고 흘끔 쳐다보았다.
그리고 웬일인지 주위가 그날 밤같아 휘휘 돌아보았다.
《출전하려면 다소의 경비(경기자금)가 들터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글쎄요. … 그것이 난처합니다. 뻔히 아는바라 학교에서 날 곳은 없고… 아무래도 동무들이 힘써야지요. … 우선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 동무들 몇몇은 지금 ×××××공사 인부로 들어가서 며칠 일하기루요!》
희숙이는 어떤 감격으로 조그만 가슴이 터질듯 하였다.
그리고 우리들이 돈벌 일은 없을가 하고 이리저리 생각하였다.
《우리들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글쎄요. 저… 이것 해보시렵니까? 이번 축구대회가 열리는 동시에 경마대회까지 열린답니다. 축구장에서 바라보이는 바루 정거장 앞벌입니다.》
《네.》
희숙이는 무슨 좋은 벌이자리가 나는가 하여 바싹 곁으로 온다.
《그런데 그곳서 림시 녀급을 채용하겠다고 거리에다 광고를 붙였더군요. 혹 동무도 보았는지요?》
희숙의 머리에는 경마장이 얼핏 떠오르며 부끄러운 생각이 눈가로 사르르 지나치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남동무들이 ×××××공사 인부로 나가겠다던 승호의 말을 다시금 생각하였을 때 오냐 무엇인들 못할것이 있냐! 하고 맘을 푹 가라앉히며 승호를 쳐다보았다.
《똑똑히 보셨나요?… 참이라면 우리들은 그곳에 운동해보겠습니다. 대체 녀급이란 뭘 어떻게 하는겐지요? 호호.》
이제 자기들이 그 사람 많은 곳에서 녀급으로 행세할것이 우습기도 하고 어찌 생각하면 눈물겨운 장면같았다.
승호는 희숙의 손이라도 꽉 붙들고싶게 고맙고도 다정해보였다.
그리고 그의 몸전체에서 발산하는 냄새는 확실히 이성을 초월한 동지로서의 믿음직한 냄새였다.

《별게 있겠습니까. 그저 차물이나 부어놓고 혹은 그곳에 오는 손님들에게 길안내같은것을 하겠지요. … 그러면 래일 학우회에서 출전여하문제는 정식으로 결정합시다.》
승호는 말을 마치며 가만히 일어났다.
량어깨가 딱 바라진 승호를 쳐다보는 희숙이는 새삼스럽게 그의 담력이 뚜렷이 보이는듯 했다.
《몇시나 되였을가?》
이렇게 혼자 하는 말처럼 중얼거리며 희숙이도 따라일어났다.
《아마 퍽 오래되였으리다.》
그들은 정자안을 벗어나 나무그늘로 들어섰다.

며칠후 희숙이와 그의 동무들은 드디여 경마장의 림시녀급으로 채용이 되여 경마장 우편 바라크(가건물)속에서 경마권을 팔며 혹은 사람들에게 차물을 날랐다.
용기를 내여 여기에 들어는 왔으나 차완(덮개가 있는 차고뿌)을 들고 손님들앞에 서게 될 때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리만큼 두볼이 화끈거렸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들에게만 집중된듯 하였다.
그러나 좀 안심되는것은 이 바라크가 사면이 꽉꽉 막혀서 경마장은 보이지 아니함이였다. 그러므로 이안에 들어오는 손님들만 대할뿐이다.
날씨가 이 북국에서는 얻기 어려운 따뜻한 날씨였다. 밖으로부터 약간의 말똥내를 섞은 먼지가 사람들의 발길에 채여 후끈후끈 들어온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는지 여러 사람의 말소리가 한뭉치가 되여 와와 하고 떠들었다. 그 틈으로 어린애울음소리만은 버들피리 부는것 같았다.
종이 즈릉즈릉 운다. 경마권 파는 입구에는 사람들이 들이몰리여 제각기 표를 사려고 덤볐다.
희숙이와 그의 동무들은 차완을 들고 이리 가고 저리 가면서도 마음만은 축구장으로 쉴새없이 달아났다.
이젠 운동이 시작되였나? 우리 선수들이 어느 학교팀과 시합이 되였나 혹은 되지 않았나? 벌써 꼴을 먹지 않았나? 하는 불안과 초조로

발길이 허둥거렸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뛰여가고 뛰여오는 소리가 요란스레 난다.

그때마다 그들은 저 소리가 선수들이 뽈을 다 놓쳐 뛰여오는 신발소리 같다.

가슴이 선뜻해서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크벽을 바라보군 하였다.

그리고 낯선 손님이 들어오면 웬일인지 반가왔다.

막연하게나마 축구장을 거쳐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가 축구장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가 하여 한참이나 그들을 주시해보군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건마는 축구장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경마권 파는 입구에는 벌써 지화가 들이몰리여 사무원이 미처 손놀리기가 바쁜 모양이다.

그들은 저 지화를 바라보며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어떤 욕심을 부쩍 느꼈다.

저것을 가지면 선수들이 신고싶어하는 축구화도 살수 있고 쌀밥도 해서 배가 부르도록 먹일터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꼭 승리를 할터이지 하며 아침에 조밥을 먹고 출전한 동무들의 그 모양이 애처롭게 떠오른다.

글쎄 조밥을 먹고야 어찌 이긴담! 그 해여진 로동화를 신고야 어찌 뽈을 찬담!

방금 동무들의 발끝에 채여 돌아가는 뽈은 축구화를 신은 적에게 무참히도 빼앗겨 기가 말라 쫓아가는 동무들의 모양이 뚜렷이 보인다.

그들은 가슴이 송구해졌다. 그래서 다시한번 돈뭉치를 들고 달아나고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맘뿐임을 깨달으며 가볍게 한숨을 몰아쉬였다.

종이 또다시 운다. 경기장에서는 말발굽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환호소리가 우뢰같이 일어난다. 그들은 이 소리가 저편 축구장에서 오는 동무들의 힘찬 응원소리같아서 기운이 버쩍 나는것을 등허리에서 땀이 나도록 느꼈다.

《아이, 어쩌면!》

동무 하나가 거의 울듯이 중얼거린다. 그들은 일시에 시선을 마주치고 헤여졌다. 그들의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이호다! 이호다! 웨치는 소리를 따라 발자국소리가 벼락치듯 난다.

그리고 이십원! 이십원 배당! 하고 목이 말라 고함치는 소리가 이 바라크를 잡아흔드는것 같았다.

저편 배당구에서는 십원짜리 지화가 훨훨 내달아간다.

그들은 물끄러미 이 모양을 바라보며 증오의 불길이 확 일어남을 느꼈다.

오늘 저 축구장에는 세상이 다 죽은것으로 알았던 자기들의 동무가 씩씩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맘껏 뽈을 차는데 그 뽈은 이 Y시 하늘우에 까맣게 높이 떴을터인데, 그 축구장을 지나쳐온 저들! 그 뽈을 무심히 바라본 저들! 아아, 저들은 과연 자기들과는 딴 인종같았다.

아니, 딴 인종이다!

이렇게 가슴을 졸이며 하루의 사무를 지루하게 마친 그들은 축구장으로 달렸다.

마침 어떤 부인이 마주오는것을 보자 그들은 그새가 바빠서 물어보았다.

《D학교가 어떻게 되였습니까?》

부인은 그들을 한참이나 돌아보다가

《졌소꼬마! 뽈은 잘 차더구먼도 왜 퍽퍽 꺼꾸러지기를 잘해. 아마 먹지를 잘 못했는지! 아이, 그게야 애처로와서 어디 보겠더라구… 저편 선수들은 무엇을 잘 먹이는 모양이두먼. 그냥 운동장에서까지 뭘 자꾸 먹이두먼. 그래, 그런데 이편은 랭수만 들이키여 아이 볼수 없어. 다리를 채여 피가 흐르고 한 학생은 머리가 터져서!…》

부인은 눈살을 찌프리며 머리를 흔든다.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그득히 고인다. 그들은 졌다는 말에 그만 온 전신이 하사분해서 다시 두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있었다.

《학교에 아마 친척이 다니나보우. 나는 친척도 아무것도 다니는것이 없으나…》

말끝을 흐리며 머리를 돌리는 부인의 눈에는 선수들의 피나는 다리와 머리가 확실히 보이는 모양이다.

《어서 가보우. 그리고 위로나 잘해주우.》

그들은 울음이 북받쳐 어쩔줄을 모르다가 부인이 앞을 떠나감을 알았을 때 힐끔 돌아보니 아주 람루한 옷을 입은 부인임을 새삼스럽게 발견하였다.

그들은 순간에 어떤 힘을 불쑥 느끼며 축구장으로 달려왔다.
벌써 동무들은 행렬을 지어 한끝은 시가로 향하였다.
행진곡이 쾅쾅 울린다. 얼핏 바라보니 승호가 기발을 쥐고 앞장섰다. 행진! 그뒤로는 군중이 물밀듯 따라섰다.
마저 넘어가는 해빛에 D학교의 기발은 피같이 붉었다.

《신가정》 1933. 12.

해 고

강 경 애

사랑으로 통한 새문이 홱 열렸다.
《이 사람아, 원 그렇게 못 듣는담. 이리 좀 나오게.》
새끼꼬기에만 열중하였던 김서방은 깜짝 놀라 머리를 들었다.
《아, 이리 나와!》
버럭 지르는 소리에 김서방은 어리둥절하여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무슨 잘못으로 주인이 꾸지람을 내리시려나 하는 불안에 그의 가슴이 웅 하고 뛰는것을 느끼며 사랑으로 나왔다. 그의 눈등이 근지러우며 눈물이 날만큼 사랑은 밝았다.
《거게 앉게.》
주인의 말을 따라 김서방은 쭈그려앉았다. 주인은 그의 머리에 너저분하게 올라앉은 짚부스레기를 바라보면서 한참이나 무슨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자네를 부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벌 밭을 팔았네그려…》
주인도 어느덧 비창한 빛을 얼굴에 띠우며 묵묵하였다.
김서방은 앞벌 밭이란 말밖에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버쩍 들었다.
《낸들 그 밭을 팔고싶어 팔았겠나마는 형편이 그리되니 할수가 있던가.》
4년전에 그가 면장운동하면서 그 밭을 금융조합에 저당할 때는 면

장만 되고보면 그 밭만은 쉽사리 찾게 되리라 하였으며 그후에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될줄 알았으나 실제 면장이 되고보니 씀새가 넓어지며 그 밭을 찾기는 고사하고 리자도 못 물어서 미구에 밭을 앗기우게 될 모양이므로 하는수없이 그 밭을 팔았던것이다.

김서방은 그제야 다소 짐작되였다. 동시에 그는 몇천리길 되는 낭아래로 떨어지는듯 앞이 아득해지며 핑그르 도는듯 하여 머리를 푹 숙였다.

어려서 량부모를 잃은 김서방은 이 마을 저 마을로 전전걸식하다가 다행이라 할지 면장의 아버지인 박초시의 눈에 들어 이 집의 고용으로 있게 되였으며 주인과 손에 손을 맞잡고 앞벌을 개간하였다. 따라서 해가 거듭할수록 농사가 잘되여 전지가 하나, 둘 늘어가는데는 그는 주인의것이라는 관념을 전혀 잊고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였으며 그런지 몇해에 주인 박초시는 이 신화면에 둘도 없는 재산가로 명성을 날렸던것이다.

《자네는 하인이 아니라 내 아들이니… 참말 우리 집 주추돌이니 자네가 없으면 우리 집 꼴이 되겠나. 그저 돈만 모이게 되면 자네 장가도 보내주고 한살림 톡톡히 물려줄것이니, 응? 이 사람아.》

주인 박초시는 때때로 이렇게 말하며 김서방으로 하여금 극도로 감격하게 하였으며 잠시도 놀지 않고 일을 하게 하였던것이다.

《물론 섭섭할줄 아네. 그러나 형편이 그리되는것을 어찌겠나.》

면장의 어성은 가늘어지며 누가 밖에서 이 말을 듣는듯 조심히 하였다. 그리고 김서방을 대하여 사정하듯 하는 자기의 태도가 불쾌해지며 김서방의 얼빠진듯 한 얼굴이 싫어졌다.

그는 깜짝 잊었다는듯이 권연을 붙여물며 면장의 특유한 위엄을 도사리였다. 따라서 그가 처음 김서방을 불러낼 때의 생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말야, 우리 집 형편이 이전 농사를 못하게 되지 않었나. 그러니 자네도 자네 갈길을 취하여야 하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유언을 잠간 생각하였다.

《김서방은 내가 죽는다더라도 내보내지 말아라. 그를 내보내면 우리 집은 다된것이다.》

그는 다시 가슴이 뭉클해서 김서방을 흘끔 쳐다보았다. 해골을 보는듯 한 그 얼굴! 그를 더 두어야 송장이나 보았지 더 무엇을 얻을 희망은 없다. 그리고 요새부터 사랑벽이 쿵쿵 울리도록 하는 김서방의 기침소리는 마지막운명하는 사람의 담 울리는 소리같이 불쾌하기 짝이 없던것이다. 더구나 군에서 나오는 손님이나 있으면 그 기침소리가 한가락 더한듯 하여 금시로 내쫓고싶은 맘이 들군 하였던것이다.

김서방은 청청하늘에 벼락을 맞는듯 한 면장의 말에 기가 질리여 아무 말도 못하고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무심히 담배불에 타진듯 한 자리를 그의 굵다란 엄지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자리를 지른 왕골로부터 옮아오는 매끈매끈한 감촉, 그는 얼른 그의 방에 높직이 간수한 긴 왕골대를 문득 생각하며 이것을 기워야 할터인데 하고 다시금 들여다볼 때 손과 머리는 너무나 동떨어진듯 지금 자기는 어떠한 처지에 있다는것을 얼핏 깨달으며 그도 모르게

《주인님!》

하고 불렀다. 면장은 머리를 들었다. 김서방의 눈에는 눈물이 핑그르르 돌아 떨어진다.

《말을 해.》

기다리다못해서 면장은 이렇게 말했다. 김서방은 얼결에 이렇게 불러놓고보니 그가 부른 주인은 아니다. 지금에 그의 앞에 앉은 주인은 그의 등을 밀어내는 주인이다.

그는 머리를 숙이며 여전히 담배불에 타진 자리를 만지작거렸다. 휘황한 남포등에 터실터실하게 갈라진 그의 굵다란 엄지손이 뚜렷하였다.

면장은 문갑에서 5원짜리 지화를 내여 김서방의 앞으로 밀어놨다.

《자, 약소하나마 이것으로 로비나 보태여쓰게나. 그러고 지금이 일군들이 한창 들고나고 할 때이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어디 좋은 자리를 구하게, 응? 이제 손님들이 오실터이니 곧 일어나게.》

면장은 김서방과 더 앉아있기가 거북하여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래일부터라도 김서방의 그 기침소리를 안 들을것을 생각하니 속이 확 풀리는듯 시원하였다.

김서방은 정신없이 그의 방으로 나와서 짚단우에 팍 쓰러졌다. 한참후에 김서방은 무엇에 놀라 머리를 드니 면장의 딸 옥선이가 문을

열고 섰다.
《김서방, 어머니가 들어와서 불때래, 얼른 속히.》
참새같이 뛰다가 냉큼 방안으로 뛰여들어온다.
《아이참, 느리기도 해. 김서방, 얼른요. 애이, 방에선 무슨 냄새야. 김서방, 똥 눴어? 호호.》
옥선이는 조그만 코를 흥흥 하며 냄새를 맡다가 뛰여나간다.
김서방은 겨우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와서 나무 한단을 빼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에는 어슴푸레하니 불이 켜있으며 시렁우에 줄을 지어얹은 놋그릇에는 수없는 불빛이 별같이 깜빡였다.
그리고 면장의 마누라는 마늘내를 행주치마에 풍기면서 분주하다.
《어서 불때시우.》
동백기름내 훅 끼치며 김서방의 머리우에서 이런 말이 들린다.
그는 수굿하고 아궁에 불을 살라 넣으며 주인이 하던 말을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모든것은 꿈속에 보는듯 분명하지를 않고 희미하여 사실같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머리가 너무나 끓어서 마치 저 아궁에 불이 붙는듯 걷잡을수가 없었다.
한참후에
《김서방, 왜 그러우? 어디 아푸?》 하는 소리에 그는 정신이 바짝 들어 살펴보니 아궁이 캄캄하도록 나무를 넣지 않았다.
《아프면 나가 누시우. 이제 면소사가 올터이니 그더러 도와달라지. 어서 일어나시우.》
김서방은 얼결에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서리를 품은듯 한 바람결이 그의 다는 머리를 시원하게 하여준다.
그는 아무데나 펄썩 주저앉았다.
나가라? 그것이 참일가, 혹은 취중에서 나온 말인가?
《꼬꾸닥 꼬꾸닥!》
닭의 소리에 그는 잠간 귀를 기울여 들었다. 동시에 어느 닭을 또 잡누 하는 생각과 함께 수많은 닭들의 모양이 일일이 떠올랐다. 아침만 되면 그는 일찌기 일어나서 모이바가지를 들고 대돌우에 올라서서 구구하면 산산이 헤졌던 큰 닭, 작은 병아리까지 목을 길게 빼고 뿌루루 뿌루루 달려와서는 떨어지는 모이를 보기 좋게 쪼아먹고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대견함에 가슴이 불룩해지는듯, 어느 놈이 상하지나 않

았나? 혹은 솔개미에게 채여가지나 않았나 하며 두루루 살펴보다가 문득 한놈이 없어진듯 하여 저편 모퉁이를 바라보며 목을 높여 구구 구구 소리치다가 얼른 어제 면소사가 닭 잡아가던것을 생각하고는 닭을 부르던 목소리가 뚝 끊어지며 온 전신이 짜르르 울리군 하였다. 그때마다 무어라 형용할수 없는 슬픔이 불평으로 변하여 그의 뼈끝마다 스며드는듯 하였다.

자기를 알아보는듯 한 그 눈매! 자기만이 알아들을수 있는 그 꾸루루 꾸꾸! 하는 소리. 날이 갈수록 하나, 둘 보이지 않으니 아는듯모르는듯 그러한 불평이 일며 주인 대하기가 어쩐지 싫어지는것이다.

박초시 생존에는 사명일(옛날에 설, 단오, 추석, 동지의 네 명절을 말함.)마다 닭의 고기를 느긋하도록 먹었건만 주인이 돌아간 후부터는 그렇게 많은 닭을 기르건만도 닭의 발목 하나도 구경할수 없었다. 저렇게 손님이나 오며는 두마리, 세마리 아끼지 않고 잡아서 술안주로 하고 그나마는 군수에게 보냄네, 어느 군속에게 보냄네 하며 닭의 홰가 쓸쓸하도록 잡아내가군 하였던것이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몸이 오슬오슬 추우며 량어깨가 으쓱하므로 몸을 웅크리며 살펴보니 자신은 지금 헛간뒤에 와서 앉았다는것을 알았다. 그리고 헛간속에 들어있던 날 무딘 호미를 문득 생각하며 가슴이 묵직해졌다.

호미도 이젠 무디여서 새것으로 사오던가 그렇지 않으면 쓸만 한것으로 추려서 다시 벼려오던가 그 어느것중에 한가지는 꼭 해야 할터인데 그러러면 어느날 조용히 주인을 만나 의논하고서 돈을 타내야겠다고 이 헛간문만 바라보게 되면 그는 문득 생각되군 하였던것이다.

그 말이 참이라면 자기가 호미를 잡는것도 지나간 여름으로 종결을 지은듯.

《밭을 팔아? 누가 팔아?》

그는 불쑥 이렇게 투덜거렸다. 따라서 어디 가서 호소할 곳 없는 슬픔이 그의 온 가슴을 찢는듯 그는 견딜수가 없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여, 무소부지(알지 못하는것이 없음.)하시고 전지전능(모든것을 다 알고 다능함.)하신이여, 우리 면장댁에 복을 만나와 같이 내리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면장님도 회개(뉘우치고 고침.)하시고 아버지앞으로 나와서 진실한 일군이 되여 온 집안이 일가구가

되여 아버지의 사랑하는 식구가 되여주시게 하시옵소서. …》
김서방은 안방을 바라보며 목사가 또 온것을 알았다. 요새 면장의 어머니는 예수에 미쳐서 밤낮을 헤이지 않고 목사를 청하여 좋은 음식을 대접하며 또 저와 같이 기도를 받는것이다.
김서방은 목사의 기도소리가 듣기 싫어서 어정어정 걸었다. 웬일인지 이 집안은 다된듯 하였다. 그는 돌아간 주인이 곧 그리웠다. 그라야만 자기의 타는 속을 십분의 일이라도 알아줄듯 하였다.
그는 가만 부엌을 지나 그의 방문앞에 섰으나 방으로 들어가고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앞뜰로 나와버렸다. 앞뜰에는 앙상한 나무가지그림자로 가득하다. 그리고 어디선가 벌레소리가 쌍으로 들렸다꺼졌다 하였다.
그는 나무곁으로 와서 팔짱을 끼고 우두커니 서있었다.
《참이라면 나는 어디로 가나? 개똥아범이 간 북간도로나 갈가? 이놈 못하는 법이니라. 네 애비 생각을 하기루니 음, 이놈.》
면장이 앞에 섰는듯이 그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그때 무심히 눈에 띈 벼짚낟가리며 조짚낟가리! 그는 눈물이 글썽글썽하였다.
머리를 쳐들어야 볼수 있는 저 낟가리들, 여름내 농사를 짓기에 얼마나 힘을 들였던가.
《이놈, 못하는 법이니라. 네 집식구를 내가 먹여 살렸지. 네놈까지도 내가 지은 곡식을 먹구 이때까지 살지 않았냐. 하늘이 있니라.》
그는 목에 물주머니가 수십개 매달리여 견딜수가 없었다. 그래서 왔다갔다하다가 벼짚낟가리에 콱 엎디였다.
벼짚으로부터 옮아오는 구수한 짚냄새! 내가 나가면 이놈의 집에서 이 좋은 짚을 썩여들이거나 극상하여 이영초로나 팔겠구나 하였다. 아주 좋은 짚단으로만 추려서 태산같이 쌓아놓은 이 짚낟가리!
겨울에 한단씩 뽑아다가 잘 다듬어서 흠씬 추겼다가 멍석, 망고리, 고운 짚신을 얼마든지 만들것인데.
《주인님.》
그는 목메여 돌아간 그의 주인을 불렀다. 짚대만 바스락거릴뿐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짚을 줌이 벌게 쥐여 북 뽑아쥐고 벌떡 일어났다. 바라보이는 앞벌, 달빛을 안고 고요히 잠든 저 벌.

그는 달음질치고싶다. 저 벌에는 누가 그를 기다리는듯 언제나 그렇게 생각된다. 앞벌 밭머리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며 그앞에 있는 커다란 차돌, 그 돌에서 주인과 자기가 마주앉아 몇번이나 정드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던가. 혹은 점심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주인은 얼마나 진정으로 그를 위로해주었던가.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주인은 자기에게 거짓말만 한것 같았다.

그가 하던 말이 하나이나 실행되였던가.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새로운 무엇을 깨달은듯 정신이 버쩍 들었다. 근 50년동안을 그는 주인령감의 말에 마취되여 헛된 삶을 해온듯했다.

《오냐, 나가라면 나가지. 내 이놈의 집이 아니면 못살겠냐, 이놈들!》

그는 방금 박초시의 얼굴을 머리에 그리며 납작한 입을 벌리고 납신납신 지껄이던 그의 말을 기가 막힌듯이 생각하였다. 만일 그가 곁에 있다면 《에이, 요 간사한 놈아!》 하고 귀뺨이라도 후려치고 싶다.

앞벌 밭에서 그가 돌짐을 지다가 너무 기진하여 돌짐을 진채 내물가에 엎어졌을 때 주인은 뭐라고 달랬던가.

그때 주인의 말에 감격하여 그는 깨여진 무릎을 들여다도 보지 못하고 그 돌짐을 지지 않았나. 그날 밤 그는 온몸이 절절 끓으며 무릎이 아파 한잠 못 자고도 여전히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짐을 지지 않았나. 해종일 졌지. 아니, 저 벌에 돌이란 돌은 모두 그가 져내지 않았나.

《이놈, 말은 어찌구어찌구 하구선 죽을 때 밭 한마지기 안 줘. 에이 죽일 놈, 네 아들보다 네놈이 더하다.》

그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이렇게 소리쳤다. 사랑에서는 여전히 떠들어댄다. 바깥문이 시커먼 그림자로 얼씬얼씬하는것을 보니 일어나서 춤들을 추는 모양이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한시도 이러한 집에 있기가 싫었다. 그래서 그는 이밤으로 어디든지 나가고싶어서 허방지방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방에는 기름불조차 꺼지고 캄캄하였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늘어놓은 짚단만이 그의 발길에 턱턱 가로채일뿐이다.

그는 방 한구석에 놓아둔 상자를 당겨서 옷가지를 꺼내 꽁꽁 동이고 새끼를 끊어 옷을 한번 더 동인 후에 등에 걸머지고 담배대를 더듬어 찾아가지고 문밖을 나섰다.

《누구야!》

혀 곱은 소리에 김서방은 돌아보았다. 어느 면서기인듯 한 놈이 오줌을 누다말고 소리친다.

《웬 자식이야!》

재차 소리치는 바람에 얼마쯤 걸어나가던 김서방은 있는 분이 불같이 타올랐다.

《이 자식, 누가 내 밭을 팔아!》

김서방의 입에서는 불쑥 이런 말이 퉁겨나왔다. 그리고 단숨에 달려들어 면서기의 따귀를 쩔꺽 후려쳤다.

《이놈 봐라. 이놈 웬 놈이냐!》

면서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 달라붙는다.

사랑에서는 여전히 흥이 나서 춤을 추며 돌아간다.

《신동아》 1935. 3.

산 남

강 경 애

아직도 그 사나이는 허리에 바를 동인채 돌팔매질을 하고있을가?

고향에 계신 내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또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난 뒤면 문뜩 이렇게 생각되는것이 일종의 나의 버릇이 되고말았습니다. 바에 지질려 빨갛게 흐르던 피가 내 눈에 가시같이 들어박힐 때면 나는 머리를 흔들어 그 기억을 헤쳐버리려고 몇번이나 애를 썼지만 웬일인지 이태를 맞는 오늘까지 점점 더 피빛이 선명해질뿐입니다.

검실검실한 큰 눈에 올챙이같이 머리만 퍼진 코를 가진 사나이, 그래서 량미간이 턱없이 죽었음인지 우직해도 보이고 어찌 보면 소름이 끼치게 무섭던 그 사나이. 그는 우금(지금)까지 바를 동인채 돌팔매

질을 하는것 같고 그러한 양(모양)을 나는 언제나 다시 만날듯 하여 소름이 끼치군 하였습니다. 근년에 내 신경이 좀 과민해진데서 이러한지는 몰라도.

차안에서 이 사나이의 과거를 순서없이 주어들은것을 종합해보면 우리 시골 리읍인 S골에 가장 세력가요 부호로 굴지하는 김진사가 남의 유부녀를 보아 난 아들이 즉 그 사나이라는것, 무엇때문인지 모르나 그들 모자를 산막으로 쫓은 후에 한번도 돌아보지 않는것, 어느때이 사나이가 김진사앞에서 칼부림까지 했다는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나이에게 호기심을 잔뜩 두어 그의 래력을 좀더 세밀히 알고저 무척 애를 썼지만 워낙 오랜 일이라 결과가 그리 시원치 않았습니다.

궂은 비 느실느실 내리는 날 나 혼자 호젓이 앉아 바느질하는 밤, 선뜻 떠오르는 그 사나이.

나는 몸이 으쓱해지고 혹은 까맣게 높은 절벽을 볼 때, 핑핑 도는듯 한 푸른 호수를 대할 때 그 사나이가 필사의 노력을 다하던 아차아차한 순간이 휙 떠올라 차마 눈을 들지 못하게 아찔아찔하였습니다.

그날 그 사나이 아니였다면…

지금으로부터 이태전 7월 20일경입니다.

돌연히 나에게 전보 한장 뛰여들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내 어머님의 병환이 위중하니 곧 오라는것입니다.

칠순이 다되고 자주 병환으로 신고하시므로 평소부터 마음을 놓지 못하던차인데 이러한 전보를 받고나니 그만 아뜩해지고 정신을 차릴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고 마침 3시 5분에 떠나는 급행이 있으므로 나는 부랴부랴 가방 한개를 얻어들고 입던 옷 그대로 남편과 같이 정거장으로 내달리였습니다. 승객들은 거의 다 오르고 기다림칸은 쓸쓸하였습니다.

나는 단숨에 나들문으로 뛰여나가다 몇번이나 쓰러지고야 겨우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표를 사들고 뒤로 따라오며

《속치마, 속치마…》

하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속치마가 내려끌리여 자꾸만 넘어지게 되였다고 깨

달으면서도 속치마를 걷어올릴 힘도 없고 숨이 항항 차며 머리를 무엇으로 되게 얻어맞은듯 어리뻥뻥하고 지긋지긋 아팠습니다.

차가 움직일 때 남편을 돌아보았으나 전에없이 남편의 얼굴이 다닥다닥 붙어보이다가 아주 캄캄해지고야말았습니다.

차창으로 후끈거리는 7월의 시원한 바람조차도 나에게는 기막히게 안타까왔고 푸른 빛 가득한 광야는 나의 시력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펄펄 나는듯이 뒤로 물러가던 전선대도 하필 오늘은 뜨묵뜨묵 물러가고 나지막한 뫼돌도 역증이 나리만큼 오래 보였습니다.

나는 몇번이나 완행을 타지 않았는가 하여 둘러보려 하였습니다. 급하던 숨은 차차로 가라앉았으나 내 어머님의 오물오물하던 턱이 보이고 그리로부터 얼굴전체가 환히 나타나고있습니다.

(다섯해동안이나 내 왜 못 갔나! 뭣하기 못 갔나!)

나는 새삼스러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으며 입에 손넣고 어린애같이 앙앙 울고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서 만일 어머니를 못 뵈옵게 된다면, 그 음성을 못 듣게 된다면 어찌나 하는 초조가 쾅쾅 툭툭 하는 차바퀴소리에 이어 달리고있습니다.

아들도 없는 내 어머니, 딸들은 동서로 시집보내고 혼자 댕그랑하니 계시는 어머니, 그리고 몹시 앓아누워계신들 누가 머리 한번인들 짚어올리며 미음 한그릇인들 따뜻이 쑤어올리랴 하니 어머님을 모시게 못되는 나의 환경이, 보다도 사회제도가 새삼스럽게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차창에 의지하였습니다. 바람결에 훌훌거리는 내 머리카락, 내 어머님에 대한 살뜰한 기억을 한들한들 자아내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까맣게 잊었던 내 어려서 일이 아득히 떠오르고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우리 모녀가 살길이 없어 고모가 있는 어느 산골을 찾아가던 그 오불꼬불한 길, 산골에서 살면서 어머니를 찾아 산에 가서 솔가래기를 줏다가 배고프다고 울던 일, 그러면 어머니가 물오른 솔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겨주던 일—

웅성거리는 사람의 소리도 꿈같이 아득하게 들리고 몰싹 건너오는 담배연기는 무거운 내 코끝에 싸하게 부딪치고있습니다. 코물을 씻으면서 눈을 번쩍 뜨면 싯누런 얼굴들이 우둑우둑하였습니다. 그것이 싫어 머리를 창밖으로 내미니 안개비를 솔솔 뿌리는듯 한 바람이 쉴새없이 내 목에 감겨돌아갑니다. 어쩐지 하늘도 해를 잃고 우울해있고

까맣게 나는 새들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핑글핑글 도는 나지막한 뫼에 내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이 애야! 이 애야! 하고 날 부르시며 뫼와 뫼를 건너뛰여 날 보려고 다그쳐오시는 내 어머님의 숨찬 환영이 내 눈을 캄캄케 하였습니다. 쿠술쿠술 오르는 가죽냄새조차도 내 목을 꽉 메이게 하였습니다.

그날 밤 차창으로 갈겨치는 비발을 맞고서야 나는 차창을 닫았고 창문을 두드리는 비소리는 어쩐지 불안한 예감을 자꾸만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튿날 오후 두시반가량이나 되여서 내가 경성역에 잠간 내렸다가 다시 경의선으로 올랐을 때는 사뭇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초조한 생각에 가만히 앉아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겹겹이 닫아놔서 그런지 차안은 온갖 잡내로 터질듯 하였습니다. 새슬새슬 지껄이는 녀인의 음성, 왕왕거리는 남자의 음성, 버들피리 부는듯 한 어린애 울음소리, 저벅저벅 쿵쿵 하는 온갖 신발소리,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 뒤범벅이 되여 돌아가고있습니다.

내가 앉은 곳은 변소옆이라 그런지 문바람에 휘 몰려오는 약간 과일내를 품은 시시구리한 냄새에 구역이 날 지경이였습니다. 비바람에 차창이 간혹 흔들리는듯 하고 문틈으로 서늘한 바람이 솔솔 스며들며 눈물같은 비방울이 유리문에 주르르 흘러내리고 또 흐르고있습니다. 그리고 높았다 낮아지는 전선줄은 어미새를 잃고 헤매는 새새끼무리 같았습니다. 어느덧 붉은 물에 채여 오돌오돌 떠는듯 한 작은 뫼들이 삼아삼아하게 차창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코끝이 차갑도록 창문에 얼굴을 대고 비가 좀 그쳐졌으면 하고 안달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바심가운데서 무사히 사리원역에 내리게 되였고 비를 쪼르르 맞고 경편차에 올랐습니다. 비에 움츠러든 내 치마자락을 쥐여당기면서 차안을 둘러보니 어쩐지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리원역을 떠나며 보니 온 벌은 그냥 홍수로 뻘겋게 뒤집혔습니다. 비발만이 어지러운 공중엔 나는 새도 볼수 없고 멀리 희미한 산발만이 비참해있습니다. 홍수에 묻혀 머리만 들고있는 오곡은 비명을 지르는듯 하였고 이 산모퉁이, 저 산모퉁이에 모여앉아있는 농가들은 공포에 떨고지는듯 하였습니다. 이 차에선 과일내와 변소내도 맡을수 없

고 걱정만이 한차 가득한듯 하였습니다.

승객들은 애꿎은 입만 쩍쩍 다시고 담배 피울것도 잊었으며 정신없이 밖을 바라보고있습니다. 낯익은 산천이 내앞에 가까와질수록 내 가슴은 따가와지고 다리, 팔이 후두두 떨렸습니다. 이렇게 와서도 어머님을 못 뵈오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자꾸만 커가기때문입니다. 이러함인지 때로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남들이 싫어하는 창문을 와르르 열고 찬비를 맞았습니다.

차는 사뭇 홍수를 헤치고 달아납니다. 빼닥빼닥 하는것이 금방 쓰러지는듯 하여 덜컥만 하면 나는 몸이 한줌만 하였습니다. 이러하기를 거듭하여 머리가 어지러울제 차는 S역에 달하였습니다. 불과 몇명이 역에 내리니 몇사람의 역원과 경관 한명이 쓸쓸히 우리를 맞았습니다.

기다림칸엔 손님들도 없고 처마물소리와 비바람에 풍기는 비린내만이 감돌고있습니다. 얼음같이 차보이는 회벽에 광고로 붙인 각종 포스터가 울긋불긋하였고 두어개의 의자가 한켠 길체에 돌아앉고있습니다.

《오늘은 차가 못 가기 쉬우니 려관으로 들어들 가계시오.》

역원 하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웨쳤습니다.

나는 아뜩하였습니다. 불과 몇리를 안 남겨놓고… 하자 걸어라도 가고싶어 고향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모래가 비친 신작로에 비발이 어지럽고 행인이란 일체 끊어졌습니다. 누가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돌아보니 승객들은 우울에 잠겨 선로 저편으로 남실거리는 붉은 물을 바라보고있습니다. 저 물이 선로를 넘어 들이미는 때는 S역뿐만아니라 전 S시가가 다 뜨게 되겠다고 역원들은 부산하였습니다.

《이제 전화를 걸어보니까 차가 떠났답니다. 표를 사십시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승객들은 다투어 표를 사들고 기운을 얻어 뭐라고 지껄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차가 올 길만 바라보며 얼굴에 솜털을 까칠하게 일어세우고있었습니다. 이슥은 했더니 차는 왔습니다. 큰 뻐스였습니다. 승객이 오른 바람으로 차는 전속력을 다하여 달리였습니다. 온천앞의 다리가 위험하니 어서 가야 한다고 운전사는 꼿꼿이 앉아서 옆눈 하나 팔지 않고 운전대를 놀렸습니다.

우리는 운전사 못지 않게 긴장되여가지고 자리 넓혀 편안히 앉지를 못하였습니다. 좌우에 늘어앉은 조이삭과 수수대는 홍수에 치렁치렁 잠겼고 신작로가의 잡풀은 파랗게 빛났습니다. 가다가 신작로에 홍수가 가로질러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였습니다. 차는 그 물을 박차고 내달았습니다. 개솔린내는 향기롭게 풍기고 발동기는 용기있게 퉁퉁거렸습니다.

하늘도 산도 벌도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이제 타고 온 경편차보다는 훨씬 빠른듯 하였습니다. 어느덧 자욱한 송림을 끼고 차는 씩씩하게 비탈길을 올라가고있습니다. 낯익은 이 길은 전보다 좀 넓어진듯 하고 흙빛은 옛날 그대로 다홍입니다. 산비탈에 소복소복 앉아있는 다박솔은 예쁘기도 합니다. 내 애기의 머리털같이 그리도 귀엽습니다. 차차로 높아가는 좌우 산은 시커먼 연기같이 굼실거리고 송림에 내리는 비발소리는 좌 하고 바다소리를 냈습니다. 발동기에선 왕 하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길을 끼고 뿌죽 나온 산모퉁이를 휘 돌아서 자동차는 딱 멈추었습니다.

운전사는 몇번 발동기를 되게 트는 모양이였으나 차는 까딱하지 않으므로 조수와 함께 뛰여내립니다.

나는 적이 불안하여 머리를 넘성하여보니 놀라와라, 차의 앞바퀴가 절벽에 반쯤 내밀고있습니다.

나는 황황히 일어났습니다. 저마끔 먼저 나오려고들 붐비는통에 나는 어떤 사나이의 베두루마기에 얼굴을 알알 부비치고야 겨우 내렸습니다. 차앞에 서고있기도 무시무시해서 오수수 비소리나는 산옆으로 뛰여가 아무데나 쪼그려앉았습니다. 목숨 구한것만이 다행하여 잠간동안 아무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앉은 나의 눈엔 산비탈에 있는 도라지꽃이 파랗게 비치고있습니다. 차안에서도 추웠는데 이리 비를 맞아놓으니 사뭇 이가 마주치도록 떨리고 몇끼 굶은 배속이 끄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승객들은 오글오글 모여서서 운전사와 조수의 분주한양만 바라보고있습니다. 이제 보니 승객들이란 귀향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뚱뚱한 사나이와 오누인지 부부인지 얼른 알아보기 힘든 남녀와 베두루마기를 입은 별로 뒤통수가 쑥 나온 사나이였습니다. 눈에 흰자위가 많아 힐끗해뵈는 운전사는 바퀴가 들어박힌 진흙을 후비여도 보고 앞으

로 가서 절벽을 내려다도 보면서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너무 급한김에 차를 빗몰아서 이런 딱한 지경에 이른듯 하였습니다.

운전사와 조수는 한참이나 갈피를 못 잡고 왔다갔다하더니 무슨 생각을 했음인지 조수는 비탈길을 쭈르르 달리고있습니다. 밀어서 되는것 같으면 시원히 밀어라도 보겠는데 차는 뒤걸음으로 들어와야 할 처지에 있고 산에서 달려내려온 물에 음쑥 골이 진 진흙속에 뒤바퀴가 저리도 콱 박히였으니 손쉽게 뒤로 물러설수도 없는 그런 딱한 지경에 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올라온 비탈길은 준령에 가리여 잘 보이지 않고 길이라고는 아주 없을듯이 산과 산만이 첩첩하여 하늘 절반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오직 1～2정보가량이나 되게 준령을 타고넘어 둥글게 돌아온 길만이 마치 공중에 떠있듯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길로부터 잠간 굽어진 곳에 차는 저 모양이 되였고 그리로부터 길은 내가 앉은 산비탈을 끼고 이제 올라온 길 모양으로 꾸불꾸불 흘러내려갔습니다. 차가 서있는 그 절벽으로 옛날에 사람들이 올라다니였다고 하며 그랬음인지 끊었다 이어진 가는 길이 솔포기속에 숨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그 길에 조밭과 수수밭이 가득 들어차있습니다. 준령에서 갈라진 지맥은 말허리같이 늘씬하게 되여 그 벌을 싸고 본산맥을 바라보면서 흘러내려갔습니다.

조수가 뭘하러 내려갔는지, 여기에 한가닥 희망을 붙인채 나는 달달 떨고있습니다. 굵던 비는 차차로 안개비로 변하여 포실포실 내리고 좌우 산엔 송림이 빽빽하여 산봉끝까지 푸르러 하늘에 닿을듯 하였으며 그 허리로 안개가 실실 감돌고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을 뵈옵지 못하게 되느라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난듯하여 나는 한숨을 삼키고 무심히 바라보니 조수는 어느새 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조밭과 수수밭을 지나 산기슭에 조그만 초가가 아늑히 들어있습니다. 조수는 그 초가를 향하여 달음질하고있다는것을 짐작하며 이런 심산에 사람이 살아? 하고 눈을 크게 떴을 때 조수는 까뭇 그 초가로 들어갔습니다. 저 집엔 뭘하러 갔을가? 사람을 청하렴인가 무슨 도구를 얻으렴인가? 하는 의문에 나는 구슬지은 안개비를 씻고 보았습니다. 수수대바자가 성냥가치로 세워논듯 하고 지붕이 여간 낮아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뜰은 차돌같이 빛나고 산이 울타리가 되여 그

조그만 집을 꽉 싸고있습니다.
조수가 나오자 조수키의 배나 되는 사나이가 따르고있습니다. 나는 반가운 맘이 왈칵 드나 차를 보면 끔찍합니다. 차를 움직이려다 아무래도 불상사가 일어날것만 같아 몸이 으쓱해지기때문입니다. 이런 잔망한 생각은 하지 말자 하다가도 절벽에 앞바퀴를 내밀고있는 차를 보면 안할수 없고 흰 글로 된 뻐스의 번호가 웬일인지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절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양이 아리숭숭하게 보이는듯 하였습니다.
조수와 사나이는 수수밭에 가리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내려갈 길을 바라보며 조수와 사나이를 기다리였습니다. 푸른 산에 숨었다 나타난 저 길은 아득도 합니다. 승객들은 절벽을 내려다보고 뭐라고 지껄이므로 조수와 사나이가 그리로 올라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마는 몸을 움직일것이 딱 싫어서 가만히 앉고있었습니다. 와! 하는 학생소리틈에 어떤 사나이가 조수의 손을 이끌고 언덕우에 올라섰습니다. 한편 손엔 굵은 바가 쥐여있습니다. 조수의 얼굴은 해쓱하게 질리였고 사나이의 손에서 벗어나자 그는 펄석 주저앉았습니다.
운전사는 얼른 사나이의 손에서 바를 받아가지고 뻐스뒤로 와서 허리를 굽히고있습니다. 승객들은 주르르 밀려가서 운전사를 싸고돌아섭니다. 나도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 보고싶어 일어나서 두어걸음 나가다가 그만 주저앉고말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런지 아파서 이런지 쓰리고 들부비는것 같아 견딜수 없었기때문입니다.
조수는 숨을 태웠음인지 승객들을 뻐개고 들어가서 운전사의 하는 일을 조력하고있습니다. 나는 열심으로 이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을 돌리니 사나이는 아까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의 집을 바라보고있습니다.
키는 보통키에서 훨씬 넘어 후리후리했으며 등은 약간 굽은 편이고 기름한 머리가 우에 가서 탁 퍼졌습니다. 오래 깎지 않은듯 한 머리카락이 보기 싫게 구슬러있고 흰 머리카락이 희뜩희뜩 보이므로 사오십 되였나 하였으나 그리 나 먹은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웬일인지 사나이는 풀기없이 멍하니 서있습니다.
운전사는 일어나서

《자, 이 바를 끄시오.》

서슴지 않고 바의 한끝을 사나이에게 내쳐주었습니다. 사나이는 잠잠히 바를 받아가지고 같이 끌 사람이 있는가 하여 둘러보는양이였으나 누구 한사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임을 안 까닭인지 바를 허리에 걸고 옹노를 짓고있습니다.

그새 승객들은 두편으로 갈려서 차바퀴를 밀고 더러는 서서 밀며 운전사와 조수는 승객뒤에서 미는 모양이였습니다. 나는 이러하고있을 때가 아니라 하며 이를 악물고 차곁으로 와서 차에 매달리였습니다.

《엇차, 엇차.》

여러 사람은 힘있게 웨쳤습니다. 사나이는 뻐스로부터 2～3보가량이나 나가섰으며 허리에 바를 여유있게 동였고 주먹을 부르쥐고 앞으로 나가려고 힘을 씁니다. 굵은 짚신뒤에 귤껍질같이 거칠어보이는 발뒤꿈치가 힘쓰는데 따라 올랐다내렸다하였습니다. 발가락은 어찌나 긴지 여느 사람의 손가락만이나 하였고 그 마디에 굵은 봉취가 박혀있습니다.

《엇차, 엇차!》

이런 소리가 쉴새없이 흘렀습니다. 뻐스와 사나이사이서 바는 팽팽히 잡아씌였고 뚝뚝 하는 바소리가 사나이의 생사를 결단하는것 같아 가슴이 서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칫 잘못하면 차가 절벽으로 굴러떨어질것이요, 거기에 따라 사나이도 딸려들어갈것이 뻔한것이므로 그래 바를 허리에 동이지 말고 손으로 끌었으면 하나 누구 한사람 말을 입에 올리는이가 없었습니다.

사나이의 발뒤꿈치는 어느덧 흙에 묻히였고 짧은 잠방이가랑이밑의 털이 푸수수한 다리엔 쇠사슬같은 힘줄이 불뚝 솟아올랐습니다. 힘을 좀 쓴탓인지 추운증은 멎었으나 숨이 차고 헛구역질이 나며 앞이 아뜩하므로 나는 산비탈로 왔습니다. 하늘이 팽팽 도는듯 하여 나는 눈을 감고 한참이나 진정하여가지고 눈을 뜨니 사람들이 모두 뻐스빛같이 누렇게 보였습니다. 나의 눈은 사나이우에 멈춥니다. 그는 머리를 푹 숙이고 헐떡였습니다. 되는대로 흘러내려온 새치(젊은 사람의 머리에 섞여난 흰 머리칼) 가득한 머리엔 안개비로 뽀얗고 그 새로 반쯤 감긴 검실검실한 큰 눈이 반쯤 감겨있으며 시꺼먼 눈섭우에 퍼런

힘줄이 눈을 괴롭힐듯이 뻗치여있습니다.

갑자기 솟은듯 한 큰 코밑에 땀인지 비방울인지 번질번질 흐르고 기름한 턱에 수염이 가득한데 그리로 땀방울이 스며들어 목으로 흘러내립니다. 얼굴에 비하여 가늘어보이는 목에 순대통같은 힘줄이 무섭게 뻗치였고 그의 옷은 함빡 젖어 거치른 뼈마디가 환히 드러나고있습니다. 그 허리에 바가 꽉 비틀어 감겨있습니다.

차는 움직움직하다가는 도로 그 자리에 박힐뿐만아니라 더 파고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승객들의 옷에도 흙이 튀였고 얼굴에 땀이 번질번질하였습니다.

철떡하는 소리에 바라보니 사나이는 왼다리를 깔고 넘어진것입니다. 그 몸에 매여있는 바는 웬일인지 보기 끔찍합니다. 사나이는 아무렇지도 않은체 벌떡 일어나는 참, 힘을 낑 하고 씁니다.

흙이 얼굴에 툭툭 튀여 발렸음인지 껌벅이는 두눈은 사람의 눈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넘어지면서 잠방이가랑이 찢어진듯 하였고 그리로 흙에 매닥질한 무릎마디가 드러났습니다.

사나이가 힘을 쓸 때에야 승객들은 간신히 몸을 추세워 《엇차.》 소리를 약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만 밀려나오는것을 보아 뒤에는 아마도 위험한듯 하였습니다.

차곁에 근심스러이 서있던 녀인은 달려오며 앞바퀴가 나간 그 절벽이 푸슬푸슬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화닥닥 일어나자 그 녀인은 내 손을 끌며 돌을 주어오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산비탈을 뒤졌으나 돌이라고는 눈에 띄지 않으므로 애가 말라 견딜수 없었습니다. 송림이 캄캄해오는것을 보아 미구에 밤이 올것이 더한층 무서웠습니다. 해서 우리들은 손톱이 빠지도록 흙을 허비고 돌을 꺼내여 차바퀴에 고였습니다. 한결 차바퀴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므로 몇몇 학생까지 돌을 주으러 나섰습니다. 사나이는 또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돌을 든채 걱정스러이 볼 때 사나이는 후닥닥 일어나다가 미끈 하여 재차 쓰러졌습니다.

우리들이 전신이 하사분해 섰노라니 사나이는 버둥버둥하다가 후닥닥 일어나서 힘을 씁니다. 아주 흙사람이 되였고 잠방이가랑이 찢어져 흙에 묻히였습니다.

사나이는 바를 가슴에 썩 올려걸어 좌우 겨드랑이로 뽑은 담에 숙였

던 머리를 턱 젖히고 가슴을 쑥 내밀었습니다. 그의 짚신짝은 언제 벗겨졌는지 흙속에 되는대로 묻히였고 긴 발가락이 흙을 허비고있습니다.

우리는 차차 꾀가 나서 사나이가 선 곳에도 잔돌을 깔아놨습니다. 하도 미끄러워보이므로 나는 두번째 가지고 사나이곁으로 갔을 때 그의 무릎마디가 피에 지질한것을 보고 머리를 돌리고 달아왔습니다. 나는 돌을 가지고 올 때마다 절벽을 꼭 바라보고 또 사나이를 보군 하였습니다.

학생 하나가 금 파던 굴을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는 돌을 주으러 그리로 가서 큰 돌을 맞들고 내려올 때 차를 미는 승객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인가 하여 꼼짝 못하고 떨고있을 때 학생 하나가 오라고 손짓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허둥지둥 내려오니 차는 움직인것입니다. 우리는 급하게 돌을 밀어넣고 차에 매달리였습니다.

《엇차, 엇차.》

차는 삼아삼아하게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녀인의 머리에서 동백기름내를 기막히게 맡으면서 나는 차를 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벽과 사나이가 걱정이 되여 자꾸만 머리를 들려고 하였습니다.

《아갸!》

녀인의 소리에 나는 가슴이 뜨끔하여 바라보니 사나이의 한다리가 미끄러진것입니다. 찰나에 사나이는 뒤걸음치는 차를 따라 주르르 끌려오면서도 끌리지 않으려 두팔을 바람개비 돌리듯 휘저었습니다.

우리는 악 하고 소리치면서 어쩌자고 일제히 차에서 물러났습니다. 사나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를 꿈틀 하고 힘을 쓰자 몸을 솟구치고 가랑이 없는 외다리로 껑충 뛰여나가면서 미끄러진 다리를 끌고나갔습니다. 순간에 사나이의 머리털은 공중을 향하여 무섭게 뻗치였고 다리엔 쥐가 수없이 일어나 불뚝이였으며 시꺼먼 다리털이 생물같이 꿈틀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악 하고 소리치면서 그제야 차에 달리여 힘껏 밀었습니다. 사나이는 너무 힘을 쓴탓인지 픽 꺼꾸러집니다. 그러나 벌벌 기여달아났습니다. 우리는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치고 나아갔습니다.

거짓말같이 차는 길 한복판에 왔습니다. 사나이는 기진하여 머리를

땅에 박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달려가니 그때까지 가랑이 없는 빨건 다리는 푸들푸들 떨고있습니다.

운전사가 사나이를 일으키려고 했을 때 갑자기 사나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에 지질려 그의 적삼이 문드러졌고 그리로 선혈이 뭉클뭉클 흐르고있습니다.

《우리 오마이 업어올까유?》

운전사를 바라보고 툭 뱉는 사나이의 말!

웬일인지 나의 가슴에 딱 맞질리였습니다. 운전사는 머뭇거릴 때 차에서 바를 풀어 꺾이고 오는 조수가

《아니, 미안하게 되였수마는 오늘 비가 오구, 더구나 날이 저물지 않았수. 그리고 온천교가 어찌 되였는지 모르니까 우리 래일로 미룹시다.》 하고 승객들에게 어서 오르라고 하였습니다.

사나이는 조수의 눈을 거쳐 운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나는 확실히 그가 이십안팎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운전사는 급하게 몇마디 말을 던지고 황황히 돌아섰습니다. 사나이는 펄썩 땅에 주저앉는것입니다.

마침 비발이 굵어졌습니다. 차는 부릉부릉 움직이였으므로 우리는 미안하게 되였다는 말이나마 다시한번 또 하고싶어서 차창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사나이는 돌아도 보지 않고 우두커니 앉았더니 벌떡 일어나는 참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흠칫 머리를 돌리고 사례하고싶던 맘이 공포로 변하여버렸습니다. 차는 새와 같이 나는듯 하였습니다.

짱 하고 돌 맞는 소리에 나는 몸이 한줌만 하여 엎디였습니다.

《웬일이여, 그 사람이?》

승객중에 한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떨면서도 이 소리를 들으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다 죽어가는 제 어미를 태워다 병원에 갖다달라니 길에서 송장보겠습니다. 그러나저러나 온천교가 걱정이 아니면 또 모르겠는데…》

조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아까 사나이의 말에 칵 맞질리던 가슴이 이제야 확 터지면서 걷잡을수없이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사나이는 허리에 바를 동인채 돌팔매질을 하고있었습니다.

《신동아》 1936. 8.

검 둥 이

강 경 애

벅벅 할퀴는 소리가 있다. 문득 보니 교실문이 벙싯하였고 개의 발이 방금 문을 할퀴는중이다. 검은 털속으로 뿌하게 나온 발톱이란 칼끝보다도 더 예리해보인다. 이윽해 문이 열리고 귀가 덥수룩히 늘어진 검정개 한마리가 덥썩 들어온다.

구슬구슬한 털이랑 기름한 눈 하고 쀼죽이 튀여나온 주둥이며 뚱뚱하고도 늘씬한 허리가 일견 위풍이 름름하였다. 학생들은 눈이 둥그래서 바라보고 그중에는 웃는 아이까지 있었다.

칠판에 썼던 글을 지우던 선생이 학생들의 웃음소리에 귀가 띄여 머리를 돌리니 검둥이가 꼬리를 치며 달려온다. 선뜻 반가운 맘이 드는 동시에 별안간 일어나는 분노는 자기로서도 억제할수가 없었다. 책상우에 있는 채찍을 들어 개의 머리를 힘껏 쳐버렸다. 개는 껑충 뛰여오르면서도 피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K선생의 앞으로 달려든다. 설레설레 젓는 꼬리끝에 잠간 발린 흰 털이란 박꽃처럼 희다. 그러나 끝내 개는 컹컹 울면서 뛰여나갔다.

《자, 그럼 래일 련습들 잘해오시우.》

K선생의 말소리는 약간 떨리는것 같고 피빛이 얼굴에 쫙 내돋는다. 눈아래 포르스름한 근육이 발랑발랑 뛴다.

《그 개가 교장선생님네 개지?》

《아니다. 김선생님네 개다.》

《교장선생댁에 있던데…》

책보를 꾸리는 학생들은 이리 소근거린다. 귀결에 이 말을 들은 K선생은 아차 내가 또 감정적행동을 했나보구나 하니 어쩐지 자신은 끝까지 소인이요, 평생 요모양으로 남의 눈에 거친짓만 할듯싶어 슬픈 맘이 들었다. 하나 대인인들 부럽지 않다! 이러한 부르짖음이 가슴에 울컥 끼쳐진다.

학생들의 례를 받고 나오는 K선생은 머리가 우쩍거리고 다리가 허

청거려진다. 그럴것이 이틀이나 오토시 굶었기때문이다. 새로 뼁끼칠한 으리으리한 이 복도에 골이 메여서 학생들은 밀려나간다. 뽀얀 먼지속에 구두냄새 같은게 홀홀 풍기고 뭇신발소리가 북을 울리듯 쿵쿵한다. 창밖에 단풍진 뽀뿌라가지가 바람에 팽그르 돌고 먼 하늘이 갸웃이 들여다본다. 무척 낯익다.

《선생님, 어디 편치 않으십니까?》

K선생이 머리를 돌릴 때 별안간 앞이 아뜩해지므로 잠간 정신을 수습하려 눈을 감았다 뜨니 곁에 서서 당황히 쳐다보는 학생은 언제인가 모종의 혐의가 있다 하여 순사에게 끌리여가던 그였다. 왼편 눈과 볼에 그때 표정이 안개같이 스러지는것이다.

《너냐!》

K선생은 이리 말하고 다시 보니 그는 아니고 현재 재학중의 한 사람이다. 학생의 팔에 의지하여 사무실까지 오는 K선생은 소리쳐 누구를 부르고싶어진다.

《마차 불러다우.》

K선생은 정신이 버쩍 들어 학생에게 이리 부탁하고 사무실문을 열었다. 담배내 자욱하고 싫은 시선의 눈을 뜨고싶지 않다. 머리를 약간 숙인 그는 잠잠히 그의 책상으로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어디 아프시오?》

음악선생의 헤설핀 음성이다. 문득 교장의 얼굴이 보이고 이리 몸이 허약해지기까지 아무 단안을 짓지 못한 자신이 슬프다못해서 일종의 분을 일으키지 않을수가 없었다. 이러한 약점을 리용하여 저들은 온갖 야비한짓을 그에게 감행하지 않았나. 그는 벌떡 일어났다. 사무실이 핑 돈다. 그러나 다리에 힘을 주어가지고 교장실로 건너갔다.

최교장은 방금 퇴근할 준비를 차리다가 K선생을 보고 우뚝 선다. 그의 수염은 먹같이 짙은 빛이고 입술이 함박만큼 커보인다.

《무슨 의논할 일이 생겼소?》

누런 안경알에 누런 웃음이 핑그르르 돌아간다.

《네, 있습니다.》

숨이 막힐듯 K선생의 가슴은 벅차다. 푸른 책상에 놓인 투실한 최교장의 손은 그의 얼굴과 달리 희고 젊은이의 손같이 근육이 팽팽하였다. 무슨 일이냐는듯이 최교장이 빤히 건너다본다. 안경뒤에 번들

거리는 눈은 몹시도 깊어보인다.

《어제도 댁에 갔는데 안계셔서…》

《응, 그래 무슨 일이요?》

최교장이 바쁜듯이 묻는다. K선생은 뛰는 가슴을 진정하며 숨을 가만히 들여쉬고나서

《저, 강연은 못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아퍼? 어디가 아푸?》

최교장은 의외란듯이 눈살을 약간 찌프리고 언짢은 기색을 띄운다. 분화같이 터지려는 그의 입술을 지그시 깨무니 머리가 뗑해지면서 귀가 우썩우썩 울기 시작한다. 극도에 달했던 분이 이제사 툭 꺾여 슬픔으로 흐르려고 한다.

어둑컴컴한 지하속, 초불이 노란빛을 펴치고있던 흙내 가득한 그속에서 밤을 낮삼아 일하다가 피곤에 지쳐 잠간 눈을 감았다. 놀라 깨니

《어서 좀 쉬우.》

빙긋이 웃으며 저고리를 벗어 그의 어깨우에 걸쳐주던 저, 벽에서 떨어진 얼굴의 흙모래를 조심히 씻어주던 어머니의 손처럼 따뜻하던 저 손! 생사를 헤아리지 않고 일하던 그때로부터 불과 십년 남짓한 오늘에 저다지도 변하였는가 하니 와락 달려들어 울고싶어졌던것이다. 물론 최교장이 기어코 그에게 강연을 시키려는 한가닥의 리유를 그가 모르는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그의 이러한 고민까지 모르는체 하려는 저의 박절한 태도가 뜻을 같이한 벗이라 할수가 없었던것이다. 자리가 자린지라 그런지도 모르지. 속깊은 저라 저리 내색을 않는지 모르지. 보다도 저의 지나친 욕심때문이니 설마한들 그 량심까지야…

그렇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각오를 가지고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교무주임의 지위도 순순히 내놓은것이 아니냐, 부딪칠 곳을 잃어버린 K선생은 스스로 고민을 어루만져 자위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그만큼 외롭고 적적함이 그의 목덜미를 꽉 누르는것이다.

《강연을 못하겠다— 헐수 없지.》

최교장은 넌지시 웃는것이다. 머리를 치는듯 한 저 웃음! 그러나 K선생은 진정을 고하여 그를 설복시키고싶은 충동이 불길같이 내달린다. 눈물이 핑 돌았다. 최교장의 얼굴이 컴컴해지는것이다. 목을 끌어매여 호흡조차 임의로 할수 없는듯 한 이 현실에서 그나마 뜻을

버리지 않으려 애쓰는 우리들이거니 조그만 리해문제때문에 이렇게 소홀히 할것이랴!

《글쎄 선생님이나 저야 차마 그럴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기어코 내보내라니 량심의 고통이 없을 선생들중에서 한분 택하여 내세우는것이 수수하지 않습니까, 저라야 합니까!》

《내 오직 잘 알고 처리하겠기 그리우, 김선생은 그 말은 실패니…》

최교장은 정색을 하면서 벌떡 일어난다.

《선생님!》

K선생은 최교장을 붙잡을듯이 일어서며 불렀다.

최교장은 지팽이를 집어들면서

《그만해도 다 알았소. 그럼 다른 선생을 내보냅시다.》

말을 마친 최교장은 문을 쾅 열고 나가버린다. 이 말이 얼마나 고마왔는지 K선생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들었다.

그는 책상에 방울진 눈물을 훔쳐내면서 최교장과의 사소한 감정은 풀어버리리라 다시금 생각하였다. 그가 교실에서 나오니 마차가 문전에서 기다리므로 교원들에게 아픈 뜻을 고하고 마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

《미음 쑤었소?》

젖비린내 확 피우는 안해를 쳐다보고 K선생은 펴놓은 자리에 누워버렸다. 가시방석같은 이 자리가 이다지도 평안할가. 그는 맥을 탁 풀어헤치고 물끄러미 천정을 바라본다. 량심을 꺾는 일이란 그렇게도 힘든것일가. 그는 다시금 생각지 않을수가 없었다.

안해는 미음을 쑤느라 부산하고 어린애들의 울음소리가 쌍으로 일어난다.

《이리 온, 경희야.》

그는 새문을 방싯이 열고 불렀다. 안해는 경희의 손을 이끌어보내며 근심스레 쳐다본다. 솔김에 안해의 얼굴은 뽀얘보이나 그의 까만 머리카락은 우아해보인다. 눈물을 쪼르르 흘린 경희가 그의 팔에 안기므로 새문을 닫고 꼭 안았다. 고소한 냄새가 경희의 머리카락에서 오르고 육친의 정이 가슴에 훈훈히 느껴지는것이다. 문득 내 꼴이 저렇게 최교장에게 비쳐졌는지 모르지 하는 생각이 경희의 우는 얼굴에서 뚝 떨어진다. 최교장앞에 어린애같은 자신이 한껏 보잘것없었다.

그는 경희를 안은채 누우니 부엌에서 나무 꺾이는 소리, 물 다루는

소리가 뻔하다. 언제나 느끼지마는 그에게는 이렇다 할만 한 장점이 없다. 억지로 들자면 거짓말 못하는것, 한번 옳다고 보면 끝까지 밀으려는것, 이것이 처세로는 가장 큰 단점이 아닐수가 없다.

최교장과 같이 욕심이라도 컸으면 하고 때로는 생각도 나나 그것은 잠간이고. 이것이 그의 비위에 거슬리고 교장과의 의견충돌이 여기에 기인된다. 가다가 학교에서 쓰렴직한 물건이 집에 생기면 잡담 제하고 학교에 가져가게 되고 고로 안해는 불만을 품을뿐만아니라 쌈까지 하려고드나 그는 못 들은체 피해버린다. 제각기 제것을 만들려고 눈이 뻘개서 날치는 직원들 틈에 끼여 이러한 자신을 발견할 때 혹시는 가련할만큼 외로움을 느끼나 그러나 다만 하나의 장점이라 스스로 자위한다. 하지만 동료들은 속없는 사내라 치는것 같다. 지금은 사회조직내에서는 그럴는지도 모른다고 쓸쓸히 깨닫군 한다. 이래서 한가지의 장점조차 뿌리깊게 붙들지 못한 그였던것이다.

문이 열리며 김이 뭉기뭉기 흐르는 미음그릇을 든 안해가 올라온다. 이때 자는가싶던 경희가 냉큼 일어나 안해에게 매달린다. 그 반들반들한 눈이란 꼭 자신의 눈을 닮았다고 본다. 안해의 긴 치마자락에서 싫지 않은 음식내가 소르르 흘러내린다. 요새 그가 볶아댄탓일가. 안해의 눈언저리에 파란 피줄이 드러났고 눈까풀이 푹 졌다. 그는 미음그릇을 받으면서 졸한 사내를 만난 안해가 가엾어보였다.

《까불지 말어.》

안해는 경희의 손을 끌어 앉힌 담에

《어서 좀 마셔요.》

눈섭끝에 걱정이 포르르 깃들이는것이다. 아침 안해가 받들어주던 미음그릇을 탁 쳐서 왱강 엎질러놓던것을 생각하며 K선생은 미음을 쭉 마셨다.

《한그릇 더 주. 그러고 저녁 먹겠으니 얼른 밥짓소. 숙주나물 사온것 있겠지, 그놈 무치고해서.》

지나치게 큰듯 한 안해의 눈에 맑은 바람결과 같은 웃음이 서늘히 일어난다. 안해는 미음그릇을 받아들고 나간다. 버선코를 뚫고나온 발가락이 무척 사랑스럽다.

경희도 쪼르르 묻어나가면서 엄마 엄마 잘게 부른다.

《여보, 검둥이 왔수.》

안해의 말에 K선생은 공중 일어나 자리를 밀어던지고 문을 탁 열어제치니 씽 하고 비린내를 푹 피우면서 검둥이가 달려들어온다. 초가을의 산뜻한 공기를 향내같이 털끝에 피우면서 그 긴 주둥이를 내밀어 닥치는대로 핥아넘긴다.

《아까 아펐니, 검둥아.》

K선생은 검둥이 허리를 어우러져 안고 돌아다보았다. 사람같으면 원망을 품고 발길하지 않으련만 이리 다정히 핥고있다. 긴 눈섭과 수염끝에서 번쩍번쩍 빛을 발하는듯 하고 무슨 사색에 잠긴듯 한 그 긴 눈이며 턱없이 나온 주둥이가 여간 그의 맘을 이끄는것이 아니다. 얼굴전체가 둥글어 드러난 특징이 없는 자신의 얼굴에 비하여 훨씬 비범하다고 본다. 믿는 교장의 청에 어려워 한번 승낙한것이다.

이리 검둥이를 내여놓았지만 아직도 아쉬운 맘에 가슴 한쪽이 이다지도 짤짤하다. 그럴것이 강아지적부터 재주를 배워주기에 온갖 힘이 다 들였고 그래서 지금엔 고기, 담배 사오고 편지 전하는것 등을 엉뚱하게 하였던것이다.

검둥이가 최교장네 뜰에서 쇠줄에 매여있을적 어찌다가 K선생이 그 앞을 지나만 가도 검둥이는 펄펄 뛰고 사람같이 노상 어이어이 울어서 K선생은 흉격이 막히여 갈길을 잊고 우두커니 섰군 했다. 그리고 그의 가벼운 언행에 모멸을 품게스리 분하여지군 하였던것이다. 하지만 꿈에도 달라고 할, 최교장을 어떻다고 해본적이 없었다.

《그만둬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뭘 주어서 자꾸만 개가 간다고 저번 교장댁이 좋지 않은 기색을 하던데요.》

안해는 키승키승 보채는 경선이를 떨쳐업으면서 말하였다. 어깨너머로 보이는 경선의 넓은 이마는 안해의것을 똑 땄다고 본다.

《늘 오니까 그럴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오늘만은 줘야겠어. 아까 이놈이 교실에 들어왔단 말야. 그런걸 막 때려줬지.》

그의 말에 검둥이의 심장 뛰는것이 후둑후둑 느껴진다.

《교실에요? 저걸 봐!》

안해는 놀라 과자봉지를 갖다가 입에 물려준다. 검둥이는 턱 누워서 과자를 우적우적 씹는다. 날카로운 이가 한뽐이나 되여보인다. 안가겠다는 검둥이를 때려보낸 뒤 K선생은 잠든 경선이를 앞에 누이고 자리에 눴다. 호젓이 졸음이 오려고 한다.

(직접 나가 싸우지 못한들 그 어찌 량심이 없는 일이랴.)

코가 맥맥히 막히는듯 해서 눈을 번쩍 떴다. 이마에 땀이 버쩍 내솟았다. 어제 그제 밤새워 고민하던것이 아직도 머리에 꽉 박혀 이리 되풀이하게 된것이다. 머리가 지끈지끈 쑤시고 입술이 촐촐 마른다.

그는 안해에게 랭수를 가져오라 하여 마신 뒤 멍하니 천정을 노려본다. 방안은 연기같은 어둠에 푹 잠기고 오직 앞문 우쪽이 석양볕을 달처럼 띄우고 발가스름할뿐이다. 간혹 그릇 부시는 소리가 재그륵거리고 경선이의 숨소리가 아늑히 흐른다. 교장이 그쯤 말했으니까 다른이가 나가게 하겠지. 오선생을 내보낼텐가. 래일만 지나면 되겠지. 그러나 이번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그들은 좀 주목할는지 모르지. 내나 교장이 나가서야 만족해할터인데, 뭐 별일이야 있겠나, 대표로 나가는이가 있는데…

요새 직원들의 눈치를 보나 일반의 여론을 들으나 교장보다 자기가 더 저들에게 주목을 받고있음을 뻔히 안다. 그래서 학교로서 받는 타격이 적지 않게 있음도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있다.

까닭에 학교를 그만둘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우선 당장에 생활문제가 막연하고 이때까지 붙들어온것을 쉽사리 내여놓기란 그리 용이한것이 아니다. 그저 눈 딱 감고있노라니 리해없는 직원들은 말할것도 없지만 교장까지도 완연히 내색을 하는것이다.

7년전 서대문형무소에서 나온 K선생은 어떤 친구의 소개로 이곳 ×학교 교원으로 오게 되였다.

때는 제2간도출병의 총소리가 간도천지를 울렸으니 오래 있던 교원들도 슬금슬금 꼬리를 빼여 달아나버리고 모든 일에 생소한 K선생 혼자 오뚝 남게 되였다. 날마다 검거사건이 일어 학생들은 잡혀가고 혹은 무서워 도망가고 나중엔 십여명 남짓하였다. 하루에 한끼 먹기도 바쁜 수입을 가지고 K선생은 완강히 버티여 2, 3년을 훨씬 지나버린것이다. 시국의 안정을 따라 차차 학생수가 많아졌고 여기에 이르러 교원들도 늘게 되였으니 지금의 최교장도 그때 K선생이 불러들였고 또한 교장으로 올려세웠으며 이래 꾸준히 운전시켜온 그였다. 새학기마다 퇴락한 교사를 수리해온것이 7년이 되는 오늘에야 겨우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것이다. 변소를 짓고 회벽을 하고 뼁끼칠을 하고 현관을 짓고 운동장을 넓히고 올해는 울타리에 정문까지 버

것이 세우게 된것이다. K선생도 올부터야 비로소 로동화를 벗어던지고 고꾸라양복을 집어치운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싹터오던 최교장의 욕심은 시국을 타서 점점 드러나게 되였으니 금년부터는 버쩍 로골화되였고 여기에 따라 학생들도 두패로 나누인것이다.

K선생은 하나, 둘 최교장에게 양보하였다. 물론 그의 약한 성격상으로 오는 결론이겠지만 보다도 이러한 시국에 앉아 기운을 뿌리채 잃고만것이다. 저녁을 먹은 뒤 K선생은 최교장댁으로 향하였다. 다시한번 그의 눈치를 보고저 함이다. 아까 확답으로 겨우 안심은 했으나 그러나 분명히 그속을 알지 못하여 한번 더 타진해보고저 함이다.

초가을의 맑은 공기가 랭수같이 산뜻하나 뿌듯한 머리속에까지 그 방향이 스며들지 못하고 피부에만 알알이 스칠뿐이다. 바라보니 초생달이 무연한 벌판우에서 혼자 갈길을 잊은듯 가도오도 못하고 울듯 한 표정이다. 밥 한술 뜬것이 목에 꽉 매여달려 해란강변에나 나가서 한참 돌아갈가 했으나 몸이 으쓱하여 그냥 돌아섰다. 학교앞을 지나다가 그도 모르는새에 발길은 학교로 들어가버린다.

학교정문에 손을 대였다. 산뜻한 감촉, 몰싹 피우는 뼁끼내, 대견한 맘에 슬슬 어루만졌다. 손에 열이 있다는것을 느끼면서 우두커니 섰다. 7년을 내리 이 정문을 짓지 못해 속이 썩을대로 썩은셈이다. 어디 가면 큰 문만 바라다뵈고 우리 학교 정문은 이리이리 세워야겠다고 정신없이 계획하던것이 두어달전에 바로 여기에 실현된것이다. 인부를 대여 정문을 쌓을 때 K선생은 시간마다 뛰여나와서 잔소리를 하고 지시하므로 중국인이 하도 귀찮아서 《나 이런 일 못하겠어. 우리 사람이 일을 많이 했어두 첨 보는 사람이여.》 하고 머리를 내흔들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확실히 나는 남아의 기질이 적어! 물론 시국의탓이지만.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힘들여 만든 이 학교조차 빼앗기게 되는가싶어진것이다. 밥 한술 넌쩍 삭이지 못하고 깔닥깔닥하는 보잘것 없는 자신을 지금 내려다본다.

그는 정문에 얼굴을 대려다가 교문안으로 들어갔다. 숙직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붉은 실타래같이 찢기여지고 휘영청 넓은 교정이 검푸른 파도같이 움씰움씰 흔들리는것 같다.

어둠속에 뚜렷이 솟아있는 저 2층교사! 자신의 손때가 아니 묻

은 곳이 그 어디랴.

5년전 어느 봄날, 구질구질이 비가 내린다. K선생이 학교에 오니 교실이란 교실에는 비가 새여 지질했고 학생들은 복도 한구석에 몰려서서 우울해있다. K선생은 한참 열변을 토하여 그 우울한 학생들의 기분을 일소시키고 마침 비가 뜸해진지라 지붕을 손질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 학생들은 기운이 나서 발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담에 분발하여 맡은 임무를 당하였다.

—흙이 파지고 일변 깨여지고 긴 사다리가 처마끝에 놓이고 학생들이 렬을 지어 올라서고 K선생과 머리 큰 학생들은 까만 지붕우에 올라섰고 어린 학생들도 메주덩이같은 흙덩이를 나르느라 뛰여가고 뛰여오고—

K선생은 기와틈에 발을 붙이고 련달아 올라오는 흙덩이를 받아 기와틈에 끼우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일을 시킨다. 재기(재주가 들여다보이는 기운) 흐르는 그 눈에 열이 호독호독 뛰고 평생 누울줄 모르는 머리카락은 산산이 흩어졌고 잠시라도 닫힐 사이가 없이 입을 놀린다.

선생은 한분이나 여러분같이 생각되고 학생들의 일의 능률은 놀랄만큼 진행되여 세시나 남짓해서 질펀하게 기와를 다시 쌓고 비속에서 교가를 부르며 운동장을 뛰던 그 시절.

지금은 양철지붕에 달빛이 굴러 쇠소리 징징 날듯 웅장한 태도다. 그는 안심의 한숨을 푹 쉬였다. 남은 아무러하더라도 그래도 저만큼한 사업을 이루어놨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삼천리》 1938. 5.

논 갈 때

박 화 성

해선이는 설겆이를 하고나서 개수물을 들고 부엌 뒤문에서 나왔다. 그릇과 행주를 씻은 개수물은 검은색으로 더러워진 물이나마 해선의 걸음걸이대로 출렁거렸다. 건드리면 움직이는것이 물의 성질이라는듯이…

조심스럽게 출렁이는 물을 들여다보며 걸어가던 해선의 눈에는 더

러운 물속에서 우쭐거리는 무엇이 띄였다. 그것은 빛나는것이였다. 해선이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예쁜 반달이 개수물에 넌지시 그림자를 떨어뜨린것이였다.
해선이는 그것을 보자 가슴이 뭉클하였다.
《아이구, 오늘이 초아흐레로구나. 어쩌면 내가 아흐레동안을 기다렸던가…》
그는 속으로 부르짖으며 장독머리에 파놓은 웅뎅이앞에까지 갔다. 그러나 그는 물을 버리기가 싫었다. 더럽고 흐린 물속에서도 주홍빛을 아낌없이 발하고있는 그 달이 몹시 사랑스러웠다. 웅뎅이물에도 반달은 비치여있었다.
해선이는 한숨을 가만히 쉬였다. 포근한 봄의 짙은 황혼이 어쩐지 애닯고 야속하였다.
그는 살구나무를 쳐다보았다. 거의 떨어지려는 살구나무꽃이 어두움속에서 하얗게 웃고있는것 같았다. 그 웃음은 적어도 자기를 비웃는것처럼 차디찬 웃음이라고 그는 생각하면서 살구나무를 쳤다. 살구꽃잎이 팔팔 날린다. 해선이는 견딜수 없다는듯이 살구나무를 안고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정답게 감촉되는 봄의 황혼만으로도 처녀의 가슴을 어여 내기 (더구나 애인을 기다리는) 넉넉하려던 얄미운 그 황혼은 반달을 쥐고 자랑하면서 살구꽃잎까지 날리고있지 않느냐? 해선이는 가만히 얼굴을 들어서 눈송이가 엉킨듯 한 꽃가지사이로 반달을 내다보았다.
《왜 너 혼자만 왔느냐? 그이는 뭘하고있으며 너만 보내드냐? 야속하기도 하다.》
해선이는 달을 쳐다보며 속삭였다.
《귀련아—》
부르는 아버지의 소리가 앞뜰에서 들려왔다.
해선이는 깜짝 놀라서 개수물을 웅뎅이에 부었다. 웅뎅이속에 있던 반달이 깨여지면서 구정물이 푹 솟아올랐다.
《귀련이, 어데 있느냐? 귀련아!》
해선은 부엌에 들어갔다가 부엌 앞문으로 나가서 아버지앞에 섰다.
《왜 대답소리가 없느냐? 어른이 부르면 대답 먼저 냉큼 하는것이 아니라…》

하고 아버지는 숙이고있는 딸의 전반(숱많고 윤기있는 아름다운 머리채)같은 머리채를 바라본다.

《흰닭이 한자웅 있지? 래일 새벽에 그놈 못 내리게 하고 두놈을 한데 묶어놔라.》

《아버지, 닭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요. 암닭은 병아리를 몰고다니고 그러고는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

딸은 머리를 들고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마음으로는 해선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아버지는 항상 잊어버리고 예전 이름만 불러주시는것에 불만을 느끼면서…

그의 이름은 서봉이가 지어준 이름이였다. 나루 하나를 격하여있는 두 섬을 하나는 서봉리라 하고 하나는 장선동이라 하였다.

장선동보다 읍내에 가까와서 훨씬 번화한 서봉리에서 여름마다 장선동에 계몽대를 보내여 주학과 야학을 시켜왔다. 계몽대의 대장인 선생이 서봉이였다. 그는 서봉리에서 난 사람이였다. 귀련이가 열다섯살되던 해 여름에 서봉이는 귀련이의 집에서 한여름을 보냈다. 그의 아버지는 귀련이의 아버지와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그래서 귀련이도 서봉이를 오빠라고 불렀다.

야학에서 배우고 또 그 여름을 줄곧 틈틈이 배우기에 힘쓴 귀련의 재주에 서봉이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귀련의 이름을 해선이라고 지어주었다. 장선동에서 출생한 이 뛰여난 애의 이름을 지어주기에 그는 이틀밤동안을 생각하였다고 해선에게 말하여주었다.

해선이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앞에 서있었다. 갈가리 찢어진 댕기끄리의 한쪽을 마저 찢으면서…

《좌우간에 래일 아침에 잡어놔, 긴한데 쓸일이 있어 그러는것이니까…》

하고 아버지는 곰방대에 피마자잎 마른것을 기사미로 썰어놓은 담배를 한대 담았다. 뽕잎 기사미는 떨어지고 없었다. 한달에 두번씩 보름, 그믐으로 올 때마다 서봉이가 사가지고 온 《희연》맛을 보는것은 해선 아버지 김선달의 가장 큰 기대였다.

이번 그믐에 서봉이는 오지 않았다. 김선달은 마지막나루배가 서봉이를 장선동 나루선창에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가는것을 보고 락망하였던것이다. 해선이가 (그는 지금 열여덟살이다.) 뒤언덕에 서서 서봉이의 그림자를 찾다가 보지 못하고 돌아서서 언덕을 내려올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꼬꾸라질번 하였던 때의 그 초조하고 절망하던 가슴의 정도와는 너무도 판이한 종류의 락망이였으나 김선달이 저녁밥후에 텁텁한 피마자잎담배를 피워물었을 때는 미상불 《희연》생각이 간절한만큼 서봉이가 오지 않은것을 안타깝게 여겼던것이다.

×

짧은듯 한 봄밤이건만 이웃집 면서기네 집의 시계가 열시를 칠 때까지 기다리기에 해선이는 몇번이나 살구나무밑에까지 나갔다 들어왔다 하였다.

해선이는 바쁘게 나루선창으로 향하여 걸어갔다. 도회지의 밤의 향락이 비로소 그 첫실끝을 풀려는 열시이건만 이 작은 섬의 밤은 열시가 될 때 이미 자정을 말하는듯이 몹시 고요하였다.

가끔 선창 주막에서 막걸리주정으로 엉터리없이 떠드는 배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올뿐이였다.

해선이는 꿈속같이 보이는 서봉리를 바라보았다. 바다물우에 서리는 김이 봄의 김인지 물의 김인지는 모르나 몽롱한 안개속으로 그나마 반달빛이 아까운듯이 비치여주는 서봉리를 바라보기에는 해선의 훨훨 날아가는듯싶은 좁은 가슴이 터질듯도 하고 메여질듯도 하였다.

해선이는 물길을 원망하였다.

《만일 이 물이 륙지이라면 이우로 달려가서 서봉의 집을 찾아가 시원히 그를 만나보고 밤을 새워서 다시 달려올터인데…》

그는 속으로 이 말을 부르짖기에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 그는 서봉이가 들을만큼 큰소리로 웨치고싶었다. 그는 7년전에 가본 서봉의 집을 잘 기억하고있다. 길이 좀 넓어지고 집이 헐리고 담배가게가 생기고 일본상점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마는 그 집쯤이야 찾지 못하랴 하였다.

해선의 발은 움짓움짓 하였다. 그러나 그가 모래판 작은 돌멩이우에 한번 발을 내려놓았을 때 선뜩한 바다물이 발벗은 해선의 고무신속으로 가득하게 들어있다. 그는 한숨을 지으며 신을 털었다.

《초아흐레가 오늘, 엿새만 있으면 보름이니 그때 오려나.》

해선이는 막연히 이런 희망을 품을수밖에 없었다.

자기 집에 가면 언제나 즉시 무슨 기별이나 하여주는 서봉이가 이번에는 한달이 가도록 말 한마디가 없었다.
저번 송의원에게 체(음식에 체한것)를 내려왔다는 유동 어머니 말은 서봉이가 어디로 끌려갔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였고 어머니의 친정댁 머슴도 서봉이가 그렇게 가는것을 보았다고까지 하였다.
《아아, 이 물이 륙지라면…》
해선이는 몇번이나 부르짖다가 그냥 돌아왔다.
풋나물죽 한그릇도 변변히 먹지 못한 한창때인 해선의 건장한 위장이 공허라는것을 《꼬락꼬락》하는 소리의 암호로 말하고있을 때 《내 배고픈것쯤이야 무엇이 서러우리. 그는 지금 컴컴하고 음습한 곳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고 홱 돌아누웠다.
아버지가 래일 잡아놓으라고 신신당부하던 흰 장닭이 《꼬끼요》 하고 힘찬 소리로 첫새벽을 아뢴다.
《흥, 우리 집의 새벽을 알려주는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우리는 좁쌀죽도 못 먹으면서 싸래기를 사두고 먹이던 그 흰닭 자웅이 래일은 어디로 갈것인고.》
해선이는 그 흰닭 한쌍이 박참봉 집으로 갈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박참봉이 마름이 된 후로는 갑자기 논 떨어진 그들은 사면팔방으로 쫓아다녔다. 마름과 친한 집, 일가되는 집, 이렇게 쏘아다니며 청을 대고 다녔다.
김선달도 두번째 박참봉에게 가는 선물로 이 집의 귀한 가족으로 되여있는 흰닭 한쌍을 희생하는것이다.
《흥, 박참봉 집에야 들어온 닭이 얼마나 많으리. 막둥네는 돼지새끼까지 갖다주었다는데… 그 많은 닭들을 주인들은 눈도 거들떠보지 않을터인데 그 틈에서 너희들은 어찌 될테냐? 혹 가자마자 그냥 잡혀서 주인의 점심상에 오르는 영광을 입을테냐? 흰닭이라고 박참봉 마누라의 인삼 넣어 고아먹는 약이 될 봉사를 할터이냐?》
해선이는 닭을 잡아서 맞매여놓으며 이렇게 중얼거리고 눈물을 지었다.
김선달은 첫새벽에 밭에 나갔다. 어제부터 갈던 밭을 갈아버리고 박참봉에게 갈 예산으로…
해선이는 살구나무밑에 서서 아버지의 밭가는 모양을 바라보았다.

보통때면 아침밥을 먹고 나가건마는 박참봉 집에 가서 하루를 보낼(박참봉 집에는 작인들이 장보듯이 모였기때문에)것이므로 공복(그나마 어제밤 풋나물죽 먹은)에 허덕거리고 소를 몰아가는양이 너무도 애처로웠다.

《그래도 소를 일찍 내여주느라고.》 하면서 해선이는 멀리서도 무거운듯이 쟁기를 몰아가는 아버지의 희물끄럼한 뒤모양을 보다가 얼른 부엌에 들어갔다. 좁쌀되박이 쌀그릇밑바닥을 훑는 소리에 해선이는 얼굴을 찡그렸다.

×

해선이가 좁쌀밥물이 넘어나서 얼룩진 솥언저리를 행주질하고있을 때

《해선아—》

부르고 성큼 봉당에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아이구, 종수오빠!》

해선이는 행주를 동댕이치고 달려나왔다.

《첫배로 오셨구려. 어머니는 왜 안 오시우?》

《고모님은 할머니제사 보시구 온다더라.》

종수는 퇴마루에 펄썩 걸터앉으며 말하였다.

해선이는 어머니가 아니 오신다는 말에 잠간 시무룩하였다. 해선의 눈에는 친정으로 량식말이나 얻으러 간 어머니의 여위고 초라한 얼굴이 보였다.

《아주 기막힌 처녀가 되였구나, 응? 작년 여름보다도 더 예뻐지고…》

하면서 종수는 소곳이 섰는 해선을 쳐다보면서 말하다가 쓸쓸한 집안을 한번 둘러보며

《작숙은 어디 가셨냐? 논에 나가셨냐? 어느새…》

하고 마코 한개를 입에 문다. 해선이는 부엌에서 성냥을 가져다주며

《밭에 나가셨다우. 논은 갈지도 못하고있지. 논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마구 갈수 있겠소?》

하고 종수곁에 걸터앉는다.

《흥, 가나오나 논 떨어지는 문제때미…》

하고 종수는 성냥을 드윽 그어댄다.

《그래 졸업하고 오셨구려. 인제 오빠도 농사나 지으시지요? 뭘 하시겠소?》

《암, 농사 짓구말구, 할일도 많지.》

《아이구, 농사인지 뭔지, 일년내— 농사짓느라고 뼈가 빠지게 고생했어도 논 갈 때가 되면 좁쌀죽이나 풋나물죽도 변변히 차례가 아니오니 글쎄 어찌 될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보리날 때까지는 이 모양이 계속 될테니 원… 도무지…》

해선은 저고리고름을 돌돌 말면서 가만히 한숨 지으며 탄식하였다.

《새삼스럽게 인제 그런 소리가 무슨 쓸데 있느냐? 백번 되풀이해도 늘 그 소리지. 인제 나도 차차 일을 좀 시작해봐야 되겠다.》

그는 담배연기를 함뿍 뿜었다. 연기가 해선에게로 간다. 해선이는 담배연기를 손으로 저어 피했다.

《무얼 시작하시려면 지금 하시구려. 인제 점점 더 바빠지지. 요새야 그저 논밭이나 갈고.》

《보리 웃거름이나 내고…》

《호호, 보리 웃거름은 인젠 다 냈지요. 논에다 뙤나 캐다가 깔고 소 두엄이나 내고 밭둑이나 치고…》

《밭이나 논을 세번, 네번씩이나 갈기는 여간 바쁜 일이 아니냐?》

《그래도 인제 모자리 거름할 풀을 캔다, 논에 물을 댄다, 뭐 점점 일이 더 많지요.》

해선이는 자기의 농사에 대한 지식이 종수보다 나은것에 만족하여 기를 펴서 말하였다. 종수는 담배꽁초를 발로 썩썩 문지르며

《너는 아직 한가지 모르는 일이 있다. 논 갈 때가 되면 작권이동이 심한것이야. 작권이동 알지?》

《알아요.》

해선이의 상식은 풍부한것이였다. 그는 거침없이 대답하고나서

《그래서 어떻단 말이요?》

하며 의아의 눈으로 종수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작인들은 그걸 안 떼우겠다고 마구 생명을 바치다싶이

하고 쫓아다니는구나.》
《정말 그럽데다. 아버지도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발 갈러 나가셨는데…》
큼직하게 생겼으나 못 먹어서 여윈 검정개 한마리가 꼬리를 쭉 늘어뜨리고 어슬렁어슬렁 기여와서 해선의 발치에 털썩 자빠진다.
《아이고, 배가 고파 그러는구나. 아이참, 밥을 재쳐야지.》
해선은 깜짝 놀란듯이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간다. 뒤에서 종수의 말소리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춘경기는 가장 작인들의 수난기다. 량식은 떨어져 논도 떨어져 흥, 한가한 때라고? 제일 바쁜 때가, 제일 초조하는 때가 논갈 때란 말이다. 너 이번 읍내 용곡농장사건 알지?》
종수는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기울여 부엌문을 들여다보며 말하였다.
《아니요, 난 몰라.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해선이는 머리에 불티를 손바닥으로 탁탁 털면서 다시 부엌에서 나왔다.
《아니, 서봉이 일도 몰라?》
종수는 해선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서봉이의 말을 듣자 해선의 가슴이 울렁해지면서 얼굴이 빨개졌다. 사실은 처음부터 제일 묻고싶은 말이였건만…
《정말 몰라요. 참, 어떻게 되였어요?》
하고 해선이는 됩더(도리여) 물었다.
《하, 이번에 용곡농장에서 작인들을 띠였구나(때다—잡히다). 거기 딸린 작인이 백여명되는데 이 사람들이 마구 농장에서 밤낮없이 들이파고 졸라대다가 나종에는 좀 말썽이 있었지. 그래서 서봉이는 주모자의 한사람이라고 지난달 스무날께 때여 들어가지 않았냐? 들어간지 한 스무날쯤 되는데 몇사람 희생은 했지만 일은 기막히게 성공했지. 그래서 전부 복권되지 않었겠냐? 아니, 그래 적어도 네가 어느 편으로 보던지 그걸 모르고있어 된단 말이냐?》
종수는 득의양양하여 말을 하였으나 해선이는 아무 대답없이 머리만 숙이고 앉아있었다. 해선이의 가슴은 다시 괴로왔다.
아흐레동안 날마다 날마다 기다리고기다리고 바라던 자기의 뜨겁던 그 열정은 다만 서봉이 한사람만 뱅뱅 돌면서 타고탔던것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줄 알았더면 야속하다고 그를 원망하지 말고 그의 건강이나 빌어줄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밥이 굳게 되기 전에 퍼내려고 부엌에를 들어갔다.
《오빠, 세면하시고 우리 황금덩이밥을 잡숴보시오, 응…》
하고 밥 세그릇을 얼른 퍼놓고 살구나무밑으로 갔다. 아버지는 밭에 없었다. (아마 조반 먹으러 오는 길에 있겠지.)
쟁기가 뒤치여놓은 밭이 검게 보였다.
해선이는 돌아서서 읍내편 하늘을 바라보았다.
《논 갈 때는 작인들이 바쁜 때이다.》
그는 새 진리나 발견한듯이 이 말을 되풀이하며 서봉이의 건강을 빌었다.
장선봉우로 얼마쯤을 나온 해빛에 해선의 얼굴은 맑게 개여있었다.

《문학창조》 창간호 1934.6.

홍수전후

박 화 성

1

어제 한나절과 지난밤 새도록 작대기처럼 쏟아지던 비도 날이 새면서부터는 미친듯이 날뛰던 비발들을 잠간 걷고 검은구름장속에서 무슨 의론들을 하였는지 떨어지지 않을듯이 엉켜붙었던 구름덩이들은 이쪽저쪽으로 슬슬 헤여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몇겹으로든지 첩첩이 덮여있는 구름장인지라 검은구름장이 슬그머니 찢어지자 그속에서 검회색과 회색의 구름덩이가 비죽비죽 몰켜나와서 앞서간 구름의 뒤를 가는듯마는듯 따라간다. 포플라나무들도 겨우 숨을 내쉬고 온갖 풀잎도 가만히 고개를 들고 지난밤의 무서운 광경을 그리며 몸을 떨면서 물방울을 털었다.

어디 가서 숨었던지 킹킹거리는 소리 한마디 없었던 검둥이가 어슬렁어슬렁 진흙투성이가 된 꼬리를 축 늘이고 마당으로 나오고 죽은듯이 자빠져있는듯 하던 돼지조차 꿀꿀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울짱틈으로 주둥이를 내놓고 코를 벌씬거린다. 닭들도 영계들까지 몰려와서 웃퇴우에 놓여있는 보리가마니우에 올랐다내렸다 하며 놀고있다.

명철이는 담배 한대를 피워물고 방문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인제는 비도 그만 와야지 오늘 종일 퍼부었다가는 또 무슨 일이 날것인데. 원, 하늘이 하시는 노릇이라 알수가 있어야제…》

하고 하늘을 쳐다본다. 움직이고있는 큰 하늘은 무서운 비밀이나 꾸미고있는듯이 명철의 눈에 두렵게 보였다.

그는 천문학을 배우지는 않았다. 그러나 14년동안 영산리의 깊은 곳에 살면서 해마다 당해오는 물란리를 좋이 겪어오는만큼 하늘의 모양과 구름덩이의 가고오는 방향을 따라 대개 날씨는 어떻게 변하며 비오는 형세를 보아 비가 얼마큼이나 올 모양인지를 짐작할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였다. 이만한것쯤은 산간 농부나 어항 어부나 아니, 도회지의 유복하다는 로인들까지도 잘 알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소작인의 아들로 태여나서 다시 소작인의 아들을 가지고있는 명철이, 더구나 한편으로 조고마한 배 두개를 가지고 영산강의 어부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이 송서방은 나이는 지금 마흔다섯이건만 다른 륙십로인보다도 더 많은 천기에 대한 경험지식과 선견의 밝음을 가지고있었다.

송서방의 천후에 대한 지식이 로숙한만큼 그의 얼굴도 나이에 비하여 몹시 늙은 축이였다. 기름한 얼굴이였다. 광대뼈가 솟았고 아래볼까지 쪽 빨아버려서 언뜻 보면 환갑이 지난 로인처럼 보였다. 륙지와 강으로 쏘아다니며 당하는 육체적로동과 농부와 어부의 특수한 직업적고통—날씨에 매여 살아가는만큼 천후로 인하여 당하는 심리적 고통— 어느 하루도 그의 얼굴에서 주름을 펴준 날이 없었으며 영양좋은 사람의 얼굴에서는 기름이 흐르는데 혈색이 보기 좋은 장년시기의 한창때를 가진 명철의 얼굴에는 그의 손등에서 볼수 있는 고로의 주름살이 이마와 두볼에 잔주름을 그었고 검고 누른 얼굴빛은 항상 영양이 적음을 탓하는듯이 뜨거운 여름볕에나마 붉어지지는 않고 거머가기만 하였다.

《논에 나가보니까 어쩝딩겨? 인자는 그만 오면 풍년이것이라지라우?》

송서방의 마누라는 부엌문앞에 앉아서 보리를 갈면서 남편을 쳐다보고 물었다.

《암—은 비란 그만 오면 금년은 대풍년이것데마는.》 하고 담배통을 문지방에 꾹 누르면서

《한종은 바로 거뭇하게 서있네마는 만종은 물에 채워버렸네. 그래도 비만 그만 오면 다 일어날거네마는.》

하고 다시 하늘을 쳐다본다. 그의 마누라는 보리뜨물을 돼지밥통에 주르르 부어주면서

《아이고, 돼지막에 물이 흥건하게 괴였소. 그래도 또 비가 올라는가베.》 하고는 하늘을 쳐다본다. 가는비가 뿌린다.

《엄마!》

하고 두살잡이 계집애가 송서방무릎에 덜썩 기여올라가서 담배대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나님아, 이리 온!》

열한살 먹은 쌀례가 애기를 데려가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면서 무슨 말을 할듯할듯 망설이다가

《아부지!》

하고 용기를 내여 아버지를 불렀다.

《왜 그래?》

송서방이 고개를 쌀례쪽으로 돌리며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참외하고 수박하고 안 따오시오?》

하고 쌀례는 부끄러운듯이 고개를 숙이고 나님이를 안아올리면서

《또 비가 쏟아지면 어디 따러가겠소? 작년마냥 물이나 쩌버리면 하나 맛도 못 보고 말려버릴게라우? 비 쏟아지기 전에 따왔으면 좋겠구먼.》

하고 성날 때에 하듯이 입을 내민다.

《저런년, 처먹을 일이나 밤낮 궁리해라. 애기나 업어줘. 그저 참외, 수박 노래만 부르고있다니까. 저년은 허천병이 들었는것이여.》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를 지르며 야단친다.

쌀례는 애기를 안고 돌아서면서 눈물을 씻다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한다.

《밥먹고나서 따다가 주마.》

송서방은 점잖게 말하였다.

《나도 아부지 따라서 수박밭에 갈테여.》

장독머리에 있는 손바닥만 한 꽃밭에서 쓰러진 봉사꽃나무를 다시 심고있던 꽃례가 말하자

《나도 따라가야.》

하고 검둥이를 데리고 퇴마루끝에서 놀던 여덟살 되는 귀성이가 한자리 잡고 나섰다.

《저년은 14살이나 되는 년이 어린 동생 듣는데서 못할 소리가 없다니께. 이년아, 어서 밥솥에 불이나 때.》

어머니의 둘째번 쏜 총알은 꽃례에게로 향하였다. 꽃례는 귀성이 보고 혀를 날름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아니, 윤성이는 어디 갔는가?》

《언제 어제밤에 들어왔드라우? 또 대흥이네 집에 가서 그놈들 하고 쑥덕공론이나 하고 자빠졌는가부오그랴.》

송서방의 진중한 말소리에 정반대로 그 마누라의 소리는 콩알처럼 대글대글 부엌속에서 굴러나오듯이 종알거렸다.

《앵— 참.》

하고 송서방은 안깐힘을 끙 쓰면서 담배를 탁탁 털었다.

귀성의 손에서 검둥이가 쭈르르 빠져나가더니 회회 내두르는 꼬리 뒤에서 윤성이가 따라들어왔다.

그 아버지 골격을 닮은 건장한 체격을 가진 윤성이는 스무살밖에 안되는 청년이건만 름름한 장부의 티가 보였다. 그러나 소작인의 혈통을 가진 그의 얼굴빛은 역시 빈약하였다. 대대로 물려나오는 오직 하나의 유산은 영양부족이라는것이기때문에 그의 후손인 윤성이도 이 유산을 물려가질수밖에 없었던것이다. 다만 그의 큼직한 눈이 불평을 가득 담고서 항상 빛나는 시선을 이리저리 쏘아보기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눈을 열기있는 눈이라, 새별같은 눈이라 칭찬하였으나 톳거리 허부자, 그들 지주량반만은 불량한 목자(눈알)라고 비난하였다.

2

윤성이가 퇴마루에 걸터앉으며

《간밤 비에 어디 상한데나 없었소?》

하고 물었으나 송서방은 아무 말대답이 없었다.

《어째에 상한데가 없어야? 앞개울물이 정재(부엌) 까지 들어왔더란다. 집안사람들이 누가 잠이나 잔줄 아냐? 해마당 당하는노릇인데 번-히 물들줄 알면서도 다른 집에 가서 퍼자고 오는것 봐. 언제나 철이 들는지 몰라.》

그 어머니는 부엌문앞에 서서 아들을 흘겨보며 손을 씻고있다.

《어쩔것이요? 이런데서 살면서야 의례히 그런 일을 당할줄 알어야지. 그러니께 어서 여기서 떠버리자고 안합디까?》

윤성이는 두손으로 턱을 고이고 내리는 비발을 바라다보고있다.

윤성이가 들어올 때부터 굵은 비방울이 떨어지다가 이제는 기운차게 쏟아진다.

송서방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윤성아, 너 지금 무엇이라고 했냐?》

하고 곰방대에 새로 담배를 담았다.

《나이 스물이면 한 집안을 거느릴 자식이 거 무슨 철없는 소리여? 아니, 누가 이런데서 살구싶어서 사는것인가? 여름이 돼서 장마철만 들면 그저 맘이 조마하고 밤에 잠을 맘놓고 못자면서도 열네해동안 해마다 집구석이 물에 잠겨서 왼갖 고생을 당하고 살기가 그리 좋아서 부득부득 여기서 살고있는줄 아냐? 앵! 철없는 자식.》

송서방은 담배불을 붙인다.

《글쎄말이요. 오죽해야 이런데서 해마다 그노릇을 당하고 살고 있겠소마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떠날 도리를 해봐야지. 이런데서 항상 살다가는 큰일이 한번 나고말것이고 그러니까 일찌거니…》

《옳지. 네 말대로 일찌거니 허부자네 집에 가서 떼장이나 써서 새집 하나 얻으란 말이지야? 렴치없는 자식.》

송서방은 윤성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을 내여 그의 말을 무찔러버렸다.

《이 집도 허부자네 집이던것을 해마다 벌어서 집값을 갚었더랍서라우. 그러니까 말이요. 이왕 그 집 논을 빌면서 또 집 하나쯤 높직한데 있는것을 얻어보란 말이지 누가 뺏어오라고 했소? 안 주면 떼장도 놓지 어쩌라우.》

윤성의 말소리는 거칠어졌다. 비는 죽죽 무서운 기세로 쏟아진다. 아이들도 아무 소리없이 비오는것만 바라보고있다.

《흥, 또 불한당소리가 나오는구나. 사람의 운수복력이 다 팔자에 타고난것인데 새파란 어린놈들이 손발 닳아지도록 벌어먹을 생각은 않고 그저 잘사는 사람 시기할줄만 안단 말이야. 자, 그 사람들이 땅을 안 주더냐, 집을 안 주더냐?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같은 작인은 굶어죽어야 옳게? 아니, 그런데 저번 한창 가을때 논이 갈라지니께 너희들이 허부자 집에 가서 소작료를 감해달라고 떠들어댔답서야? 그 대흥이, 유동이, 만성이, 이런 놈들하고 몰켜다니면서… 앵― 못된 놈같으니, 경찰서에나 잡혀가고 지주집에나 몰려가서 심술이나 부리고 하는 놈들하고 이놈 다시 또 붙어당겨만 봐라. 다리뼈를 분질러놀테다. …》

하고 송서방은 다시 담배대를 힘있게 빨면서 불을 댄다. 비도 숨을 돌리는듯이 비소리가 잠간 약해진다.

《천리란것은 어기지 못하는것이라. 그렇게 몹시 가물다가도 기우제 몇번에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물이 부니 모를 심어 곡식이 자라나, 무엇이 다― 사람살대로만 되여간단 말이여. 다만 근본 복을 사주팔자에 못 타고나서 죽게 일하고도 평생을 이리 가난하게 사는 이것이 한탄이지. 남들 잘사는것 보고 욕할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저 가난이 원쑤니라, 가난이 원쑤여. 이놈의 곳을 못 떠나는것도 가난하기때메 붙어사는것이 아니여?》

송서방은 꺼진 담배대에 다시 성냥을 그어댄다.

윤성의 입가에는 비웃음의 미소가 떠올랐다. 천리를 말하고 운수에 맡기면서 다시 가난이 원쑤라는것을 역설하는 그 아버지의 모순된 말소리에 하염없는 쓴 탄식이 나왔다.

(우리 아버지도 멀지 않아서 모순을 깨달을 때가 올것이다. 모르기때문에, 모르기때문에.)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아버지뿐이 아니라 농민의 전부가 다 저같은 생각에 굳이 잡혀있

는것이 아니냐?)

그는 기침을 콱 하며 한숨을 내쉬였다.

《아버지! 참말로 우리 여기서 살지 말고 다른데로 이사갑시다. 예? 나는 어저께 밤에도 무서워서 꼭 죽겠습니다.》

안해가 말참녜를 한다. 보리밥냄새가 물큰 끼치자 귀성이가

《어머니, 어서 밥 줘.》

하고 큰 방 새문에 붙어서고 검둥이도 고개를 개웃하고 부엌속을 들여다보고 서있다. 비가 다시 줄기차게 쏟아진다.

《아버지말씀대로 세상일이 다 사람살대로 되여가면 좋지마는 만일 이 비가 오늘 종일, 래일, 모레까지 쏟아져서 영산물이 넘고 우리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죽고 동네집들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어쩔것이요? 그래도 천리라고 앉아서 죽기를 바랄것이요?》

하는 윤성의 말소리는 몹시 뻿뻿하게 들렸다. 송서방은 화를 벌컥 내며

《이 버릇없는 자식같으니 뉘 말대답을 그렇게 하느냐? 꼭 네 말대로 그렇게 되여버렸으면 좋을것이지? 액, 이놈 썩 나가거라. 그런 자식은 없어도 좋다. 당장 나가!》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윤성이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그의 어머니는 밥상을 가져다 퇴마루에 놓으며

《아니, 나가더래도 밥이나 먹고 나가거라.》 하였으나 윤성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나가버리고말았다.

비는 더 억세게 쏟아져서 이 식구들이 곱살보리밥을 다 먹고났을 때는 앞개울물이 넘치여서 남실남실 마당에까지 들이밀었다. 송서방은 벌떡 일어났다.

《명철이! 명철이!》

요란스런 비소리를 뚫고 황급히 송서방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명철이! 어이! 명철이!》

여러 사람의 부르는 소리가 앞내 서쪽언덕에서 들려왔다. 송서방은 마주 소리쳤다.

《어이, 덕성인가? 이 우중에 어찌 나왔는가?》

《어서 나오소. 자네 식구들만 데리고 어서 높은데로 나와야지 큰일날것이네.》

덕성이의 웨치는 소리도 비소리에 꺾이여 토막토막 들렸다.
《내 걱정 말고 자네들이나 어서 가서 손볼데 손보고 그러소. 해마다 당하는노릇인데 설마 어쩔라든가?》
송서방은 어서 가라는 뜻으로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작년에도 자네가 고집부리고 끝내 안 나오고말었다고 본 사람들이 모두 욕하데, 그만 고집부리고 어서 나오라니께.
저봐—개울물도 넘어들지 않는가? 그런데 영산강물이 넘어들게 되면 어쩔라고 그러는가? 어서 지금 나오소, 어이.》
이번에는 윤삼이가 소리쳤다. 우장을 쓴 그들의 모양은 비발에 무척 안개속으로 보이는듯이 가물가물하였다.
한 지주의 전답을 함께 벌어먹고 산다는 야릇한 인연이 맺어준 우정과 오래동안 이웃동리에서 산다는 정리가 그들로 하여금 명철이를 위하여 힘껏 소리치고 열심으로 권고하게 하였으나 송서방은 끝끝내 그들만을 보내고말았다.
14년을 지내는 동안 그는 《죽음이란것은 쉽사리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못하는것》이라고 단정해버릴만 한 죽음에 대한 경험철학의 고질적신념을 가지게 된것과 또 그에게는 배 두척이 있어 비록 그 하나가 극히 작은 거루배(돛없는 작은 배)일망정 일곱식구의 생명쯤이야 언제든지 구원해줄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있기때문에 해마다 장마철이면 집이 물에 잠겨서 위험한 고비를 당할지라도 친구들의 권고도 물리쳐버리고 식구들을 배에 태워서 물 빠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갔던것이였다.
비는 잠시도 끊치지 않고 퍼붓기만 하였다. 금성산줄기로부터 멀리 라주 영산포의 넓은 평야를 둘러싸고있는 산들을 경계로 컴컴한 하늘은 물에 싸여 허덕이고있는 대지를 무겁게 누르고 비를 쏟고만 있었다. 하늘과 땅은 비줄기로 련하여졌고 내리는 비발마다에서 튀여나는 가는 물방울이 보얗게 물연기를 내고있다.
점점 험악해가는 검은 하늘은 더욱 악착스럽게 폭우를 내려쏟는다. 하늘도 내려앉을듯 하고 땅도 푹 꺼질듯 하게 오직 두려운 비소리만이 천지에 가득하였다.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가는 평시에 재주와 용기를 자랑하던 급행렬차들도 이 위대한 대자연의 무서운 기세와 위엄아래에서는 물우에 기여가는 작은 벌레에 지나지 못하였다.

종일을 한결같은 위세로 쏟아지던 비는 기어코 이 땅 각처에 있는 크고작은 강물을 불게 하고 개천을 넘치게 하고 수리조합의 제방을 헐고 방축과 원뚝을 터쳐버리고말았다.

강연안과 낮은 지대에 있는 동리는 물에 잠기고 지붕까지 잠긴 집은 동우리가 떠내려가고 헐어지고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물을 피하여 올라가며 목을 놓고 울었다.

장성, 릉주, 남평, 화순, 옥파, 라주, 곡성, 순창, 담양, 창평, 송정리, 광주들의 열두골 물이 한데로 합하여 내려가는 길이 되여있는 영산강의 물은 시시각각으로 불어만 간다. 각처에서 들이밀리는 물이 영산강으로 몰려들어가서 영산강물은 불안전한 연안을 쿵쿵 헐어가며 철철 넘어흘렀다. 논을 삼키고 들을 삼키고 집을 삼키며 내려가다가 영산포물길의 길어구인 개산의 구비에 닥치여 많고많은 물이 좁은 어구로 빠져나갈수 없으니 용감한 기세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던 영산강물의 결합진군은 갑자기 뒤로뒤로 퇴군할수밖에 없었다. 무서운 힘의 기세로 몰려갔던 붉고누런 물결이 다시 맹렬히 돌아서며 내려오는 물의 세력과 물러나는 반동적의 수력이 한데 합하여 두렵게 큰 위력을 가지고 불행한 운명에서 떨고있는 영산포 시가를 휩싸버렸다. 내려갈 때 겨우 물결의 험한 손길을 면하였던 조금 높은 곳에 있는 전답과 인가들도 퇴군한 수군의 최후발악적습격에는 드디여 전멸하고말았다. 언덕이 무너지며 집들도 함께 헐어지고 떠내려가지 못하는 집들은 팍팍 찌그러졌다.

개산, 시령산이며 운곡리 뒤산 등 높은 곳에는 애기들을 업고 안고 울며 부르짖는 사람들의 흰옷 그림자가 사나웁게 쏟아지는 비발속에서 처참한 광경을 곳곳이 나타내고있었다.

라주정거장은 물에 잠기고 기차선로는 끊어져 문명의 빛난무기도 누르고 붉은 물결만은 이겨낼수가 없었다.

삼도리, 길목구, 옥정, 신기촌, 광물, 덕치, 강경골, 가마레, 영산리, 운곡리, 새울, 통게리, 도총, 돌고개, 원촌이며 금천면 신가리 등의 리재민들은 전부가 다 농민인중에 가난한 상인들도 끼여있었다.

왕곡면 옥곡리와 다시면 죽산리는 아주 전멸하여버리고말았다. 물에 잠긴 영산포시가를 경계하느라고 경종은 밤새도록 울고울었으

나 그릇 몇개와 옷보통이 하나씩을 들고 어린애들을 업고 안고서 높은 곳에서 물결에 삼켜진 집터들을 내려다보며 비에 푹 젖은 옷을 입고 울고 떨고 섰는 리재민들과 한집속에 칠팔가족의 식구들이 웅게중게 모여 비맞은 병아리들처럼 우들우들 떨며 있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구원도 되지 못하는 차디찬 시끄러운 고동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영산교 높은 다리밑에는 탁랑이 석자의 거리를 남기고 흉령한 손길을 넘실거리고있으며 시가중에 있는 2층 지붕에는 발동선이 닿아있었다. 34년전 신축년 대홍수이래로 처음 당하는 그때보다 석자가 모자라는 대홍수였다.

보통장마때에도 홍수의 재난을 겪지 않으면 아니되는 우리 주인공 송서방은 이 적파속에서 어찌되였는가?

3

악수로 퍼붓는 비속에서 영산리의 밤은 깊어갔다. 송서방내외는 집안에 들어온 물을 빼낸다, 개울둑을 쳐올린다 하느라고 종일 비를 맞으며 돌아다니기때문에 밤이 되여 몸이 노곤해지며 졸음이 푹푹 왔다. 전에 해본 경험대로 대낀 보리를 있는대로 다 털어서 밥을 한솥 가득히 짓고 된장과 무짠지를 곁들려서 큰 바구니에 담아놓고 물 한병을 담았다. 그리고 식구대로의 의복을 풀도 못한채로 보퉁이에 싸고 그릇 몇개를 넣어 묶어서 배속에다 넣어두었다.

이제 물이 집에 가득히 들어 기둥에 매여둔 배 두척이 둥둥 뜨면 식구들은 그 배속에 들어가 물이 빠질 동안 그 밥과 물을 먹으면서 기다릴 심산이였다.

만단의 예비를 해두고서 물들어오는것을 지킬양으로 아이들은 재우고 두 내외는 쭈그리고 앉아서 비소리를 들어가며 밤을 새우려 하였으나 스르르 감겨지는 두눈이 마당에 고인 물빛이 희미하게 보이는듯 마는듯 하다가 그들은 앉은채 쓰러져 잠간 잠이 들었다.

별안간 와작하는 소리에 잠이 깨자 저승에서 들리는듯이 처참하게 들려오는 고동소리가 들렸다. 영산강물이 넘었다는 신호였다.

뒤미처 송서방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명철이! 명철이!》
송서방은 화닥닥 뛰여일어나 대답하였다.
《영산강물이 넘었다네. 큰일났네. 어서 식구들을 데리고 나오소.》
덕성이와 윤삼이는 새벽빛에 희물그레한 속으로 두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어서 자네들이나 피하소. 사람의 생사화복이 천리대로 되는것이니까 내가 여기서 피해나간다고 죽을 놈이 안 죽는단가? 목숨만 길면 물속에서도 살아나는것일세, 념려말고 어서들 가소.》
송서방의 말소리는 극히 침착하였다.
《에이, 돌뎅이같은 사람! 어린것들이 불쌍하지도 않은가? 그래 안 나올텐가?》
그들은 성이 나서 부르짖었다. 강물이 넘었다는 고동소리를 듣고 여러 동리에서는 물을 피하려는 준비에 급급하여 여기저기서 마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에끼, 못된 자식! 죽거나 말거나 하소. 우리는 가네. 원, 사람도 웬간해야지.》
성미급한 덕성이는 악을 버럭 쓰고 홱 돌아서서 윤삼이를 데리고 가버렸다.
두 내외는 아이들을 깨우고나서 보리가마니를 날라다가 방안에다 쌓았다. 보리양식도 겉보리까지 다섯가마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송서방은 큰 동아줄을 가지고와서 기둥을 붙들어매고 남은 한가닥은 집뒤에 서있는 포플라나무에 매였다. 그러고 죽 둘러서있는 포플라나무마다 올라가서 굵은 줄을 매여 늘여놓고 장대를 한개씩 걸쳐놓고 내려왔다. 앞뒤로 즐펀하게 있는 논밭을 삼키고 밀려오는 누런 물결은 넘실넘실 배암의 혀끝처럼 남실거리며 차례차례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렴치없이 마당으로 달려들었다. 이리저리 바쁘게 왔다갔다 하는 송서방의 걷어올린 무릎을 넘어 황토물은 넙적다리까지 올라왔다. 물결은 사정없이 닥쳐들었다. 퇴마루로, 방으로… 아이들은 방속 찰랑거리는 물속에서 발을 구르며 울고 송서방 마누라는 어린애를 안고 갈팡질팡하였다.
송서방은 물에 잠긴 마당에 들어서서 아이들을 배에 태우려고 저쪽으로 밀려가는 큰 배줄을 잡아당기려고 할 때 잠간사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였다. 붉은 물결이 영산강하류쪽에서 왈칵 달려들어 굳게 잡아매놓은줄 알았던 큰 배가 물결에 휩싸여 떠밀렸다.

송서방의 식구들은 비명을 질렀다. 급한 물결에 떠밀린 큰 배는 물가운데 밥바구니와 물병을 담은채 한번 빙 돌아가 하류쪽으로 떠밀려간다. 송서방은 그 배를 잡으러 갈듯이 허우적거리며 쫓아가려 하였다.

《아이고, 아기들을 어찌하고 배 잡으러 갈라고 그리오? 윤성이는 어디 가서 안 오는고?》

마누라는 겁결에 당목찢어지는듯 한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을 불렀다. 송서방의 큰 보배요 유일이 되는 그 큰 배가 떠내려가고말아 송서방의 믿음과 희망은 아까웁게 깨여지고말았다. 그의 몸을 지탱하고있는 뼈가 뚝 부러지는것 같으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에는 맥이 없어지는듯 하였다. 큰 배는 쫓아가면 잡힐듯 하였다. 송서방의 마음은 갑자기 황황하여졌다. 침착하고 진중하던 송서방의 온갖 정신은 큰 배를 따라가고있었다. 두번째 부르는 마누라의 소리를 듣고서야 송서방은

《저기 떠내려가는 배는 우리 배요.》

하고 누구에겐지 모르게 향하여 소리쳤다.

윤성이가 가슴에 닿는 물결을 헤치고 달려왔다. 송서방이 작은 배에 두살잡이와 쌀례와 귀성이와 꽃례에게 옷보통이를 들려서 꽃례까지 타게 하는 동안 윤성이는 어머니를 포플라나무에 올라가게 하여 줄로 몸뚱이를 묶어놓고 다시 내려와서 아버지와 함께 물결과 싸우면서 작은 배를 끌어다가 큰 포플라나무에 매여놓았다.

《애기는 나 줘! 윤성아, 애기는 이리 데려오나!》

하고 그의 어머니는 소리쳤다. 애기도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는 두팔을 벌리고 포플라나무우를 쳐다보며 징징거렸다.

물은 이미 포플라나무에도 얼마큼이나 올라왔다.

윤성이는 나님이를 안아다가 겨우 어머니에게로 올려보냈다.

어머니는 약한 줄에 몸을 맡겨 몸뚱이를 아래로 기울이고 두팔을 벌려 애기를 안아다가 애기는 가운데 두고 다시 두팔로 포플라나무를 안았다.

이 모든 비참한 광경을 모르는체 하고 비는 그대로 쏟아지고 물은 넘실넘실 급하게 불어 윤성이 집도 절반 넘게 잠기고 영산포 시내와 이웃동리에서 피난하는 사람들의 부르짖고 헤매는 그림자가 황황하게

덤비는 가운데 망망한 들에는 누른 물결보다도 붉은 물결이 도도하여 점점 나지막한 하늘에 접근하고있는듯 하였다.
송서방과 윤성이도 포플라나무에 각각 올라갔다. 작은 배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세 형제는 세차게 내리는 비속에서도 그들의 부모와 오빠가 올라앉은 포플라나무를 번갈아 쳐다보며 가만히 억센 비를 맞고있었다.
《쳐다보지들 말고 가만히 엎디여있거라. 가마니를 꽉 쓰고 꼼짝들 말어, 응.》
그들의 어머니는 가끔 소리쳤으나 나님이의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세 아이는 거적을 벗고 어머니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가난한 농촌에 가뭄이라는 불을 질러 사람의 마음과 풀잎들을 태우던 하늘은 이제 다시 홍수로써 사람과 집과 곡식과 가축까지를 깨끗이 씻어버려주고말았다.
이러한 비극을 연출시키고 그침없이 쏟아지는 비속에서 이날도 저물었다. 어둑컴컴한 비속으로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과 뻔뻔스럽게 넘실거리는 흐린 물결은 서로 닿을듯닿을듯 하였다.
영산강 상류에서는 집이 몇채인지 모르게 많이 떠내려오고 마주보이는 거대한 건물인 정미공장도 물결이 쓸어가버렸다. 오래된 집들은 대개 물속으로 슬그머니 가라앉았다. 윤성의 지붕에는 닭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떨고있었다. 송서방은 배속에 웅크리고 떨고있는 자녀들과 지붕에 모여있는 닭들을 내려다보고 한숨을 쉬며 두 동무의 후정을 거절한것을 절절히 후회하였다. 끽끽하는 짐승의 비명이 들리며 검은 몸뚱이가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간다.
《아이고, 아까운 내 돼지! 아이고, 아깝고 불쌍해라. 새끼조차 밴 것을 갖다가…》
하고 마누라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귀성이의 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어머니, 우리 검둥이 어디로 갔소?》
과연 그들은 검둥이의 간곳을 모른다. 모두가 잠잠한것을 보고
《나는 몰라야, 검둥이가 죽었으면 나는 몰라.》 하고 귀성이가 울음을 내놓고 꽃례는 식구처럼 생각하던 닭들이 죽을것을 생각하고 쌀례는 못 먹은 참외, 수박 생각을 하며 덩달아 울면서 같이 검둥이를 조상하였다.

송서방의 집은 지붕의 닭들을 인채로 어둠속으로 흘러갔다. 지붕에서 아물거리는 닭들의 흰 그림자가 아니 보일 때 송서방은 이때까지 참았던 울음을 목놓아울었다. 마누라도 소리를 내여 울고 아이들도 울었다. 어디에선지 남녀의 부르짖는 소리, 웨치는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리고 가끔 울리는 싸이렌조차 목이 쉰듯 들렸다.

밤중에는 서로서로 잠자지 말라고 소리를 주고받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폭풍우는 점점 더 세여갔다. 일어나는줄 모르게 일어난 바람이언만 괴롭고 두려운 지루한 이밤이 겨우 지나고 새벽녘이 되였을 때는 붉은 물결이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처럼 펄쩍 뛰여 솟으며 꿈틀거렸다. 물결은 점점 더 크게 솟아올랐다. 망망한 라주바닥에는 붉은 파도가 흉흉하였다. 물결이 뛸 때마다 작은 배속에 있는 세 남매는 악을 쓰고 서로 붙들고 울었다.

송서방의 마누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듯이 아팠다. 이틀동안이나 완전히 굶은 연약한 몸에는 젖을 있는대로 다 빨아먹어버린 어린애가 붙어있었다. 그러나 나님이는 엄마보다도 더 배가 고프다고 울었다. 가슴속에 박혀서 젖꼭지만 입에 물고 젖이 나지 않는다고 킹킹거리다가 힘대로 쭉쭉 빨 때는 전신의 피가 그리로 몰키는듯이 젖꼭지가 몹시도 아팠다.

그뿐이랴. 가끔 구렝이가 척척 나무가지에 걸치고 그의 어깨에 걸쳐 올라올 때마다 그는 자지러지는듯 한 비명을 질렀다. 구렝이에게 한번씩 놀랄 때마다 전신에서는 식은땀이 죽—흘렀다.

그는 나무가지에 걸쳐있는 막대기를 겨우 한손으로 잡아서 척척 엉키는 구렝이를 떼여버려도 구렝이는 얼마든지 흘러가는 물결에서 감겨들었다. 고로와 굶주림으로 기운이 빠진 송서방과 윤성이도 뱀의 수난으로 몇배나 더 몸이 지쳐짐을 느꼈다.

바람의 기세가 더욱 험악해가는것에 눌렸음인지 비는 훨씬 줄기가 가늘어지고 이따금 폭풍에 휩쓸려 굵은 비방울이 흩뿌렸다.

송서방과 윤성이가 올라앉은 포플라나무가지가 뚝뚝 분질러졌다. 작은 배는 물결대로 올랐다가 내려앉을 때마다 아이들은 기절하는듯 한 소리를 질렀다. 그중에도 쌀례와 귀성이는 배가 고프다고 어머니를 쳐다보며 울었다.

몇번이나 구제하러 오는듯 한 배가 보이기는 하였으나 미친 물결이

방향없이 날뛰는 이 근처에까지는 도저히 가까이 올수가 없었던지 기어코 오지 못하고말았다.

작은 배가 위험에 처한것을 알아차린 윤성이는 자기를 묶었던 줄을 다시한번 굳게 동이고 나무에서 뛰여내렸다. 윤성이가 뛰여내리는것을 멀리서 바라보던 그의 동무들은 아우성을 치며 배를 탁랑에 띄여 다섯 사람이 올라타고 이리로 오려고 갖은 애를 쓰는 모양이였다. 윤성이는 포플라나무와 나무의 사이를 익숙한 헤염질로 더듬어 작은 배의 줄을 잡았다. 동아줄의 길이대로 떠밀려있는 배는 다행히 그옆 포플라나무 근방에서 빙빙 돌면서 뛰고있었기때문에 한팔로 물속에 들어있는 포플라의 몸을 안고 한손으로 필사적인 힘을 내여 줄을 당겼다. 몇번인지 모르게 윤성의 몸은 떠밀릴번 하면서도

《얘들아! 나무밑으로만 배가 가서 닿거든 누구든지 늘어진 줄만 잡고 뛰여올라라.》

하고 웨치는 소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송서방이 나무마다 늘여놓은 줄끝은 물에 잠겼다가도 바람에 따라 고기 뛰듯이 펄쩍 뛰며 날렸다.

귀성이가 먼저 줄을 뛰여잡았다.

《얘, 장하다!》

하고 송서방내외와 윤성이는 감격한 소리로 귀성이를 칭찬하였다.

여덟살되는 어린것이건만 극히 령리한 귀성이는 장난할 때부터 나무에 오르기를 다람쥐처럼 하였기때문에 대롱대롱 매여달리며 애를 써서 줄을 타고 어렵지 않게 올라가 포플라나무를 안았다.

《아이고, 꽃례도 줄을 잡았구나.》

환희에 찬 어머니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며 꽃례도 줄을 붙들고 최후의 용기와 힘을 내여 줄을 타고 올라갔다.

그 순간!

《아이고, 저것!》

《아이고, 어매!》

하는 부르짖음과 함께 쌀례 혼자 남은 작은 배가 팔딱 뒤집히며 쌀례는 뛰는 물결에 휩쓸리고말았다.

《아이고, 어쩌나! 쌀례야! 아이고, 쌀례 떠내려가네. 사람 살리소.》

그 어머니는 쉬지 않고 울며 소리쳤다.

윤성이는 쌀례의 가는 방향대로 헤염쳐나가려 하였으나 허리를 불들어맨 굵은 줄은 우애와 의협심으로 가득찬 윤성의 몸을 놓아주지 않았다. 떠내려가는 쌀례는 두손을 저으며 허우적거렸다. 작고 붉은 손이 보일 때마다 송서방내외는 악을 쓰며 울었다.

《사람 떠내려가네!》

하고 웨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다. 벌써 쌀례는 가물가물 작은 손을 보이며 멀찍이 떠내려갔다.

《어짜고! 쌀례야! 우리 쌀례를 건져주세요! 아이고, 얘 쌀례야! 아이고, 쌀례야!》

그 어머니는 나무우에서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소리를 치며 울었다. 귀성이도 목을 놓고 울고 송서방도 눈동자가 꺼꾸로 놓인듯 해가지고 숨을 씩씩거리며 몸을 떨고있었다.

윤성이는 하는수없이 나무에 뛰여올라 쌀례의 떠내려가는것을 바라보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이를 악물고 주린 사람처럼 끙끙 앓는 소리를 내다가 다시 주먹으로 포플라나무를 힘껏 두드리며 무겁고 뜨거운 깊은 한숨을 불기운같이 내뿜었다.

사람 떠내려간다는 소문에 사람들은 와글와글 들끓는듯 한 소리를 내며 영산교우로 떼지어 몰려갔다.

읍내 젊은이들로 무어진 구호반과 각 신문지국의 구호대들은 갈팡질팡하고 뛰여다녔다. 사람들은 영산교우에서 줄을 자꾸 던졌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들이 목숨을 살리려는 생명의 줄이라 한들 맑은 정신은 이미 없어지고 오직 탁랑에 휩쓸려 떠내려오는 어린 쌀례의 눈에 어찌 물결에 밀리우는 가느다란 줄이 보일리가 있으랴. 쌀례를 몰고오던 험한 물결은 뭇사람들의 안타까운 웨침을 모른체 하고 다리아래로 슬쩍 지나쳐버렸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읍내에서 물구경왔던 부인들중에는 물에 희생된 작은 제물의 흘러가는 뒤를 향하여 손에 들었던 우산을 던지며 소리쳐 우는이도 있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윤성의 동무들의 젊은 가슴은 훨훨 달아올랐다. 다섯사람은 사납게 펄펄 솟아오르는 붉은 물결을 눈흘기며 노를 저어 윤성에게로 향하였다. 노를 젓는 네 팔뚝에는 의분의 힘이 올라 우들우들 떨렸다. 그러나 거의 가까이 그곳에 닿으려 하였을 때 굽이쳐내

리는 물결에 노는 뚝꺽 분질러졌다.

노를 잃어버린 배는 금시에 전복되려 하였다. 그중의 두사람은 물결을 거슬러 포플라나무에 올랐다. 물결에 떠밀려 위험에 빠진 배는 가까이 떠온 배에서 던지는 줄을 잡고 겨우 안전지대에 들어갔다.

4

35년만에 처음인 큰 홍수를 빚어낸 무서운 비는 내리기 시작한지 닷새만에야 겨우 완전히 그쳤다. 폭풍도 쌀례를 죽이는 소동을 일으키고 와서는 잠이 든지 하루가 지난 7월 22일! 송서방의 일곱식구가 포플라나무에 목숨을 맡기고 5주야를 경과한 사흘째 되는 날에야 그들은 윤성의 동무들의 구원을 받아 배를 타고 관중으로 들어왔다.

사흘이나 굶고 그우에 몸을 두팔에만 맡겨 나무에 매여달렸던 그들은 ××일보 지국장의 안내로 ×려관방안에 들어오자 아이들은 픽픽 쓰러졌다. 송서방은 정신빠진 사람처럼 멀거니 있었고 그의 마누라는 펄썩 주저앉으며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면서 울기 시작하였다.

《아이고, 쌀례야! 너만 없구나. 어데 가고 없냐! 아이고, 쌀례야! 어린것이 무슨 죄로 물에 빠져죽다니, 응? 이것이 무슨 일이여!》

그는 소리를 버럭 지르며 방바닥을 두드렸다. 기운이 지쳐서 울음소리에 섞인 말소리조차 분명치 못하였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고나! 누구 죄로 어린 네가 그리도 몹시, 그렇게도 불쌍하게 죽었단 말이냐! 아이고, 원통하네! 참외수박 노래를 그렇게도 불러싸더니… 아이고, 쌀례야! 쌀례야!》

그는 몸부림을 탕탕 치며 쌀례를 부르면서 방바닥을 득득 할켰다.

《우리 쌀례는 지금 어디로 떠댕기는고? 만경창파 바다중에 어디로 떠댕기며 애비에미 원망을 하고있으고나! 아이고!》

그의 울음소리는 목구멍속에서 콱콱 막혔다. 려관안팎으로 모여섰던 사람들중에서는 흑흑 느끼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송서방은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 윤성이는 어머니를 붙들고 위로하였다.

《아이고, 몹쓸 일도 있다. 어린것이 무슨 죄로 고기밥이 된단 말이냐! 아이고, 쌀례야! 내 쌀례야! 웨 쌀례 죽였소? 왜 당신은 어린 자식을 죽였소?》

그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며 송서방에게로 달려들었다.

《해마다 해마다 그렇게 당하면서도 뭣이 못미더워서 그렇게들 두번이나 와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고 뭉게드니마는 기어코 자식을 죽일랴고 그랬지라우? 아따 아따, 하늘은 야속하네. 하느님도 무정하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으며 몸부림을 쳤다. 꽃례와 윤성이는 앞뒤로 어머니를 붙들고 달래였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귀성이와 꽃례, 나님이까지도 소리를 내여 울고 송서방은 갑자기 《우후후》 하는 소리를 내며 창자에서 우러나는듯 한 울음을 울었다.

《자식 잃고 집 잃고 곡식 잃고 아이고,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살아갈거나.》

송서방의 말소리는 무겁게 울려나왔다. 점심상이 들어왔으나 꽃례와 귀성이까지도 밥 한그릇 다 먹지 못하였다.

송서방과 윤성이는 신문기자들의 묻는대로 겨우 대답을 하고있고 아이들은 젖은 옷을 짜고있었다.

송서방의 마누라가 지친듯이 한쪽에 가 누워있는 곁에 어린애는 젖꼭지를 물고있었다.

×

하루밤을 자고 이틀째의 새벽에 어린것들을 데리고 려관에서 나온 송서방은 갈곳이 없었다. 어디로 가나? 집터는 물에 잠긴채 흔적도 아니 보이고 몸에는 비에 젖었던 헌옷뿐이니 어린 자식들을 거느리고 장차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것이냐?

송서방의 눈에서는 눈물방울이 뚝뚝 흘러내렸다. 길모퉁이를 돌아설 때 윤성의 동무들이 몰려오다가 마주쳤다. 그들은 여섯식구를 데리고 대흥이네 집으로 갔다. 평시에 송서방내외가 그다지도 미워하던 유동이, 만성이, 대흥이건만 그들의 친절함은 말할수가 없었다.

대흥의 부모는 그들에게 방 한간을 주고 물이 빠질 때까지 있으라 하였다. 쌀과 나무와 반찬 등은 윤성의 동무들이 번갈아가며 가지고 왔다. 며칠을 지내는 동안 송서방내외는 대흥이와 그 부모에게 점점 마음깊은 은정을 느끼게 되였다. 대흥의 부친은 김선생이라고 부르는 전에 선생까지 지낸 사람이였으므로 송서방은 그를 딴 세계의 사람으

로 대하여왔었다. 김선생은 대흥이와 같은 불량한 사람으로 윤성이까지 버려주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삼사일을 지내는 동안 이 집에 모이는 윤성이 동무들이나 이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허부자와는 정반대로 정답고 착하여서 송서방 자기네와 같은 가난한 농민들을 위하여서는 목숨이나 재산이라도 바치는 과연 믿을수 있는 고마운 사람들이라는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였다.

×

또 사흘이 지났다. 라주 영산포의 각동리를 망해준 누런 물결은 볼일 다 보았다는듯이 완전히 빠지고 조롱하는듯이 해빛이 따겁게 비치여 젖은 땅들은 말라가기까지 하였다. 피난갔던 윤삼이와 덕성이가 김선생집으로 찾아왔을 때 송서방은 그들을 붙들고 통곡하였다. 송서방의 식구는 영산리 그들의 집터에 왔다. 활짝 씻겨버린 붉은 땅에는 다만 뜨물동이와 물항아리와 장독, 그릇 몇개가 진흙투성이가 되여 놓여있을뿐이였다.

송서방은 뿌리까지 녹아버린 논가로 빙빙 돌아다니며 한숨만 쉬였다. 윤성이는 아버지곁으로 가까이 왔다.

《아버지!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한것이 우리뿐만이 아닌줄은 아시지라우? 아까 오면서 보시지 않았소? 팍팍 짜그러진 집들, 헐어진 집들이 얼마나 많습데까? 그 사람들의 논도 다 이 모양이 되였을것이요, 그러니 말이요, 아무리 천리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마는 요렇게까지 가련하게 된 사람들은 다 우리같은 가난한 사람들뿐이 아니요. 저번날 김선생 말씀같이 울고만 있을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도리를 깊이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소?》

윤성의 말소리는 부드러우면서 힘이 있었다. 송서방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오냐, 알어들었다. 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은 김선생의 말이나 너의 동무들의 말이 다 옳고 우리한테 리익되는 말인줄 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라면 어떤 말이든지 듣고 그대로 할랴고 작정했다. 참말로 울고만 있어서 쓸것이냐? 손가락을 깨물고라도 살어갈 도리를 차려야지…》

하고 다시 논들을 죽 둘러보며 한숨을 쉬였다.

저편 참외밭에는 그의 마누라와 세 남매가 모여앉아서 아직까지 울고있었다.

《윤성아― 가서 그만들 울고 정신 차리라고 해라, 응? 어서.》

《예! 그런데 오늘 밤 시령산에서 홍수에 해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의론들을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도 가시지요?》

윤성이가 아버지를 쳐다보며 물었다. 송서방은 무거운 발길을 돌리며

《암―은 가고말고. 다 우리 일인데… 윤삼이랑 덕성이도 같이 갈것이다.》

하고 논두렁길로 앞서서 걸어갔다.

모든 일을 천리와 팔자로만 알아버리던 명철이는 홍수로 인하여 딸과 집과 가축과 곡식들을 잃어버린 대신 그보다도 더 크고 귀중하고 위대한 무엇을 찾게 되였다. 그의 뒤를 따라가는 윤성의 입가에는 기쁨의 미소가 돌고 눈에는 아버지를 동무로 얻었다는 승리와 자랑의 빛이 가득하였다.

오정을 알리는 싸이렌소리가 청명한 하늘에 기운차게 울렸다.

《신가정》9호 1934. 8. 8.

신 혼 려 행

박 화 성

신 부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도 예쁘니?》

신부의 뒤에서 부채질을 해주고 섰던 둘러리의 한 처녀가 체경속으로 보이는 신부의 너울쓴 얼굴을 보고 부르짖었다.

미용사는 앞뒤로 돌아가며 너울을 매만져주고나서 신부의 전면에 고개를 갸웃하고 서있다.

다른 처녀들도 몰려왔다. 그들은 잠간동안 신부의 아름다움에 취하

여 아무 말이 없었다. 미용사가 깜짝 생각난듯이 책상우에 놓여있는 꽃묶음중에서 제일 큰 다발을 가져왔다. 그 꽃은 전부가 생화로서 희고 붉은 장미꽃이였다.

미용사는 꽃묶음을 신부에게 들려주고 두어걸음 물러서서 보다가 다시 다가서며 리봉과 아스파라가스(다년생풀의 한가지)의 늘어진 가닥을 보기 좋게 이쪽저쪽으로 갈라논 후에

《정말 화려하시고 기묘하십니다.》

하고 칭찬하면서 신부를 바라보았다.

《이 애, 복주야! 너는 평소에도 미인이지만 오늘은 정말 그야말로 아름답구나. 너 미스터 김에게 좀 보이고싶지 않니?》

하고 둘러리 셋중에서 키큰 처녀가 말하였다.

《그 앤 몇분후에는 실컷 볼텐데 무슨 걱정이야.》

하고 부채질하던 처녀가 말을 받고나서

《얘, 너나 좀더 꾸며라. 네 애인이 신랑 둘러리 아니냐? 오늘은 두쌍의 신랑신부가 결혼식을 하는 날이니까.》

하고 눈을 껌벅하며 생긋 웃었다.

《흥, 보기는 어떻게 보아? 신랑도 좀 빼야지. 제가 빼느라구 어느새에 신부를 볼수가 있어야지.》

하고 셋째 처녀가 경대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말하였다.

두 처녀도 각각 경대앞에 가서 얼굴과 몸맵시를 다듬느라고 방안은 조용하였다. 미용사가 뒤치닥거리를 하면서 가끔 신부를 바라본다.

복주는 체경속에 비치는 자기의 얼굴과 자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푸르고 작은 물망초의 꽃과 잎새로 엮어진 하얀 너울이 물결친 검은 머리를 나지막이 덮고 내려와 복주의 몸에 카텐처럼 늘어져가지고 길게 방바닥에 끄을려있다.

그의 얼굴은 극히 얇은 구름속에 든 만월처럼 륜곽이 선명하면서도 함박꽃처럼 탐스럽고 밝게 피여올랐다. 얇고 하얀 비단옷이 하르르하게 왼몸을 감아서 어깨와 허리의 곡선미가 곱고도 매끈하게 나타났는데 손에 든 꽃다발의 생생한 빛이 복주의 화려한 얼굴에 달빛처럼 반사하여 그 미묘함을 이루 형용할수가 없었다.

복주는 자기의 아름다움과 꽃에서 풍기는 장미꽃의 그윽한 향기에

취하여 졸리는듯 한 안타까운 흥분을 느꼈다.
《아아, 이 고움, 이 맵시를 준호씨가 실컨 봐준다면… 그래두 오늘은 보지 못할것이라니 요렇듯 예쁜들 무엇하리.》
복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체경속에서 달과 꽃처럼 빛나는 자기의 몸을 원망스럽게 바라보고있을 때 안방으로 통한 대청의 사이문이 열리며 복주의 어머니가 들어오다가 그의 딸을 보자 걸음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다.
한참후에야 어머니의 헤 벌렸던 입이
《얘, 참 신혼려행준비를 할텐데 네 잠옷하구 누비이불하구 또 무엇, 무엇이냐? 말갛게 담어놔야지…》
하면서 딸에게로 가까이 왔다.
《장복장 서랍에 그이 자리옷 해논것도 있지 않어요!》
하면서 복주는 부끄러워 몸을 틀었다.
《얘, 참 려행은 어디루 가니?》
키큰 처녀가 소리치며 물었다.
《아직두 몰라, 얘. 가르켜줘야 말이지.》
《아니, 그럼 너 소처럼 코꿰여 끌려갈테냐? 래일 갈결 아직두 모른단게…》
키큰 처녀는 다시 말하면서 벌떡 일어났다.
자동차소리가 연해 나면서 밖에서 아버지의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와 복주를 결혼식장으로 불러들이던 결혼행진곡은 복주가 준호의 팔을 끼고 퇴장할 때는 더욱 류창하고 기운차게 울렸다. 이 두사람을 부부되게 하였다는것을 자랑하는듯이…
두사람의 몸에는 좌우에서 던지는 테프가 꽃연기처럼 엉키였다가 끊어지고 다시 새로 엉키여 그들이 식장문밖에 나왔을 때는 새로운 삶을 맹세한 남녀의 몸이 오색실마리에 칭칭 감기여 새로 켜진 전등불에 무지개처럼 찬란한 빛을 내고있었다.
량편에 활짝 열어놓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석양의 시원한 바람이 흥분과 감격에 달아가는 뜨거운 두 얼굴을 식히고 지나갔다.
성대 의과 4년생들과 R보육학교 졸업반 녀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신랑신부를 둘러싸고 축복의 인사를 하였다.

복주는 이중에서도 례복을 입은 준호의 풍채를 보고저 가만히 눈을 들어 긴장하고 쾌활한 낯빛으로 일일이 동무들에게 인사하는 애인의 얼굴을 탐나는듯이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가슴이 뻐근하게 차오르는 만족을 느꼈다. 래일이면 그처럼 잠시도 그의 곁에서 떨어지기 싫어하던 자기가 그와 단 둘이서만 20일간 려행할수 있지 않느냐? 방학이 되자 곧 결혼을 했든들 두 달동안을 즐길수 있었을것을…

복주의 손은 동급생들의 손에 잡혀있으면서도 마음은 래일 당할 신혼려행을 꿈꾸고있느라고 누구의 손인지를 알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반겨만 할뿐이였다.

사진을 박고나서 피로연회석으로 내려갈 때야 준호와 복주는 마주 보았다. 준호는 복주의 고움을 보고 황홀한듯이 빛난 시선을 던지며 미소를 보냈다. 복주의 마음은 흐뭇하였다.

이제는 너울과 몸에 감기는 비단옷을 벗어버린대도 아깝지 않을듯하였다.

《래일 아침에 차시간이나 놓치면 어떡하라구.》

하고 좌종(앉혀놓게 만든 시계)을 들어다가 장침(큰 바늘)을 돌린다.

《원, 그 녀학생들이 어쩌면 그리도 주섭스럽담. 내 참 처음 봤어. 벌써 11시가 됐으니…》

《아이, 그 남학생들은 어떻구요? 마구 내 손길을 끌어다가 당신 어깨우에…》

복주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남자들이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녀학생들은 좀 너무 과하던데…》

하고 준호는 코를 실룩거리며 빙긋이 웃었다.

《그것 그만두구 글쎄 래일 어딜 가요?》

복주의 말소리는 응석을 띄였다.

《짐작해보시래두 그러우?》

《해금강?》

《흥, 그까짓데를 가서 무얼 보게.》

《그럼 안동현?》

《더군다나 그런데는 무얼하러 간담.》
《아이, 그럼 어디예요? 가르켜주세요.》
복주는 몸을 비꼬면서 준호를 졸랐다.
《자, 래일까지만 참우. 오늘은 그만 잡시다.》
준호는 복주의 손을 잡아끌었다.
복주는 향내를 풍기며 자신에게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구어주는 꽃다발을 빼앗긴대도 울지도 않을상싶었다. 그만큼 그는 준호를 사모하고 사랑하였기때문에…

×

조금전에 연회에서 돌아온 그들은 자리옷을 바꾸어입었다. 잠간 준호는 머리를 돌려 복주의 자리옷 입고 앉아있는 모양을 훑어보았다.
11시를 치는 시계소리가 대청마루에서 들려왔다. 복주는 책상우에 있는 푸른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이, 이 시계 10분이나 늦어요.》
자리에 앉아있을 때 복주가 피곤한듯이 자리에 비켜 누웠는 준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래일 우리 갈데가 어디예요?》
《어딜듯싶우?》

출 발

3등기다림칸에서 차시간을 기다리고 앉았던 복주와 전송나온 복주의 부모, 친척들은 준호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였다.
준호로 말하면 전남갑부의 아들이요, 복주를 볼지라도 경성에서 령유수한 실업가의 딸로 두사람의 신혼려행쯤은 2등은 고사하고 1등객실이라도 리용하여야 할 자격을 가졌건만 부득부득 준호가 3등차표만을 사겠다는데에 대단히 마땅치 않아하였다.
그뿐이랴, 신혼려행에 대한 준비나 차비 등은 절대로 준호가 자담하겠노라고 처가집에서 참견치 못하게 한데에 큰 불평이 있었고 려행가는 곳을 끝내 가르켜주지 아니하는것에 더욱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복주는 찌뿌둥하고 앉아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빛을 살피며 불안해하였다. 부모는 시골사람이라고 잠간 꺼리는것을 복주가 우겨 약혼했고 래년봄 두사람이 졸업후에 결혼하라는것을 준호가 우겨서 여름휴가도 거진 지나간 8월 초순에 혼례식을 하게 된만큼 오늘 아침 이 3등차를 타고 아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가는 신혼려행에 대하여 부모에게 대할 면목이 없게 된것을 미안히 여길수밖에 없었다.

복주는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하였다.

《가는대로 가라지. 경원선으로 가면 삼방이나 원산으로 갈게요, 경의선을 타면 몽금포나 평양으로 갈테지.》

그러나 준호는 경부선차표 파는 곳에 서있었다.

《아니, 그럼 온양온천을 가나, 유성온천을 가나? 종내 온천으로 가려나? 이렇게 더운 때 설마 경주나 부여에는 아니 갈테지.》

하고 복주는 마음을 조이며 준호의 계획을 짐작해보려고 애를 썼다.

준호는 차표 한장을 가지고 와서 복주에게 주었다. 복주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얼른 차표를 받아 바삐 가는 곳의 글자를 읽었다.

《경성에서 목포까지.》

복주의 긴장한 가슴이 사르르 풀리며 락망의 쓰린 빛이 활짝 피여난 꽃송이같은 복주의 얼굴을 흐려주었다.

《아니, 왜 자네 본댁에를 가려나?》

한자를 알아보는 복주의 어머니가 다정치 않은 말소리로 말하다가

《래년 봄에 가서 뵙기로 한건데 이번에 별안간에 거길 가면 글쎄 아무것두 가지구 가는것도 없이 이게 웬 일이야?》

하고 말끝이 쌀쌀스럽게 맺혀졌다.

복주의 아버지도 가까이 와서 준호의 가진 차표를 들여다보다가

《이왕 네 집에를 갈테면 어제밤에 사장어른을 모시게 하고 오늘 함께 모시고 갈게지 이게 무슨 철없는짓이냐?》

하고 점잖게 꾸짖는듯이 말하였다.

《아이, 아버지. 너무 념려마세요. 아무데나 좋은데로 데리고 가겠지요. 설마 사람 못살데를 데리고 가겠어요?》

하고 복주가 준호를 힐끔 보며 웃음섞어서 상냥스럽게 말하였다.

《그렇지요, 이번에 가는 곳은 아닙니다. 제집에는 가지 않고요 다른데로 갈것입니다.》

준호는 장인을 쳐다보며 분명히 말하였다.
《네 집에를 아니 갈테면 목포로 해서 대관절 갈데가 어디란 말이냐? 제주도를 갈테냐?》
《정말 좋은 곳이랍니다. 복주가 일평생 살아야 도모지 구경 못해볼 곳으로 가는게니까요.》
준호의 말소리는 한결같이 쾌활하고 힘이 있었다.
《허허 참, 거 영주산에 신선사는 곳으로 가는 모양이구나. 아무렇게나 나는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할 일이지.》
복주의 아버지는 씩씩한 사위의 기상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너털웃음을 웃었다.
주위의 사람들은 이 일행을 호기심이 가득찬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글쎄 신혼려행을 자기네가 가는겐가. 참견은 웬 참견이 그리 많은지.》
준호는 비스듬히 차창에 기대여 담배를 피우면서 혼자말 비슷이 말하다가
《아마 지금 장인, 장모는 내가 어느 몹쓸데나 데리고 가는가 해서 따님을 위하여 걱정이 대단하실텐데 복주씨도 위험한 생각이 들거든 아예 신혼려행을 중지하고말것 그랬소?》
하고 복주를 건너다보며 담배를 빨았다.
《당신 가시는데야 어딘들 못 가겠어요?》
복주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였다. 하루밤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마는 복주는 지난밤의 몇시간이 복주자신을 준호라는 젊은 사내에게 영원히 떨어질수 없도록 붙들어매논것 같이 생각되였다.
《내가 가는 곳이면 아무런 험한 곳이라도 따라갈 용기가 있소?》
《그럼요, 웨 새삼스럽게 물어요?》
복주는 흰털부채를 한들한들 부치면서 야속하다는듯이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렇기나 해야지 내가 복주씨를 선택한 원인도 열정적인 그 성격만을 욕심낸것이니까. 무어 다른게야 무슨 미점이 있어야 말이지.》
준호는 담배연기를 천천히 뿜으면서 연기속으로 복주의 흩기는 눈초리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기차는 남으로 달렸다. 달려가는 기차의 속력에 반항하여 차창으로

바람이 부자연하게 들어오다가도 기차가 정거장에 다 올 때는 바람 역시 정지하여버리고 무더운 땅기운과 기차안의 후지근한 더운 김이 서로 마주쳐 숨결이 막힐듯 하였다.

복주는 털부채로 준호의 얼굴을 부쳐주었다.

《여보, 그만두시오. 고런것에서 무슨 시원한 바람이 나겠소?》

《아이구, 그래두 이것 좀 봐요. 좀 바람이 잘 나요. 우리 언니가 결혼선물한건데.》

호 남 선

《어때요? 경부선과 호남선을 비교해서 느낀 감상이… 좀 말해보시구려.》

하고 준호는 차창밖을 내다보고 앉아있는 복주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물었다.

《좀더 봐야지요. 인제야 대전서 정거장을 셋인가 지나갔는데요.》

복주는 여전히 창밖에 눈을 달리며 입으로만 말대답을 하였다.

《이게 연산들인데 거보오, 정말 끝이 없는 푸른 물결의 논이지요?》

《글쎄 말이예요. 아이구, 어쩌면 저렇게 넓은 들뿐일가요?》

《흥, 이런게 다 부자들의 창고를 채워줄 풀밭이거던요. 좀더 가서 논뫼강경뜰하며 금제만경뜰을 보시오. 전국의 부는 다 거기서 나오거던. 당신네 논도 거기 제일 많이 있을게요. 아마 우리 아버지 몸뚱이에 흐르는 기름도 거기서 가장 많이 짜왔을걸요.》

준호는 열심으로 말하였다. 복주는 준호의 말을 듣자 손수건을 입에 대고 간드러지게 웃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는 법이 어데 있어요?》

복주는 몸을 준호에게로 돌리며 준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생글생글 웃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법은 무슨 법이란 말이요?》

준호는 시침을 뚝 따고 담배에 성냥을 드윽 그어댔다.

기차가 론산역에 정거하였다.

사람의 한떼가 나가자 다시 한떼의 승객들이 몰려들어왔다.

《여기서 백제의 고도 부여에 간다구. 그리고 또 오십오척 돌미륵(돌부처) 있다는 은진에도 가고. 부여에 못 가봤지.》

《못 가봤어요. 참, 언제나 락화암에 좀 가보나? 우리 오다가 부여에 들릴가요?》

복주는 준호의 눈치를 살피며 말하였다.

《아, 그보다 몇십배가 가치있고 귀하고 중한데를 가는데 부여따위가 다 무엇이란 말요. 인제 보시오, 당신이 우리 가는 곳만 보고 오면 다시는 무슨 금강산이니 몽금포니 하고 조선 명승지를 입밖에 내지 못할터니까.》

《아이참, 정말 아주 별의별 곳을 가는 모양이예요. 대체 어딜 가며 그러시는거예요?》

복주는 눈을 깜박깜박하면서 고개를 갸웃하고 무엇을 생각하는 때의 하는 버릇으로 손가락으로 아래턱을 꼭 찌르고있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80이 넘은듯 한 로파가 손에 지팡이를 집고 한손에는 해여지고 더러운 작은 보통이를 든채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쪽저쪽을 둘러보며 들어왔다.

로파는 기차의 흔들리는대로 따라서 흔들려 넘어질듯 넘어질듯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

준호는 벌떡 일어나서 로파의 지팽이 든 손을 붙들어다가 복주의 곁자리에 앉혔다.

로파가 덜썩 주저앉을 때 퀴퀴한 땀냄새에 짭짤한 반찬냄새가 섞여 펄썩 풍겼다. 복주는 로파가 한결 깔고앉은 하늘빛 진짜 보이루의 치마자락을 살그머니 잡아당겼다. 로파는 황토물에 절은듯 한 광당포치마로 가린 한쪽무릎을 쳐들면서

《어찌나— 남의 아씨 비단치마를 깔었구만— 그 아씨 예쁘기도 하지.》

하고 복주를 멀근멀근 쳐다보았다.

《이 댁이 젊은 량반 실내아씨유?》

이번에는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복주는 준호를 힐끗 돌아보며 방긋 웃었다. 준호는 대전서 사가지고 온 복숭아를 깎아서 로파를 주었다.

《이를 어쩌나, 나만 먹어유?》

로파는 황공한듯이 두손으로 덥석 받으며 젊은 부부를 번갈아보면서

《어서덜 벗겨 잡수시유.》

하고는 젊은 사람의 심장덩이처럼 피가 뚝뚝 돋는듯 한 시뻘건 복숭아를 구겨쥐고 쭈그러진 검은 손으로 웅켜쥐고 오무러진 입에다 틀어넣어가며 오물오물 먹고있다.

《이렇게 늙으신이가 대체 어디를 갔다 가시는 길입니까? 집에 가만히 계실것이지.》

준호는 복숭아를 또 한개 권하면서 큰소리로 물었다.

《누가 다니고싶어서 다닐게유. 강경서 살었시유.》

그는 한숨을 휘— 한번 쉬고나서

《그런데 이번 홍수에 집을 아주 잃어버리구서 뭐 논의것이 있나 밭에것이 살았나? 그저 말갛게 잃어버렸지유.》

하였다.

강경역에 정거하면서 기차는 몸부림을 한번 치고나서 덜커덕 차길에 붙어버렸다.

《아니, 강경에서 아니 내리십니까?》

《나유? 난 황등에서 내려유.》

하고 로파는 강경역을 내다보면서

《난 강경이라는 말만 들어두 소름이 쪽 끼치우.》

하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복숭아씨를 차창밖으로 내버리고나서 고개를 끼웃하고 복주의 어깨밑으로 정거장을 또 한번 바라본다. 그의 눈 가장자리는 짓물려서 눈곱이 끼였을망정 흰자위와 검은자위를 분간 못할만큼 움푹 들어간 눈에는 쓰린 추억의 빛이 가득히 담겨있었다.

《저것보, 내가 상경할 때만 할지라도 여기가 전부 밭이였소. 저기 저 언덕 포플라나무까지 물이 닿았으니 낮은데 있는 집들은 어떻게 되였겠소?》

기차가 천천히 달려 지나갈 때 준호는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키며 복주에게 말하였다. 검푸른 벼가 가득히 들어서있어야 할 논에는 진흙탕물을 뒤집어쓴 벼가 물에 녹아져있고 밭에는 흙이 물에 패여내려간 자리를 제하고는 역시 흙물을 뒤집어쓴 풀잎들이 따겁게 비치는 별

에 시들어져있었다.

《저—기 저 팍 내려앉은 집이 우리 집이였시유.》

로파는 벌벌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논가에 아주 말 못하게 주저앉아 버린 집을 가리키며 코를 훌쩍였다. 그러고 손등으로 눈물을 씻으며

《아들내외하구 손자애들하구 나하구 다섯식구가 살다가 저렇게 집이 허물어지고 농사가 말 못되게 되는 통에 다섯식구가 다 갈라졌지유.》

로파는 코를 치마귀에 휭 풀면서 다시 눈물을 씻었다. 복주는 창밖에 지나는 홍수의 비참한 자취를 목도하고 바로 자기곁에서 눈물 흘리며 섧워하는 로파를 볼 때, 비록 신문이 떠들며 수해참상을 보도하였으나 자기와는 전연 거리가 멀다고만 생각하였던 현실이 완연한 사실로 자기 눈앞에 나타날 때 꿈에서 깬듯 한 놀라움과 동정이 복주의 가슴에서 머리를 들고 일어났다.

《아니, 그래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예요?》

복주는 로파의 귀가까이에 입을 대고 정답게 물었다.

《며느리는 3살되는 놈 데리고 저의 친가로 가고 아들은 론산 저의 양아버지한테 가고 일곱살되는 손녀는 그냥 저의 고모네 집에 있고 나는 딸한테 있다가 아들이 보고싶어서 론산엘 갔더니 아들이 어디 먼데로 일나갔다고 해서 그냥 황당히 사돈네 집에를 가는 길이유. 우리 어린 놈이 어찌나 보고싶은지 못살겠시오만.》

로파는 새로운 눈물을 흘리며 코를 훌쩍였다. 복주 눈에도 동정의 눈물이 고여지는것을 복주자신이 알수 있었다.

《아들 다섯에서 다 죽구 막내아들 하나가 살었지유. 그런데 그 아들이 홍수때 저리될줄 어찌 알었어유?》

로파는 보퉁이를 풀어서 옥수수 두자루를 꺼냈다. 옥수수 댓자루나 될가 그밑에는 보리누룽지가 한뭉텅이 있었다.

《우리 어린놈 줄랴고 얻어가는거유. 두분이 하나씩 잡숴보시유.》

복주는 반갑게 그것을 받으며 남아있는 복숭아와 카스테라와 과자 등을 다 보퉁이에 싸주었다.

로파는 황등역에서 내리면서 몇번이나 잘 가라고 인사하였다.

송정리를 지나서 기차는 라주영산포의 들판을 통과하였다. 홍수의 씻어간 뒤자취의 참혹한 현상을 바라보며 복주가 가벼운 한숨을 연

거퍼 발할 때 준호는 입가에 미소를 띠우고 복주의 뒤모양을 바라보았다.

석양의 시원한 바람이 제법 향기를 띠고 차창으로 들어와서 복주의 앞머리카락을 팔팔 날렸다.

멀리 나지막하게 보이는 하늘에는 불그스름한 덩이구름이 떨기떨기 송이져있어 짙은 검푸른색의 물결치는 넓은 들을 아득하게 둘러싸고 있었다.

《저더러 호남선에서 느낀 감상을 말하라셨지요?》 하고 복주가 차창을 내버리고 이편으로 돌아앉았다. 석양의 반사하는 빛을 등지고 앉아있는 복주의 개름한 얼굴은 맑고 깨끗하면서도 불그레한 홍조를 띠고있고 뒤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귀밑머리털이 날리고있는양은 퍼그나 고결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경부선의 승객은 일본사람이 많았는데 호남선의 승객은 줄곧 가난한 농민이 많이 오르고 내리는것이 뵈고요.》

《오－라잇 또?》

《철도연안의 산이나 들의 풍경은 호남선이 퍼그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 생활정도가 참혹한 까닭인지 차창에서 보이는 집들은 모도가 말이 아니야요.》

《그래서?》

《아이참, 장을 받으세요? 또 또 하고 대들게… 그저 그렇다는데 무얼 그래요?》

복주는 일부러 날카로운 눈초리로 준호를 쳐다보며 뿌루퉁한 표정을 하였다.

《원, 이런— 감상을 말하기에 네, 네 하고 듣고있는데 꾸중은 웬 꾸중이신가.》 하고 준호는 롱담처럼 말하였으나 긴장한 얼굴빛으로

《잘 보셨소. 래일이나 모레나 어딜 가서든지 항상 방관하는 태도보다도 자신이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푹 들어가서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알아보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알어들었지요?》

준호는 복주의 흰 손을 꼭 잡아주었다. 목포가 가까운탓인지 승객이 많이 줄었기때문에 다행히 그들의 곁자리에는 아무도 이 광경을 보는 사람이 없었다.

준호는 복주의 곁에 다가앉으며 오른손을 복주의 등뒤로 넣어 복

주의 어깨를 감았다.
《자, 인제 곧 목포이요. 오늘은 대단히 피곤하였지요? 견학은 착실히 했지만!》
하고 힘껏 복주를 안아주었다.
복주의 가슴이 울렁울렁해지면서 얼굴이 화끈 달았다.
그는 남편의 가슴에 폭 안긴채 떨어지고싶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려관의 밤이 두사람을 기다리고있을것을 생각하고 준호와 함께 내릴 준비를 하였다.
기적소리가 길고 크고 우렁차게 울렸다.
천리의 먼길을 무사히 다녀왔다는 성공과 승리의 힘찬 웨침의 소리였다.
《저게 유달산! 퍽 기묘하게 생겼지요?》
준호의 개름한 턱이 가리키는 곳으로 복주의 시선은 따라갔다.
황혼하늘에 높다랗게 솟은 산은 과연 기묘하게 생겼으나 산중턱에 돼지우리같은 움막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것이 복주의 눈에 우습게 보였다. 8시반이건만 그리 어둡지 않아서 찬란한 전등불이 제대로 빛나고있으나 그 불빛때문이 아니요 황혼의 빛속에서 목포시가는 번화한 얼굴과 아담한 자태로 신혼부부를 맞아주었다.
《일가가 많이 살고있지만 오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소, 일부러. 려관에 들려구…》
출구 량쪽에 렬을 지어가지고 제각기 려관이름을 외우며 나그네의 짐을 빼앗으려는 려관뽀이들을 뿌리치고 준호는 크고작은 가방을 손수 량편 손에 늘여들고서 뚜벅뚜벅 앞서 걸었다. 복주는 양산과 손가방을 두손에 들고 준호의 뒤에 바싹 붙어서 타박타박 발소리를 내며 따라갔다.

목 포

C려관에서 저녁밥을 먹고 준호는 목포시가를 구경시켜준다 하며 복주를 데리고 나섰다.
《아까 보니깐 유달산에 움막집 붙은게 우스워뵈드니만 지금 보니깐 불이 반짝반짝한게 퍽 곱게 뵈요.》

하고 복주가 유달산을 바라보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믐밤이나 하늘에는 수효대로의 별이 다 나와서 반짝였다. 그 별들은 하늘높이에서 교만한 웃음을 흘리고있고 유달산 중턱에서 깜박거리는 불들은 산들바람에나마 꺼질듯 꺼질듯싶게 나지막한 곳에서 몸을 떨고있는듯 하였다.

《움막집이 우습게 보입니까? 돼지우리같은 그 집속에서나마도 살겠다고 발버둥치며 낮이면 시장에 몰켜나와서 자본가니, 중산계급이니, 소상인이니, 거간군이니의 발부리에 채여가며 허덕이다가 밤이 되면 그래도 위안처라고 자기 집을 찾아와서 곤한 몸을 쉬면서 켜놓은 저 석유등잔불들! 그것이 이 전등불보다 아름답게 보여서야 되겠소? 움막집이 우습게 보이다가 애처로운 불들이 곱게 보이다가 그래서야 되나? 그렇게 방관하는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데도 그러우?》

준호의 말소리는 엄숙하였다.

《자, 이것이 력사깊고 일많았던 목포청년회관이였소.》

준호의 말소리는 감격에 찬듯 하였다.

《그러든게 이제는 이 모양으로 헐어지고 무너져버린 집이 되여있구려.》

준호는 회중전등을 꺼내여 방안을 비쳤다. 과연 유리창은 문틈까지 다 깨여졌고 지붕으로는 하늘의 별이 보일만큼 천정이 가라앉았다. 사방벽은 다 헐어져 군데군데 썩어진 마루방에 흙투성이가 되여있고 마른날이건만 천정에서는 흙물이 줄줄 내려와 처참한 락수소리를 내이고있었다.

《아아, 사람의 시체 썩은것을 보기보다도 더 가슴아픈 일이다.》

준호는 무거운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아니, 목포에는 청년들이 없고 사람도 없나요? 청년회관을 이래 버려두게요.》

복주는 분개하듯이 툭 쏘아 말하였다.

《흥, 이 집에 출입하던 사람들은 죽기도 하였고 없어지기도 하였소. 나머지 사람들은 카페와 술집으로 전락해 다니느라고 돌아볼 여가와 힘이 없소. 목포뿐이겠소? (략)…

그러기에 복주씨나 나의 책임이 더 무겁고 중하오.》

준호는 복주의 등을 두드리며 힘있게 말하였다.
복주도 긴장한 얼굴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준호와 자기의 표정을 서로 볼수 없는 컴컴한 밤빛을 복주는 원망하였다.
큰길 좌우편에는 음식점이 거의 한간도 건느지 않고 먼거리까지 쭉—련해있고 그 음식점마다 기름머리를 추켜빗고 분을 하얗게 뒤집어쓴 매소부들이 3～4명씩 번들거리는 인조견치마들을 끌고 길거리에 나와서서 코노래를 부르며 몸을 흔들거리면서 그럴듯한 행인들에게 낚시대를 걸고있다.
《이것이 조선에서도 첫째로 칠만 한 목포 공업시장이라우.》
하고 준호가 왼편에 보이는 큰 건물을 가리켰다. 그 맞은편 카페에서는 비속한 레코드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사이로 녀급들의 일부러 웃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이 카페, 아리랑.》
《아니, 목포에도 이런 큰 카페가 있어요?》
복주는 활짝 열어제친 카페정문으로 집안을 기웃 들여다보며 물었다.
《흥, 목포에 카페가 몇개나 되는지 알우? 조선카페가 큰것으로만 네개, 일본카페는 아마 열개쯤이나 될걸.》
《아니, 술집이 이렇게두 많은데 카페는 웬 카페가 또 그렇게 많아요? 목포사내들은 카페만 다니나?》
《그러기에 기가 막힌 일이지요. 술과 계집으로 하는 장사가 목포처럼 번창하는 곳은 아마 전조선에 없을걸. 자, 이렇게 술집과 카페가 전성하여가는 반면에 헐어지고 무너지는 집이 있다오. 내 보여주리다.》
준호는 한숨섞어 말하면서 2층집의 유리창에서 장고소리와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고급료리점이 줄을 지어있는 길거리를 지나 컴컴한 골목으로 들어서더니 큼직한 집앞에서 우뚝 발을 멈췄다.

×

준호와 복주를 태운 발동선은 퉁탕퉁탕하는 소리를 내면서 아직도 꿈이 덜 갠 푸른 바다로 달음질쳤다.
복주는 화려한 집들이 즐비하게 벌려있는 목포의 해안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어쩐지 슬픈 마음이 들었다.
바다라고는 인천바다밖에는 본 일이 없고 배를 타본 일이라고는 한강에서 뽀트놀이를 해본적밖에 없었는데 방향도 모르는 푸른 바다로 이 작은 배에 몸을 맡겨 떠나가는것은 아무리 몸과 마음을 송두리채 바친 준호의 곁에 앉아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다지 유쾌한 일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복주의 기대는 큰 기선을 타고 풍치있는 바다려행을 하는것이려니 하였던것인데 오늘 이른아침 준호가 발동선창에서 선표를 주며 발동선에 오르라고 할 때 복주는 어이없을만치 놀랐다.
1등은 없을망정 2등선실이야 없으랴마는 각색 승객이 왁자지껄하고 떠드는 자리틈에 복주를 앉으라 할 때 복주는 남편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던것이다.
더구나 이 작은 배가 몸뚱이를 팔딱팔딱 뒤흔들며 방정맞은 소리를 통통통통 하면서 달려가는것이 도무지 비위에 거슬려서 복주는 잠자코 앉아있었다.
《왜 속이 아니꼽소?》
준호는 복주를 들여다보며 다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괜찮어요.》
복주도 할수 있는대로 정답게 대답하려 하였으나 말끄리는 저절로 쌀쌀하게 나와버렸다.
준호가 복주의 심리를 헤아렸던지 얕은 천정을 멍하니 쳐다보며 말없이 앉아있는것을 보고 복주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제 밤에도 목포청년회관앞에서 자기의 손이 깨여질듯싶게 힘껏 쥐던 남편! 열시반이나 되였을가 할 때 일부러 먼곳에까지 직접 나가서 목포참외를 먹이겠다고 때늦은 노란 참외를 사가지고 오지 않았던가? 그리고 복주가 다리를 뻗쳤을 때
《퍽 피곤하고 다리도 아펐지?》
하고 하얀 비단양말우으로 통통한 자기의 종아리를 꼭꼭 주물러주지 않었었나? 그리고 자기의 자리옷까지 입혀주면서
《애— 우리 애기가 오늘 얼마나 컸나?》
하면서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더냐? 그리고 전등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서

《자, 편히 자오. 래일은 더 큰 현실과 더 어려운 공부가 복주를 기다리오.》
하고 자기의 굳세인 어깨에 내 몸을 감아주지 않았던가?
엄한 스승처럼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때려가면서 가르칠것은 가르쳐주는 남편! 자기보다도 더 깊고 상냥스럽게 아끼고 귀여워하고 사랑하여주는 저 고마운 남편에게 잠간인들 이러한 불만을 가져서야 될것인가?
복주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나서 한숨을 휘 내여 쉴 때 언제인가 복주의 작고 흰 손이 준호의 크고 붉은 손을 꼭 잡고있었다.
복주는 깜짝 놀라 손을 떼여내면서 준호를 돌아보고 얼굴을 붉혔다.
준호는 빙긋이 웃으며 복주의 손을 잡고
《우리 밖에 좀 나가볼가? 더운데 이속에 들어있지 말고, 응?》
하며 일어났다. 복주도 따라나왔다.
해는 벌써 얼마큼이나 올라왔는데 해빛을 맞이한 바다물결은 빛난 웃음을 줄기줄기 펼치고 저편까지 꿈틀거리며 흘러가는데 돛대 단 어선인듯 한 배가 미끄러지는듯이 떠가다가 발동선이 뒤염질하고난 굵은 물결이 풍범선에 이르자 그 배는 펄썩펄썩 솟아오르며 물결과 함께 출렁거렸다.
가까운 섬은 푸르게, 먼 섬은 남빛으로 그림같이 들어서있는 많은 섬들은 뒤로 멀어져 각각의 자태를 자랑하면서 얼마든지 나오고 또 나오고 하였다.
《다도해라더니 정말 섬두 섬두 어쩌면 이렇게두 많어요?》
복주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머리너머로 준호를 쳐다보면서 준호의 가슴에 자기의 몸을 기대였다, 입에는 웃음을 띠우고.

어 촌

복주의 팔뚝시계가 9시를 알릴 때 준호는 복주를 데리고 A섬에 내렸다. 3시간동안의 배길이였다.
발동선창에는 삼베몽당이치마를 입고 시꺼먼 종아리를 무릎까지 내놓은 부인들이 10여명이나 되게 몰리여 서서 목포에서 온 승객들이 내리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은 머리에 작은 자배기들을 이였고

더러는 어지러운 자루들을 옆구리에 끼고있었다.
《자, 이것 보. 이 자배기 속을 좀…》
준호는 한 부인의 자배기를 들여다보았다. 거기는 뻘건 쪽발을 가진 게가 가득 담겨있었다.
《아니, 거이가 이렇게 생긴것도 있네!》
복주는 신기한듯이 소리쳤다.
《그것이 게젓이요. 그것을 목포 가서 팔아다가 좁쌀을 사오는것이요. 또 저 부인들의 자루속에는 완두라는 풋콩이 들기도 하고 또 배추나 열무같은 김치거리도 들고 말린 새우도 들지. 이 배가 목포엘 가면 12시가 넘소. 그러면 다섯시간동안 좇아다니며 팔다가 잘 팔리면 겨우 좁쌀이라도 사오고 혹시 옷감도 한자씩 끊어오지. 그렇지만 배삯이 있으니까 어느때는 손해를 보게 되오. 그래서 다시 섬에 돌아오게 되는 때가 7시가 넘는구려. 자— 저 사람들의 매일의 살아가는것이 저럴 때 저들의 가정은 어느 판이 되겠소?》
준호가 얘기하고있는 동안 그들은 벌써 발동선에 올라버리고 선녀같은 색시가 서있는 이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고있었다.
《이래뵈도 이 섬이 기막히게 큰 섬이요. 논도 많고 인가도 몇동리 합하면 삼천호가 될가, 넘을가. 그러고도 목포근해에서 제일가는 어촌이지. 여기는 우리 아주머니가 한분 살고있는데… 아니, 이 가방을 누구에게 좀 들려서 아주머니에게로 보내고나서 우리는 이 바다가로 돌아가지.》
하고 준호는 선창으로 즐비하게 있는 어선을 살펴보다가
《얘, 갑돌아! 갑돌아!》
하고 불렀다. 어선에서 꾸물거리던 사람들은 준호의 소리에 모두 이편을 바라보았다.
《어얼씨구 좋구나, 사람 죽인다.》
하는 소리가 어느 배에선지 들려오자
《어떤 사람은—흥흥 팔자가 좋아서 흥—》
하는 륙자배기가락도 새여왔다.
준호는 싱긋 웃으며 다시 갑돌이를 불렀다. 20이 될듯 한 총각애가 두손에 고기비늘투성이를 해가지고 뛰여나오더니
《강진서방님 오셨는게라우.》

하고 절을 굽실 하였다. 준호는
《오냐, 잘있었냐? 이 가방을 들어다가 아주머니댁에 얼른 갖다두고 내가 왔드라고 그래라, 나종에 가마고.》
하고 바위우에 놓여있는 가방을 가리켜주고는 어장배 있는 반대의 길로 돌아나왔다.
《본댁은 강진이지요? 어디로 해 가요?》
복주가 준호의 곁에 바싹 들어서며 물었다.
《목포서 나루 하나 건너 룡당리라는데서 자동차타고 두어시간 가면 되지.》
바다바람이 고기비린내와 소금물짠내를 섞어가지고 펄펄 불어왔다.
복주의 하늘빛치마가 펄펄 날렸다.
《양산을 쓰구려. 여보, 여기가 인천 월미도바람의 모래길보다 못하지?》
하고 준호가 복주를 내려다보고 웃었다.
《월미도 바다에 대겠어요?》
하고 복주도 생긋이 웃으며 준호를 쳐다보았다.
《그건 왜? 월미도가 더 경치가 좋고 아름답고 놀기가 좋지, 조탕(염분이 있는 온천)도 있고.》
《그래도 월미도는 놀이터뿐이지요. 삼천호나 된다는 집의 식구들을 먹여살리는 이 섬에다가 어떻게 감히 비교해요?》
복주의 말소리는 분명하였다.
《오, 내 사랑, 어느새 이런 말을 다 할줄 아나. 정말 기특한데.》
하고 준호는 복주의 손을 잡고 가볍게 그의 등을 두드렸다.
왼편 산에서는 산새소리와 풀벌레소리가 들려오고 나무군의 흥글노래도 솔숲새로 새여나왔다.
바다를 끼고 산모퉁이를 돌아가고 돌아가느라니 물이 나간 벌판에서 무엇인지 줏고있는 부인들의 구부린 모습이 허옇게 꿈틀거리고있었다.
준호는 바다가에 있는 높은 바위우에 올라앉으며 복주를 곁에 와서 앉으라고 하였다.
《저것 보. 저렇게 온종일을 잡아가지고 밤에 가서 소금에 절여 게젓을 담구는구려. 그래가지고 가서 한자배기를 팔아도 돈은 아마

20전도 못될걸.》
《아니, 그럼 배삯은 어쩌구요?》
《그러니까 배삯은 좀 헐하게 하든지 그저 공으로 좀 끼여갈가 하고 선장이나 배사람들에게 뭐 참, 내용이 많지.》
준호는 담배를 피워물고나서
《지금 저 부인네들이 잡고있는것은 낙지, 맛, 게 그런것인데 참 누비조개라고 하는것도 잡고… 낙지나 맛 같은것은 좀 훨씬 비싸게 값이 가는 대신 하루종일 해야 얼마 못 잡고 게는 좀 많이 잡는다지만 목포사람들이 워낙 일전, 이전, 삼전씩밖에 아니 사니까 뭐 남을게 있겠소? 그렇지만 그 노릇을 해야만 좁쌀물이라도 얻어먹으니까…》
준호는 한숨 섞어 담배연기를 훅 뿜었다. 담배연기가 복주에게로 풍겼다.
《아니, 난 뭘 줏고있는줄 알었더니 감탕속에서 무엇을 파내는구료. 아이구, 저 다리하구 팔뚝 좀 봐요. 아이, 어쩌면 저렇게 돼가지구 있어요?》
복주는 안타까운듯이 혀를 끌끌 찼다. 속옷 하나만 입었는지 허벅다리까지 꺼멓게 땅에 묻히고 팔뚝도 어깨까지 감탕칠을 해가지고 허리를 구부리며 연방 감탕을 제치며 무엇인지를 더듬어 찾고있는 부인들의 모양은 사람이라는것보다 바다의 ××이라고 하는것이 적당할것 같았다.
《자연을 지배한다는 사람이랄게 어디 있어요? 바다에 얽매여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가련한 동물에 지나지 못하지 않어요?》
복주의 말소리는 힘이 있었다.
《그렇구말구, 더구나 그들의 가정생활이라는것을 알고보면 그야말로 양키들의 집짐승의 신세보다 몇십배나 가련하지.》
머리가 엉키고 때가 주리주리 맺힌 계집애가 벌거벗은 어린애를 업고 왔다. 뼈만 엉성하게 남은 어린애는 계집애의 등어리에 코를 묻히며 킹킹 보챘다.
《어매! 애기 자끄 울어 쌌네.》
계집애는 소리를 삑 하고 질렀다.
《오냐! 나갈께 조금만 더 참아라.》
바다감탕판에서 한 소리가 마주 울렸다.

어린애는 그중에서도 엄마의 소리를 알아챘는지 소리내며 울었다. 계집애는 엉뎅이를 치키면서 애를 달랬다.

《지금은 여름이니까 저만큼이라도 하오. 그러나 겨울이 되여보. 그때는 굴을 까고 감태(김)라고 웬 파래말이요. 그걸 뜯는데 바다물에 감탕에 젖은 팔뚝과 다리가 꽁꽁 얼어붙지 않겠소? 그러니 어린애 있는 사람들의 어린애까지 다 저렇게 바다에 나와있구려. 그러구도 먹는것은 밥이 아니고 파래죽이나 파래밥이나 그런것이요. 저것 보, 저 사람 하나가 나오지?》

계집애의 어머니가 질항아리를 들고 감탕에 쑥쑥 빠지면서 나왔다. 항아리속에는 감탕을 뒤집어쓴 게들이 우물우물하였다.

어린애는 감탕투성이가 된 엄마를 보고 두팔을 허우적이며 킹킹거렸다.

그 부인네는 웅뎅이진 바다물에서 다리와 팔뚝을 씻고나서 솔나무가지에 걸어두었던 몽당치마를 허리에 걸치고 감탕물에 젖은 삼베적삼의 소매를 잡아내리고나서는 어린애를 안았다. 어린애는 젖가슴을 파고들었다.

《몽굴아! 그것 어서 씻어 갖고가서 어서 삶아라. 오죽들 배고프겠냐? 그것이나 삶아서 먹고 저녁때나 내리 기다려보자.》

부인네는 한숨을 쉬여가며 말하였다.

준호와 복주는 마주보았다.

복주의 눈에는 놀란 빛이 가득하였다.

《저것 보, 지금 열한시가 거진 됐는데 저걸 삶아서 아침밥을 때운다니 젖인들 어찌 나올리가 있겠소?》

준호의 말소리는 떨며 나오는듯 들렸다.

바다물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였다. 처녀들은 준호와 복주의 앉은 곳을 피하며 저편으로 숨어서 가버렸다.

《아이구, 큰 처녀들도 있어요. 저걸 어쩌나? 서울 색시들 같으면 한창 모양이나 내고 들어앉았거나 학교에나 다닐텐데.》

복주가 혀를 차며 말하였다.

그들의 질그릇에는 역시 감탕묻은 게가 우물거리고 바구니에는 낙지가 다리를 쩍쩍 벌리며 바구니언저리에 턱턱 붙어올랐다.

《그나마도 얼마 못 잡는구만요. 바다물이나 좀 나중에 들어올게지.》

하고 복주는 호기심을 잔뜩 가지고 열심으로 말하였다. 준호는 미소를 띠우고 상기가 되여서 불그레하여진 복주의 닭알처럼 여문 얼굴을 귀여운듯이 바라보았다.

준호와 복주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뒤에 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 얼마쯤 돌아가니까 다시 어장배가 가득 들어선 해안으로 나오게 되였다.

바람이 들어온다하나 비린내를 풍길뿐이고 땅에서는 더운 김이 무럭무럭 솟아오르는데 길에는 작고작은 조기새끼들이 깔려있어 질근질근 발에 밟혔다.

《이 작은 고기는 강달이라고도 하고 황서리라고도 하는데 이 섬에서 가장 많이 나는 고기가 이것이요. 부자들은 논에다가 이 강달이로 벼거름을 한다우.》

썩은 고기가 깔려있는지라 길바닥에는 쉬파리와 파리들이 덮여서 사람이 지나가건만 날아가지도 않고 그대로 붙어있었다. 남녀들은 소꾸리와 자배기를 들고와서 어선마다에서 제각기 얻어가느라고 파리와 함께 고기무데기에 달라붙어서 날뛰였다. 복주는 손수건을 코에 대고 빨리빨리 걸었다. 그들이 머리에 이고가는 강달이 그릇에도 쉬파리가 꺼멓게 덮여있었다.

《저러니 위생이라는게 있을리가 있소.》

준호는 탄식하며 터벅터벅 걸어갔다. 동리가까이 왔을 때 아주머니라는이가 마주 나왔다.

별에 절어서 얼굴이 까맣고 키가 작은 50쯤 된 부인이였다.

《이 사람이 네 댁이로구나. 이번에 장가를 들었다드니 예쁘기도 하고 얌전하기도 하다. 어째 강진으로 안 가고 이리 왔냐?》

아주머니는 연해 말하면서 찌그러진 울타리를 지나 사립문을 열고 얕고 작은 초가집으로 앞서서 들어갔다.

《당신 아주머니라고 하셨지요?》

복주가 가만히 속삭이며 물었다.

《좀 멀리되는 일가집 아주머니지. 우리 어장을 좀 맡아보는데 우리 아버지가 워낙 깍쟁이라 아주 어렵게 살으오.》

준호는 퇴마루에 올라앉으며 작은 소리로 속삭여 말했다.

복주는 아주머니에게 절을 하였다.

《아이고, 배고프겠구나. 목포서 새벽에 떠났지? 진즉 올것이지. 이

때까지 무엇하고있었느냐? 볼것도 없는 섬구석에서…》

아주머니는 밥상을 차리면서 일변 말하였다.

귀한 손님이라 하여 쌀을 섞어서 밥을 지었고 풋콩을 간장에 졸여 놓았다. 준호와 복주의 밥에 보리가 절반만 섞였으나 아주머니와 아이들의 밥은 전부가 보리쌀뿐이였다. 어촌이라 생선구운것도 있고 무슨 젓갈도 있어 반찬은 그저 너무 짠것이 흠이랄가 복주의 비위에 과히 거슬리지 않았다.

《보리밥을 처음 먹어보지 않소?》

《꼭 한번 먹어본 일이 있었어요.》

복주는 저가락으로 보리알을 집어 입에 넣으면서 부끄러운듯이 대답하였다.

아래방에서 사는 아이가 강달이 졸인것을 그릇채 들고다니며 쫓아다니는 파리를 가끔 날리면서 손으로 움켜먹었다.

《아니, 저 앤 반찬만 들고다니며 먹나?》

복주가 딱한듯이 말하니까

《흥, 반찬이 무슨 반찬이냐? 기애 어미는 강달이젓 가지고 목포에 팔러갔어. 아침도 못 먹고서 그래 강달이만 장물에 삶아서 한그릇씩 떠먹고 갔단다. 야 개똥아, 이리 와서 밥 좀 먹어라, 응.》

하고 아주머니가 설명하였다. 복주는 그 말을 듣고 또 한번 놀래여 준호를 바라보았다.

《인젠 작은 방에 가서 좀 쉬여라. 너 왔다길래 쓸고 닦고 했어도 워낙 더러워서.》

하고 아주머니는 건넌방에 자리 두잎을 깔았다. 준호와 복주는 우선 다리를 뻗고 양말을 벗고나서 부채질을 하였다.

신문지로 언제나 도배한 벽인지 빈대피가 번한 틈없이 묻어있고 자리밑에서는 곰팡이냄새가 물씬물씬 끼쳤다.

《오늘 밤에 여기서 쉬겠어요?》

복주가 손가방속에서 거울을 꺼내여 얼굴을 보면서 말하니

《체, 여기서 잘가봐 겁이 나우?》

하고 준호는 방바닥에 벌떡 누우면서 마주 물었다.

《이제야 무슨 겁이 나요?》

《하하, 인제 날대로 겁은 다 난게로군. 여기서 일곱시반에 떠납시

다. 응?》
하고 복주의 손을 잡아당기며
《좀 누웠다가 또 나가보지 않겠소?》
하였다. 복주는 몸을 비스듬히 누이면서
《좀 누웠다가 나가서 농촌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난 농촌을 본 일이 없어요.》
하고 팔을 꼬부려서 베고 모로 눕는다.
《농촌구경은 오늘 밤 목포에 가서 자고 래일 라주 가서 시켜주지. 거기는 우리 누님이 있는데 그야말로 벽촌이니까.》
두사람이 이렇게 말하고있을 때 아주머니의 놀랜 소리가 들렸다.
《개똥아! 네 뉘는 어디 갔냐? 작은놈이 마구 뭣을 게여내놓지 않니?》
준호와 복주는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다. 3살쯤 된 벌거벗은 사내애가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서 입으로 토하더니 앉은채 물똥을 주르르 갈겼다.
열살쯤 된 계집애가 고쟁이바람으로 뛰여와서 어린애를 추켜들었다. 아이는 엄마를 부르며 울었다. 계집애는 아궁에서 재를 떠다가 토한 자리와 똥물우에 쭉 끼얹었다.
《아, 지애가 토사하는군요. 무슨 약을 좀 먹여야 하겠는데. 아, 도모지 약을 준비해가지고 온것이 없구려.》
준호는 손을 부비면서 안타까와하였다.
《의사될 자격은 제로다. 이런, 깜박 잊었구려. 황망하게 경성서 떠나느라구…》
《아이, 글쎄 어쩔가요? 저 애가 자꾸 울어.》
젊은 부부는 근심을 무수히 하고있으나 아주머니는 태연하였다.
《큰년아! 소곰이나 한주먹 갖다가 싹싹 부벼서 먹여라. 항상 저러는것을 그럴 때마다 놀래면 어찌게.》
하고 담배를 퇴마루 모서리에 탁탁 털면서
《어린 속에 강달이 삶은것만 들어갔으니 안 그럴것이냐? 이 동네 아이들은 거반 다 그렇지. 게만 잡아다가 삶아먹고 토사곽란(우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하는 위장병) 나서 죽은 아이들이 참 많다. 설사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약을 먹나? 밥을 먹을수 있나? 그저 도로

그런것만 먹으니께 죽기밖에 더하겠냐?》
하고 아주머니는 한숨을 휘 내쉬였다.
작은놈은 끙끙 앓으면서 자꾸 울었다.
《작은놈아, 울지 말아. 소곰 먹고있다가 네 어매 오거든 젖이나… 흥, 종일 굶고 댕길 녀편네에게 젖은 무슨 오라질 젖이냐? 좁쌀이나 다행히 따라오면 모자반(바다풀의 한가지)이나 넣어서 죽물이나 마실것인듸… 어둑어둑 해서야 네 어매 올것인되 그렇게 울어싸서 쓸가?》
아주머니는 다시 담배를 눌러 담았다.
《이 동네서 그래도 낫게 산다는 내 꼴이 이렬적에 거 다른 사람들은 말해서 무엇할것이냐? 있는 놈의 집에는 쌀이 썩고 고기가 썩고 나무가 썩어도 이런 섬구석에 없는 놈들은 굶어서 부황나서 죽고 병나서 못 고쳐서 죽고 아이고, 진저리난다.》
아주머니는 몸서리를 쳤다. 누구에겐지 반감을 잔뜩 가진듯 한 어조이였다. 준호도 새삼스럽게 긴장한 얼굴빛으로 생각에 잠겨있고 복주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는 동안 여러번 얼굴빛이 변하다가 역시 무엇을 생각하고 앉아있다. 어른들의 입은 무겁게 닫혔다.
오직 개똥이의 힘없으면서 쥐여짜는듯 한 울음소리만 그치지 않았다.

새로운 출발

준호와 복주는 바다물이 가득히 들어있는 바다가언덕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석양의 빛을 실은 바람이 시원스럽게 불어왔다.
《복주씨! 이번의 신혼려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오? 아직도 나를 원망하오?》
준호의 말소리는 무거웠다.
《천만에, 나는 오히려 당신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꿈엔들 이런 세상이 있다는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주 난 요즘 가슴이 어떻게 뻐근하고 쓰리고 가깝한지 어쩔줄을 모르겠어요.》
복주의 말소리에는 진정한 량심의 하소가 있었다.
《우리가 이번에 몽금포니, 온천이니 하는 오락적이고 향락적인

그런 지방으로 려행을 갔든들 아무리 총명한 복주씨나마 어찌 이 남쪽 섬지방에 펼쳐진 쓰린 현실을 상상인들 하였겠소? 그냥 오락과 향락에 취해버리고말았겠지. 그러나 호남선을 거치여 수해지참상을 목도하고 그 홍수에 희생당한 로파의 눈물을 보았고 목포라는 신흥도시의 퇴폐적타락현상을 보았고 다시 오늘 우리앞에 생생하고 쓰린 현실 그대로가 열려질 때 우리도 피가 있는 청년인 이상, 생각이 있는 사람인 이상 어찌 어떠한 느낌이나 결정적결심이 나지 않을리가 있겠소?》

준호는 말을 여기까지 하고 잠간 숨을 돌린 후

《더구나 복주씨가 어제 이대로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태도라든지 또 표현하는 의사라든지가 다 내 맘에 흡족하였소.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이곳으로 데리고 온 내 계획이 훌륭하게 성공한것을 보고 미칠듯이 기뻐하였소. 사람이란 소질과 성격이 웬만 하면 인도할수 있다는것을 확실히 믿게 된것을 기뻐하오.》

하고 준호는 복주의 손을 꽉 쥐였다. 복주는 남편의 손을 가져다가 희망과 감격에 뜨거워진 자기의 홍분한 뺨에 꽉 대일뿐 고개를 수그린채 아무런 말이 없었다.

《아마 복주씨의 꿈은 이러하였으리라. 래년에 내가 졸업하면 성대병원 연구과에 있을것이요, 당신은 졸업후 모교에 취직해서 문화주택이나 짓고 피아노나 사고 그렇게 고급살림을 하다가 내가 개업이나 하면 의사부인이 되든지 박사가 되면 박사부인이 되든지 할것이라고.》

《정말 꼭 그대로 생각하고있었어요.》

복주는 감탄하듯이 소리쳐 대답하였다.

《그러나 복주씨! 나는 래년에 졸업한 즉시에 그냥 여기다가 병원을 개업하겠소. 이것은 나의 오래전의 계획인만큼 벌써 준비도 다 되여가지고있소. 물론 아버지가 반대할것이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요. 그래서 나는 이 섬의 어민과 농민들의 건강의 아버지가 되는 한편으로 새로운 의미하에서 청년회관이라도 다시 지어놓을만 한 청년들의 동무가 되겠소. 복주씨는 어떻게 생각하오?》

준호의 말소리는 열정에 떨렸다. 복주는 준호의 가슴에 폭 안기여버렸다. 숨결은 쌔근쌔근하고 그의 얼굴은 훨훨 달았다. 그는 준호의 품에 가만히 몸을 맡기였다.

《나는 당신의 안해! 내가 무슨 딴생각이 있겠어요? 당신이 의사노

릇을 하실 때 나는 이 섬의 어린아이들의 보모가 되겠어요. 그러고 밤이면 처녀들과 젊은 부인들을 위하여 내 힘과 몸이 자라는데까지 야학이라도 세워서 정성껏 가르쳐보겠어요. 준호씨! 당신의 열정만 변치 말아주세요.》

복주의 말소리는 불이 일어날듯이 뜨거웠다. 준호는 청춘이 가진 가장 억세고 기운찬 힘으로 복주의 몸을 힘껏 안았다.

《신혼려행이 우리에게 준 새로운 생활의 첫 출발은 오늘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였소. 자, 일어나오. 나의 믿음직한 동무요, 내 사랑하는 안해인 복주씨!》

준호는 복주의 몸을 안아 일으키고나서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먼곳에서 불어오는듯 한 바람이 두사람사이로 지나갈 때 통통통통 하는 발동선소리가 기운차게 들려왔다.

《조선일보》 1934. 10. 14.

고향없는 사람들

박 화 성

여보소 이 사람 어디를 가나
산 높고 물 깊어 길 험하다네
강서가 예서도 일천오백리
나는 새라도 사흘 간다네
에라 둥둥 내 사랑이야
너를 놓고는 내 못 살리라

아니 가고 어이를 하리
정들인 고향이 날 몰아내데
땅 좋고 물 좋아 살기 좋대도
내 고향 안 잊혀 어이를 하리

에라 둥둥 내 사랑이야
너를 놓고는 내 못 살리라

오삼룡이네 외의 아홉집 가족이 평안남도 강서농장으로 살러 가게 됐다는 말이 돌면서부터 누구의 입에서인지 이런 노래가 흘러나와서 설음에 흐느끼고있는 불암리 이 작은 동리에 안개 퍼지듯이 쫙 퍼졌다.

작년 홍수때문에 농사라고는 쌀알 몇입밖에 건져보지 못한 각면 각동리 일백호의 가족이 독차를 타고 일제히 떠난다는 3월 22일이 가깝게 닥쳐올수록 이 노래는 동네사람들의 입에서 더 자주 그리고 더 익숙하게 불리워졌다.

이들 열집의 호주들은 몇번이나 면사무소에 불려가고 면사무소에서도 거의 그 수효만큼이나 자주 조사를 나왔다.

3월 20날 저녁에는 오삼룡이와 제일 친한 강관옥이네 집에서 떠나가는 열친구를 위한 이 동네의 전별 잔치가 있었다. 보내는 사람들의 각 집에서는 쌀이 적어서 떡은 못하나마 다만 몇줌씩이라도 모조리 걷어서 밥을 짓기로 하고 쌀은 일제히 형편에 따라 부담한 후에 각각 간장, 기름, 나무, 김치, 남무새(남새) 이런것들을 분담해서 저녁밥을 준비하고 주머니들을 다 털어 막걸리 몇되를 받아왔다.

동네에서는 제일 크다는 강관옥의 집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과 마루에 사람들이 콩나물 서듯 들어앉았건만 자리가 좁아서 뜰아래까지 멍석을 펴고 앉게 하였다. 그리고 아직은 겨울날씨라 하여 마당에다는 불을 피워서 더운 김이 나도록 하였다.

서로 권하느니, 사양하느니 하는 와글와글 끓는 소리가 방에서 마루로, 마루에서 마당으로 또 마당에서 방으로, 마루로 정답게 오고가고 김이 서리는 부엌속에서 심부름을 하는 녀인들의 오손도손 하는 얘기소리들이 계속되는 동안 그들의 위장은 웬만큼 부요하여졌다.

벼를 베여낸 논바닥처럼 허하고 쓸쓸하기 짝없는 이들의 배속에 텁텁한 막걸리 사발씩이나 들어가 놓으니 그들의 어둡던 가슴은 화촉의 신방같이 훈훈하고 밝아오는게 봄날의 해빛처럼 제법 따끈해졌다.

삼룡이곁에 바싹 다가앉았던 관옥이가 벌떡 일어나서 다들 자기를 주목하라는듯이 기침을 연방 크게 하였다. 과연 사람들은 관옥의 기침군호에 고개들을 방으로 돌리고 쳐다보았다.

《허, 오늘이 대체 무슨 날인지 마당에다가는 불을 피우고 일년 열두달 다 가도록 못 먹어보는 쌀밥을 먹어보고 막걸리로 반주를 하고 온갖 성찬으로 안주를 하고 떠들썩하게 웃고 지껄이니 남보기에는 무슨 즐거운 경사나 있는것 같이 보이겠소마는 사실인즉 우리 평생에는 처음 당해보는 슬프고 슬픈 불길한 날이요.》

《암—은 그렇다마다.》

여러 사람은 기도소리뒤에 부르는 《아멘》소리같이 일제히 말을 받았다.

《모레가 되면 우리 동네에서는 열집 가족 사십명이 산채로 죽어서 나가는 날이요. 허, 죽는것이나 무엇이 다르오? 허.》

관옥이의 목소리는 터지려는 울음속에 잠겨버렸다. 귀밝고 눈여린 아낙네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부엌에서 새여나왔다.

방안에서, 마루에서, 마당에서 코를 풀고 입술을 물며 울음을 삼키는 대장부들의 억센 숨소리가 들렸다.

《우리 동리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항상 대표로만 나가는 삼룡이, 어질고 착한 중권이, 재담 잘하는 옥곤이, 동네 편쌈은 도맡아놓고 대장노릇하는 우리 관운장 상걸이…》

관옥의 이 말에 부엌속에서는 가냘픈 웃음소리(그러나 눈물과 섞인)가 들려왔다.

《공자님같이 유식하고 덕이 많은 윤흥이, 장비같이 시원시원하고 힘 잘 쓰는 영대, 남의 일 잘 봐주는 태술이, 구변좋은 장곤이 그리고 나이 어려도 다 천연하고 똑똑한 인수, 종선이, 이렇게 열사람이 쑥 빠져서 나가버리니 자네들 가버린담에 우리 일은 다 누가 맡아서 해주고 누가 알아서 처단해주고 누구하고 의논해서 해가란 말인가?》

워낙 입담이 좋은 관옥에게 술이란 흥분제가 들어가고 정다운 동무들과 리별한다는 비분강개한 마음이 들어가놓으니 조리있게 나오는 말이 흐르는 물같이 술술 넘어갔다.

《자네들은 살길 찾아서 간다고 가버리니 우리같이 이렇게야 서운할라던가? 자네들이 없어지면 우리 동네는 눈을 잃고 귀를 잃고 입을 잃고 힘을 잃고 덕을 잃고 온갖것을 다 잃어버린 산송장이 돼버릴테니 자네들을 보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너무도 야속하고 너무도 모지네그려.》

관옥의 나중말은 애원의 하소연이 되여 떠나려는 열사람의 가슴을 긁어냈다.

《자네들이 다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도 우리 동네는 압제를 받고, 욕을 당하고, 힘을 못 쓰고, 억울하고 원통하게만 살아왔거던. 자네들이 가버리고나면 뼈부러진 팔다리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허… 어떻게 버티고…》

말끝을 흐리더니 관옥이는 우후 하는 울음소리를 내며 방바닥에 펄썩 주저앉았다.

열사람도 울고 보내는 사람들도 다 소리를 삼키며 울었다.

《삼룡아! 읍에나 면에나 주재소에나 지주댁이나 너하고 나하고 대표로 댕기더니마는 너는 가고 나는 혼자 어찌란 말이냐? 아이고, 기막혀라. 우리 동네는 어째서 너희를 몰아내야 한단 말이냐? 너희가 가면 우리 입에 그래 쌀밥이 들어갈것이란 말이냐? 아니 가든 못한단 말이냐? 허, 원통하다… 원통해.》

관옥이는 방바닥을 주먹으로 탁탁 치며 울음섞인 넋두리를 하였다. 자리는 온통 울음판이 되였다.

구름이 쑥 지나가면서 둥글고 밝은 보름달을 이들에게 선사하였다. 달빛에 마당이 훤해지자 마당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다.

《고향의 달도 마지막이다!》

젊은 인수의 입에서 히스테리적인 비명에 가까운 부르짖음이 나왔다. 무심한 달은 떡 아기의 벙싯거리는 웃음과 같이 잡티없는 웃음을 가득히 싣고 감나무가지를 타고넘었다.

삼룡이는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 일어났다. 훤칠한 이마에 큰 키였다.

《허, 그만들 우십시다. 우리가 천리타향에 간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고향에 두고 가오. 마음만 서로 통하면 우리가 여기 없어도 우리들 있을 때와 같이 매사를 해나가실것이라고 생각하오. 여러분은 우리 없는 동안 고향을 잘 지키시고 고향을 잘 키워가시오. 멀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고향을 찾아올것이요.》

《암! 오다마다. 안 와서 쓸것이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여나왔다.

그들은 모두 일어났다. 누가 시작한지 모르게 그들은 요새의 류행

노래(이 동네에만 류행하는)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여보소 이 사람 어디를 가나
산 높고 물 깊어 길 험하다네
강서가 예서도 일천오백리
나는 새라도 사흘 간다네
에라 둥둥 내 사랑이야
너를 놓고는 내 못 살리라

《다음것은 자네들만 하오.》
하고 관옥이가 노래틈에 말을 끼웠다.

아니 가고 어이를 하리
정들인 고향이 날 몰아내데
땅 좋고 물 좋아 살기 좋대도
내 고향 안 잊혀 어이를 하리
에라 둥둥 내 사랑이야
너를 놓고는 내 못 살리라

구름은 다시 달을 가린다. 이들의 울음섞인 노래를 알아나 들은 듯이…

3월 22일 오전 10시! 학다리 정거장은 일백호의 가족 4백명의 이민과 그들을 전송하는 2백 오륙십명의 (정거장 생긴 이후 처음되는) 굉장하게 많은 손님들을 가져보았다.

그들을 위하여 림시로 마련한 독차가 연기를 뿜고 돌아다니며 먼 길 떠날 준비를 하다가 어서들 올라오란듯이 꼬리를 늦추고 공손하게 대령하고 서있건만 독차를 타고 갈 손님들의 행장들이란 지저분하고도 허름하였다.

작고 퇴색한 검은 보에다가 처지도록 싸놓은 침구의 량귀퉁이가 삐죽하게 나와서 람루한 몰골을 보이고있고 참기름이나 피마주기름병인듯 한 맥주병이 가뜩이나 작은 보자기에 렴치없이 끼여있었다. 물에 담갔다가 정하게 씻었으련만 그 보람도 없이 시꺼멓게 그을린 대석짝

(아마 그속에는 사발, 접시 이런것들이 들어있겠지)우에와 옆에는 크고작은 바가지를 엎어서 새끼로 동였고 거의다 떨어진 부담상자와 농짝들도 각각 수화물행세를 하느라고 면이름과 성명을 적은 꼬리표를 달고있었다. 이러한 짐짝들이 짐차칸으로 실리는 동안 군중들의 떠드는 말소리들은 울음판으로 변하였다.

차안에 가면서 먹을 밥보퉁이인듯 한 꾸레미들을 들고 아기들을 업고 서있는 부인네들의 앞뒤에는 전송나온 부인들이 한두사람씩 붙어있고 남자들은 좀 큰 아이들을 안고 또 무엇인가를 들고 차례차례 인사를 하며 돌아다녔다.

외할머니인듯 한 로인이 딸이 업고있는 외손자에게 눈깔사탕의 봉지를 쥐여주며 소리를 내여 울고 남편의 친구인듯 한 사람들은 떠나는 어린애들에게 엿과 마메콩(락화생)을 사서 들려주었다. 한편에서는 빚쟁이들이 떠나는 사람들의 행구를 붙잡아놓고 주고가라는 최후의 호령들을 하였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들의 일행이 각각 빚쟁이들을 둘러싸고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역성을 하였다.

《허, 그 코 참 더럽다. 이 짐짝이 그렇게 욕심나거든 가지고 우리대신 강서까지 가게. 누가 말리는가?》

《죽으러 가는 놈의 관 벗기는 놈은 저승에 가서 사자노릇도 못해먹느니라.》

하는 욕설은 좀 과격한편이였다.

그러나 빚쟁이 역시 지려고는 하지 않았다. 역성군들을 떠밀며

《이놈들아! 왜 이 모양이어? 밝은 세상아래 뉘 돈을 먹고 달아나겠다고, 응? 어림없제. 안돼, 안돼. 이것은 두고가야 한다.》

하고 눈을 부라리며 짐짝을 끌어당긴다.

《요놈이 마지막으로 우리 손때맛을 보고싶은것이로구나. 전에는 우리가 누구앞에서 목을 바치고 살었지마는 지금쯤 당해서는 죽으러 가는 놈에게 렴치가 있을리 없다. 남의것 잘라먹는 도둑놈들은 배가 항아리만 하게 더 잘살더라. 이놈, 안 내놔? 에라, 이놈!》

하고 그들은 주먹으로 빚쟁이의 등을 갈겼다.

각 면에서 온 면장들과 주재소 순사부장들은 이날에 한해서만 떠드는 사람들에게 최후발악을 허락해준듯 좋은 말로

《자ㅡ들 어서들 차례차례 타시오.》

하고 차에 오르기를 재촉하였다.

사람들이 차에 오르기 시작하자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그악스럽게 크게 났다. 그중에서 가장 용기있는 패들은 7～8살 되는 남녀어린이들이였다. 그들은 우르르 뛰여들어가서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차칸을 둘러보았다.

《꼭 방속같다, 응? 선반도 있어야.》

하고 속삭이기까지 하면서…

삼룡이와 관옥이는 술집에서 나왔다.

《너하고 나하고 술잔을 바꾸기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죽지 않으면 다시 만날테니 몸이나 잘 돌보아.》

관옥이는 삼룡의 손목을 잡더니 소매를 잡아당겨 으슥한데로 끌고 가서

《이것은 우리 집 딸몫으로 있는 흰 돼지를 판것인데 돈이야 얼마 될라는가마는 생사의 정에서 주고받는 표적으로 받어주게.》

하고 지전 한장을 쥐여주었다.

《허, 이거 무슨 짓인가? 오원? 오원이라니, 오원을 가지구 자네네 일년 결음값을 하지 않겠는가? 나야 이왕 가는 놈인데 돈이 당한 소리인가? 자, 어서 넣어두게. 내가 되려 자네 딸 혼인에 저고리 한감도 못 떠주게 됐는데 시집갈 밑천인 돼지를 뭘하러 팔었는가? 자, 어서 넣어두게. 그런 망령난 소리 하지 말고…》

삼룡이는 굳세게 거절하였다.

《아니, 왜 이러기야? 내가 아모리 사람값에 못 가는 버러지같이 된 인생이다마는 사내자식이 그래 친구를 영 리별하는 자리에서… 허, 안될 말이여. 허, 그 사람 참. 자, 어서들 오라구. 면장이 저기서 손짓하네. 얼른 받어.》

관옥이는 삼룡이의 조끼틈에 5원 지폐를 처넣었다.

남자들은 대개 송정리 정거장을 지나면서부터 마음을 가라앉히고 동무들끼리 얘기를 하였으나 아낙네들은 원망스러운듯이 창밖을 내다보며 대전역에 닿을 때까지 눈물을 걷지 않았다.

독차로 가는 일인지라 정거장마다 정거할 필요가 없으니 기차는 쉬지 않고 줄곧 달리기만 하였다. 기차를 평생 처음 타보는 부인들은 차멀미를 하여서 자리에 꽉 엎디여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황홀한 전등불이 찬란한 빛을 내고있는 경성시가를 바라보며 그들은 경성을 지나서 다시 북으로 가는것이였다.
《참, 서울이란 넓고도 좋은데로구나. 우리 생전에 서울구경도 못할줄 알았더니 서울을 지내서 가는데가 어디메냐?》
하는 삼룡이의 큰소리가 애조를 띠고 나오자 여러 사람들의 가슴은 납덩이를 삼킨듯이 뭉클하고 답답하여졌다.
타향의 밤과 밤이 적막하게 이어져있는 그 차고 쓸쓸한 어둠을 뚫고 이민을 실은 기차는 북으로, 북으로 달려가건만 그들의 가엾은 꿈은 남으로, 남으로 뒤걸음쳤다.
아기들을 재우느라고 남녀가 번갈아서 눈을 좀 붙이느라면 귀가에서는 부모친척과 동향친지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그들의 흔들리는 꿈을 깨치고말았다.
창밖에서는 어두움과 추움이 수레를 습격하고 한숨과 탄식의 소리가 가득한 차간에서는 고향에 두고온 환상들이 이들의 고달픈 머리를 뒤흔들었다.
한창 매운 바람이 귀를 갈기는 새벽 2시에 이들은 말로만 들어보던 평양정거장에 내려서 또 다른 기차를 바꿔타고 정작 강서를 향하여 떠났다.
그 이튿날 첫새벽에 기양정거장에 내리니 짐자동차와 또 그렇게 짐자동차같이 생긴 자동차가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몇대가 되는지도 알수 없으리만큼 수많은 자동차이건만 자동차마다에 사람이 첩놓이다싶이 빽빽하게 들어앉아서 또 얼마를 산길로 달려갔다.
《아이고, 인제는 우리를 갖다가 산채로 산속에다 묻어버릴란 같다. 인제 정말 우리는 죽고야마는구나.》
하는 녀인들의 두려움에 떠는 소리는 남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놓았다.
《옛날에 귀양살이도 못 보내는 놈은 몰아다가 때려죽인다더니 인제 우리를 잡아다가 죽일라는가보다. 아이고, 우리는 무슨 죄로 고향에서도 못 죽고 천리 타관 이름도 모르는 산속에 와서 죽는단 말이냐. 아!》
어떤 부인은 이런 넉두리를 하며 울었다.

《요망스럽게 울기는 왜 울어?》

삼룡이는 자기 안해를 꾸짖었으나 앞뒤 자동차에서도 녀인들이 느껴우는 울음소리가 들려오는것에는 자기의 철석같은 간장도 끊어지는듯 하여 그는 입을 다물고 한숨만 푹푹 내쉬였다.

얼마를 가느라니 이번에는 바다가 멀리 바라보인다. 자동차가 달릴수록 바다는 가깝게 닥쳐왔다.

《인제는 우리를 몰아다가 바다속에다 처넣어 죽이랴나보다.》

하는 말소리가 튀여나오자

《정말로 인제 우리는 바다귀신이 되여놓았네.》

하고 남자들끼리 청승맞은 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죽을 때는 죽더래도 미리 겁부터 내지 말고 맘들을 단단히 먹으시오.》

삼룡이의 기운차게 웨치는 소리에 사람들은 울음을 뚝 그쳤다.

삼룡이네 일행이 떠난지도 한달이 지났다. 그들이 떠난 후에는 불암동리에서 한때 류행하던 이민노래 (그들은 이민노래라 하였다.)가 차차로 없어져버렸다.

관옥이는 삼룡이네 살던 집을 지나다닐 때마다 삼룡이를 생각하고 한숨을 쉬였다. 삼룡이네가 데리고있던 개를 관옥이가 맡아서 데리고 있는데 관옥이가 속상하다고 머리도 돌려보지 않고 그냥 지나다니는 옛 주인집을 검둥이는 지나다닐 때마다 들어가보고 나왔다.

지금 새로 들어있는 집주인의 말을 들으면 검둥이는 마당으로 쭈르르 들어와서 먼저 부엌문에서 기웃거려보고 다음 뒤마루밑에 서서 방안을 들여다본 후 대추나무밑을 한바퀴 돌아서 나가는것이라 하였다.

《미물의 짐생인 너도 옛 주인을 못 잊어 그러하거든 삼룡이야 얼마나 고향생각을 간절히 하고있겠느냐?》

관옥이는 앞산을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었다.

《강남갔던 제비도 옛집 찾아 돌아오고 앞산에는 진달래가 만발했건만… 삼룡이네 대추나무에도 새싹이 파릇파릇 봄바람에 나붓기고 삼룡이네 배추밭에는 배추꽃이 피였건만 삼룡이는 어디 가 이런줄을 모르는가?》

관옥이는 노래부르듯이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갈아놓은 검은 논을 멀거니 내려다보았다.

《금년에는 저 논에서 몇말이나 얻어먹어보게 될랴는가?》
그는 다시 눈을 들어 흰구름이 유유하게 밀려가는 북쪽하늘을 바라보았다.
《강관옥이 편지 받소.》
논뚝길을 걸어오는 우편배달부가 관옥이를 부르며 편지 한장을 전했다. 관옥이는 발신인의 이름을 보면서 달리다싶이 집으로 뛰여갔다.
《어디서 왔소? 아마 덕군 아베한테서 왔는감만, 저리도 좋아하게.》
마누라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덕군 어매도 잘있고 덕군이 남매도 잘있다고 했소?》
그 역시 관옥이만큼 바쁜 모양이였다.
《허, 그 녀편네 무척 급했네. 읽어봐야 알지 안 읽어보고도 아는 재주가 있는가?》
관옥이는 빙긋이 웃으며 떠듬떠듬 편지를 내려읽어갔다. 한참만에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같이 없는 놈이 어디 가면 별수 있을라고.》
하고 관옥이가 편지를 접으면서 혼자말을 하였다.
《아이고, 갑갑하구만. 원, 얘기나 좀 시원스럽게 해주시오그려.》
마누라는 마루로 나와서 쪼그리고앉으며 남편의 입을 쳐다보았다.
《당초에 모든 형편이 말이 아니라네.》
《어째서 그럴가? 지어 논집에 논 스무마지기씩 주고 소 한마리씩 주고 왼통 농사기계 다 주고 그런다든데.》
《그 집이라는것 말이 아니래여. 방 한간, 정재(부엌) 한간에다가 양철때기만 얹어서 집이라고 만들어놓고 흉악한 초석자리 한잎에 오십전씩 깎드라고 안하는가?》
《저런!》
《그리고 장난감같이 생긴 삽 하나, 소시랑 하나, 호미 하나씩 주고 농장에서 본값보다 비싸게 깎어버리드라네그랴.》
《아갸?-》
《그릇도 그렇고 왼갓것을 다 비싸게 감하는디 요새 안즉 땅이 덜 풀려서 일을 못하니께 농장에서 주는 돈 십원으로 한달을 살어갈랴니께 죽겠다고 덕군 어머니는 날마당 울고있다고 안하는가?》
《저를 어짜까? 망할놈의 곳도 있다. 여기는 봄도 한창인디 아직 땅

이 안 풀리다니. 아니, 한사람앞에 일백 얼마씩 기부했다더니만 왜 그럴께라우?》

《흥, 당구 삼년에 폐 풍월 (서당개 삼년에 풍월함)이라드니 작년내— 하도 이민, 이민하고 기부, 기부하는 덕에 우리 마누라까지 썩 유식해졌네.》

관옥이는 쓰디쓰게 웃었다.

《덕군 어매가 불쌍해. 어째 울지 않겠소? 날마다 고향생각나서 못견딜것인디. 그나저나 정부에서 보내는것인데 아무 념려없이 잘살것이더니 물건값은 왜 그리 비싼고?》

《물건값이 비싼가 어디? 농장에서 되거리로 그렇게 비싸게 받어먹지.》

《좀도둑이라더니 그 불쌍한 속에서 뭣을 남겨먹을라고 그런 짓을 할가?》

《자네 같으면 다 성인되게? 잔소리 그만하고 어서 저녁밥이나 하소.》

관옥이는 편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허, 무슨 날이 이렇게 비만 와쌓는고 몰라. 고향에는 비가 안 와서 모를 못 내고 물쌈이 나고 인심이 뒤집어져서 야단이라는데 여기는 쓰는데 없이 비만 오거던.》

《글쎄말이요. 이 비를 그리로 좇아보낼 재주는 없을가? 비가 잘 오고 농사를 잘 지어야 하로바삐 우리도 고향으로 가버릴텐데… 아니, 오늘 불암리서 무슨 소식이 왔소?》

삼룡이 처가 감자를 깎으며 방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쳐다보며 물었다.

《응, 오늘 관옥이한테서 편지가 왔어. 그나저나 그렇게 가물어서 큰일 났네. 작년에는 홍수로 못 먹었으니 금년에나 농사를 잘 지어야 할것인디…》

삼룡이는 이마살을 찌프리며 담배 한대를 담았다.

《아이고, 갑갑해라. 이놈의 곳은 어쩐 일로 마루를 못 맨든지 몰라. 마루를 놓다가 제 할미가 꺼꾸러졌는가. 집집마다 다— 봐야 좋다는 집에도 마루가 없으니 참 흉한 놈의 곳이란게. 이 방구석에서 여름은 어떻게 날것인고?》

마누라는 방문을 탁 열어젖히며 종알거렸다.

《어서 여름전에 고향에 가버려야지. 아이고, 지긋지긋한 이놈의 땅!》

《지금은 여름이 아니고 봄인가? 그만저만 욕도 하소. 우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굴러왔지 땅이 무슨 죈가?》

《원, 아무리 없어서 굴러왔더래도 사람이 살만 한데라야지. 여기서는 사람은 못살아. 그릇이라고 모도 기와그릇밖에 없고 나무 한단에 삼십전을 주고 사도 밥 한끼밖에 못하니. 장이라고 시오리나 이십오리씩 걸어가서 살라고 보면 모도 녀편네들 장이라 무슨 말을 하는지 말소리도 못 알아듣겠고 비싸기를 똥싸게 비싸고 간장, 된장이 어찌 맛이 없는지 원, 음식을 해놓면 무슨 맛이 있는가?》

《잘 나온다, 또?》

삼룡이는 마누라의 말 중간을 타고 들었다.

《이것 되지 못한 해변이라고 발때기도 못 벌어먹으니께 왼갖 푸성가리까지 다 사먹게 되니 어디 살겠소. 고향에서 호박이니 풋고추니 솔파, 마늘 그저 김치거리, 상추, 쑥갓, 왼 동네가 다 먹고도 남더니마는 여기서는 그런것을 꼴 볼수가 있는가?》

《고향에 암만 들어 쨌으면 뭘해? 다 그림의 떡이지. 고향이 좋으면 떠나왔을라던가?》

삼룡이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였다.

《여기 오면 참 잘살게 된다길래 왔지, 이런줄 알었으면 오막살이란들 뭐 지랄한다고 내여버리고 이리 굴러올가? 죽어도 고향에서 죽을것인디. 공연히 당신이 못 와서 발광하더니만…》

《또 내탓 나온다. 하구 많은 날 내 말도 너무하니까 듣기도 인제 싫증나네.》

《들어도 싸지 뭣, 사내가 잘났으면 처자를 데리고 이런 흉악한데로 굴러왔을가? 그렇게 진정서를 총독부에 보내라고 해도 남 다— 보내는 진정서를 왜 안 보내고 그래? 그저 내가 여기서 꼬꾸라지는걸 봐야…》

하고 악을 바락 쓰는 바람에 낮잠자던 덕군이 남매가 부시시 일어났다.

《미친 녀편네 또 미친증 나오는가부다.》

《왜 내가 미쳐? 세상에 물만 조금 좋아도 참고 살아갈테여. 물이 그냥 소금맛이니 어찌 살어. 밥을 하면 쌀에 간이 피여서 밥이 넘지를 못

하고 그냥 지글지글 잦아버리니 이것은 밥도 죽도 아니고 익은 밥도 선밥도 아니지? 빨래를 해서 널어차도 그냥 간이 피여서 이틀씩 말려도 축축하니 그대로 있으니 이런 흉악한데서 어찌 살아가는가 말이요, 응? 고향에를 못 가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지 여기서는 안살라우.》

마누라는 독이 나서 얼굴이 새파래졌다.

《뒤여질라거든 뒤여져버리려믄.》

삼룡이는 밖으로 뛰여나왔다.

흥분한 판이니 공자님이란 별명을 듣는 윤흥이나 찾아가서 속풀릴 얘기나 들어볼가 하고 삼룡이는 윤흥이가 살고있는 농장회사 뒤편으로 나지막하게 모여있는 새 동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동리까지 가자면 흙탕이 찰떡처럼 짓이겨있는 논뚝길을 걸어야 하고 진흙이 고무신 운두를 넘어갈것을 생각하여서 그만두기로 하였다.

《가면 윤흥이만 만날수 있어야지 윤흥이 마누라 그 발악하는 꼴을 또 어떻게 보라오? 이 집에 가나 저 집에 가나 녀편네들 못살겠다고 들이대는통에 그만 숨도 제법 크게 못 쉬겠으니…》

가는 비가 머리털우에 방울방울 맺혀졌다가 그의 얼굴로 줄줄 흘러내리건만 삼룡이는 물을 닦을 생각도, 집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비를 다 맞으며 집앞 언덕에 서있었다.

《귀한 비나 맞어나 두자. 여기는 흔한 비지만 내 고향에는 오직이나 귀한 비방울이냐? 아직도 이종을 못하고있다니.》

삼룡이는 고향에서 제일 큰 동인 학다리등판을 생각해보았다.

《금년이나 농사를 잘 지어야 우리 동무들이 살아갈텐데. … 하기야 잘 지으면 뭘하냐? 잘 지으나 못 지으나 평생에 쌀밥 못 얻어보기는 매일반이지. … 고향! 고향! 정띄는 고향을 생각하면 뭘해?》

그는 머리를 흔들면서 고향을 잊으려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감았다 뜨는 눈앞에 보이는것은 역시 가물가물하는 비발속에 후줄근하게 젖었다가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학다리벌의 논이였다. 아니, 지금 삼룡이 눈앞에 열려있는 강서농장의 박답이 고향의 옥토처럼 그렇게 보이는것이였다.

바다를 막고 원을 쳐서 논을 이룬 이 농장은 간수가 되여서 파종을 두번이나 했건만 반의 반도 못 건졌고 이종도 몇번씩 했건만 뿌리채

간물에 녹아져버렸다.
《말이야 좋지. 논 스무마지기씩? 흥, 이따위 논이야 스무섬지기면 뭘해? 우리 녀편네 지랄하는것도 저만 나무랄수 없어. 말이야 다 옳은 말이지, 하나나 그른 말이야 있나? 집집마다 녀편네들이 못살겠다고 발광치는것은 당연하지, 당연해.》
삼룡이가 농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섰을 때 그 마누라가 부엌문에서 내다보며 소리쳤다.
《덕군 아버지!》
삼룡이는 못 들은체 하고 그대로 서있었다.
《덕군 아버지, 손님 오셨소.》
《뭐, 손님? 누구 왔는가?》
삼룡이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보며 마주 소리쳤다.
《어서 와 보시오그려, 봐야 알지 않소?》
마누라의 머리는 벌써 부엌문에서 사라졌다.
《손님이 어디 있어?》
방안에 들어온 삼룡이는 눈을 굴리며 손님을 찾았다.
《아니, 여보. 글쎄 빨래 해두 말리기가 얼마나 힘든줄 알고 일부러 비를 맞고 그리고 서있소? 옷 먼저 벗으시오.》
《비물이니께 이대로 말리면 얼른 마르지 않겠는가? 간수도 안 필테고…》
《해해, 참 대체 그렇겠소.》
마누라는 비로소 웃어보였다.
《그래서 손님 왔다구 거짓말 했는가?》
《옛소, 감자나 자셔보시오.》
마누라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감자그릇을 방안에 들여놨다.
《흐흥, 이놈들은 벌써 한개씩 차지했구먼. 자네도 들어가 먹소.》
조금전에 씩둑깍둑 말다툼했던 그들은 감자그릇앞에서 썩 의좋게 도란거렸다.
강서농장으로 옮겨온 이민들은 전부 고향에 반환시켜달라는 진정서를 총독부에 보내고 날마다 회사에 가서 속히 가게 해달라고 졸랐다.
《금년은 첫해니까 이렇지마는 래년은 돈 벌기가 훨씬 나아질테니까 그대로 견대여가며 살아보라.》

회사측에서 달래보았으나 그들이 필사적으로 덤비는것에는 어쩔 수도 없을뿐아니라 사실 농작물이 없을터이라 그 많은 식구를 겨울동안 먹여살릴 일이 딱한듯싶어서 이민들의 귀향을 주선하여주었다.

이리하여 팔월 중순에 그들은 꿈에까지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던 그의 고향에 다시 돌아가게 되였다.

불암리에서 온 열집 가족들도 물론 귀향하기로 작정하고 모여만 앉으면 고향의 얘기로 꽃을 피우고 기뻐하였으나 삼룡이는

《흥, 자네가 가면 고향이라고 누가 자네를 그리 반갑게 맞어줄줄 아는가?》

하고 빈정거렸다.

《아이고 참, 아모리 고향이 나쁘다 해도 여기보다는 낫지라우. 겨울에 여기서 살다가 죽으니 진작 고향에라도 가서 붙어살아보다가 굶어죽든지말든지.》

다른 녀인들은 신이 나서 삼룡의 말 대답을 하였다.

귀향한다는 새로운 희망에서 그들은 고생을 락으로 삼고 밤과 낮을 맞고 보내며 어서 그날이 닥쳐오기만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떠나기로 작정한 사흘전날 삼룡이는 강관옥에게서 이러한 긴 편지를 받았다.

《자네들 간 후로는 날마다 자네들 생각하기에 못살아갈것 같드니 그래도 자네들 대신으로 자네들 열사람의 행세를 할 군들이 생겨서 우리는 재미있게 합심해서 잘살아왔네. 그러나 진짜 배곯은 고생이야 누가 대신해줄 사람이 있던가? 만일 금년에 농사만 잘 지었더라면 우리는 세상없어도 자네들을 도로 불러올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하늘이 무심하여 작년에는 홍수로 자네들을 몰아내고 금년에는 개벽이래로 두번도 없는 큰 가물이 우리들을 마저 죽여 고향에서 쫓아내네그려. 저번 편지에도 여기 소식을 말했거니와 그후로 오늘까지 비 한번 아니 와서 모판은 말려지고 겨우 이종했던 나락(벼)들도 다 죽고말았다네. 우리 고향의 보배인 학다리 그 큰 들은 이종도 못해보고 벌건채로 그대로 자빠져있네.

이러니 흙에다가만 목을 메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작년 홍수때보다도 몇백곱이나 인심이 흉흉하고 온갖 병이 다 돌아다니네. 그래서 고향을 내버리고 타관으로 떠나가려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

어간다네.

삼룡이, 오늘도 우리 앞동네 정골에서 이십호 일백세사람이 함경북도 고무산에 있는 세멘트공장으로 떠나가는데 정말 눈에서 피가 떨어지네. 삼룡이, 나는, 이 강관옥이는 구월 초순에 함경북도 라진이라는 땅으로 로동자노릇을 하러 가게 됐네.

우리 동네서는 옥곤이네 큰형네하고 태술이네 삼촌, 영전이네, 형돌이네 그리고 강관옥이 합해서 다섯집 스물여섯사람이 죽어나가기로 했네. 인제는 우리 동네에 옛날 사람은 다 없어지고 다른 동네에서 살러 온 사람밖에 없네그려.

삼룡이, 고향이 대체 무슨 쓸데있는것인가? 자네들 보내고나서 뚝 끊어졌던 노래가 요새는 다시 살아나서 야단이네. 정답던 고향이건만 묵은채로 자빠져있는 논을 보면 인제는 그만 정이 뚝 떨어지고 어서 하루바삐 타관으로 가서 고향의 참혹한 꼴을 안 보고싶네. 말을 들으니 자네들도 고향에 오기를 생각한다네마는 자네들이 왔자 누가 하나 반갑게 자네들을 맞아줄 사람이 없겠네.

삼룡이, 인제 우리는 정말 죽어서 저승에 가서나 만나보겠네. 자네나 내나 더욱 좋은 일만 하세. 좋은 일을 하면 극락에 간다지 않는가? 둘이 다 극락에를 못 가겠거든 차라리 똑같이 지옥에나 가세. 고향에서 쫓겨나는 우리같은 놈들에게 남는것이 악뿐일텐데 어찌 좋은 일을 해보겠나. 자네나 내나 몸만 성하면 혹시 어느 하늘밑에서 또 모이게 될지 누가 알것인가?

할말은 산같이 쌔고쌨네마는 가슴이 답답해서 더 못쓰겠네. 떠나기전에 자네 답장 받아보도록 편지나 한장 해주게.》

편지를 읽은 삼룡의 입이 씰룩씰룩 이그러지고 손이 벌벌 떨리더니만 굵은 눈물방울이 눈에서 뚝뚝 떨어져내렸다.

그는 편지를 다 읽고나서 잠간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회사로 달려갔다. 그날 밤에 삼룡이는 관옥에게 이런 답장을 써보냈다.

《자네의 만지장서를 받고 나는 회사로 달려가서 모레 떠나기로 한 귀향사건을 중지하고말았네. 내가 가지 않기로 하니 동무들도 다 아니가기로 했네.

자네는 고향을 떠나는 사람을 보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마는 우리는 죽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차고 무정한 고향을 박

차버리고 나오는 영웅이라고 생각하네. 우리는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네. 고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고향을 못 잊어하는 설음이 있겠나. 어디든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을 우리의 고향으로 만듭세.
너무 비감하지 말게. 맘을 든든히 먹고 두팔을 단단히 갈아서 우리의 살아나갈 길을 뚫어보세.
우리는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니 고향을 떠날 때 뒤돌아보지 말게.
앞만 바라보고 호랑이같이 사납게 나가보세. 알어듣겠나? 동무들에게 이 뜻을 말해주소. 다음 또 쓰기로 하고 이만 줄이네.》
편지를 다 쓰고난 삼룡의 손끝은 새로운 기운에 와들와들 떨렸다.

《신동아》 1937.

부 부 도

장 덕 조

열어제낀 북창으로부터 산뜻한 바람이 스며들며 연해 기침이 났다.
아직 8월 중순이라 하지만 날세가 음울한 까닭인지 부는 바람은 꽤 쌀쌀하였다. 판선이는 창을 닫으려고 일어서려 하나 손가락 하나 꼼짝할수없이 노곤하며 암만 해도 발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억지로 자리우에 웃몸을 일으키고 새삼스레 메여오르는 힘없는 기침을 겨우 진정하였다. 여름의 감기, 몸살은 쉬이 안 낫는다고들 하지만 그는 이 2, 3개월이래 영 낫지 않는 몸의 괴로움을 심상히 보아넘길수 없었다.
가벼운 기침과 함께 구미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 몇날동안은 손발을 놀리는것까지 귀치 않으니 이것이 혹시 요사이 마을처녀들이 읍내 공장에서 들어가지고 돌아오는 폐병이라는것이나 아닌지 하며 공연히 설음이 북받쳐서 아직도 벗지 못한 베치마자락으로 코, 눈물을 훔치군 한다.
그러나 판선이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애써 그것을 물리치려 했다. 번연히 속는줄 알면서도 끈직끈직한 희망의 줄기가 암만 해도 그

의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있기때문이였다.

시집온지 7년에 나이 스물여섯이나 되였건만 아직 아기를 가지지 못한 그는 가슴만 조곰 묵직하여도 곧 이 일에 련결시켜 앞, 뒤집 늙은이들에게 임신의 증세를 물으러 다니였다.

그러면 이번의 이 불쾌한 몸의 변조도 당장 그렇게 작정해버렸으면 좋으련만 원체 여러번 속은 끝이요 또 있어야 할것이 바로 전달 그믐께 있지 않았던가.

그는 마당에서 모이를 쫓고있는 닭들을 바라보며 언제까지나 시름없는 생각에 잠겨있었다.

《사동댁 계신지요?》

사립짝이 삐꺽 소리를 내고 크다란 물동이를 인 똥덕네가 기우뚱 들여다본다.

《무엇을 그리 골몰하게 생각하시우?》

《녜, 똥덕 어마이!》 하면서 판선이는 그만 다음의 인사말이 막혀버렸다.

어마이란 소리가 그에게 말할수 없이 불쾌한 감상을 준것이다.

자기는 삼십이 가까웁건만 아직도 택호를 불리우는데 서너살이나 아래인 똥덕네가 벌써 세자식의 어미라니 그는 똥덕네의 짧은 저고리밑으로 드러나는 통통 불은 젖꼭지를 깨물어주고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았다.

《래일이 추석이라는데 어째 이리구 앉었소? 토란이라두 좀 파오지.》

말 좋아하는 그는 물동이를 퇴마루에 내려놓으며 한바탕 이야기판을 차리려든다.

《오늘은 당신네 령감도 오겠네, 우리 집 덕이 아버지도 온다니까. 오라, 관상네 댁을 만났드니 그 집 령감도 오늘 일을 나갔대. 그리구 오늘 차례 사람들도 모두 쉰다고 하드래—》

그들의 남편은 90리나 떨어져있는 R면 수문공사의 한산(직업이 없는)인부들이였다. 가진 땅바닥도 없고 얻어부칠 논때기도 없는 그들은 한재농민을 구제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는 그 저수지공사의 역군모집에도 수십전에 불과한 임금을 다투어 벌떼보다 더하게 몰켜나갔다. 륙백명이나 넘는 응모자를 어떻게 도스릴(다잡음)줄 모르는 감독들은 일을 격일 교대제로 하였다.

지나친 로동과 심한 주림에 지친 몸들이였으나 남편네는 쉬는 날마

다 백리길을 걸어서 안해와 자식있는 이 마을로 돌아왔다. 그러던것이 래일이 추석이라고 오늘은 공사를 쉬게 한다는 말이다.

농민들은 그것을 매우 기뻐하였다. 제 입으로 들어가는 하루의 밥벌이도 귀하였으나 밥 한그릇, 술 한잔의 보잘것 없으나마 조상에게 드리는 차례도 중하였던것이다.

《후우.》하고 판선이는 길게 한숨을 쉬였다.

남편이 돌아온데야 다름없이 쓸쓸한 이 집안이 아닌가.

그는 다시 남편이 오는 날마다 그의 몸에 스며있는 흙냄새와 남포약냄새가 코로 파고들어서 한결 더 기침과 구역이 심해지는것을 생각하였다.

농군의 딸로 태여나서 로동자의 안해가 된 몸에 흙냄새가 싫다니— 그것은 흙냄새도 바로 맡을수 없을만큼 몸이 쇠약해진 까닭이였다.

그는 새삼스럽게 허청한 그 두손에 덤직히 안기여줄 어린것이 미칠듯이 그리웠다. 젖내가 모락모락 나는 조고만 살덩어리, 그것만 하나 있다면 집안도 이다지 쓸쓸치 않으려니와 첫째 남편이 집에서 쉬는 밤을 좀더 편안히 맞을수 있겠건만. …

그가 돌아오는 밤 안해는 포삭 바스러질듯이 괴로운 몸을 겨우 거누면서 바위같이 두꺼운 남편의 가슴에 깨여져라고 부딪쳐드는 놀라운 노력을 생각한다. 아기를 얻으려는 무서운 소망은 이 몇해동안 가뜩이나 허약한 그에게서 남은 정력과 생기를 모조리 빼앗아갔다.

판선이는 연해 무엇이라고 조잘거리고있는 덕이네에게 대꾸할 기력도 없는듯이 끝없는 자기 시름에 잠기여있었다.

불현듯 맺힌 눈물이 방울이 되여 당목적삼앞섶우에 뚝뚝 떨어졌다.

《왜 그리시우? 몸이 고단하면 별생각이 다 나니…》

똥덕 어매는 그의 산란한 심중을 다 짐작한다는듯이 나불거리는 입술을 닫고 일어섰다.

《괴로울 때는 푸는것이 제일이지. 저기 령한 판수가 왔답니다. 아주 백발백중이래요.》

《어디매, 뉘집에?》

판선이는 일어서는 똥덕 어매 치마자락을 휘여잡았다.

《사립댁네 사랑에 정말 말하는대로 령하다고 아까 물터에서 야단들이여.》
《나 갈래. 여보, 어렵겠지만 날 좀 데불어다주시우.》
미친듯이 부르짖고 슬그머니 치마끝을 놓았을 때
《예, 내 이 물 붓고 오께. 속시원하다.》
하는 똥덕 어매 소리가 다시 들리였다.

×

신의, 한의 다 떼를 지어 병원을 벌리고 닿다는 T시도 다뭇 100리에 자동차가 쏜살같이 통하고있다건만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 쓸데없는 소리였다.
더우기 가난하고 무지한 이 마을사람들에게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처방— 이름도 없는 풀잎을 썰고 말리고 한것이 유일의 처방이 될뿐 가다오다 들리는 무당, 판수들에게서 간단한 무꾸리를 하는것이 병든자와 시름있는자에게 있어 가장 큰 료법이였다.
판선이도 허청거리는 다리를 똥덕 어매에게 버티면서 겨우겨우 사립집 사랑을 찾아갔다.
그의 품속에는 시집올 때 해가지고 온 단 하나의 자랑인 쌍가락지가 백지에 싸여 깊이깊이 감추어져있었다. 녀인네들이 찾아오면 의례히 자녀가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부(시어머니와 며느리)간 혹은 부부사이에 불목(화목하지 못함.) 원인이라고 혼자 작정하고있는 이 늙은 판수령감은 사람들의 쑥덕이는 소리속에서도 얼른 그의 번민을 짐작할수 있었다.
《허, 자식이 귀하시군!》 하는 그의 말이 미처 떨어지기도 전에 판선이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다.
《전생에 원, 죄가 많아서 칠성님이 노하였소.》
령감은 노래하듯 류창한 목소리로 읊기 시작하였다.
《당신은 전생에 소이였소. 그런데 먹기만 많이 하고 일은 못했고 또 주인에겐 불순했을뿐더러 그의 아들까지 받아 죽였구료.》
판수는 탄식하듯이 길게 한숨을 쉬였다.
그의 본듯이, 아는듯이 늘어놓는 말에 판선이는 그만 가슴이 메여

지는것 같았다. 그것은 영양이 나쁜데다 다시 무섭게 고로한 까닭으로 결핵균이라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고만 미균이 지금 그의 가슴을 파먹고있다는 어렵고도 믿어지지 않는 그까짓의 학적설명보담 얼마든지 손쉽게 그들에게도 리해할수 있는 말이였다.

더우기 맛난것만 먹고싶고 일은 죽도록 하기 싫은 자기, 다시 자식까지 없는 몸임을 돌이켜볼 때 그것이야말로 주인아기를 받아죽인 죄까닭이다라고 그 늙은이의 하는 소리소리마다 귀신같이 신통하게 들리며 그저 죄송스런 생각은 눈물만 자아낼뿐이다.

《그러나 팔자에도 자식이 있어 그저 죄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지!》

령감은 다시 산을 집어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 팔자에 30전 자식이 보이니 하다못해 남의 자식이라도 하나 생겨서 내 자식 못지 않게 종신하리다.》

판선이는 처음으로 살길을 얻은것같이 눈앞이 환하여졌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죄땜을 하갔쉬까?》

하며 앞으로 자기도 모르는 틈에 다가앉으며 물었을 때

《몸풀이를 해야지.》

하고 령감은 천연스레 받아넘기였다.

판선이는 어떻게 몸풀이를 해야 좋을지 몰랐다.

다만 《정성으로.》 하던 판수의 말을 뇌이고뇌이면서 무르익은 논두렁길을 걸어왔다.

×

오정이 훨씬 넘었을 때 마을 녀편네의 서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그들의 남편들이 언덕굽이를 돌아오는것이 보였다.

손에손에 들고오는 빈약하나마 정성스런 추석빔을 받으려고 내닫는 녀인네들의 뒤흔드는 궁둥이를 피해나듯 판선이는 얼른 미닫이를 닫아버렸다. 아빠, 아빠 부르면서 매달리는 어린것들의 꼴도 보기 싫었지만 구리빛으로 빛나는 남편의 완강한 몸그늘에서 부딪치면 바스라질듯 한 제 모양을 감추려 함이였다.

그러나 남편의 말소리는 지극히도 빨리 창가에 들리였다.

인조견 저고리감, 분홍빛꽃고무신, 안해를 사랑하는 남편의 진정은

그의 조고맣게 웃고있는 눈가에 력력히 나타나고있었다.

《전생에 죄많은 년이건만!》

그는 아까 사립댁 사랑에서 판수의 하던 말을 생각하였다.

—전생에 지은 죄의 가지가지가 이 영문 모를 병을 가져왔을뿐더러 남편의 후사까지 끝나게 하였다. 죄송하고 미안하여 도리여 원망스런 생각까지 드는것이다.

짐승보담 더하게 일과 주림에 휩쓸려서 신식사람들처럼 사랑이니, 련애니 하고 거들거릴 여유인들 어데 있으랴마는 그래도 남편은 안해를 아끼고 안해는 거기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할줄 아는 사람들이였다.

판선이는 이루 말할수 없는 고마움과 죄송함을 그 약한 전신에 담뿍 담아 그래도 남편에게 전하려고 애썼다.

《그래, 그게 그다지 좋아?》

남편은 만족한듯이 안해의 다리를 끌어당겨 그의 자그마한 발에 새신을 끼워보고 다시한번 방긋 웃었다.

《나 당신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할래. 죽기까지라도!》

맨발에 분홍신을 신은 안해는 얼굴을 빨갛게 흥분시켜 그 남편에게 굳이굳이 충성을 맹세하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몸풀이를 하여 아이도 얻고 병도 고쳐보고싶었다.

×

남편은 지금 곧 밭에서 파가지고 돌아온 토란을 씻으면서 코노래를 부르고있었다.

황새 황새 저 황새야
너 어디메 갔다 왔노
수양 청청 버들 낢에
내 사랑을 찾어왔네

황새 황새 저 황새야

너 어떻게 자고 왔소
이불 덮고 꽃베개 베고
곤한 잠을 자고 왔네

그것은 그가 아주 읍내 김참사네 머슴으로 있던 총각때부터 즐겨부르는 노래였었다.

앞뒤에서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요란하건만 노래소리만이 청승스럽게 흐르는 그들의 집안은 절간같이 적적하였다.

판선이는 번듯이 드러누워 멀거니 천정을 바라보며 오늘 밤에 베풀어야 할 정성을 생각하였다. 한가지 생각은 5분을 계속하지 못하고 토막이 지며 흐트러지군 한다. 병의 위중함은 아까 처음으로 길가에 나갔을 때 동리사람들의 측은한듯이 바라보는 눈초리에서도 짐작하였지만 한시간도 못되는 그동안의 외출에도 갑자기 더해지는 피로와 고통에서도 기막히게 느낄수 있었다.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우에 두손을 꼭 대이고 까부러지려는 정신을 억지로 바로잡으며 남편의 노래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밤이 가까와올수록 점점 더 괴로와지며 꼼짝도 할수없이 그저 바스라질듯 한 몸이 무서웠다.

옓은 가슴이 찢어낼듯이 놀라운 고통이 미여오르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앞산에 열나흘 달이 걸릴 때 생각다 못한 그는 아까 남편이 사다주던 저고리감과 고무신을 도루 뭉쳐쌌다.

혼자 마당을 거닐며 무엇이 그리 기쁜지 연해 흥성거리는 남편을 불러 그의 커다란 손에 뭉치를 내밀었다.

《왜?》

《읍내에 나가서―》 안해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구석으로 돌렸다. 이 영문 모를 그의 가슴속을 착한 남편은 헤아리려 애썼다.

《갈보, 갈보 가져다주고― 놀다 오시오. 달은 밝은데―》

선량한 남편이였다.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모르고 사십이 넘은 늦장가에 벌써 머리에는 흰 털이 번뜩이였건만 안해만은 천하에 대견한줄 아는 남편, 일터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병든 안해곁에서 날과 밤을 보내고는 마을 한번 안 다니는 사람이였다.

더우기 갈보를 찾아 읍내를 나감에랴, 그 심한 로동과 놀라운 학대 속에서도 점심을 굶는 그— 그러나 안해의 밥그릇에는 쌀 섞기를 원하였다.

안해를 살리기 위하여 산속에서 돌파기를 생명으로 아는 남편— 판선이는 버티고선 그의 거칠게 패인 얼굴을 쳐다보았다.

순간!

《음—》 남편의 커다란 손이 번뜻하자 불같은 따가움이 안해의 뺨우에 뛰였다.

《이년아, 남의 속을 글쎄 그렇게 몰라? 너까지… 응, 너까지!》

야수같은 노여움이 그의 전신을 저리게 하였다.

《나는 네가… 나는 새끼가… 자식도 일없다.》

그의 눈에는 불이 일며 말까지 바로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죽나부다.》 때린 남편만이 그렇게 생각한것이 아니라 판선자신이 역시 깜빡 꿈결같았다. 동시에…

뭉클하면서 목을 넘쳐난 피덩이가 해여진 삿자리를 새빨갛게 물들이였다. 부지중에 남편은 덥석 안해를 안고있었다.

그 거치른 한손으로 안해의 가슴을 내려쓸며 연해 끼룩끼룩 넘쳐나는 붉은 덩이를 다른 한손으로 받아내였다.

《잘못했다.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는 진정으로 소리를 내여 울었다.

부부의 길은 흙을 나르는 지게의 두질방! 생활은 지게우의 흙짐! 그 지게의 한줄이 짐을 싣고가는 도중에 낡아 끊어지려 하고있는것을 그는 여태 몰랐다.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안해의 병이 얼마나 위중한것임을 알았다.

아, 짐을 쏟을번 했었구나. 공사의 인부인 그는 짐을 쏟는다는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안다. 걷던 사람은 그밑에 깔리고 십장의 채찍은 화살같이 약바르게 날아오는것이다.

그는 지금 길게 팔에 안기운 안해를 내려다보았다. 피기 잃은 입술이 간신히 떨린다.

《뭐?》

《난 죽어도 좋아.》

《죽긴, 죽긴 왜 죽어?》
남편의 목소리는 새로운 울음에 막히였다.
《죽지 말아, 너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테야.》
안해의 감은 눈에서도 눈물이 넘쳤다.
《살아라, 살아야지. 집에서 조섭하다 T시에 가서 의사 보이고 약 지어먹고…》

×

백옥같이 맑은 달빛이 다시 정신을 잃은 안해의 얼굴을 비치여 그의 입가에 떠오른 웃음을 선녀같이 아름답게 해주었다.

《신가정》 1934. 12.

정 현 수

백 신 애

《명희. 리명희씨. 허위. 가식.》
치과의사 정현수는 책상우에 접히운채로 놓여있는 그날 신문지우에다 모재비글씨로 이렇게 휘갈겨 써보았다. 그때 건너편 기공실에서 조수로 있는 병일이가 더위를 못이겼음인지 바쁘게 부채질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얼른 펜끝에 잉크를 담뿍 찍어 박박 긁어낼듯이 이자 쓴 글씨를 도로 지워버렸다. 그리고 담배를 한대 꺼내물고 아침에 청소한 후 아직껏 환자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 깨끗하게 정돈된 그대로 있는 치료실안을 휘 한바퀴 돌아본 후 반질반질한 치료의자우에다 잎속에 숨어있는 봉선화같은 명희의 환영을 그려보았다.
그는 두눈에다 모든 정력을 집중시켜서 치료의자가 놓인편 공간을 응시하였다.
가느다란 두눈을 옆으로 흘기듯이 구을리며 살짝 웃는 발그레한 입술, 통통한 어깨우에다 아래턱을 얹고 몸을 쫑긋해보이는 귀여운 표

정, 겨울이나 여름이나 옥색치마만 입으려는 그 명희의 환영에 현수는 혼을 잃고 앉아있었다.

《명희씨, 당신은 왜 옥색치마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옥색치마를 좋아하는것이 아니야요. 옥색이란 그 빛갈이 좋아요.》

《왜 구태여 옥색입니까?》

《모르겠어요. 어쩐지 옥색을 보면 천변만화하는 이 세상에서 영원과 무궁이란것을 알으켜주는것 같애요.》

《그럴가요. 나는 흰빛과 새까만 흑색이 더 좋은데요. 옥색은 곧잘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된 옥색이야 잘 변하지요만 저— 광대무연의 하늘색이야 어디 변합디까. 구름이 끼이고 밤이 오고 하면 없어지지만 그것은 다만 우리의 육안이 보지 못함에 불과하지 않아요. 비록 내 치마에 들린 하늘빛이 변하여 누렇게 된다드라도 내 맘속에 비치여있는 그 맑은 옥색, 하늘색, 저—바다물색이야 변할수 있어요?》

《분홍색은 어떻습니까?》

《아주 싫어요. 아무리 고운 꽃이라도 그 색갈이 붉은 계통의것이나 누른 계통의것이라면 아주 싫습니다. 나는 작년 봄부터 푸른 꽃 즉 옥색꽃을 찾아보려고 높은 산으로 저 먼 들끝으로 쏘다녀보았어요. 그래도 없드군요.》

《옥색꽃쯤이야 꽃장사집에 가보면 더러 있지요.》

《그렇습니까? 나는 암만 찾어봐두 아주 락망을 했어요.》

《왜요?》

《허위와 가식만으로 된 이 세상을 저주하는 나의 동지가 하나도 없는것 같애서요. 푸른 꽃은 많은 꽃중에도 가장 심각한 진리의 탐구자 같게 생각되여요.》

《그렇습니까. 나는 새까만 꽃이 있다면 더 심각한 맛이 있게 보이겠는데요.》

현수는 명희와 몇날전에 이러한 대화를 하든것이 생각나며 눈이 스르르 감기였다.

《아아.》

그는 버럭 속이 상하는듯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네? 그렇습니까? 나도 푸른 저 하늘색과 저 망망대해의 그 물빛을 사랑합니다. 이놈의 세상은 허위와 가식으로만 된 사회입니다. 모조리 초랑이탈쓴 놈의 사회지요. 참다운 인간의 사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 속맘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는 나와 리상을 같이하는 유일한 동지이다. 그렇다. 명희씨는 천박하게 입으로나 행동으로써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나도 그렇다. 결코 서로의 맘속을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맘안에는 내라는 이 정현수가 꽉 차있다. 뻔뻔스럽게 무슨 자랑같이 맘속을 서로 고백할수 없는것이야. 세상놈들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지.

현수는 팔짱을 끼고 턱 버티고 섰다.

《이 세상에서 심각한 진리를 탐구하여마지않는 사람은 오직 명희씨와 나뿐이다. 그는 옥색을 사랑한다. 저 망망한 바다의 색도 파랗다. 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참, 현해탄은 바다라도 왜 물빛이 검을가!》

현수는 갑자기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자 뚜벅뚜벅 걸어서 거리로 향한 창턱에 가 턱을 고이고 기대섰다.

거리에는 오후 3시의 뜨거운 태양이 불같이 내려쪼이고있는데 한대의 택시가 기운좋게 달려가고있었다. 바람결이라고 실가락만한것도 살랑하지 않고 택시가 지나간 뒤에 일어나는 뿌연 먼지는 지옥에서 타오르는 류황불꽃같이 거리를 휩싸덮었다. 길가던 가지각색 사람들은 모조리 외면을 하며 먼지를 피했다. 그런데 한 늙은이, 촌이라도 아주 구석진 곳에서 온듯 한 텁텁한 옥색두루마기에 큰 갓을 쓴 그 늙은이는 류별나게도 그 더러운 먼지에는 전연 무관심한듯 아래턱을 쑥 내밀고 입을 헤 벌린채 찬란스런 거리의 좌우에 정신을 잃고 두리번두리번하며 천천히 걷고있었다.

명희가 좋아하는 옥색두루마기를 입은탓인지 현수는 그 늙은이가 입을 벌리고 더러운 먼지를 마시는것이 안타까왔다.

《저런 멍텅구리라고, 제 목구멍에 먼지 들어가는줄도 몰라.》

아주 성이 나 꾸짖듯 중얼거리며 쫓아가 그 촌늙은이의 아래우턱을 한주먹 갈겨 철거덕 붙여주고싶어 가슴이 서물거렸다. 그러나 그 촌늙은이는 한결같이 입을 벌린채 저편 굽이를 돌고말았다.

현수는 얼른 책상곁으로 달려가 부채를 집어 활짝 펴들고 슬렁슬렁 부치며 또다시 창턱에 가 턱을 고이고 기대섰다.

《그놈의 자동차, 건방진 놈의 자동차, 누구 한사람에게도 미안하다는 인사도 없이 온 길거리를 제혼자 독차지나 한듯이 의기양양하게 맘대로 다니누나. 횡포무례한 놈의 새끼.》

그는 갑자기 무럭무럭 분노가 타올랐다.

넓은 길바닥을 제집 뜰같이 네활개를 치고 달아나는 자동차들이 횡포무례막심하게 보이여져서 당장 달려가 시비를 하고싶었다.

현수는 자기 맘속을 표현하기 어려울 때나, 분이 날 때나, 어색할 때나 또는 너무 감격할 때에는 반드시 목에다 잔뜩 힘을 주며 턱을 앞으로 높게 길게 추켜 빼올리고 다섯손가락을 따로따로 쫙 벌리고서 카라(양복이나 와이샤쯔의 깃)안에다가 둘째손가락만을 꼬부랑하게 넣어서 목울대결을 가만가만 긁는것이 버릇이였다. 그는 지금도 쫙 벌린 오른손 둘째손가락으로 죽 빼올린 목울대결을 두어번 가만가만 긁었다. 그리고 《에— 이》 한숨을 한바탕 쉰 후 다시 창턱에 기대섰다.

그때 길거리에는 고삐를 잔뜩 잡힌 말 한마리가 헐떡거리며 짐수레를 끌고 지나갔다. 현수는 또다시 감개무량해서 슬렁거리는 부채를 접어 무릎을 탁 치며

《아, 가엾어라. 저놈의 말이 왜 저 모양이야, 그만 뚝 뛰여 달아나지 않고. 한발만 걷어차면 나딩굴어질 사람놈에게 일부러 매여달리워 저런 고생을 하는구나. 어, 빌어먹을 놈의 말새끼.》

하고 부르짖었다. 또다시 그의 속은 버럭 상해지며 가슴이 설레였다.

(아니다. 저 말이 멍텅구리가 아니다. 그렇다. 그는 힘없는 사람놈들을 위하여 자기의 한몸을 희생하고있는것이다. 악착한 사람놈들은 고마운줄도 모르고 순종하면 할수록 자꾸 더 두들겨 부리겠다.)

현수는 대가리를 꿈벅거리며 수레를 끄을고가는 그 말이 흡사 명희와 자기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 망할놈의 세상에게 희생해주는것이 옳은 일일가? 아니야, 아니야. 과거의 인류력사란 고삐에 나는 단단히 묶이여있다. 나는 용감하게 묶은 줄을 끊고 일어서야 한다. 이 현실에 희생한다는것은 조금이라도 더 이 더러운 현실을 조장시킴에 불과한것이다.》

그는 주먹을 쥐고 문턱을 탁 치려다가 말고 그 손을 쫙 펴가지고 목울대를 가만가만 긁었다.

《그러나 참는것이다.》

그는 또다시 창턱에 기대섰다.

《아니 이 자식, 무엇이 어째? 인간이란 본래 허위, 가식으로 된거야. 죽어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 면천은 못하는거다. 아니다. 이 자식아, 무슨 이런 생각을 해. 참으로 인간이란 허위, 가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나는 이놈의 세상에는 살아있지 않을테다. 아니다, 그렇지도 않은것이다. 말똥에 구을러도 이생이 좋다는데…》

그는 다시 부채를 슬렁슬렁 부치기 시작했다.

《아, 공연히 온갖 오라질 생각을 다 하는구나. 차라리 저 말새끼놈이 나보다 행복하다, 이따위 밑도 끝도 없는 생각도 헐줄 모르고. 아니다. 말새끼같이 무의무식하다면 나을게 뭐 있나? 그렇지도 않다. 마찬가지다. 말도 무슨 번민이 있는지 알수 있나. 어떻게서든지 돈이나 좀 있었으면 형님의 은혜를 조곰이라고 갚어야겠는데.》

현수는 자다 깨인 사람처럼 창턱을 떠났다.

《선생님, 손님 오셨습니다.》

그때 기공실에 있던 병일이가 바쁘게 뛰여나오며 랑하에 선 중년신사 한분을 치료실안으로 안내해드렸다. 사흘만에 처음 대하는 손님이다. 병일이는 부리나케 신사에게 치료의자를 가리키고 컵(고뿌)에 물을 떠서 들고 섰다. 현수는 뻣뻣하게 선채 움쭉도 하지 않았다.

《더러운 이놈, 정현수야. 제 돈 벌기 위하여 살살 쥐새끼처럼 손님에게 아첨을 하려느냐?》

그는 창턱에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던 자기의 가슴을 쥐여뜯고싶을만치 구역이 났다.

현수는 치과의원을 개업한지가 2년이 넘었으나 한번도 량심에 꺼리끼는 치료를 해준적이 없었다. 그는 환자를 대하여 서선 어느 사이엔지 자기란것은 없어지고마는 동시에 치과의사란것이 자기의 직업이란것도 잊어버리고마는것이였다. 개업시초에는 꽤 많았던 환자가 차차 줄기 시작하여 이해부터는 일주일에 겨우 두셋 손님이 있을뿐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현수의 치과의로서의 기술이 부족함도 아니요, 성의없는 무책임한 치료를 하는 까닭도 아니였다. 단순히 현수가 환자의

비위를 맞추어주지 않는 까닭이였다. 그것도 현수가 거만스러워 그런것이 아니라 맘속으로는 백배, 천배 친절하나 다만 입으로나 행동으로 표현하기가 가식같아서 언제든지 묵하고있는 까닭이였다. 세상사람이란 우선 눈앞에 살랑거리는 감정에만 흐르는것이다. 참으로 정성껏 장래성있는 치료를 해주는 현수는 알아주지 않는것이였다.

그러므로 조수인 병일이가 마치 어진 안해처럼 충고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 《글쎄 주의할테요.》 하고 대답은 시원스러우나 다음에 환자가 오면 컵에 물을 따라서 환자의 입에 대여주다가 《이놈, 돈벌이하려고 손님에게 아첨하는구나.》 하고 바라보는것 같아서 컵을 배타기우에 철커덕 놓고 《양치 하시오.》 하고 명령하듯 버티고서버리는것이였다.

이러한 현수의 성미를 잘 아는 병일이는 오늘 또 손님과 무슨 충돌이 생길가 해서 미리 컵을 내였다. 그것도 손님이 돈푼이나 있어보이는 사람이면 반드시 한번씩 충돌이 일어나는것인줄 잘 알고있는 까닭이였다.

《설마 저도 사람이니까.》

병일이는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벌써 3개월째 수중에서 확정이 된 현수의 속판을 아는 그였던 까닭이다.

병일이는 미리 현수에게 슬금슬금 시선을 보내면서 《먼저 양치부터 해보실가요?》 하고 신사에게 친절하게 써비스를 했다.

신사는 묵하니 서있는 현수를 힐끔 바라보며 입안을 씻은 후 뒤로 제쳐누우며 입을 벌렸다.

《어째서 오셨습니까?》

현수는 그제야 치료의자곁에 다가서며 탐침 (찔러보는 기구)에다 탈지면을 휗휗 감아 조고만큼한 면구를 만들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신사는 좀 이상하다는듯 한 표정으로 《이가 아퍼 왔지요.》 하였다.

《아, 그런줄이야 모르겠습니까?》

현수는 여전히 면구만 만들며 태연스럽게 뚝 쏘았다.

《…》

신사는 성이 불쑥 났는지 잠자코 벌떡 바로 앉았다.

(이키, 또 야단나는구나.)

병일이는 입맛을 다시며 얼른 곁에 가 섰다.

《허허허, 많이 앓으셨습니까? 전에는 어데서 보였었어요.》

현수는 병일의 시선과 마주치자 이렇게 어색한 웃음을 웃으며 치경을 들고 허리를 구부렸다. 신사도 입맛을 다시며 입을 벌렸다.

《아차, 이것이로구면요. 많이 앓으셨습니다. 웨 이렇게 나빠지도록 그대로 두셨습니까? 미련하게 그대로 두면 나을줄 아셨어요?》

현수는 그만두어도 좋을 말이였지만 신사에게 턱없이 머리를 숙이면 아첨하는것 같게 보일가봐 일부러 되는대로 중얼거렸다. 신사의 얼굴에는 불쾌한 빛이 력력히 떠올랐다.

《자, 이러니 아프십니까?》

현수는 치경으로 보이는 새까맣게 구멍이 뚫어진 어금이 한개를 두서너번 똑똑 두들기였다.

《아야, 아야.》

신사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입을 다물려 했다.

《그까짓것 무엇이 아퍼요?》

현수는 신사의 붉어져가는 얼굴에는 무관심하고 열심으로 앓는 이를 치료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엔진을 들고 신사의 입안을 긁기 시작한지도 한시간이나 되였다.

병일이는 벌써부터 혼자 (오늘은 대강 해가지고 보낸 후 래일 또 오라면 어떤고.) 하고 속을 조리는판인데 다른 환자가 또 하나 들어왔다. 그러나 현수는 신사의 입안에서 엔진을 떼지 않았다.

다른 의사 같으면 15분 내외에 마치고 몇날이든지 끌며 치료를 시켜 돈을 버는것이였으나 현수는 그렇지 않았다. 아무리 오래 치료를 해주고도, 공력을 많이 들여도 초진비로 50전밖에 받지 않는것이였으나 그는 자기의 직업의식을 떠나 손님본위의 치료를 해주는것이였다.

등에서는 땀이 개울물같이 쏟아져내리면서도 (더운데 손님이 몇날이나 어떻게 치료받으러 다니겠나. 될수 있는대로 단기일에 마쳐야지.) 하는 생각에 자기의 전심전력을 다해 열심으로 치료를 하며 시간 가는줄 모르고있었다.

《아마도 내 이는 충치(벌레가 파먹어서 앓는 이)가 아니라 풍치(벌레가 먹지 않는 이외의 앓는 이)인듯 한데 웬 치료를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신사는 현수의 맘속과는 반대로 기술이 부족하여 오래 끄는줄만 알고 이렇게 화를 내였다.
《풍치라고요? 아닙니다. 충치올시다.》
현수는 너무나 세상놈들은 자기의 맘을 몰라주는것이 쓸쓸하였다. 자기가 정성껏 해주면 줄수록 세상사람들은 그를 원망하는것이 쓸쓸하였다.
《그래도 아픈 품이 풍치라오. 그만두시오.》
신사는 지지 않으려는듯이 말했다. 현수는 불뚝 성이 났다.
《아, 당신이 의사입니까? 어떻게 풍치인지 단정하시오. 충치라면 충치로 알것이지 어째서 풍치란 말씀이요?》
현수는 엔진을 쥔채 이렇게 꾸짖듯 버티고섰다.
《에 여보, 그만두오.》
신사는 그만 벌떡 일어서고말았다.
《아니 여보시오, 잠간만 앉으시오. 그대로 두면 또 앓습니다. 우선 약솜이라도 막아가지고 가시오.》
현수는 례사라는듯이 태연한 얼굴로 신사의 팔을 잡았다.
《그만두시오. 당신만이 치과의사가 아니요. 그대로 참고있으려니 점점 더 불친절한 소리만 탕탕 하는구려.》
신사는 기어이 치료의자아래에 내려서고말았다. 현수는 그제야 불뚝 성을 내며 신사의 팔을 꽉 잡고
《여보십시오 아니, 이 못난 자식, 잠간만 참으라면 참아보는것이 신사이지 무슨 변덕쟁이가 이 모양이야. 잔말말고 도루 앉어라. 그대로는 내 목이 떨어져도 못 보내겠다.》
《아하, 이 자식 정신병자로구먼. 이것 못 놓을텐가?》
신사는 금방 주먹이 올라갈것 같이 씩씩거리며 입술이 풀어졌다.
《어허, 그러지 말고 도로 앉어라. 한번 내 손으로 치료하던것을 그대로 무책임하게 네놈이나 죽든살든 내버려두지 못하는것이 내 성격이다. 좌우간 우선 분을 참아두었다가 이 치료나 하거든 격투라도 하자.》
현수는 두눈을 부릅뜨고 한결같이 우겨댔다.
《아! 이런 봉변이 어데 있나, 이런 망할놈이.》
신사는 덜덜 떨며 분을 내였다.

《이자식, 너만 분하오, 나도 분해 죽겠다. 어서 치료를 하고 격투하자. 어 분해.》

현수의 기세는 점점 올라가고있었다.

《선생님, 참으십시오. 의사선생님은 본래부터 성질이 이렇습니다. 잘 리해하시고 보시면 결코 노하실것이 아닐것입니다.》

병일이도 속이 상해 바라보고만 있다가 마지 못하여 신사의 앞에 가 빌었다.

현수는 이윽히 신사의 팔을 붙들고있다가 한걸음 물러서며 팔을 놓았다.

《잘못했습니다.》

현수는 신사의 앞에 머리를 숙였다. 그의 가슴속에서 의사로서의 자기의 태도가 잘못되였음을 뉘우쳤던 까닭이였다.

신사는 이 아픈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가기가 위험하게 여기여졌는지 마지 못하는척 도로 걸터앉았다.

현수는 아주 기쁜듯이 다시 엔진을 들고 치료를 시작하였다. 먼데 있는 사람의 흉이나 보듯 그는 사이사이 신사의 욕을 해가면서도 늘 싱긋싱긋 웃었다.

신사도 처음은 욕이 나올 때마다 분을 내더니 차차 성이 풀리여 픽 웃었다.

《자— 인젠 다— 되였습니다. 그렇게 가고싶은데 얼른 가십시오. 애인이 기다리십니까?》

현수는 신사를 치료의자에서 놓은 후 소독수에 손을 씻었다.

《그만치 해놓았으니 인제는 누구에게 가서 마저 치료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는 량심에 꺼리낌없는 치료를 하고난것이 기뻤다.

《얼마요?》

신사는 지갑을 꺼내들고 병일에게 물었다.

《돈 일없다. 이자식, 어서 가거라.》

현수는 돈 말이 나오자 또 성을 내며 와락 신사를 문밖으로 밀어낸 후 안으로 쇠를 잠그고말았다.

현수는 얼른 창턱에 가 기대서서 허리를 창밖으로 빼내였다. 도아밖에 멍하니 섰던 신사는 조금 생각하더니 천천히 걸어서 저편 길굽

이로 돌아가려다가 현수와 시선이 마주쳤다. 현수는 얼른 코우에다 손을 펴세우고 《코 샀소—》를 해보이고 장난꾸러기 어린 아이같이 웃었다. 신사는 깜짝 놀란듯이 두눈을 휘둥글 뜨고 《그놈 미쳤군.》 하는 표정을 짓더니 픽 웃고 가버렸다.

웬일인지 현수의 가슴은 갑자기 쓸쓸하여졌다.

《저 자식도 점잖은 사람놈이로구나.》

어린이 같았으면 저도 《코 샀소—》를 해보이고 웃고 갔을것이다. 이 후에 만날 때도 체면치레도 없이 전같이 놀것이다. 저놈도 본래는 천진스런 어린것이였을것이다. 나이가 들면 왜 점잖스런 가면을 써야되는고—

그는 길게 탄식하며 창문을 떠났다.

《선생님, 왜 그랬습니까? 그만 대강해서 보냈으면 될것을 다른 환자도 왔다가 그대로 가버렸어요. 이제는 그만 이 병원도 지탱해나갈수 없을것 같습니다.》

하고 병일이는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였다. 과연 아까 왔던 환자는 가버리고 없었다.

×

현수의 형되는 찬수는 사흘전부터 앓아누워있었다. 현수는 한지붕아래서 오늘까지 신세를 입고있을뿐아니라 그 형의 힘으로 학교졸업도 했고 치과의원도 내놓았던것이요, 늘 결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손실) 해오는 현수에게 눈살 하나 찌프리지 않고 돌보아주는 그 형이였다. 그러나 이 두 형제는 한자리에 앉아 정답게 이야기 한번 하지 않았다.

서로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찬수의 부인이 중간에서 이 편, 저 편의 의견을 소통시키는 전화통이 되는것이였다.

길거리에서 서로 만나도 생면부지의 딴 사람같이 본체만체하며 먼려행에서 돌아와도 서로 시선만 마주쳐보고는 그만이지 입 한번 떼는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형의 힘으로 살아오는 현수임을 잘 아는 남들은 현수를 체면도 렴치도 없는 미련꾸러기라고 하였다.

《형님이 앓아누웠는데 한번쯤은 들어가보시오.》

현수의 형수되는 부인은 체면차릴줄 모르는 시동생이 얄밉다느니보다 남편 보기 민망하여 어떻게 하더라도 병실에 한번 들여보내려고 애를 썼다.
현수는 뚝하니 서서 움직이지도 않았다.
《형님이 저러다가 죽으면 어쩔래요.》
《…》
《형님은 늘 아우님을 찾는데.》
이 말을 듣자 현수의 얼굴은 비틀어지여 턱을 아주 쭉 빼올리고 목울대를 긁고나서 《글쎄 형님보고 아무 할 말도 없는데.》 하고는 꽁지가 빠져라고 자기 방으로 달려가고말았다.
그는 자기 형이 앓아누운것을 처음 보는 까닭에 온갖 불길한것이 다 생각나며 조금도 맘이 가라앉지 않았다. 손님도 없는 치과의원에 나와 앉았다섰다, 나갔다들어갔다만 하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도 남 보는데서는 자는척만 하고 누웠다앉았다 가슴을 조이는것이였다.
아침을 먹은 후 혼 잃은 사람같이 치과의원으로 나온 현수를 보고 《병환이 어떠십디까?》 하고 병일이는 한번도 병실에 들어가지 않은 현수를 잘 알고있으면서도 캐묻는것이였다.
《모르네, 죽을지도 알수 없지.》
현수는 금방 울것 같이 말소리가 떨렸다.
《무슨 그런 말씀을, 오늘도 별로 손님이 없을것입니다. 돌아가셔서 간호나 하시지요.》
병일이는 넌지시 충고를 하였다.
《볼일도 없이 무엇하러, 간호는 형수가 하는데.》
《그래도 곁에 가서 계시면 좋아요.》
《무엇이 좋아. 간사하게 내가 곁에 있으면 낫는가? 나는 부끄러워 못 가.》
《선생님, 친형님 앓으시는데 가보는것이 부끄러워요?》
《싫어, 그런 간사스런 말은 말아주게. 자네 얼른 집에 가서 책이나 하나 가져오게.》
《네ㅡ》
병일이는 마지 못하여 일어서며 《공연히 병인의 념려가 되니까 집

에 가보구 오라는거지 뭐 책은 무슨 오라질 이름도 없는 책이 있어?》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병일이는 찬수가 앓아누운 날부터 하루에 수십차례씩 이러한 애매한 사환(심부름)을 가는것이였으므로 현수가 무턱대고 책가져오라는 그 진의가 어데 있다는것을 잘 알았다. 그래서 병세만 물어가지고 얼른 돌아오면 현수는 판에 박은듯이 벌떡 일어나며 《형님 죽겠다든가?》 하고 진땀을 흘리는것이였다. 병일이는 일부러 《책은 무슨 책을 가져오랬어요. 깜빡 잊었습니다.》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면

《이 사람, 정신 잃었구나. 누가 무슨 책이야. 형님 어찌 됐어?》

하고 화를 내였다.

《선생님, 가보십시오. 묻지 않고 왔습니다.》 하고 병일이는 깜찍스런 녀인같이 살살 피하면 그는 당장에 딩굴며 고함을 칠것 같이 분을 내며 빙빙 한바탕 돌다가는 다시 책가져오라고 야단을 치는것이였다.

그는 병일에게 형님 병세를 물어오라고 하기가 부끄러웠던것이였다.

찬수가 앓아누운 후 현수는 밥 한술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고 잠 한숨 자지 않았으므로 비록 들어가지는 않아도 그 념려하는 열은 곁의 사람의 눈에도 겁이 날만 하였다. 그의 얼굴은 여위고 입술은 부르터오르며 두눈은 달아서 바로 뜨지 못하였다.

찬수가 누운지 닷새째 되는 날이였다.

현수는 일부러 아침밥을 먹는척 하고 신문지에다 밥을 절반이나 덜어서 돌돌 뭉쳐놓고 상을 내보낸 후 치과원으로 곧 나갈것 같이 일부러 바쁜척 하고 서두르며 안방편만 자꾸 바라보고있었다.

찬수의 부인은 안방에서 이 눈치를 채고 얼른 현수의 방으로 건너왔다.

《인제는 안심하십시오. 애들 아버지가 이재 좀 열이 내렸수다. 장질부사가 아니라 몸살이였든가 봐요.》 하고 보고를 하였다.

찬수의 부인은 현수를 슬쩍 보기만 하면 그의 속마음을 다 알아채는것이였다. 그가 아무리 묵하니 서있어도 (옳다. 병세가 알고싶은게로구나.) 하고 알아채고는 진작 보고를 해야 되는것이였다. 그러나 현수는 못 들은척 하고 《좀 낫다고 자꾸 밥이나 꾸역꾸역 먹이지 마시구려.》

탁 배알듯이 한마디 집어던지고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가고말았다. 찬수의 부인은 그래도 픽 웃으며 《별난 성질을 다 보겠다. 념려는 죽도록 하면서도 왜 시원히 남에게 나타내보이기 싫어하는지.》 하고 건너가고말았다.

현수는 급히 치과원으로 나갔다. 그의 어깨는 날아갈것 같이 가뿐하였다.

그 형의 병실에 들어가보자니 아첨하는것 갈애 싫었으나 이미 병이 차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나니 와락 그 형의 얼굴이 보고싶어 견딜수가 없었다. 그는 참다못해서 자기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뒤문으로 몸을 숨기고 엿보니 그의 형수는 안방에서 누워있고 어멈은 퇴마루에서 약을 짜고있었다. 그는 사람죽이러 가는 자객과 같이 날래게 몸을 날려 병실인 뒤방으로 달려들었다.

그 형은 감았던 눈을 뜨면서 현수를 바라보았다. 현수는 몇날사이에 수척해진 그 형을 바라보자 가슴이 금방 깨여지는것 같이 아팠다. 그는 묵하니 웃목에 버티고 서있었다.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밥을 잘 먹어야 한다. 덥다, 나가거라. 나는 곧 낫겠지.》

찬수는 돌아누우며 이렇게 뜨음뜨음 말하고 입을 닫아버렸다.

《네, 형님. 저.》

현수는 주먹만 한 눈물을 한방울 뚝 떨어뜨리고 목울대를 박박 긁었다.

《저, 념려없습니다.》

현수는 더 입을 뗄수가 없어서 얼른 병실을 나서고말았다. 불과 2분간의 병문안이였다.

그는 마루 한옆에서 눈물을 이리저리 주어 닦았다.

《약이 다 됐어요.》

어멈이 약대접을 들고 찬수의 부인을 깨우자 현수는 마루 한옆에 비켜서 몸을 숨기였다.

《현수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찬수는 약을 가지고 들어간 그 부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왜 반찬을 주의해 먹이지 않았어? 사람이 영 죽게 되였드구나.》

찬수는 약을 받아들고도 고함을 치며 부인을 꾸짖었다. 현수의 가

슴은 뜨거운 총알을 맞은것 같았다. 그는 달음박질로 치과의원으로 달려가 치료의자에 털썩 마주앉으며 목을 놓고 엉엉 울기 시작하였다.

현수를 찾아왔던 명희는 병일이의 기공실에 있다가 깜짝 놀라 달려왔다.

《어엉엉, 엉.》

현수는 자꾸 울기만 했다.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일이야요.》

명희와 병일이는 질겁을 하여 어리둥절하였다.

《형님, 형님, 형님.》

그는 울면서 가슴으로 부르짖었다. 허위와 가식으로 된 이 세상을 절망하고 저주하던 현수는 자기 형에게서 비로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참다운 사랑을 보았던것이였다.

《명희씨, 우리 형님이 좀 나으십니다.》

현수는 이윽히 울다가 감격에 떨며 고개를 명희에게 돌렸다.

《그러세요, 왜 우셨나요?》

현수는 대답대신 명희의 가느다란 두눈을 바라보며 《명희씨, 저하고 결혼하십시다.》 하고 두손을 내밀었다.

《아이, 선생님도.》

명희는 깜짝 놀란듯이 얼굴을 찌프렸다.

그제야 현수도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놀랐다.

무의식간에 나온 말이였던 까닭이였다. 절망하였던 현실에서 새 광명을 보는 감격에 꽉 찬 현수의 이 한말은 시인의 입에서 무의식간에 흘러나오는 즉흥시와도 같은것이였다.

《명희씨, 나는 우리 형님이 나를 사랑하는것같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현수는 이 말로써 자기가 얼마나 명희를 사랑한다는것을 충분히 표현한것으로 믿었다.

《아이, 선생님. 그 무슨 말씀이야요. 전 몰라요.》

명희는 새침하여 돌아서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현수는 이상하다는듯이 벌떡 일어섰다.

《명—》

그는 명희를 부르려다가 입을 다물고말았다.

그의 눈앞에 몇날전에 싸움하던 그 신사가 우뚝 서있는것이였다.

현수의 두눈은 도는것 같았었다.

(모두가 말뿐이야. 말이란것으로 공연한 리유를 붙여 제가 제일 옳다고 야단들이지. 명희가 다 뭐냐? 내혼자 남달리 심각한 사랑을 가졌다고 고집을 하며 세상을 욕했지만 모두가 잘못이였다. 이 세상이 나를 제일가는 위인이고 성인이고 부자고 미남자라고 하면 굳이 하게 되지 못한 생각들은 하지도 않을것이다. 모두가 이내 못난 짜증이였지. 아니, 내 못난것을 자위하려는 비루한 수단으로 끌어다붙인 리유이겠지. 공연히 저 신사와 쌈을 했구나. 형님병실에 자주 가보는것이 왜 부끄럽겠나. 남다른 생각을 한다는것이 진리가 아니다. 진리란것은 내가 미워하는 허위가식으로 된 세상에 있다.)

그는 가슴속으로 부르짖었다. 푸른 꽃을 좋아한다고 그 명희의 남다른 말에 혼을 잃고있던 자기가 우습게 생각되며 제법 태를 빼물고 나가버리던 그 명희가 아니꼽게 여기여졌다. 그는 얼른 신사의 앞으로 머리를 숙이며 《그저께 실례가 많았습니다.》 하고 사죄를 했다.

《네?》

신사는 놀란듯이 현수를 바라보았다.

《그런 헛인사는 그만둡시다. 나는 무조건하고 당신의 성격이 맘에 듭니다. 자, 이로부터는 서로 좀 친해봅시다.》

신사는 쾌활하게 웃었다. 현수는 어리벙벙하여졌다. 두번다시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욕했던 신사는 다시 오고 믿었던 명희는 가버렸다. 그는 신기한 새세상에 들어서는것 같이 가슴이 탁 트이며 시원하였다.

《자— 이리 앉으십시오.》

현수는 치과의원 개업이후는 처음 보는 명랑한 얼굴로 친절하게 신사를 치료의자에 앉혔다.

《자! 양치하십시다.》

그는 컵의 물을 신사의 입에 대여주려다가 깜짝 놀란 사람처럼 컵을 배타기우에 턱 놓았다. 다시 벌떡 들어 신사의 입에 대려

하였다.

《저번 치료한 후 아주 이가 아프지 않어요.》

신사는 현수가 망설이고있는 컵을 받아들었다.

《네ㅡ》

현수는 무턱대놓고 길게 크게 한숨하듯 대구를 하고 쭉 바로 서서 턱을 쭉 빼올린 후 목울대를 가만가만 두어번 긁었다.

《조선문단》 1935. 12.

편 지

김 말 봉

《나 그런줄은 몰랐어요. 당신과 나사이에는 정말 아무런 비밀도 없는줄로만 믿었었어요.》

은희는 남편의 말없이 내려다보고 앉었는 얼굴을 달려들어 할퀴기나 할듯이 독있는 눈으로 쏘아보는것이다.

《글쎄, 이게 뭐예요? 이게.》

남편을 바라보는듯이 은희는 쥐였던 편지를 다시 폈다.

《저번에 보내주신것 감사히 받었습니다. ××에 가 서서 박이신 사진은 꼭 보내주신다기에 눈이 감도록 기다렸습니다마는… 제가 렴치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너무도 거북하옵니다만 새 학기가 되고보니 이외에 잡비가 많아집니다. 구두도 해여져 새로 지어야 되겠사옵고 아무래도 한 오십원 더 보내주어야 되겠습니다.

졸업반이라 하여 수학려행을 만주까지 가게 되는데 저는 무슨 핑계라도 하여서 그만두겠습니다. 왕복려비와 식비 합하여 오륙십원 있어야 될터이니까요.

부인이 계시고 더우기 어린아이까지 있는 당신께 이런 무거운 짐을 지워드리기는 저로서는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올시다. 그보다도 아직 부인께서 모르시고계신다는것이 더한층 저를 괴롭게 질책하고있습

니다.
(안해는 나를 믿는다.) 하시든 그 말씀만 생각하고있사오나 어째 제맘은 무슨 크나큰 죄악을 쌓는것만 같아서 스스로 얼굴이 붉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아, 〈사랑은 모든것을 빼앗는다〉 한 말은 누구가 부르짖은 경구였든가요?
5월 일 인순 올림.》
은희는 편지에서 눈을 구을려 다시 남편의 얼굴을 노려보며
《여보세요. 그래 인순이란 녀자의 학비를 대주시고계셨어요? 그러면 왜 나게는 아무런 말씀도 없었든가요? 인순이란 녀자의 학비를 대여준다는 사실을 내게 숨기지 않으면 안될 무슨 까닭이 있었든게죠? 네? 네?》
금방 무슨 일이나 날듯이 덤비는 안해의 모양을 《내 몰라라.》 하는듯이 남편의 얼굴은 어디까지나 평화스러웁다.
그것은 그럴것이 지금 은희의 눈앞에 있는 남편은 그가 죽기 바로 석달전에 박아둔 사진인 까닭이다.
불러도 소리질러도 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는지 은희는 크—다랗게 한숨을 쉬였다.
《한달전만 같아보아, 정말이지 한달전에 이 편지가 내 눈에 띄이기만 하였더라면… 대체 무어라고 변명을 하려든고?》
은희는 또한번 길게 한숨을 쉬였다.
《알지 못할것은 남자의 심사야.》
그 점잖고 친절하고 어디까지나 믿음직스러웁던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 할수록 허무하고 맹랑스러운 일이다.
사진속에 있는 남편은 방금 그 큰 입을 벙싯거리며 《잘못했으니 용서해주시오.》 하고 애걸이나 하는듯 하여 은희는 히스테리적으로 홱 고개를 돌려버렸다.
가버린 남편의 완전무결에 가까운 그 인격, 그 애정을 추억하는것만이 오직 한가지 은희의 사는 보람인데 이 천만뜻밖에도 이러한 편지가 튀여나온것은 이글이글 타는 숯불에다 찬 재를 끼얹는듯 일찌기 느껴보지 못하던 원망과 질투에 그의 마음은 지극히 혼란하여지는것이다.

하지만 그 질투라든가 폭백이라는것이 홍수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날려보낸 비둘기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도로 날아오듯이 아무런 반응이나 대답을 들을수없이 자기의 가슴속에 다시 삼켜버리지 않으면 안되는것이 은희로 하여금 더욱 처참한 적막과 허무를 느끼게 하는것이다.

은희의 약간 파르릅한 입술에 두어번 경련이 지나가자 그는 손에 쥐고있던 편지를 확— 잡아 찢어버렸다.

《요망스럽게.》

그는 마치 이 편지— 남편의 회사로 배달된것을 누가 지나치게 친절한 맘으로 일부러 집에까지 회송시킨 이 편지가 무척 얄미웁고 미웠다. 이 길지 아니한 글발 하나가 아홉해동안이나 같이 살고 또 급성페염으로 불과 십여일만에 죽어버린 그 아까운 남편의 죄없는 애정을 짓밟아버린것이라 생각하니 그는 그 편지의 글자 하나하나가 무슨 악마의 주문같이 징그럽게 보여지는것이다.

《계집애도 계집애야, 녀편네 있고 자식있는 사내에게 무엇이 탐이 나서 달라붙었을고. 뛰여나게 얼굴이 잘났나? 돈이 많단 말인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찢어진 편지쪽들을 주섬주섬 주어 창밖으로 던져버렸건만 그의 맘은 조금도 시원치가 않았다.

심기를 전환할 생각으로 애써 다른 일을 생각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맘은 방금 찢어버린 편지와 또 그 편지를 보낸 녀인에게로만 가는것이다.

《전문학교의 졸업반이라. 그러면 나이는? 스물셋? 넷? 얼굴은 흴가? 까무잡잡해? 하여간 미인인것만은 틀림없겠지.》

은희의 그리 크지 아니한 그러나 어디까지나 반짝거리는 그 두눈은 마치 쥐를 노리는 고양이의 눈과 같이 한곳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글씨도 아주 달필이야. 처녀일가? 처녀이겠지. 그러나 벌써 그이(자기 남편)와 어떻게 되여있는지 알수 있나?》

은희의 약간 우로 치친듯 한 눈섭이 꼿꼿이 일어섰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고 이 녀자의 관계가 그대로 계속이 된다면?… 우리 집은 결딴났지 별수 있나. 체면에 제2호로 들어앉히지는 않을것이고 누구처럼 손에 손을 맞잡고 가버릴지도 몰라. 아유—》

은희는 몸서리를 치면서 어금이를 다물었다.

그는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문밖에 흩어져있는 조금전에 찢어버린 편지의 쪼각들을 움켜쥐였다.

잉크빛이 선명한 하얀 봉투의 한쪼각, 한쪼각이 은희의 손끝에서 순서를 찾아 모아졌다.

《도꾜시 고이시가와구 다게조정 200×× 방 박인순.》

야릇한 질투의 감정은 마침내 은희의 가슴에 어떤 복수의 불더미를 떨구어놓고야말았다. 그는 바시시 일어나 옷걸이앞으로 갔다.

서랍을 열고 상제된 후로부터 쓰지 않고 넣어두었던 금비녀와 금가락지를 꺼냈다. 이것을 종이에 싸면서도 그의 맘에는 일찌기 이러한 례물을 자기에게 주던 그 남편이 오늘 이러한 솜씨로 받아가는구나 하는 일종 서글픈 웃음이 지나갔다.

전당포로 갔던 할멈의 손에서 현금 100원을 받아쥔 은희는 무엇에 덜미를 잡힌 사람모양으로 밖으로 나갔다.

거리에는 어느덧 봄도 저물어 록음으로 성장한 초여름이 그 화려한 깃을 대지에 드리우고있건만 은희의 가슴은 극지 (지구의 남극과 북극의 지역)의 빙원(얼음이 덮여있는 들판)과 같이 적막과 공허, 그것뿐이였다.

그는 ×××우편국으로 들어가서 전보용지를 손에 들었다.

《돈 100원을 보내니 수학려행에는 꼭 참례하시오. 만나고싶으니 갈때에는 집에 들려주시오. 병으로 누워있소. 회답은 집으로. 영준.》

끝에다 남편의 이름을 쓰는 은희의 손은 가늘게 떨고있었다.

우편국에서 나온 은희는 한달전에 남편을 공동묘지에 묻어두고 돌아설 그때와 비교하여 얼마나 더 심각한 슬픔이 자기를 엄습하고있는가를 감각하였다.

그때에는 《남편은 갔거니. 그러나 그의 사랑만은 영원히 내 가슴에 새겨있거니. 그리하여 나도 마침내 죽어지려니. 같이 묻혀 같은 흙으로 변하려니.》 이러한 슬픈 위로가 귀가에서 속삭였다.

그러나 오늘은?

변함없이 믿었던 그 사랑마저 허무하지 않느냐. 그는 자기자신이 온전히 인생의 패배자로써 느끼는 그러한 모욕과 분노가 쓸개와 같이 그의 심장을 역겨웁게 하는것이다.

전보환으로 돈을 부친 그 저녁 《명조 출발》이란 답전이 왔다.

은희는 전보를 보는 순간 만의 하나로 그 박인순이란것은 실재의 인물이 아니요 따라서 그 돈도 돌아오기를 바랐다는 부질없는 생각이 자기 맘 한구석에 깃들이고있었든것을 발견하자 그는 스스로 비웃었다.

《보고싶어서 만나자고 하니 곧 나온다는 답전이 나온 이상》 그는 이런 말을 입속으로 중얼거려보다가 문득 자기의 왼손무명지를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엊그저께야 고약을 떼여버린 빨간 손가락끝에 실같은 흉터를 바라보는 그의 입가에는 조롱의 웃음이 떠올랐다.

《최후 일각까지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 못난이…》

그리고 사흘째 밤이 밝았다.

은희는 자리속에서 중얼거렸다.

《오늘은 그 녀자가 오는 날이지?》

그는 자기의 발작상태와 비슷한 행동에 어떤 잔인스러운 쾌감을 느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뜰로 내려선 은희는 전과 달리 할멈을 동독(채근하고 독려함)하여 집안을 소제하고 자기도 뜰에 물을 뿌리고 마루에 걸레질을 하였다.

어린 아들 길남이에게 새옷을 갈아입히고 자기도 얼굴과 머리를 단장하였다. 털끝만치라도 그 녀인에게 낮추보일수는 없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아침을 마치고나니 오전 여덟시였다.

《인제 곧 부두에 내리고 늦어도 반시간안에는 집으로 들어오겠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응접실로 쓰는 바깥방에다 새 초석을 내다 펴고 방석에는 새잇을 끼워 내다깔았다.

《되도록 말소리를 부드럽게 하렷다. 그리고 첨에는 그이가 살아있는것 같이 말을 붙이렷다.… 죽은줄 알게 될 때 어떤 얼굴을 하는지 찬찬히 보아야지.》

그러나 아홉시가 지나고 열시가 거의 되도록 손님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혹시 누가 그이가 세상 떠났다는것을 일러주지 않었나? 만약 회사로 갔다면… 그래도 집에 누웠다 했는데…》

좌우간 그 녀자가 집으로 오지 않는다면 모처럼 계획한 작전이 수

포로 돌아가고말것 갈애 그의 맘은 차츰 불안하여지는것이다.
《손님이 오시는가 나가보아.》
하고 어린 길남이를 세번째 내보낸 뒤다.
물을 길어가지고 들어오는 할멈이 《손님 오셨어요. 동경서 오셨다나봐요.》 하고 물동이를 내려놓는다.
《어서 손님 바깥방으로 뫼시우, 나 곧 나갈터이니.》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은희의 가슴은 맹렬히 두근거리기 시작하는것이다.
사랑을 도적한 녀인에 대한 분노와 또 그 비밀을 발견하였다는 상쾌감이 마치 꿀을 섞어 계자즙을 먹는 때와 같았다.
《좌우간 어떻게 생긴 얼굴인지…》
은희는 절대의 호기심과 또 그만한 적개심에 몸을 떨면서 뜰로 내려와 신을 신었다.
급박하여 오는 호흡을 늦추기 위하여 두어번 숨을 크게 쉬고 자주 침을 삼켜 목을 적시면서 천천히 발을 옮겨놓았다. 그러나 은희의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몸이 바깥방 방문가까이 갔을 때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버렸다.
길남이를 두팔로 안고 길남의 머리에다 얼굴을 처박고 울고있는 그 손님의 가슴에는 누르스름한 교복단추가 두어개 수집은듯이 빠끔히 내다보이고 아무렇게나 벗어던진듯 한 사각모자의 정수리가 다갈색으로 퇴색이 되여있는것이 눈에 띄인 까닭이다.
어머니가 가까이 오는것을 본 길남이가 손님에게 안기운채
《엄마, 손님 오셨어.》 하고 어리둥절하며 소리를 친다.
아이의 웨치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고개를 드는 그 손님은 얼른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젖은 얼굴을 씻고는 은희를 향하여 공손히 꿇어 절을 하는것이다.
《저는 지금 동경서 오는 길입니다. 박인순이라고 합니다.… 참 무어라고… 말씀을…》
손님의 눈에서는 또다시 굵다란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면 박인순이란게 녀자가 아니고 남자이였던가?》
속으로 부르짖는 은희의 등골에는 화끈하고 진땀이 솟았다.
손님은 불긋불긋한 여드레미가 두어개 돋힌 이마를 한손으로 만

지며 《지금 막 들어오면서 애기에게 들어서 알았습니다. 온 청천벽력도 분수가 있지. 온 꿈인지 생시인지 당최… 그래 언제쯤 작고하셨는가요?》

《한달전에―》

겨우 한마디 대답을 하고 은희는 방으로 들어섰다.

《웨, 제게는 부고를 주시지 않었었어요.》

통분한듯이 바라보는 청년의 시선을 피하여 은희는 방바닥으로 눈을 떨어뜨리였다.

청년은 가만히 길남이의 머리를 쓸면서

《아가야, 인제부터 우리는 아버지 없이 살아간단다. 하지만… 아버지같이 되자, 응?》

청년의 조금 두터운듯 한 입술은 미소를 띤채 한참동안 경련이 지속되였다.

《너 몇살이지?》

《나 여섯살―》

《오, 착하다. 너 꼭 아버지 닮았구나.》

은희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막을듯이 손수건으로 두눈을 쌌다.

뜨거운 눈물은 은희의 양사 손수건을 적시고도 그의 훌쭉한 턱아래로 방울방울 굴러떨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은희가 남편의 결백이 증명되였다는 의미에서 새삼스럽게 남편을 추모하여 우는것은 아니였다.

은희는 갑자기 자기가 천박한 인간으로 생겨났다는것이 견딜수없이 슬퍼진것이다. 이렇게까지 슬프고 부끄럽고 천박한 인간이 또 어디 있으랴 하고 생각한 까닭이다.

《엄마! 우지 마. 엄마!》 하고 길남이가 울듯이 소리를 질렀으나 지극한 자기 련민의 감정에 사로잡힌 은희의 울음은 좀처럼 그칠듯싶지가 않았다.

어디서 꼬끼요― 하고 우는 닭의 소리가 5월의 한낮에 길게 울려왔다.

《현대조선녀류문학선집》 1937.

산　제

최 정 희

1

《아이, 아이, 아이머니.》

창자가 막 훑치우는듯 하고 숨이 꽉꽉 막히는 지긋지긋한 아픔을 참다못해서 쪼깐은 소리소리 지르다가 제 소리에 놀라서 눈을 번쩍 떴다. 눈을 뜨자 금방 제몸을 기껏 깔고 내려덮쳤던 큰 바위더미같이 무거운 서방을 가슴에서 떠밀어 제치며 정신없이 뛰여일어나 허둥지둥 앞을 달려가 닥치는데를 다짜고짜로 두드리고 밀고 흔들고 한다. 문이라 생각했던 까닭이다. 하나 문이라 생각했던데는 열번, 스무번 두드리고 밀고 흔들고 차고 해야 움쭉하는 일도 없이 작은 두주먹이 무슨 쇠덩어리에 부딪치듯 아팠다. 쪼깐은 두주먹을 통해 오는 아픔을 전신에 느끼자 밀고 흔들고 두드리고 차는것을 그만두고 주먹을 거기 얹은채 빤히 한참 들여다본다. 그러랴니까 그것이 점점 시꺼먼 담벼락같이 변해지며 눈이 모자라게 가슴앞에서 쭉 벌어지는것이 아닌가. 쪼깐은 벌어지는 그 담벼락이 벌어지는대로 눈을 좇았다.

그것은 고개가 바짝 제껴지도록 높이높이 자꾸만 올려뻗쳤다. 고개를 바짝 제낀채로 쪼깐은 《이게 대체 어디란 말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정신이 홱 돌린듯이 바짝 제꼈던 고개를 약간 아래로 내려가지고 살그머니 뒤를 돌아다본다.— 장성같이 뻗질러 누운 서방을 목덜미에 느끼면서— 그랬는데 거기는 장성같은 서방이 뻗질러 누운 무서운 방이 아니고 자기와 똑같은 운명을 짊어진 동료들의 시체같이 잠든 창백한 얼굴들이 아청(검푸른 빛갈)무명이불 앞뒤로 파란채 쏙쏙 내밀고있는것이 아닌가. 쪼깐은 그제야 꿈을 꾼것을 깨닫고 한숨을 후 길게 내쉬며 이마에 내돋은 식은땀을 손바닥으로 문질러 씻고는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살핀다.

《네가 스무살을 먹어서야 집에 가니 어찌겠는게비.》 하고 동료들

이 측은해한즉 쪼깐은 오히려 다행한것처럼 《감옥에 오래 있는것이 좋아라우.》하며 핼쓱한 얼굴에 웃음을 지었다. 그것이 정말이였다. 다른 동료들같이 간수앞에서만 하는 말도 아무것도 아니였다. 쪼깐이가 6년 징역을 받기 전 감방에 함께 있는 동료중 어떤자는 나이가 어리니 집행유예로 나갈것이라 하고 또 어떤자는 한 3년 먹을것이라 하고 또 어떤자는 1년 혹은 2년이라 하고 상표붙은 젊은 녀자는 자기와 똑같은 죄명이요 또 쪼깐의 나이가 자기가 들어오던 때의 나이와 마찬가지니 6년 징역을 틀림없이 받을것이라 말할 때마다 쪼깐은 정말 상표붙은 젊은 녀자의 말대로 되여지고 집행유예로 나가지 말도록 됐으면 하고 바라는것이였다. 그 까닭은 세상사람들 머리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이 사라지기 전에 나가는것이 무척 부끄럽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친정에서 받아먹은 시집의 나락과 보리를 갚아주기 전엔 또 그 무섭고 지겨운 시집에 가야 할것을 알았음이다. 쪼깐의 마음엔 언제나 자기가 감옥살이를 오래하는 사이에 부디 친정농사가 잘되여서 시집의 나락과 보리를 갚아주고 감옥에서 나가는 날은 탱자나무 선 그리운 큰 마을, 살뜰한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이 살고있는 친정집에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였다.

2

나락과 보리를 실어온 후— 열흘이 되던 날 이른아침에 쪼깐은 보교를 타고 친정을 떠났다. 혼인전날 갑자기 신랑 오는 법을 중지시키고 일부러 신랑측에서 보교를 오게 하고 윤참봉내외도 오기전 아직 큰 마을에 어둠이 다 걷히지 않았을 때 색시만 달랑 태워가지고 도적괭이같이 마을을 빠져나오게 된것은 리주사가 살림이 곤궁한탓에 신랑을 맞이해낼수 없는것을 동네와 안해와 또 쪼깐이에게까지 핑게삼았던것이다. 실상은 그런것이 아니고 며칠전 리주사가 딸의 혼인준비차로 장에 갔다오던 길에서 윤참봉에게 들은 말이 있었던 까닭이다.

윤참봉은 북어랑 닭알이랑 또 그밖에 사탕, 과일 등 이런것, 저런것들을 망태기에 둘러메고 저녁길을 바삐 휘적휘적 걷는 리주사에게 말을 건네였다.

《주사, 내 말 좀 듣소.》
《뭐 말이라우?》
윤참봉은 말머리를 내놓기는 했으나 꽤 거북한 모양으로 한참 끄응끄응 갑자르다가 말을 시작했다.
《참, 옥의 티라구 다 좋은디 고것이 그만…》
《참봉, 뭘 말이유?》
《주사, 내 속이자 해서 그러지 않었으니 섭섭헬랑 마시라우. 그래, 좀 어디 부족한듯 해야 제가속 잘 거두는거여.》
리주사는 앞을 서서 걷다가 뒤를 부지런히 따르는 윤참봉을 돌아다보며 발을 멈춘다.
윤참봉은 리주사가 너무 얼굴빛이 달라지는 바람에 역시 발을 멈추고 전보다 낮은 목소리로 《신랑말인디, 고놈 홍역바람으로 그리되였다나배.》 하고 말하는것이다.
리주사는 이 청천벽력인 윤참봉말에 그만 땅이 푹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듯 거저 눈앞이 아뜩해서 한발걸음도 내디딜 힘이 없었다.
《낸들 병신이 좋을리 있겠소. 첨부텀 모른배 아니고 친히 가보기까지 해서라우. 하긴 눈이 그렇다뿐이지 다른 점은 그만이든디.》
《전에두 말한 일이지만 원체 사람이 부지런하고 착실해서 제땅외에 남의 땅까지 부쳐서 그 동네서도 이름나게 착실히 살어가라우.》
《첨부텀 내 아주 말할것인디…》
윤참봉은 앞을 서서 리주사가 뒤에 떨어져 기운없이 걷는 걸음에 맞춰 걸으며 부지런히 이렇게 말을 주어대다가 리주사가 점점 더 헐떡거리며 얼굴빛이 달라지고 아무 대꾸도 없는 바람에 말끝을 채 못 맺고 목을 기웃해서 리주사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리주사는 움푹 들어간 쇠잔해진 눈에 눈물을 가득히 담은채 여전히 말이 없다. 하나 그 마음의 실망이 얼마나 크다는것은 누가 보아도 알수 있었다. 윤참봉은 어떻게 하면 리주사의 마음을 위로할가 이리저리 생각하던 끝에 혼인을 권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던 말을 또 하는것이다.
《주사, 집에 두고 굶기기보다 낫어라우. 저 잘살구 부모동생 살리구 안 그렇소?》
리주사는 역시 말이 없다. 거저 눈물을 꿀꺽꿀꺽 삼키느라고 입을 쩍쩍 벌려가면서 기운없는 발걸음으로 채우며 걸키며 허둥지둥 어슬

막 길을 걸을뿐이다.

윤참봉 말을 듣고 처음엔 혼인이고 뭐고 그만 파해버릴 생각이 불쑥 났으나 다시 생각하니 혼인을 파해버린다는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혼인을 파하자면 우선 실어온 나락과 보리를 되돌려보내야 할것인데 나락과 보리를 실어온지 열흘이 거반 되여가자니까 그동안 먹은것만 해도 어지간한데다가 여기저기서 꾸어먹은것들을 갚아주노라고 나락 닷섬, 보리 열섬에서 반이 더 나갔으니 그걸 채워낼 재주도 없는 일이요 혹 그럴수가 있다치더라도 윤참봉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간에 나서서 중신한 일이라면 애꾸눈을 탈잡고 파혼할수가 없을배 아닌것이나 유일무이한 친구 윤참봉이 정말 자기네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서 한 일임을 잘 알고있는 리주사로서는 혼인을 파해서 윤참봉의 낯을 부끄럽게 할수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보니 불쌍한것은 쪼깐이뿐이다. 그러지 않아도 어린 딸을 팔아먹는것이 하늘이 용서 못할 죄같아서 윤참봉이 리주사내외에게 승낙을 받은 이튿날도 방주골 신랑집으로부터 곧 나락과 보리를 두 소바리 늘어지게 실어왔을 때 동네사람들이 마당에 쭉 몰려와서 《쪼깐네는 이제 락을 봐서라우.》 하는이, 또 어떤이는 《래년 보리때까정 량식걱정 없겠어라우.》 하고 무척 부러워들 하는 가운데 리주사는 방망이 같은것이 치밀어올라서 호박잎담배를 뻐금뻐금 빨아들이며 눈이 퀭하니 아무말없이 어둑컴컴한 앞산만 바라볼뿐이였는데 신랑이 병신이라는 말까지 들으니 천지가 아득할밖에 없었다.

하나 윤참봉이 불안해서 걸음을 못 걷고 자기를 돌아다보는통에 리주사는 정말 왜가리처럼 목을 길죽이 내밀고 《참봉, 걱정할것이 없어라우. 그만놈의 눈 한쪽이 그렇다구 제할것 못하겠관디.》하며 억지로 말했다.

그 말소리가 너무 떨려서 분명하지 못한 까닭에 리주사는 자기 말같이 들리지 않았으나 윤참봉은 리주사의 오래간만에 하는 이 대답이 너무 반가워서 다시 발을 멈추고

《주사, 참 그래라우. 주사가 그리 생각하니 좋소.》하며 너털웃음을 웃었다.

리주사도 윤참봉의 마음을 살펴서 역시 억지로 웃었다. 잠간이나마 윤참봉의 마음을 괴롭게 해준것이 리주사로서는 몹시 안됐던 까닭

이다.
  그렇지 않을수 없는것이 리주사와 윤참봉은 40년을 한형제같이 지내오면서 고락을 함께 한 사람이다. 그들은 나이도 똑 같거니와 또 걸어온 길도 어지간히 비슷해서 리주사가 12살적에 부모를 륜감(돌림감기)으로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백판 고아로 큰 대문집 소먹이로 들어갔을 때 윤참봉은 동생들과 같이 그 집(큰 대문집) 막살이하는 부모밑에서 리주사보다 행복하게 지냈다. 그때 리주사이름은 춘득이고 윤참봉은 을쇠라 했는데 을쇠나이가 14살 되였을 때까지는 을쇠와 춘득이는 단지 싸움동무, 꽝이동무, 소먹이동무로만 알았다. 그러다가 을쇠, 춘득이가 똑같이 15살 먹던 봄에 갑자기 을쇠 아버지가 병들어 돌아가자 그 어머니는 아이들하고 고생살이하기를 반년이나 했을가, 어쨌든 둘째, 셋째만 데리고 어느날 을쇠가 잠든 틈을 타서 어디론가 가버린 뒤로 춘득이는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을쇠와 함께 서글피 그 부모밑에서 즐겁게 살던 방에서 같이 지내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나이가 한살, 두살 늘어가고 을쇠와 춘득은 또한 소먹이아이로부터 머슴으로 옮겨졌다.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큰 대문집 충실한 머슴으로 서른이 훨씬 넘도록 살다가 을쇠가 한해 먼저 막살이하는 사람의 딸과 혼인을 하여 세간을 나고 그 이듬해 가을에 춘득이마저 을쇠의 주선으로 장가를 들어 을쇠와 나란히 집을 얻고 세간을 나게 되였다. 그들은 여전히 큰 대문집 땅을 부치고 그 집의 종노릇을 했지만 제집에 제 아낙으로 해서 남의 집살이의 황페한 마음은 차차 봄날같이 누긋하고 보드랍고 따뜻해졌다. 을쇠가 먼저 떡판같은 아들을 낳자 그 이듬해에 춘득이 역시 지지 않을 양으로 목화꽃송이같은 딸을 낳았다. 그들은 뼈가 빠지도록 일해도 고단하지 않고 제땅이 없고 자기 소가 없어도 철철이 마당에 보리며 콩, 팥이며 나락 등을 달개달개 오붓이 쌓아놓았다.

3

  그들의 살림은 기름이 흐르고 화기가 돌고 아들, 딸이 나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그러는 사이에 을쇠, 춘득은 제법 머슴때가 벗겨져서 동네사람들중 누가 지어냈는지 을쇠는 《윤참봉》, 춘득은 《리주사》

라 불리웠다. 그들이 윤참봉, 리주사라 불리운지 몇해동안은 여전히 똑같은 행복을 누렸으나 세월이 가고 인정이 변함에 따라 그들도 다른 많은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전에 없던 부담에 벅차지고 그 부담까닭에 빚을 지고 빚까닭에 립도차압(벼가 채 여물기 전에 논에 세워둔채로 그 벼를 차압처분하는 일)이라는 모르는 술어를 배워 알게 될뿐아니라 땀과 피를 기울여 길러낸 나락이 기른 사람손에 들어와보지 못하고 논에 선채 빚쟁이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는 일이 종종 있는외에 설상가상격으로 한재, 수재가 엎치고덮쳐서 일년의 농사가 수포에 돌아가는 일이 또 번번했으니 그뒤에 올것은 가난 그것외에 다른것이 무엇이랴. 그리 되자니까 리주사, 윤참봉의 즐겁던 가정도 하루, 이틀, 한달, 두달 세월이 가면갈수록 황페해만 갔다. 그러나 온갖것이 다 변하는가운데 리주사와 윤참봉의 진실한 우정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쌀밥 먹던 때를 아주 까맣게 잊고 풀뿌리와 나무껍질도 없어서 겨우 생명을 연장하는 처지에 이르렀어도 그들은 하루를 빼는일없이 서로 찾고 서로 돕고 서로 살길을 이야기해왔다.

말하자면 쪼깐의 혼인문제도 이 서로 찾고 서로 돕는 두사람의 참된 우정에서 생긴 일이리라.

윤참봉은 제 어려운 형편도 형편이려니와 리주사네 식구가 며칠씩 굶다못해 누렇게 팅팅 부어 늘어지는 꼴이란 볼수가 없었다. 여러가지로 생각한 끝에 쪼깐을 치우는것외에 별다른 도리가 없겠다고 생각한 윤참봉은 전에 방주골마을에 사는 처형이 와서 저의 이웃에 살림이 탐탁하나 눈이 애꾸라 혼처마다 어그러진다는 처형으로부터 들은 말을 생각해내고 어느날 아침 일찌기 방주골마을의 처형을 친히 찾아가서 처형이 말하던 그 신랑을 선을 보고 단독 나락 닷섬과 보리 열섬에 혼인을 결정하고 돌아와서

《죽으면 다 죽고말일이지 그 어린것을 어찌 치운단 말이유.》

하는 리주사내외에게

《옛날 같으면 15살에 아이래두 낳겠다.》는둥

《집에 두구 굶기기보다 부모동생 살리구— 제 배 안 곯고… 나락 닷섬 보리 열섬이면 우선 아이들이랑 살아갈것이 아니냐.》는둥 이런 말로 겨우 리주사내외를 설복시켰던것이고 리주사내외는 또 윤참봉의 고마운 마음에 못이겨 정말 윤참봉의 말만 믿고 신랑을 다시 선을 보

거나 신랑집을 알아본다거나 하는짓을 통 하지 않고 윤참봉이 어간에 나서서 하는대로 윤참봉이 혼인을 정하고 왔다는 이튿날 곧 나락과 보리를 받아들인것이다.

이렇게 되였으니 장에 갔다오던 길에 윤참봉으로부터 신랑이 병신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혼인을 파한다든가 또 다른 말썽을 부린다든가 할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리주사는 윤참봉의 이야기를 들은 뒤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신랑이 와서 여러 사람을 웃기고 쪼깐이와 안해에게 미리 실망을 주기보다 나중일이야 어찌 되든간에 신랑을 못 보게 하고 쪼깐이만 데리고가서 혼인을 치르는 편이 낫겠다 생각하고 혼인바로 전날 아침에 장인이 구차하게 사는터라 사위맞을 준비도 부족하려니와 먼길에 왔다갔다 하자면 해가 모자랄가하니 올것없이 색시 태울 보교만 새벽에 닿도록 해달라는 기별을 신랑측에 보냈다. 그랬다고 해서 리주사의 마음이 편할리는 절대로 없었다. 그리고나서는 하루종일 호박잎담배만 정신없이 뻐금뻐금 피우며 지내다가 윤참봉내외와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간 늦은저녁에 안해가 신랑 큰상마저 차려놓은 뒤 석유등잔불이 밝지 못한 아래서 쪼깐을 무릎에 눕히고 베실로 이마의 털을 오주죽 오주죽 밀어주는 가까이 다가앉으며

《여봐, 래일 신랑을 그만 오지 말라구 했어.》

하고 조금도 주저하던 말같지 않게 불쑥 내뱉았다. 안해는 갑자기 영문을 몰라 눈이 뚱그래서 털뽑던 손을 멈추고 리주사를 쳐다보며

《그거 웬 일이라우?》

하고 물었다. 리주사는 안해가 예상이외로 놀라는 바람에 한참 무밋무밋 주저하다가 집이 너무 초라해서 남부끄러워 그랬느라고 대답했다.

《또 숭잽힐 일 났네.》

하며 안해는 혀를 쯧쯧 찼다.

《숭 잽힐거 뭐 있느냐 말이여. 구차해서 신랑 못 오게 했다는듸.》

《글쎄 남부끄럽게 신랑없는 혼인이 어디 있대여?》

《글쎄 걱정말어유. 새벽 일찌기 저쪽에서 보교가 올테니 쪼깐의 준비나 말짱 해놔여.》

《난 싫어유. 웨 남 다 하는짓을 못할게 뭐 있어라우. 집이 비좁기

루 당일 돌아갈텐디 무슨 걱정…》

《아, 자꾸 이리 떠들어댈테야.》

리주사는 안해의 쨍쨍대는 소리가 듣기 싫다기보다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몸서리치도록 무서웠던 까닭에 안해가 말끝을 맺기도 전에 화가 나서 이렇게 통소리를 질렀다.

안해는 전에없이 퉁명스런 리주사의 말이 섧기도 했지만 딸의 혼인날이 가까와올수록 눈물이 잦아지던판이라 그만 어린애처럼 내처 울었다. 어머니 무릎을 베고 이마의 털을 뽑히던 쪼깐이도 따라 울었다.

리주사는 딸과 안해를 부둥켜안고 같이 통곡을 해도 시원치 못할 마음이였으나 아무말없이 밖에 나가버렸다. 리주사가 나가버리자 안해는 곧 눈물을 씻고 흑흑 느끼여 우는 딸을 달래는것이다.

《울지 말아. 서방이 왔다 가자면 저쪽 혼인이 저물기두 할것이구 또 집이 너무 옹졸하니 하긴 남부끄럽잖은것두 아니지.》

《눈 붓는다. 울지 말아. 옛날에두 먼길엔 서방없이 색시만 데려가는 일이 많었대여.》

쪼깐은 어머니말도 못 들은체 여전히 울음을 계속했다. 그 울음은 어머니가 생각한 서방없는 혼인을 하는것이 싫어서 우는 울음은 아니였다. 나락과 보리를 실어온 날 저녁부터 쪼깐은 어쩐지 마음이 허전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괜스리 두렵고 무섭고 또는 울고싶어서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안 보는 뒤곁에 나가 그 울고싶은 마음을 종종 풀어보던 때의 울음과 같은 종류의 울음이였다.

4

어머니는 쪼깐의 그런 마음을 통 모르고 나중울음을 그친 뒤에도— 아니 이튿날 아침 일찌기 마을의 어둠이 다 걷히기 전에 아무도 몰래 리주사가 신랑측에서 보낸 보교에 쪼깐을 달랑 태우고 도적괭이처럼 보교뒤를 따라 큰 마을을 빠져나간 뒤에도 어머니는 떠나간 딸의 마음이 서방 못 본것으로 해서 서글프러니하고 딸이 떠난 뒤에 모여온 사람들앞에서

《원쑤의 가난때매 남들과 같이 못해준것두 복통이 터지는데 서방마저 못 오게 하구 혼자 보내서 하루종일 울며 갈것을 생각하니 가슴

이 찢어지라우.》
하며 눈물을 주체 못했다. 단지 가난한탓으로 신랑을 못 보게 해서 딸이 울것이라 아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리하거든 아무도 모르는— 쪼깐이까지도 알지 못하는 무서운 비밀을 품고 한발, 두발 걸어나갈수록 비밀은 무서운 현실로 전개될것을 알면서도 보교뒤를 따라 걸어야 하는 리주사의 마음은 어떠하랴.
해발이 산골짜기까지 쫙 퍼졌을 때 보교는 큰 마을 무연한 들과 자루목 고개도 다 지나서 향나무고개 턱마루길을 바라올랐다. 추수가 끝난 뒤의 들엔 사람 하나 얼른거리는 일없고 짚더미같이 쌓아놓은 시커먼 두엄뭉치를 헤치며 짖는 까치소리만이 유리같이 맑은 가을하늘 아래 마음껏 요란하다.
길고 높고 또 험한 향나무고개길을 기여오르는 보교군들은 한참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거려야 했다. 20리 길을 다 걷도록 말없이 보교뒤만 기운없이 따르는 리주사는 뒤로 자빠지는 뒤채를 부축하기에 돌부리에 채우는지, 잔등에 땀이 내돋는지 전혀 모르고 젊은 보교군들과 보조를 같이하느라고 숨이 무척 가빴다. 그러면서도 딸이 골몰할것이 가슴아파서 입을 쩝쩝 다셔가며 숨찬 소리로 리주사는
《쪼깐아, 어지럽잖으냐?》
하고 물었다. 그 소리는 몹시 비장했다. 하나 웬 일이랴? 아버지의 비장한 물음에 딸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가, 어지럽잖느냐?》
리주사는 같은 어조로 또 이렇게 물었다마는 쪼깐은 역시 말이 없고 리주사의 숨가쁜 소리만이 고개길을 바라오르는 급한 숨소리, 발소리에 휩쓸려 사라질뿐이다. 리주사는 두번이나 불러도 대답이 없는것은 딸이 우는것이라 짐작했다— 아니, 짐작뿐아니라 쪼깐의 쿨쩍쿨쩍 우는 소리가 꼭 들리는듯 해서 그만 땅에 주저앉아 통곡하고싶었다. 가슴이 더 꽉 질리며 귀가 윙윙 더 울고 땅이 더 움실거려서 보교채를 붙잡지 않았으면 쓰러질 지경이였다. 시울이 푹 꺼진 눈에선 눈물이 비오듯 내려 퍼부었다. 딸에게 한번 더 말을 건늬고싶었으나 말소리가 떨릴것이 무서워 못 묻고 보교채를 잡은채 그저 걷기만 했다. 걸으면서 리주사는 윤참봉의 말을 들었을 때 파혼하지 못한것을 후회도 했으나 보교가 향나무고개를 다 넘어서 삐죽이 내밀은 산비탈

을 훌쩍 나서자 방주골마을이 멀지 않았을 때는 땀을 씻는 시늉을 해가며 눈물을 씻은 뒤에 오라지 않아 시집에 당을 딸에게 오줌을 뉘워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딸을 달래기도 할양으로

《쪼깐아, 오줌이 안 매려우냐?》

하고 다시 말을 건늬여봤다. 딸은 역시 대답이 없었다.

이번엔 어린아이 달래듯이

《아가! 아가! 오줌을 누자!》

하고 보교문 가까이에 목을 길죽이 빼내밀고 말했다. 그래도 쪼깐은 또 말이 없었다.

보교군들은 리주사가 오줌, 오줌하는 소리에 오줌눌 생각도 났겠지만 또 오래지 않아서 시집에 당을것이니 색시를 오줌뉘워가지고 가는것도 좋을상싶어서 길 한옆에 보교를 덱깍 내려놓고 지나온 비탈길 저쪽에 사라졌다. 리주사는 보교군들이 사라진것을 다행하게 여기며 황급히 보교문을 열어제치며 《쪼깐아!》 하고 목이 터지게 불렀다. 그런데 웬일이랴! 보교안에서 우는줄만 알았던 딸은 쌔근쌔근 잠들고있지 않는가. 리주사는 딸이 울다가 기절한것이라 알고 처음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으나 보교문이 열리며 늦은가을바람이 보교안에 홱 들여치는통에 보송보송한 눈을 파시시 뜨는 딸을 보고는 너무 다행해서

《네가 잤느냐?》

하고 반가와했다. 쪼깐은 대답대신에 고개를 까댁까댁 하며 방그레 웃는다. 쪼깐이가 웃는것은 며칠밤을 꼬박 새우고 보교에 들어앉자 곧 잠이 들어서 한잠 포근히 잘 잔탓에 기분이 유쾌하기도 했지만 보교문을 열어제칠 때의 아버지의 눈물어린 얼굴을 보고 일부러나마 아버지에게 웃어보였던것이다. 리주사는 상상이외로 딸의 기색좋은것이 우선 마음이 놓여서 전보다 다른 목소리로

《얘야, 다 와가는데 오줌을 좀 눠야지.》

했다. 쪼깐은 또 고개를 돌려 안 마렵다는것을 알렸다.

《저기 가서는 하루종일 못 눈다.》

《나두 알어라우.》

쪼깐은 여전히 좋은 기색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리주사는 어린줄만 알았던 딸이 울기는커녕 방긋이 웃으며 온갖것을 다 안다는듯 한 태도에 그만 신이 나서

《네가 어찌 그런것을 알었드냐?》
하고 당황히 물었다. 쪼깐은
《어머니한테서 들어서라우.》
하고 대답했다.
《에미가 그럼 다른것두 다 알으켜주더냐?》
하고 리주사는 또 물었다. 쪼깐은 그렇다고 고개를 아래우로 까댁거렸다. 리주사는 딸을 시집보내며 울기만 하는줄 알았던 안해가 그런 말까지 타일러준 일도 신통하려니와 어린 쪼깐이 에미 말을 기억해둔것이 더 기특해서
《너 시집가는것이 좋으냐?》
하고 나직이 물어보았다. 늘 묻고싶었던 말이나 차마 뭐라 물을수도 없었고 또 물었대도 쪼깐의 대답이 시원치 못할것이 번연하므로 묻지 못했던것이다. 쪼깐은 아버지의 이 말에 역시 웃음으로 대답하려고 애를 썼으나 어느새 눈까풀이 뜨거워지며 코허리가 찡찡거리는듯 해서 그만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러자 리주사의 한때 반갑던 마음도 다시 무거워졌다. 리주사의 눈앞엔 문득 몇달전 돌방아집 새댁일이 떠올랐다.
새댁은 진안서 돌방아집 절름발이 큰아들에게 시집온지 사흘되던 캄캄하고 무서운 밤에 서방이 무섭고 싫어서 뒤산 소나무에 목을 매여 죽었는데 죽은 뒤에 그 어머니가 와서 혀가 한발이나 빠지고 눈이 허옇게 뒤집어진 새댁을 붙잡고
《원쑤의 가난때매 딸을 죽였네.》
하고 통곡하던 장면이 환등같이 나타나서 리주사는 등골이 쭈뼛해지며 전신에 찬서리가 혹 내끼였다. 오래지 않아서 그런 현실이 자기앞에도 닥쳐올것 같았다. 정신이 아찔해지며 앞에 길게 늘어져 웃줄웃줄하는 자기 그림자가 똑 도깨비같이 자기와 딸을 어디로 꾀여가는것 같아 눈을 감은채 보교를 붙잡고 걸었다.

5

보교군일행은 그림자가 발밑에 밟히는 오정에 신랑집에 닿았다. 신랑집은 제법 잔치하는 집같이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쪼깐은 웅성거리는 사람들속에 어머니가 가르쳐주던대로의 서투른 색시노릇 하기에 한

나절을 엉범뗑하니 지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서방이 어떻게 생겼을가 하는것을 잊지 않고 간간이 혹 서방이 어디 뵈는가 해서 머리를 숙인채 엳눈질까지 한 일이 있었다.

쪼깐이 머리속에 있는 서방은 큰 대문집 새서방처럼 옥색두루마기에 깜장신을 신은 자그마한 키, 둥글납작한 얼굴 그리고 둥글납작한 상냥스런 얼굴엔 항상 웃음을 띠우리라. 이것은 쪼깐이가 처음 해보는 생각이 아니다. 친정에서 나락과 보리를 받아들이는 날 저녁부터 서글프고 허전하고 무섭고 두렵고 한 마음속 한구석에 늘 해본 생각이다.

하나 한나절이 다 가고 색시방에 둘러앉았던 사람들이 색시가 곤하리라 하며 슬쩍슬쩍 다 피해나간 뒤에 한참 있다가 문을 덜컥 열고 성큼성큼 들어선 서방은 쪼깐이가 생각했던 그런 서방이 아니고 장승같이 구척이나 되는 키에 가슴이 떡 벌어지고 넙적한 상판에 얼른 봐도 눈에 뜨이는 시꺼멓게 푹 패여들어간 한눈과 범의 아가리같이 큰 입을 가졌다. 더구나 들어오자마자 말 한마디없이 곧 달려들어 옷을 벗기는데 색시가 너무 겁이 나서 뒤젓힘을 할라치면 그 억센 손아귀에 색시를 불끈 껴안고 똑 새새끼 잡듯 하는 잡도리로 씩씩거리며 옷을 다 벗긴 후엔 저만침 웃목구석에 놓인 꺼물거리 등잔불마저 훠 불어끄고는 그만 이불속으로 들어가는것이 아닌가. 쪼깐은 고양이앞의 쥐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어둠속에서 반기절을 한채 사시나무 떨듯 떨기만 했다. 이러한 기절상태에서 그밤이 다 지나고 문창이 훤히 밝아 의식이 다시 회복되였을 때에 쪼깐은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쪼깐은 무서운 꿈에서 간신히 깨였을 때처럼 눈을 번쩍 뜨고 사방을 휘돌아보다가 곁에 누운 서방을 발견하자 곤두박질하듯 이불을 밀어제치며 후닥닥 뛰여일어났다.

일어서서 옷을 주어 입으려니까 허리동아리며 엉뎅이 할것없이 물러나는듯 움직일수 없는 까닭에 그만 겁에 질려서 울음을 터뜨리고말았다. 인제 꼭 죽나부다고만 알았다. 서방은 색시가 울며불며 옷을 주어입는통에 곤한 잠에서 훌쩍 깨였다. 색시가 울며 옷을 주어입는 거동을 보니 벌써 눈치가 다른것을 알고 곧 따라일어나서 색시를 눙치며 닥치여 달래였다. 그럴수록 쪼깐은 더 울며 서방의 손이 제몸에 닿을가봐 무섭고 징그러운 버러지를 피하듯이 눈이 둥그래서 깜짝깜짝

몸서리를 쳐가며 외면을 하는것이다.

그러지 않을수 없는것이 그만 아직 ××한번 해본 일이 없었으니 완전히 성장된 처녀라 할수도 없었던데다가 이러한 급격한 일을 당하였으니 떨고 무서워하는것도 당연한 일일것이다. 그런 말이라군 일찌기 누구에게 들어본 일조차 없었다. 어린 딸을 못 미더워 보교안에 들여앉혀놓은 뒤에도 오만가지 당부를 타일러주고 가르쳐준 어머니까지 신방에서 있는 밤의 사건과 같은 이야기는 한번도 들려준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 말은 함부로 못하는것인줄 누구나 알았든 까닭에 쪼깐의 어머니도 다른 말은 다 타일러주면서도 그에 대한 말은 못했던것이다. 서방은 색시가 점점 눈이 더 둥그래지며 우는 까닭에 안타깝기도 하려니와 남부끄럽기도 해서

《울 일이 아니래도 그래.》

하고 꾸중 비슷한 어조로 말을 하면서도 색시가 지나치게 겁나하는것을 알고는 자기가 밤에 한 일을 마음속깊이 몇번 뉘우쳤다. 본래는 색시 대하기 전에 그렇게 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눈 한쪽이 남만 같지 못한탓으로 혼인말을 낸 곳마다 퇴박을 당하기만 한 그는 자격지심에서랄가 색시방에 들어오기 전만 하더래도 사람 안 보는 틈을 타서 애꾸눈 한쪽에 항상 지저분하게 괴여있는 진물이며 눈곱재기들을 훔쳐내고 후벼내며 꼭 무슨 모험을 하려는 사람처럼 불안초조해서 안팎을 드나들며 신방에 들어가서는 얼른 이불을 뒤집어쓰고 죽은듯이 잠만 자리라 생각했던것이 목화송이처럼 봉글봉글 귀여운 자그마한 색시가 마음에 꼭 들었는지라 30남자의 끓틀거리는 욕망을 그대로 폭발시키고말았던것이다.

《내 다시는 안 그럴것이니 울지 말어다우.》

암만 눙치며 달래도 듣지 않는 색시를 어찌하는 수가 없어서 서방은 이렇게 말하고는 안타깝고 불안하고 딱한대로 밖에 나가버렸다.

6

서방이 나가자 곧 어간문이 몇번 열리며 사람들이 빠끔빠끔 들여다보는 눈치더니 웬 새댁이 세면물을 들고 들어와서 세면을 하라는것이다. 쪼깐은 세면물이 앞에 놓이자 물그릇에 얼굴을 숙이고 두손으로

물을 끼얹었다. 우는 얼굴을 남에게 보이기 싫었음이다. 집에서 같으면 발버둥을 치고 울어도 다 못 울 마음이건만 낯선 사람들뿐이라 대야속에서 울음을 삼키며 눈을 뻐금뻐금 벌려 떠보기도 하고 눈을 감은채 두손으로 물을 끼얹기도 했다마는 흘러내리는 눈물은 좀체로 멎지를 않았다. 맘대로 못 우는 울음이 섧어서 눈물은 더 쏟아졌는지도 모른다.

아직 눈물이 멎지 않았는데 또 아침상이 들어왔다. 낯씻는 시늉을 해서 눈을 씻고 또 씻고 억지로 밥상에 앉았으나 자반이며 돼지고기며 북어구이며 콩나물찬 등이 제맛이 들리 없고 쌀밥은 모래알같이 입속에 깔깔하다. 몇숟가락을 못 뜨고 숟가락을 놓으랴니까 세면물 떠다준 새댁이 숟가락을 다시 쥐여주며 같이 먹으면 밥맛이 나는 법이니 같이 먹자는것이다.

권에 못이겨 숟가락을 잡기는 했으나 같이 먹는다고 해서 밥맛이 날리 없고 밥상은 점점 더 눈물속에 어지럽고 숟가락소리는 꿈속같이 몽롱했다.

새댁은 밥을 못 먹고 울기만 하는 쪼깐이가 딱했는지 자기는 사촌시동서되는 사람이라 말한 후에 처음엔 다 울음이 나는것이라는등, 차차 정이 붙으면 친정이 다 뭐냐는등 이런 종류의 말을 자기 서방 자랑을 섞어가며 수선을 피우다가 쪼깐이가 귀도 안 기울이는 눈치에 비위가 틀렸는지 금새 히죽히죽 벌어지던 웃음을 거두며 량미간을 찌프리더니

《아따, 제발 좀 그만 울어라우.》

하고 짜증을 냈다. 하나 쪼깐에게 사촌시동서의 짜증이 무슨 효과가 있으랴. 쪼깐은 여전히 숟가락을 든채 눈물을 방울방울 흘렸다.

《색시 아버지 떠나서라우.》

하는 소리가 쪼깐의 귀에 들렸다. 모든 음향이 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건만 이 소리만은 쪼깐의 귀속으로 재빨리 들어왔다.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문을 줘여지르며 쏜살같이 밖으로 내달았다.

하나 쪼깐이가 삽짝문밖 큰 길거리에 내달았을적엔 배웅나갔던 사람들도 돌아서들 들어오고 어느새 아버지는 무연한 들 앞길도 지나서 금봉산 비탈길에 들어섰었다.

쪼깐은 뒤미처 나온 사촌시동서와 그외 다른 사람들에게 팔을 붙잡

힌채 발을 동동 구르며
《아버지, 같이 가유, 같이 가유.》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는 목이 터지는듯, 가슴이 미여지는듯한 비참한 소리였다. 그러나 리주사는 이 비참한 딸의 음성을 들었는지 말었는지 아침해발속에 점점 작아지는 하얀 모습은 산모퉁이 저쪽에 숨겨버리고말았다.
쪼깐은 아버지의 뒤모양조차 아주 사라지고나니 하늘아래 혼자 남은듯 거저 눈앞이 캄캄해서 사촌시동서가
《남부끄럽게 이게 웬일이래여?》
하고 달래는 말도, 울타리너머로, 울타리 구멍으로, 삽짝문밖으로 넘겨다보고 엿보고 쑤군거리고 하는 동네 녀편네, 늙은이, 젊은이, 아이, 어른들을 다 모르고 팔을 끌리워 방에 들어오면서까지도 고개를 돌이켜 그 산비탈길을 바라보며 울었다.
이날부터 쪼깐은 그 산비탈길이 슬퍼졌다. 이날뿐아니라 그뒤— 마을에서 산제 지내던 저녁까지—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쪼깐의 온갖 기억이 몽롱해지는 때까지도 그 산비탈길은 슬픈대로 기억 한구석에 남아있으리라.
마을의 산제는 쪼깐이가 시집와서 나흘째되던 날 밤에 지내게 되였다.
삼십가호가 다 안되는 작은 이 방주골마을 백성들은 추수가 끝나고 도지를 주고받고 이러한 법규가 시행된 뒤에는 어느해나 빼는 일이 없이 의례 샘골 포기나무아래서 산제 지내는 일을 잊지 않았다. 당장 배가 고파서 허리를 움켜잡으면서도 그들은 앞날의 행복을 위해서 산신께 드릴 제물을 미리 마련해놓고 산제날로 받은 며칠전부터 남녀로소할것없이 근신(몸차림이나 행동을 삼가함)하는것이 법으로 되여있다. 소작인도, 소작인앞에 호랑이같이 무서운 지주도 다같이 행복을 얻고저 엄숙히 근신을 해오며 정작 산제날에 이르러서는 무슨 큰 명절이나 같이 새옷을 갈아입고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는것은 물론 해마다 돌려가며 맡는— 가령 떡을 맡는 집, 밥을 맡는 집, 도야지(돼지)를 맡는 집, 과일 맡는 집, 전 맡는 집, 그밖에 다른 여러가지를 맡는— 집에서들은 다 각각 자기들 집에서 맡은것을 준비하기에 분주하다.

쪼깐의 시집에서는 이번 산제에 산신님께 도야지를 잡아 바칠 당번이여서 쪼깐은 그 시누이와 함께 점심먹은 뒤에 샘골 포기나무아래 서방이 아침에 갖다 걸어놓은 소죽 끓이는 큰 솥에다가 물을 채워야 하겠으므로 그 멀고 깊은 샘골 포기나무아래 언덕길을 몇번 헐떡거리며 오르내렸다.

산속깊이 꼭 병풍을 두른듯이 된 샘골에선 마을의 집들도 쪼깐의 아버지가 떠나간 비탈길도 보이지 않았다. 쪼깐은 시누이와 같이 여섯동이들이 소죽솥에 물을 채운 후 멍하니 서서 주위의 산들을 바라보다가 서편 어느 산 하나를 가리키며

《우리 저 산에 좀 올라가 봤으면.》

하고 시누이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가 떠나간 비탈길이 보이는 곳이더라면 쪼깐은 아버지가 떠난 뒤 닷새를 어느날이나 잠시도 잊지 않고 꼬바기 또 그 비탈길을 내다보며

《저 산 모퉁이만 돌아서면 우리 집에 갈것을.》

하고 생각했을것이나 그 길이 통 안 보이니 산만 병풍같이 쭉 둘러선 골짜기에 서서 그 산들을 바라보는 사이에 쪼깐은 갑자기

《저 산만 넘으면 우리 집에 가리라.》

하는 생각이 났던것이다.

쪼깐이보다 네살 우인 시누이는 어쩌다가 하는 오라범댁 말이여서 거역하는 수가 없고 다른 날과도 달라 저녁을 일찍 지어내야 할것을 알면서도

《성, 그래라우.》

하고 반가와 대답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시누이라면 오라범댁에 곰곰하지 못한것이 통례이지만 이 시누이만은 저보다 나어린 그 오라범댁을 끔찍이 알았다.

시누이뿐아니라 서방은 물론 그 시어머니도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아주 딴판으로 쪼깐을 딸과 같이 귀중히 알았다. 그들은 원체 마음도 선량하려니와 쪼깐을 어떻게 하면 그들 집에 마음을 붙이게 할가 하는데서 한층 더했다.

혹 쪼깐이가 그 서방을 좋아하는 일이 있었더면 마음좋은 시어머니나 시누이라 하지만 쪼깐을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했을지 모르나— 어

쨌든 그들은 쪼깐을 무척 위한것만은 사실이다. 첫날밤 이후로 쪼깐이가 도무지 서방방에 들어 안 가고 외양간과 보리짚속과 심지어 아궁이에까지 들어가 자려고 했으나 그 시어머니는 한번도 꾸중하는 일 없이 자기옆에서 자자고 달래며 타이르고 낮에도 바느질이나 정지간 온갖 일을 며느리는 안 시키고 딸에게만 시켜왔다.

그러지 않을수 없는것이 시어머니는 40에 혼자나서 아들, 딸들에게 정을 홈빡 붙이고 살아오며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얻어서 세상을 즐겁게 살자하는것인데 아들은 30이 넘어 요행 장가를 들었으나 색시가 날마다 울며불며 야단이니 남부끄런 일도 큰 탈이지만 아들이 장가가기 전보다 더 불쌍하고 또 그우에 제 오라범까닭에 혼기를 놓친 딸의 사정도 딱하지 않을수가 없었고— 또 시누이는 시누이대로 오라범댁이 혹 도망을 간다든지 친정에 가 오지 않는다든지 하면 오라범이 불쌍도 하려니와 소문이 쭉 퍼져서 자기의 혼사에 지장이 생길가 하는 념려도 있었다.

그러하건만 쪼깐은 그들의 이런 마음을 통 모르고 서방이 싫으면 싫을수록 그들의 친절이 싫기만 했다.

7

시누이의 《그래라우.》라는 대답이 떨어지자 머리속에 작정해논 방향을 향해 올리달은 쪼깐은 뛰는양, 날으는양 어느새 산중턱을 달리고있었다. 솔밭속으로 점점 작아지는 쪼깐의 뒤를 죽어라 하고 따르는 시누이는

《성, 같이 가라우.》

하고 목을 길게 빼내들고 숨찬 소리로 불렀다.

쪼깐은 그래도 돌아다보기는커녕 《성.》하고 부르는 시누이의 소리가 굼벵이같이 징그럽고 메스꺼워서 더구나 주먹을 바로 쥐고 올리달렸다.

쪼깐은 시누이보다 무척 먼저 산등성이에까지 다달았다. 하나 산아래서 가졌던 쪼깐의 꿈은 산등성이에서 산산이 깨여지고말았다.

산등성이에만 오르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이 사는 탱자나무가 선 큰 마을이 보이려니 했는데 쪼깐이가 서있는 산등성이와

같이 수없는 산등성이들이 울뚝불뚝 쪼깐의 눈물속에서 움직일뿐이고 큰 마을은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송림속에 솨솨 불었다. 산새가 쭈쭈 울었다. 쪼깐은 시누이가 따라오지 않았더면 적막한 그 수많은 산등성을 죄다 넘으며 큰 마을을 찾아 울며 헤매였을지 모르나 시누이의 간곡한 권에 못이겨 올라가던 길을 다시 걸어서 내려왔다. 시집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시어머니가 저녁을 지어놓고 그사이가 긴듯 해서 몇번을 샘골쪽만 바라보던 서방은 쪼깐들이 들어오는것을 보자 산제터에 지고 갈 도야지 묶을 새끼랑 지게를 준비하다가 그만 눈이 번쩍 뜨여서 새끼를 쥔채 부엌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부엌으로 어린애처럼 들락거렸다. 서방은 쪼깐이가 무섭고 싫어하는 눈치를 채는지 못채는지 한쪽눈에 전 시력을 집중시켜 어루만져주고싶고 또 터지도록 꼭 껴안아주고싶은 쪼깐의 귀엽고 사랑스런 얼굴과 모습을 살피기에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모순된 감정이랴. 이 모순된 감정 그대로 그들은 저녁이 지난 뒤 서방은 지게에다가 도야지와 장작을 짊어지고 산제터로 앞서가고 뒤미처 쪼깐이와 시어머니, 시누이는 도야지 들여앉힐 큰 함지박과 바가지와 순대피 받을 옹배기와 시퍼렇게 간 칼과 도마 등을 이고 지고 닿았다. 벌써 산제터엔 마을의 어른이라 이르는 첨지령감이 동네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제단을 바로잡고 포기나무아래근방을 말짱히 쓸고 장작을 서리우고 제단 량쪽에 홰불을 세우고 했다. 쪼깐은 서방이 도야지 잡을 물을 끓이는 곳에서 저마침 서서 다 어둡지 않은 포기나무아래서 왔다갔다하는 젊은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살피며 그들중 자기 서방처럼 눈 하나 곯아빠진것이 있나 하고 찾았다마는 그 여러 사람들은 눈이 죄다 바로 배기고 키도 안 크고 얼굴도 넓지 않고 또 늙지도 않았다. 쪼깐은 그들과 궁뎅이를 들먹하고 앉아서 장작불을 때고있는— 구리쇠같은 번질거리는, 얼굴이 이글이글 타는 장작불빛에 더한층 보기 징그럽게 큰 서방과를 비교해보았다. 마치 그 젊은 사람들은 하늘사람같고 서방은 무서운 이야기속에 나오는 귀신같게도 생각됐다.

쪼깐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 사이에 저녁빛은 점점 검어가고 마을사람들은 늙은이로부터 아이들까지 죄다 산제터로 모여들었다. — 떡 맡은 집, 밥 맡은 집, 전 맡은 집, 과일 맡은 집들이 다 올라왔다.

제단 량쪽에 세운 홰불도 빛을 내여 시뻘겋게 짐승의 혀바닥같이 널름거리고 땅에 가려놓은 장작무지에도 불이 대여졌다.
제단에도 첨지령감의 손으로 떡, 밥, 북어, 전, 과일 등이 놓여졌다. 이제 도야지만 잡으면 산제는 시작되는 판이다.
도야지는 다 함께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서 제일 나중 잡아야 한다. 이것은 도야지의 최후의 비명을 산신님께 들려야 한다는— 전부터 늘 내려오는 이 마을의 풍습인 까닭이다.
정말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 쪼깐의 서방은 한쪽옆 새끼에 동이운채 꽥꽥 꿀꿀 소리지르는 도야지를 척 깔고 올라앉아서 앞대가리를 한손으로 꾹 잡아쥔 후 버둥거리는 새끼동인 네발을 지그시 밟고는 시퍼런 칼을 모가지에 쿡 찔러 묵빛같은 피를 콸콸 쏟게 했다. 도야지는 산이 울리도록 꽥꽥 소리를 지르다가 옹배기에 하나로 피를 가득히 쏟아놓고 그만 네다리를 쭉 뻗어버리고 죽었다. 사람들은 역시 긴장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도야지의 최후를 보고있었다. 하나 쪼깐이만은 공포와 전률과 의아에서 저도 모르게 뒤걸음질을 했다.
그 피를 보자 곧 시집오던 날 밤의 일이 눈앞에 번개같이 떠올랐던 까닭이다. 더구나 서방이 도야지를 깔고 앉아서 목에 시퍼런 칼을 쿡 찔러 피를 콸콸 쏟게 하는 때까지의 광경과 또 씨근씨근 헐떡거리는거며 도야지가 사지를 버둥거리고 몸을 꿈틀거릴 때면 서방의 궁뎅이가 들먹거리는것은 숨이 꽉꽉 막힐 지경이였다. 쪼깐은 자기도 어느날 도야지처럼 피를 쏟고 죽을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시집오던 날 밤 그뒤로 외양간 보리짚속으로 혹은 시어머니옆에서 밤을 보냈던까닭에 그날 밤과 같은 일은 통 없었지만 그 나흘동안을 서방과 같이 한집에 살아왔다는것이 무섭고 신기해서 전신에 식은땀이 쭉 흘러내렸다.
밤이 무섭더래도 그놈의 무서운 서방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쪼깐은 산제터에 홰불과 장작불이 점점 더 붉어가고 사람들이 그 붉은 불빛속 제단앞에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섰을 때 그 사람들중 아무도 몰래 산제터를 빠져 샘골어구에까지 나왔다.
하늘엔 별만 뜨고 바람은 싸늘했다. 홰불과 장작불빛이 없는 마을의 밤은 무척 무섭고 등불 하나 켜지 않은 집들이 무서운 짐승같이 엉기엉기 앞에 기여오는것 같았으나 쪼깐은 그래도 발을 멈추지 않고 시

집 삽짝문앞까지 이르렀다.

개들이 왕왕 요란스레 짖었다. 개짖는 마디마디에 오돌오돌 놀래며 삽짝문을 열고 가만가만 부엌에 들어갔다. 부지깽이가 걸리고 콩깍지가 오족오족 소리를 내며 밟힐적마다 역시 쪼깐은 가슴이 서늘해서 뒤걸음을 쳤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손을 더듬어 무엇을 찾았다. 바가지, 양재기, 사발들이 괴상한 소리를 내며 부딪친 뒤에 쪼깐이가 찾으려는것이 달그락소리와 함께 손에 쥐였다.

쪼깐은 반가움보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소름이 쪽 끼쳤다. 그는 그대로 밖으로 뛰여나갔다. 하늘엔 여전히 별만 뜨고 바람은 싸늘한채로 밤은 깊어갔다. 개소리도 끊어졌다. 쪼깐은 보리짚을 한아름씩 몇번 안아다가 서방방에 들여 처넣고 손에 쥐였던것을 톡 그어대였다. 불은 얼른 잘 붙었다. 치마폭만 하게 붙을적엔 그놈의 무서운 방이 불에 타는것이 몹시 시원하게만 생각되였으나 불길이 천정에 올리 뻗치고 후룩후룩 소리를 내며 활활 타게 될적엔 쪼깐은 겁이 나서 마당에 뛰여내려와서 고함을 지르며 아래우로 뛰였다. 동네 개들이 다시 몰려와서 쪼깐이와 같이 뛰며 짖었다.

불길은 어느새 천정을 뚫고 밖으로 내뻗었다. 시커먼 연기와 재와 시뻘건 불길과 타는 소리와 타서 집이 내려앉는 소리와 이런것이 더해갈수록 쪼깐은 더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불을 달아놓기 전에 마음은 그놈의 미운 집이 다 타서 없어지는것을 보고 아버지가 떠나간 비탈길을 떠나가려던것이나 불길이 하늘에 올리뻗치는 세력에 놀라 쪼깐은 불이 다 타기 전에 마을앞 큰길거리에서 기절해 쓰러지고 말았다.

쪼깐이가 기절해버린 뒤에 집은 세채나 더 탔다. 마을사람들은 그제야 산제터로부터 내려왔다. 시어머니, 시누이 또 동네사람들—집을 태워버린 집들에선 쪼깐을 죽일것처럼 달려들며 아우성을 쳤으나 서방만은 불끌 생각보다도 기절해버린 쪼깐을 먼저 살리고저 했으며 이튿날 동네사람들이 쭉들 모인 마을앞에서 순사가 쪼깐을 긴 바줄에 꽁꽁 묶어서 자전거뒤에 끌고갈 때에도 서방은 순사에게 용서해달라고 손을 싹싹 부볐다.

《단편집》(하) 1940.

예술산문

커다란 문제 하나

강 경 애

세계 풍운은 뒤숭숭한채 겨우 1932년을 마치고 미결산 그대로 1933년을 맞게 되였다.

나는 반드시 자기의 희망과 또 나자신의 관념적태도를 객관적현실과 바꾸어놓고 선동적언사를 희롱하려는 위험한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고 힘쓰고있으나 나는 이해를 어쩐지 폭풍우의 전날 밤을 맞는듯 한 느낌으로써 보지 않을수가 없다. 그러면 이때에 처한… 인 동시에…의 하나인 더욱 이 땅 녀성동무들은 일대 각성이 있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녀성들은 일반적으로 명일의 폭풍우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밤의 고요한것에만 단꿈을 꾸려드는 느낌이 없지 않다.

현하 세계정세를 한번 보면 ××주의 국가는 그의 최후과정인 ××××길을 밟게 되였으며 생산조직의 질곡은 백도의 팽창을 보게 되였으니 ××의 ××진출과 동양 몬로주의, 미국과 영국의 경제뿔럭… 등 세계렬강은 종내 관세(형세를 살펴봄)의 대장벽으로 내부의 모순을 일시나마 미봉하려고 한다.

필경 렬강간의 세계 제2대전이 일지 않을수 없을것이 명약관화(불보듯 명백함)이다. 보라, 국제련맹의 위신은 무여지하게 떨어지고 방금 렬강은 군비 대확장에 몰두하고있으니 그 결과는 장차 무엇을 일으키려느냐? 인류의 사멸, 그것뿐이다. 그러므로 1933년을 맞는 이때는 과연 폭풍우의 전날 밤으로 안 볼수가 없다. 그러면 이때를 당한 ××××은 그 선동에 휩싸여 그만 …되고말아야 할것이냐. 아니다, 우리들은 이… 전쟁을 방지하여 인류사멸의 몰락에

서 구원하기 위하여 력사적, 필연적진행에 대하여 변증법적 자기 운동에 의식적으로 적극 행동을 취할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실로 ××××과 ×××을 해방하는 동시에 세계인류를 도탄에서 구원하는것이 될것이니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들의 앞에 놓인 당면의 위대한 사업이다.

《신녀성》1933. 1.

나의 유년시절

강 경 애

다섯살에 아버지를 여읜 나는 일곱살에 고향인 송화를 등지고 장연으로 오게 되였습니다.

말할것도 없이 어머니는 생계가 곤난하시므로 더구나 장차 의지할 아들도 없고 다만 딸자식인 나를 믿고 언제까지나 살아갈수 없는고로 재가를 하셨던것입니다.

그때에 이붓아버지에게는 남매가 있었으니 남아는 16～17살가량이였으며 계집애는 내 한살우가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지 이틀도 지나기 전에 벌써 우리들은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속상하실것은 말할것도 없고 이붓아버지까지도 적지 않게 실망을 하여 나중에는 몇번이나 헤여지려고까지 한 기억이 아직껏 남아있습니다.

우리들이 싸움을 하고 울 때마다 어머니는 너무 속상해서 우시면서 《경애야, 너 싸우지 말아. 너 정말 늘 그러면 난 이렇게 눈감고 죽고말겠다.》 하시는것이 거의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였습니다.

철없는 나이라 죽는다는 말에는 그만 겁이 나서 그렇게 북받치는 울음도 마음껏 내울지 못하고 어머니 일하는 곁에 성명없이 쪼그려 앉아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돌아가시는것을 본 까닭으로 그러나 웬일인지 날이 갈수

록 어머니를 빼놓고 그 집안식구는 나를 몹시도 미워하는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잠시만 빨래 같은것을 하시게 되여 집에 안계시면 이붓아버지까지도 한몫이 되여 나에게 그 무서운 눈을 흘기며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는것이였습니다.

인생의 반길에 가까와오는 저이건만 아직까지도 그 눈 흘기는 기억이 문득문득 생각키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바로 10살나던 때의 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작으니까 그때에는 모두가 날 보고 도토리알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리지는 엉뚱하게 발달되였던것입니다.

그때에 벌써 《조웅전》이며 《숙향전》 할것없이 내 눈에 띄인 소설책이라고는 기어코 독파하고야 견디였습니다.

봄! 우리 집 뒤산에는 살구꽃, 앵두꽃, 복숭아꽃이 피여오르는 솜뭉치같이 아주 온 산을 푹 덮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각시를 만들어가질 달래풀까지 길이길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도 빨래를 가시며 싸움하지 말고 잘 놀아라고 몇번이나 부탁하시며 누룽지를 두 아이에게 똑같이 나누어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들은 누룽지를 먹으며 소꿉질을 하다가 그것도 싫증이 나서 산으로 기여올라 달래풀을 뜯기 시작하였습니다.

큰년이는 몸이 비둔하여 빨랑빨랑치를 못하므로 언제나 산에 오르게 되면 내 뒤꽁무니를 좇아다니며 내가 먼저 뜯은 나물에 손을 대였습니다.

역시 그날도 그러하였습니다. 한참후에 《경애야, 경애야, 이리 오라우. 여기 달래풀 많아.》 하고 큰년이가 부름에 생각없이 깡충깡충 뛰여갔더니 덮어놓고 내 치마앞을 헤치고 들여다보며 그중 좋은것으로 움켜쥐였습니다.

불의지변을 당한 나는 그만 너무 분하여서 큰년의 손을 쥐여 뿌리치니 그는 단박에 달려들어 나의 머리를 잡아 숙치며 끄집어당겼습니다.

그의 힘을 잘 아는 나는 어쩌는수없이 힘껏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씩씩하며 무섭게 따라왔습니다.

집으로 내려가려니 어머니가 아직도 안 오셨을터이고 그래서 산우로 도망질치다가 내가 매일 잘 오르는 살구나무를 타고 원숭이모양으로 발발 기여올랐습니다.

그가 나무를 타지 못하는줄 잘 알았기때문이였습니다.

마침내 큰년이는 살구나무아래까지 와서는 나무를 사정없이 흔들어놓으니 마치 겨울에 눈내리는것처럼 꽃송이가 펄펄 날아 내 머리와 옷이며 그 애에게까지 빨갛고 희게 떨어집니다.

한참이나 흔들던 그는 싫증이 났던지 뭐라고 욕을 퍼부으며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는 적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어서 바삐 어머니가 오시기를 눈이 아물아물하도록 바라보고있었습니다.

그때에 내 눈이 뚫어지도록 바라보던 어머니가 오실 그 길!

이 봄을 맞는 나에게 아직까지 그 길이 아득하게 나타나보입니다.

《신동아》 1933. 5.

불타산 C군에게

—그리운 고향—

강 경 애

두어번 준 편지는 받아 읽었소. 허나 워낙 붓들기를 싫어하는 나요, 더구나 답서같은것은 염직해서는 아니하는 괴벽한 버릇인지라 이때까지 한장의 글월을 아끼였소만 그렇다고 결코 군을 잊은것은 아니였소. 고향의 그 달을 생각하였고 또한 군의 얼굴을 머리에 그려보았소. 그러니 이 붓을 들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소그려.

빠르오. 군과 내가 두견산에 올라 멀리 불타산을 바라보며 문답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일년이 되였소그려. 그동안 군은 몇번이나 두견산에 올라 그 달을 바라보았소?

군! 나는 이 붓으로 일년전 그때를 그려보려 하오.

우리들이 가지런히 서서 두견산을 향하여 올라가오. 긴 풀들이 옷가를 스쳐 실실 소리를 내였고 짙은 풀내를 띄운 무르익은 흙내가 구수하였소. 우리들의 발끝이 잔디속에 포근포근 파묻히매 꼭 시내물속에 들어선듯 한 감촉이였고 그곳에 벌레소리 명주실끝같이 오리오리 뽑히였으며 메뚜기 푸르릉 날았소.

우리들이 바위우에 올라앉으니 불타산은 여전히 높았고 들은 휘영청 멀었소.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들의 땀배인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는데 기운이 버쩍 났소. 돌아보니 다박솔포기가 자욱히 우리를 둘러쌌으며 그리로부터 풍기는 찬바람을 우리는 랭수마시듯 하였소. 금방 해가 진 뒤라 그런지 멀리 불타봉에는 붉은 빛이 은은하였고 산밑으로 뽀얀 안개가 몽실몽실 피여오르오.

그곳엔 아마 온갖 새들이 날개를 접고 포근히 잠들어있을듯 하였소. 숲속으로 흐르는 시내물만이 돌돌 소리를 낼게요. 이 모든것을 폭 덮어나간 하늘엔 흰 조개같은 구름장이 오글오글 엎드려있고 그사이로 파란 하늘이 꼭 호수와 같소. 까뭇거리는 해변가에 섰는듯 속을번 했소.

대지는 검어가오. 불타산아래로 파도같이 넘실거리는 오곡이 가슴이 턱 나오게 가득 들어차있고 집으로 돌아오는 농부의 흰 옷자락이 나비같이 날고있소. 시커먼 벌을 뚫고 흐르는 저 시내물은 어떤 이국에 가는 길인가…도 싶으오.

어느덧 시가에는 전등불이 흩어져 화단인양싶었고 하늘엔 별들이 박꽃처럼 피여나오. 깜짝 놀랄만큼 컴컴한 저 동산, 숲속은 환하였소. 숲속에 반쯤 가리인 그 달은 부끄러워 이마를 숙인 처녀의 얼굴같고 어찌 보면 오래 그립던 벗의 얼굴을 대하듯 하오.

달이야 여기서도 볼수 있건만 내 고향 뒤숲에 숨어 오르는 그 달 같겠소? 달려가면 쥘듯 하고 소리치면 대답이 있을듯 한 그 달! 그 빛이 희고 맑음이여, 서리같이 찬듯 하건만 오히려 다정한 감을 갖게 하고 그 모양 둥글어 모짐이 없음이여, 무심할듯 하건만 온갖 정서를 한가슴 폭 담은 그로다. 군은 견디다 못해서 벌떡 일어나 휘파람을 끊어질듯 불지 않았소.

군, 여기까지 쓰고보니 붓끝이 딱 막히오. 나머지 생각나는것이 있거들랑 이 벗의 부족한 글을 보충해주오.

군의 건강을 빌며 그만하오.

《동아일보》 1936. 6. 30.

기억에 남은 몽금포

강 경 애

언제나 려행하기까지 한가로움을 갖지 못한 나는 이때까지 려행한 일이 극히 적다. 몇번 고향을 다녀온것뿐외에 전무하다고 해도 옳을게다. 허나 구태여 쓰라니 고향의 접근지인 몽금포이야기나 또 끌어내볼가 한다.

《에크! 또 나온다. 또 숨는다. 그 빛이 왜 저리도 푸를가. 심심산곡에서 별만 보고 자랐음인지 그 빛이 별인양 속기 쉽고 푸른 하늘을 그리워 애를 태울고. 그 머리 다소곳 숙이고 수심빛이네.》

2년전에 내가 귀향했을 때 몽금포를 찾아가는 길에 송림틈에 겸손스레 피여있는 도라지꽃을 보고 전속력을 다하여 닫는 자동차에서 즉흥으로 그린 글의 한폭이거니와 지금도 내 머리에 그 도라지꽃이 파르스름히 남아있다.

하늘도 보이지 않도록 첩첩히 얽힌 송림, 마치 구름인양 피여서 뜨고 이름모를 산새들이 파닥거려 날 때 묵은 솔잎은 봄비소리를 내고 떨어지오. 그곳에 송진내 향불인듯 거룩하오. 다박솔포기뒤에 숨어 갸웃이 내다보는 도라지꽃 내 치마빛보다 더 푸른걸.

《내 비록 몸은 조그마나 맘이야 저 바다에 뒤지랴!》

섬몽금이 바위우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읊었던 글이다. 내 지금 붓을 들고 종이를 대하니 서해가 암암히 떠오른다. 세속에 물들었던 내 가슴이 탁 터져버리고 하늘에 닿을듯 한 그 수평선이 내 가슴에 힘있게 좍 건너가던 그 찰나가 지금 이렇듯 가슴에 출렁거린다.

수평선우에 깨울히 걸려있는 저 흰 돛폭, 예전 보름 지난 쪽달같으이. 밤하늘에 별과 달이 빛난다면 저 바다엔 어선의 돛폭일지니. 망망한 바다에 저것이 있길래 내 집안같이 아늑해보이고 친하고싶은 맘

에 사람들의 가슴은 들먹이고.

손을 내밀어 오요요 부르고싶어지는 까만 섬들, 꼭 강아지같애. 아직 채 자라지 못한 강아지가 어미개 궁둥이만 쪼르르 미쳐다니는듯 한 저들.

바다품에 꼭 안겨있어 머리숙여 가만히 들으니 섬기슭을 찰싹찰싹 스치는 파도소리가 내 어머님의 입속노래보다 더 부드러우이.

뫼를 이루고 재를 이루어서까지 바다를 따라나온 사장아가씨, 그 몸의 소복이 아담하오, 거룩하오. 옛날 사마상여의 록기금소리에 탁문군의 그 뜻이 움직였다 하거니와 그대 또한 탁문군의 넋이 들어 이에 나왔노. 파도소리에 그 맘이 진실로 움직임이였누.

오늘도 사장을 치는 파도소리 여전하오리. 그 적은 모래알이 하나하나 파도우에 적시우리로다. 그곳에 금실같은 별이 웃고 모래가 화하여 된듯 한 게들이 그 빛을 잔등에 떠메고 바람같이 나붓길테지. 바다비린내 나오.

눈같이 희고도 부드러운 모래우에 떨기떨기 엎드려있는 해당화, 그 붉은 꽃송이는 필경 바다를 향한 사장아가씨의 일편단심이리로다. 바다가 아니면 따르지 않는 그대. 같은 맘 언제나 한가지리니, 올해도 불이 붙는듯 피여있으리, 피를 뿌린듯이 피여있사오리.

쏵 내밀치는 파도소리 내 붓끝에 적시울듯.

문득 나는 붓을 입에 물고 망연히 저 하늘을 바라보노니.

6월 19일 아침

《녀성》 1937. 8.

약 수

강 경 애

상경하여 신병에 특별한 효과를 얻지 못한 나는 6월 중순에 일로 삼방으로 보따리를 싸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내가 이 삼방협에 짐을 푼지도 벌써 10여일이 넘었는데 문뜩 《인문평론》에서 부탁한 원고가 생각나서 이에 붓을 들기로 하였다.

최근 3년째 신병으로 인하여 나는 오로지 투병을 일삼지 않을수 없는 형편이 되였고 그래서 자연 붓과 멀어졌기때문에 그 상이 여간 무디지 않은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허나 그것은 할수 없는 일이다. 오래간만에 아름다운 자연의 품에 안겼으니 어디 붓끝을 다듬어보기로 하자.

어떤 날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는 길로 고뿌 한개만을 들고 천진동약수터로 발길을 옮겼다. 여기는 바로 산아래 숲속이라 그럴가, 어인 일인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서 조금 적적하다. 그러기에 나는 여기를 더 좋아해서 아침이면 의례 이곳을 찾는것이다.

안개가 자욱하다. 사람들도 자고 또 새들도 자는지 이 누리는 나무숲으로 빼듯 할뿐 고요하였다.

들리느니 내물소리가 돌돌 구을고 간혹 얘기소리가 끊길듯 이어간다. 호! 하고 크게 숨을 내뿜었다. 들이쉬면 안개송이가 사이다처럼 한입씩 기여들군 하였다.

언뜻 보니 떡갈나무잎에 숨어 하늘이 비단필인양 드리웠고 달이 산허리에 가만히 기대였다.

여전히 누구를 고대하는것 같다.

어제 밤보다 애수를 조금 잃은듯 했으나 대신에 땅 치면 쟁그렁 쇠소리를 낼것 같다.

나는 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한고뿌 쭉 들여마시고나니 심신이 아울러 날아갈듯 한 가벼움에 싸여 가만히 앉아있을수가 없다. 그래서 벅찬 가슴을 붙안고 약수터를 벗어나 천천히 걷기로 하였다. 쳐다보니 앞산이 하늘에 닿았고 그 산을 덮어 떡갈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밤나무, 소나무 등이 그 자리를 다투었고 그사이를 안개가 벌레처럼 날아다닌다.

바위와 바위사이를 건너뛰여 나는 숨차게 걸어본다. 비록 조그만 돌이지만 고산에 있노라 그런가. 검푸른 엄격한 빛을 띄우고 옹골차게 버티고 앉았다. 몇천년 아니, 몇만년동안을 예서 살아왔을고? 나도 이 바위돌처럼 여기서 살고싶어진다. 안개가 내 몸에 비단옷처럼 휘여감긴다. 산뜻하고도 매끄러운 감각이 내 머리끝에서부터 고무신코에까지 휘휘 드리운다. 길가 이름모를 긴 풀잎에 이슬이 산딸기처럼 무르익었고 어깨우를 어루만지는 나무잎에서 생선비린내가 후끈거린다.

내물은 귀밑에서 돌돌거린다. 아니, 발아래서 사물거린다.

그 소근거리는 소리에 입김이 섞여있는듯 휘끈 돌아보게 된다. 척척 휘늘어진 버드나무가지를 헤치고 푸른 바위밑을 돌아 함박꽃같은 웃음을 터뜨리며 돌돌 굴러내린다. 아침이라 맑음을 더해서 푸른 리봉을 달고 나팔거린다. 우악스레 큰 놈, 얄밉게 도드라진 놈, 미욱스레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섰는 놈, 이러한 바위돌들을 얼리고 달래면서 언제나 그 아미에 겸손한 웃음을 띠우고 흘러내린다.

원컨대 세속에 티묻은 이 몸과 맘을 저 샘물에 씻어버리고저 나는 가만히 앉아 물을 쥐여본다. 다정하면서도 차디차다. 손끝을 베여갈듯 한 매움이 들어있다. 그 속에 산내음새 오이내같아…

달은 어느덧 처녀처럼 깜박 숨어버리고 새소리 요란해져서 이 동리가 번화해진듯 하다. 여기 그 누가 꽃을 심어놓았던가. 향내가 흐뭇하게 어리운다. 돌아보니 나무잎에 반만큼 나타난 꽃송이가 이제 산뒤에 숨어버린 그 달을 닮았어. 아마 달의 따님인지 모르지.

산은 그 륜곽을 뚜렷이 허공에 내여던지고있다.

이제 처음이건만 오래 사귄 구면처럼 반갑고 낯익어서 무어라고 말을 건네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지경이다. 그우엔 휘황한 해빛이 쏴 드리웠고 남빛하늘이 출랑출랑 뛰여놀고있다.

나는 가만히 두손을 한데 모으며 눈을 감는다.

6월 25일 아침

《인문평론》 1940. 7.

내가 좋아하는 솔

강 경 애

나는 언제부터인가 솔을 좋아한다. 아마 썩 어려서부터인가 짐작된다. 봄만 되면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것은 내가 여섯살인가 되여 어머니와 같이 뒤산 솔밭에 올라 누렇게 황금빛 나는 솔가래기를 긁던것이다. 때인즉 봄이였던가싶으다. 온 산에 송림이 울창하였고 흐뭇한

냄새를 피우는 솔가래기가 발이 빠질 지경쯤 푹 쌓여있었다. 솔은 전년 겨울난 잎을 이 봄에 죄다 떨구기때문이다.

당시 아버지를 여읜 우리 모녀는 어느 산골에 사는 고모를 찾아갔고 고모네 집 옆방살이를 하게 되였으며 그만큼 우리는 곤궁히 지냄으로 해서 하루의 두끼니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였던가싶다.

봄철을 만난 송림은 그 잎이 푸름을 지나서 거멓게 성이 올랐고 눈가루같은 꽃을 뿌려 숨이 막힐 지경, 향기가 요란스러웠다. 그리고 솔가지속에 숨어 빠금히 내다보는 하늘은 도라지꽃인양 그 빛이 짙었으며 어디서인가 푸르릉거리는 이름모를 새들은 별빛같은 롱롱한 노래를 흘려서 고요한 적막을 깨뜨리군 하였다. 거기서 우리 모녀는 부스럭부스럭 솔가래기를 긁어모았다.

나는 조그만 몸을 토끼처럼 날려서 솔방울을 주어 내가 가지고 간 빨갛고 파란 띠를 두른 조그만 바구니에 채우고 노란 꽃잎을 따가지고 곧잘 놀다가도 배만 고프면 어머니곁으로 달려가서 못 견디게 졸라대였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딱하여서 나를 어르고 달래다 못해서 나의 뺨을 찰싹 때리면 나는 죽는듯이 울었고 어머니는 하는수없이 나를 업으시고 소나무에 기대여서 한참씩이나 우두커니 섰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어떤 날은 하도 조르니까 물오른 솔가지를 뚝 꺾어서 껍질을 벗기고 하얀 가락같은 대를 나의 입에 물려주었다.

거기는 달콤한 진액이 발려있었다.

고향에 있을 때는 송림이 가득차있는 앞뒤산에 늘 오르게 되니까 그리 솔의 진가를 알지 못하겠더니 일단 고향을 등지게 되고 멀리 간도땅을 밟게 되니 솔이란 얼마나 귀한것인가 가히 짐작할수가 있게 된다.

고향… 하면 벌써 머리에 떠오르는것은 두렵게 굴곡이 진 고산 준령이요, 그우를 구름처럼 감돌아있는 솔밭이요, 또한 무지개처럼 그사이를 달리는 폭포수다.

솔은 본래부터 그 근성이 결백하여서 시커먼 진흙땅을 피하는것이 아닐가? 그러기에 간도에서는 한그루의 솔을 대할수가 없지 않은가 한다. 언제 보아도 하늘을 찌를듯이 높은 준령에 까맣게 무리를 지었고 하늘의 령기를 혼자 맛보고있으며 또한 눈빛같이 흰 사장을 끼고 이쁘게 몸매를 가지지 않았나.

경원선방면으로 려행해보신 이는 누구나 다 보셨을것이지만 동해안

에 그 송전이란 극히 드문 절경중의 하나이라 하지 않을수가 없다.
　망망한 푸른 바다는 하늘을 따라 멀리 달려나갔고 한두척의 어선이 수평선우에 비스듬히 걸려서 슬픈 노래를 자욱히 뿌리고있다.
　갈매기 날개를 펴서 천천히 날을제 나래끝에 노래가사가 하나, 둘 그려지고있다.
　철썩철썩 들리는 파도소리— 그 파도에 씻기고 닦인 사장은 옥같아 백포처럼 희게 널렸고 그곳에 아담하게 서서있는 솔포기들!
　그 자손이 어찌 그리 퍼졌는고. 작은 애기솔, 큰 어른솔, 흡사 내가 집에 두고온 내 애기의 그 다박머리 같았고 차창을 와락 열고 손짓해서 부르고싶고나.

　솔은 장미처럼 요염한 꽃을 피울줄도 모르며 화려한 향취를 뿌려 오가는 뭇나비들을 부를줄도 모른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며 그만큼 그는 적적한 편이라 할것이다. 허나 오랜 풍우에 시달리고 볶인 로숙한 체구는 마치 화가의 신비로운 붓끝에서 빚어진듯 스스로 머리를 숙여 옷깃을 여밀만큼 그 색채가 엄숙하여 좋고 침형으로 된 잎이 서로 얽히여 란잡스러운듯 하건만 그렇지 않고 의좋게 짝을 지어 한줄기에 질서있게 붙어서 맵고 거센 설한에도 이를 옥물고 뜻을 변치 않는 그 기개가 좋고 나는듯마는듯 그러나 다시한번 맡으면 확실히 무거운 저력을 가지고 내 코를 압박하는 그 향취가 솔의 품격을 여실히 드러내여 좋다.
　지금은 봄, 춘풍이 파뿌리냄새를 가득히 싣고 이 거리를 범람한다.
　나는 신병으로 인하여 며칠전에 상경하였다. 아침이면 분주히 대학병원으로 달리면서 원내에 우뚝우뚝 서있는 로송을 바라본다.
　비록 몸은 늙어 딴 받침나무를 의지해섰지만 그 잎의 지조만은 서슬이 푸르다. 암담한 세상에서 너 혼자 호올로…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을수 없다.
　문득 내 어머님께서 뚝 꺾어주시던 그 솔가지 달콤한 물이 쪼르르 흐르던 그 가지가 이것이 아니였던가싶어지면서 내 입속이 환해진다.
　마치 가오리같이 까맣게 오래된것도 모르고.

자 수

백 신 애

동리집 처녀가 옥양목쪽을 가지고와서 주머니꽃 그려주시오 하고 왔다. 본래부터 잘 그릴줄 모르나 배운 솜씨로 하는 자수 밑그림쯤이야 그대로 어울러 놓을줄 아는지라 그까짓 옥양목쯤에야 사양하면 도로 우습고 하여 선득 응낙하고 먹을 갈아 제법 멋들어진 도안으로… 라고는 하고싶으나 그렇지도 못하고 그저 자수하기 쉽도록 한편은 매화를 그리고 한편은 련을 그려 처녀앞에 밀어놓은 후 이다음 비단헝겊을 가지고 오면 아주 좋은 그림을 그려주랴 하였다. 처녀는 아주 감복하는듯 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만져보며 《참 고맙십더.》 하고 몇번이나 치하하였다. 나 역시 수고거리도 못되는 노력으로 남을 이같이 기쁘게 하여주었음이 그리 불쾌한것은 아니였다. 그래서 득의만면 비슷한 얼굴을 하고

《이다음은 더 잘 그려주마. 이까짓것이 무엇 그렇게 잘 그렸다고 그래…》 하고 제법 듣기 좋게 대답까지 하였다.

그랬더니 처녀가 이윽히 그림을 이리저리 만지적거리고난 후 조끔 얼굴이 불그레하여지며 입을 떼기 주저하고 부끄러운 태도를 지었다. 나는 아주 령리한 사람처럼 얼른 알아차리고 처녀가 무슨 말을 하고저 하는가를 알려고 그의 두눈을 바라보았다.

처녀는 몸을 비비 꼬며

《왜 나비는 안 그려주는가요?》한다.

나는 갑자기 하하 웃고

《그러면 진작 말하지, 무엇이 부끄러워.》하며 다시 옥양목쪽을 받아들었다.

그러나 그린 그림이 모두 나비를 그리지 못할 매화와 련화이니 처녀의 맘을 만족시킬수 없어 다시 돌려주며

《이 애야, 매와 련에는 나비를 그리면 격이 아니다. 이다음 다른 꽃을 그리거든 나비를 네 소원대로 그려주마.》 하고 달래였다.

《한마리만 꼭 여기 그려주세요.》하며 격을 찾는 나의 말을 들은 척도 않는다.

《이 꽃에 나비를 그리면 다른 사람이 웃는단다. 나비를 그리면 더 고운줄 아니?》

《아이고, 그래도 이만치 고운 꽃에 나비가 없으면…》

하고 처녀는 부끄러워는 하면서도 빡빡이 조른다. 나는 하는수없이 내 보자기에서 옥양목쪽을 끄집어내여

《정말 나비를 소원하면 여기 다른 그림을 그려주마.》

하고 온갖 친절을 다 보였다. 그러나 처녀는 당치않다는 표정으로

《싫어요, 다시 그리면 이만치 곱게 못 그립니다. 아무 꽃이면 무슨 상관있는가요. 꼭 한마리만…》한다.

나는 할수없이 《그러면 그려주마. 다른 사람보고 나 그렸다고 하지 말아.》

하고 매화에다 나비 두마리를 그려주었더니 처녀는 기쁨을 금치 못하여 하며 돌아갔다. 처녀가 돌아간 후 벼루를 치우며 옥양목에라도 자수만 하면 꽃주머니라고 귀하게 여길 그들에게 격을 찾는 내가 고소되여 한참 웃었다.

《현대조선녀류문학선집》1937.

비에 젖은 아침

김 자 혜

형이여, 밤새도록 추녀끝을 두드리는 비소리를 들으며 억만가지 번뇌에 잠겼다풀렸다 하며 밤을 새웠소. 《천하의 고인들아, 밤비소리 듣지 마소. 두어라, 이 한줄밖에 더 써 무엇하리오.》라는 R선생의 시조를 거퍼 읽어외우기를 몇번이나 하였는지.

비소리는 내 귀로 새여들고 나무잎을 스치는 억센 바람소리는 내 가슴을 요란하게 해주어 나는 차라리 흐리터분한 구름 낀 날씨가 이밤만은 계속해주기를 바랐소.

형님이여!

그러나 그 긴 밤도 비소리에 새이고 지금은 아침이요. 여전히 비는 폭포처럼 퍼붓고 바람은 온 장안을 휩싸오.

어제 밤에 그리도 괴롭던 비소리가 지금은 이렇게나 상쾌하게 내가슴을 헤쳐주오. 과부의 설음처럼 끝없이 우울하고 흐린 어제 날씨에 비하여 이 쫙쫙 퍼붓는 줄기찬 비소리가 얼마나 시원스럽소.

흐린 날씨를 그렇게 지긋지긋이 싫어하는 내가 어제 밤 밤비소리를 들을 때는 적은 애수를 참지 못해 오히려 꾸물꾸물하는 흐리터분한 날을 바라던 마음을 이 아침에 다 씻겨버렸소.

지붕에 쏟아내리는 비물이 얼마나 세인지 물이 수채로도 흐르지 못하고 그냥 마당으로 넘쳐흐르오. 며칠전 퇴돌밑을 돌아가며 심은 채송화가 평토가 뚫어지는 추녀물에 푹푹 패여 달아나오. 온 봄내, 여름내 그렇게 힘들여 가꾸어 논 화단의 꽃들이 갈가리 찢겨 떨어지고 부러지오. 마치 내 치마자락이라도 그우에 덮어주기를 바라는듯이 비에 지지 않으려고 휘청거리오.

그러나 울너머 푸른 언덕과 뽀얗게 내다뵈는 서울장안을 휩쓰는 우경 (비내리는 경치)이란 혼자 보기는 너무도 아까웁소. 푸른 나무잎이 비속에 너울거리는 운치란 더우기 키가 후리후리한 포플라의 잎사귀가 비속에 춤추는 모양은 엉키여진 생각의 실마리를 한껏 시원스럽게 풀어주는것 같소.

비 퍼붓는 장안을 내다보며 나는 머리속에 그 지저분하고 먼지낀 골목골목들이 비속에 씻겨나갈것을 그려보며 내 가슴속까지 깨끗해지는것을 느끼오.

형이여!

얼마나 속시원한 노릇입니까? 그 먼지낀 수만호의 지붕, 냄새 나는 시궁창, 구역이 나는 더러운 집들이, 거리들이 세례를 받고 그 폭포같은 물결속에 씻기여질것이 아니오니까? 만일 온 장안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이런 깨끗한 비의 세례를 받을수 있다면 나는 이 비가 그들의 마음속까지 스며들기를 빌겠소.

형이여!

내 동생은 옆에서 화단의 꽃송이들이 부러지는것을 애석해하고 앉았소.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그렇게 비줄기에 갈가리 찢기고 부러져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인간의 세상에는 진정한 비가 퍼붓기를 바래요.

온갖 추악한것과 차마 눈으로 바라보기에 구역이 나는 더러운 일들이 이 인간세상에서 다 씻겨져나갈수만 있다면 우리따위 풀포기쯤은 물속에 싸여 흐른들 무슨 한이 있겠소.

형이여!

언제 우리에게는 비가 쏟아질것입니까? 이 음울하고 혼란된 흐린 날씨가 언제 끝나고 아침의 이 시원한 경치를 바라보고있는 날이 언제나 올것입니까? 비는 끊임없이 퍼붓습니다.

형이여!

이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날 때 그 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나는 그리여봅니다.

《현대조선녀류문학선집》 1937.

진 달 래

주 수 원

며칠전부터 내 방에는 동무 하나가 생겼다. 물론 처음부터 동무라고까지 생각은 아니하였으나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있다. 그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진달래나무가지— 엉성하고 아무 태도 없고 살아있는것 같지도 아니한 진달래나무가지였다. 본래 나는 꽃을 기르는 솜씨가 없는터이라 엉성하고 말라빠진 그 가지에서 무엇이 나올가싶지도 않아서 별 신기한 취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좌우간 내 방에 오게 된것이니 들창앞 해빛 잘드는 곳에 잘 모셔두었다. 그리고 아침마다 물을 주고 가지가 꺾어질가 조심하면서 시시로 들여다보고 보고 한다. 어디 갔다가 방에 들어가면 의례히 진달래꽃병곁으로 다가선다, 다녀왔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려는듯이.

며칠동안은 아무런 변화도 눈에 띄우지 아니하였다. 가지는 엉성한 그대로, 꽃잎 나올 눈은 옴처럼 그대로 모두 까마득하였다.

인제는 차라리 들여다보지 않는것이 낫지 않을가하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진정하려 하였다.

어느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늘 하는 버릇으로 꽃병앞으로 갔다.

아, 거기서 나는 기대하던 생명의 움직임을 보지 않았던가? 놀라움과 기쁨에 나의 가슴은 뛰였다. 흐리터분한 겨울아침 창밖에는 몹시 추운듯 유리창에 서리였던 김이 얼기설기 얼어붙어있는 그앞에 유독히 진달래가지만은 봄기운을 받아들인듯이 꼼짝하지 않고있던 눈들이 놀랍게 커지고 엷은 연두빛이 올라 방금 움이 트려는듯 하였다. 나는 말할수 없는 기쁨을 느끼였다. 언제까지나 지켜서서 움트는것이 보고싶고 꽃잎나오는것이 보고싶었다. 그러나 꽃은 내가 지키지 않는 때에 더 잘 자람인지 잠간 후에 볼지라도 놀라지 않을수 없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생명의 힘, 그것은 그침없이 창조하며 자라나간다. 지금은 제법 진달래봉오리가 나와서 불긋울긋한 빛을 띄우고있다. 죽은듯 한 가지를 우습게 알던 나를 도리여 비웃는듯 진달래봉오리는 날마다 커간다. 나는 아무생각없이 진달래 곁에 서서 빈 방을 휘둘러본다. 책상, 그우에 놓여있는 책 그리고 책장, 옷궤, 침대, 벽에 걸린 사진들, 모두 놓여진 그대로 변함없이 놓여있다. 내가 다시 그 위치를 바꾸거나 다른것으로 대신 두거나 하기전에는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는것이다.

그러고보니 이 방에서는 생명있는것이 오직 이 진달래와 나뿐이로구나. 생명이 있기때문에 진달래는 움직이지 아니치 못하며 나도 역시 그러하게 움직이며 자라나가는 진달래의 살아있는 힘과 내가 살아있다는 거기에는 어떠한 련관이 있으리라 생각하니 더구나 진달래가 동무처럼 가까와진다. 어서 꽃이 피였으면 얘기라도 할듯이 하루바삐 피였으면 싶다.

끝없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머리를 들고보니 창밖에는 흰눈이 춤추며 내려온다. 바루 그 창안에는 진달래가 피려고 하는데…

밖에서야 찬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진달래는 위함을 받으면서 곱게곱게 피려고 한다.

그러나 이제 내가 꽃병을 들어 창밖으로 내여놓고 사정없이 찬바람과 눈보라를 맞게 하면 대체 진달래는 어떻게 될것이냐? 나는 더 생각지 않으련다. 거기에는 확실히 방안에서 길러진 진달래의 슬픔이 있기때문이다.

《현대조선녀류문학선집》1937.

봄, 우울

최 정 희

새벽 다섯시면 잠이 깨인다. 깬다고 해야 —잠을 쫓으랴고 눈에 자극제를 바르던 때와 같은 단잠에서 깨는것은 아니나 어쨌든 아무도 깨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불밑에 엎드린채 머리맡에 놓았던 책을 펴든다.

밤새도록 끙끙 앓으며 늙은 자기 할머니 보고 못 견디게 굴던 안해잃은 옆방 홀애비녀석도 인제야 잠이 든 모양이다. 나는 하등 필요없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대꾸하던

《내가 가래서 갔니? 바람나서 간걸 어찌담.》

그 말이 입속에 반복되여서 책을 읽을수 없었다.

벌써 문창이 훤해지니 미친 로인이 또 뛰여나오는 모양이다. 로인은 언제 무엇때문에 그 지경 됐는지 모르나 옆방 홀애비의 아버지로 추운 때는 해가 떠야 하던짓을 요새 와서는 문창이 훤해지면 마당에 나와 하늘을 우러러 갈피 모를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구르는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식구로부터 열다섯살림으로 나누인 120명의 이 뜰안 식구들이 전부 깨게 된다. 말하자면 그들의 불규칙하고 무례하고 비교육적이고 비위생적이고 빈곤한 생활이 미친 로인으로 해서 몇시간 이르게 시작되는셈이지.

로인은 얼음 녹은 그 질벅한 마당에서 오래도록 철썩철썩 구르다가 워낙 사람이 마당에 많이 보이면 흙투성이채로 자기들 방에 들어간다. 며느리도 없는데 그 옷은 누가 빨아 입힐가 하는 념려에 내 머리는 또 어지러워졌다.

○

대개 아홉시반이면 사에 나간다. 큰집속에 아침공기가 유난스레 허성하고 돌층계를 밟는 징박은 내 구두의 음향이 머리끝까지 치받쳐서 날카로운 내 신경이 바늘끝같이 뾰족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일을 한

다는것을 잊지 않느라고 그 돌층계를 하루에도 몇번이고 오르내리면서 내가 존경하는 작가들이 자신의 고민과 불안에 갈팡질팡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것을 잊지 않는다.

거리는 열병자의 입김같이 훗훗한 봄기운에 완전히 압도되였다. 도시복판에 교통신호대는 날개잃은 잠자리가 고통을 못이겨 바르르 떨듯이 교통순사의 손에서 히스테릭칼하게 울고 확성축음기는 숨이 가쁘게 소리를 뽑는다. 백화점은 봄을 단장한채 움질거리는 사람무리속에 그냥 자빠지지 않을런지?

○

집에 돌아오면 하루종일 떨어졌던 아이가 반가와 달려들며 뭐 사왔느냐고 묻는것이 례사이더니 오늘은 노래를 불러달라는것이다. 제 아는 노래중에서 제일 덜 좋아하던 《봄노래》를 원하는것을 보아서 아이도 철을 아는 모양이다. 세상사람보다 철을 먼저 알아야 할 직무를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린것이 느끼는 봄을 왜 모르고있을가! 둔해진 자신을 위해서 전 신경을 총집중시켜 회의를 열어보았으나 결국 아무 효과를 못 얻고 산해되고말았다.

책을 읽고 내 마음과 내 생활을 그대로 하소할수 있는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가졌으면!

마당에 아이들소리 시끄럽다. 구차한 살림에 아이들은 저렇게 많을가. 저녁들을 먹고 그들 가족의 침실, 식당, 일터를 겸한 좁은 방에서 다시 쫓겨난듯 하다. 어느 방에든지 소속되여있는 출입자의 마당이라 너희들 마당에 가서 놀라고 할 렴치도 없으려니와 또 그들의 측은한 정상을 살피지 않을수도 없는 일이다. 아이들은 맞은편 방 주인의 요새 와서 바싹 좋아진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숫처녀의 가슴에도》라는 노래에 따라서 경동맥을 세워가며 악을 쓴다.

—봄은 확실히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든다. —

병자 2월 23일

《현대조선녀류문학선집》 1937.

그 늙은 인력거군

리 선 희

오늘 밤 내 포근한 잠자리가 웨 이리 형틀우에 누운것처럼 송구스럽소? 낮의 일을 잊어버리려고 눈을 감고 잠을 청하면 그 인력거군의 늙고 병든 얼굴이 내 머리속을 파고드는구려!

오늘따라 나 혼자 남어있기가 싫어 남편과 함께 대학으로 놀러나가는 길이였소. 집에서 대학까지 5리는 착실히 되건만 그 늙고 어수룩한 인력거군은 에누리도 없이 10전을 불렀소. 북경(베이징)처럼 인력거 많고 북경처럼 인력거삯이 싼데가 세계에 둘도 없을게요.

이 늙은 인력거군은 큰길까지 채 나가기도 전부터 기침에 가슴이 메여 뛰지를 못하는것이였소.

내 인력거가 늦어지는 까닭에 남편의 교수시간이 늦을가 마음이 죄여 나는 《부싱》이라고 골을 내고는 인력거를 멈추고 다른 젊고 튼튼한 인력거군을 골라왔소.

그 늙은이는 아무 대꾸도 없이 내가 주는 동전 세잎을— 세잎이래야 겨우 일전밖에 안되는것을 받고서는 그저 싫단 말도 없이 그 젊은 인력거군을 부러운듯이 바라보며 비슬비슬 길가로 가서 있는것이였소. 힘세고 잘 뛰는 젊은이한테 돈벌이를 뺏기고 물러나앉은 그 늙은이— 아무 대항도, 더잘 뛰겠다는 군소리도 없이 또 아무런 불평까지도 없이 힘없이 나앉은 그 모양이 둘째 인력거군의 씩씩함을 볼 때 비로소 내 맘을 괴롭게 하기 시작했소. 이 젊은 인력거군도 며칠 안 가서 폐병이 들고 피를 토하고— 생각하면 내자신이 그들의 피를 말리는것 같아 대학까지 나가는 동안 앉은 자리가 바늘방석인양 송구스러웠소.

《그 늙은이 얼마나 줬소?》

하고 남편이 한참이나 가다가 물었소. 그이도 그 원망도 할줄 모르는 늙은이의 모양이 마음을 불안스럽게 했던게요.

《동전 세잎 줬지요. 대학까지면 십분지 일의 반도 못 왔는데—》

하고 나는 억지로 평정한 얼굴을 지었소.

《한 여라문잎 주지 않구— 열잎이래야 기껏 4전인걸.》

지금 내 귀에는 아직도 남편의 이 말이 자꾸 배드는것 같소.

《여라문잎》《열잎이래야 기껏 4전!》 젊은이에게 밀려나가는 그 늙고 병듦의 설음을 열잎쯤으로도 어지간히 위로가 되였으련만 거리의 10분지 1을 따져 돈을 치러준 내 너무도 타산적인 마음이 지금에는 몹시 얄밉소. 열잎! 백잎이래야 겨우 40전! 만일 지금 그 인력거군을 만날수만 있다면 백잎의 백배라도 손에 쥐여주고 이 송구스런 가책의 마음을 풀어버리겠소.

지금쯤 이 찬밤에 어느 담모퉁이에서 그 늙고 마른 다리를 주무르며 기침에 목이 메여있는지! 아니, 영영 내 마음의 빚은 갚지도 못한채 이 밤안으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오.

밤이 지새고 아침이 오면 이밤에 이렇게 마음쓰려하던것도 다 잊고 또다시 그 굶주리는 인력거군들과 단돈 한잎이라도 깎아주려고 또다시 나는 린색을 부리고 살진 친구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자진해서 내 주머니를 풀을게요.

이것도 세상 살어가는 모순중의 하나인가보오.

1938. 3. 북경(베이징)에서

《수필기행집》1938. 6.

시

책 한권

강 경 애

나는 가난합니다
그리고 또 외롭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책 한권이 있습니다

나는 슬플 때마다 또 기쁠 때마다
따뜻한 가슴속에서
그 책을 남모르게 꺼내여
하루에도 몇번씩
차례차례 보고있습니다

볼 때마다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끝도 없는 영원의 나라를 그려봅니다
그 책은 비록 해여졌으나
해여지면 해여질수록
나는 더욱더욱 귀여워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또 외롭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사랑하는
이 책 한권이 있습니다
오 나는 행복합니다

《금성》 제3권 1924. 5.

가 을

강 경 애

매해 가을마다 울었더니만
뒤창문옆에서 울었더니만
떨어지는 락엽 좇아 울었더니만
지금은 그 가을이 또 왔어요

바람에 떨어진 벽에 의하여
겨울의복 꼬매이려고
힘없는 광선을 바라보면서
바늘은 번개같이 번쩍이였다

뒤문으로 가만히 바라다보니
누런빛사이로 나무군아이
곰방대를 찬 나무군아이
가을에 벗님을 찾으려 해

매해 가을마다 울었더니만
뒤창문옆에서 울었더니만
떨어지는 락엽 좇아 울었더니만
지금은 그 가을이 또 왔어요

《조선문단》 1925. 11.

다 림 불

강 경 애

어머님께서는 오늘 저녁 나에게
금빛은빛으로 단장한 옷을 주시려고
다림불을 피우시려나요

어머님 모르십니까
저 동쪽하늘가로
어제 밤 눈 감고 그리워하던
꿈같은 달빛이 새여흐름을

그러면 어머님이 다릴 옷일랑
밤꽃의 그윽한 향내로 고이고이 뿌린 후
달빛을 실어다 다려주세요

《조선일보》 1926. 8. 18.

참된 어머니가 되여주소서

강 경 애

어머니
인편에 들으니
어머님께서는 마침내
쫓겨나셨다고요

어머니
작년 이때
우리 집 울뒤 대추나무가지에는
대추가 조롱조롱 빨갰을 때
눈둥이 붓도록 우시면서도
나를 민며느리로 보내였지요

그때에 어머님께서는
어머님의 머리 쩌서 판 돈으로
얼빗과 참빗을 사서
이 딸의 곳침속에
깊이깊이 넣어주시며
가서 잘살어라! 부대 배곯지 말어라!
이것이 마지막부탁이였지요

어머니
이 집에 온 후로 이 딸은
꿈이면 어머님과 대추나무를 보았지요
그리고 일하다가도 멍하니 행길가를 바라보았답니다
지나가는 낯선 손이
행여나 어머니가 아닌가 하여서…

어머니
지금에 알고보니
빚값에 이 딸을 파셨다고요
그리고도 그 돈 한푼 어머니손에
못 쥐여보셨다고요!

오! 어머니!
저 푸른 하늘을 우러러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땅을 구르며 물어보세요
이런 억울한 일을 언제까지나

받아야 옳겠느냐고요?

어머니
이 딸은 ××회의 한사람이 되였답니다
그래서 이젠
어머님도 대추나무도 그립지 않어요
이 눈은 ××회때문에 빛나고요
이 팔 이 다리는 굵어지고있답니다

어머니
며칠후에 내 동무가
그곳 갈테니
부대 잊지 말고 회에 들어주세요
그래서 나의 참된 어머니가 되여주세요

《신녀성》1932. 12.

숲속의 농부

강 경 애

김매던 농부
호미자루 목침삼아
개미들이 토굴파는
숲에 누웠소

끊었다 이어지는
샘물소리에
포르르 졸음이 오나
어제 밤 동무가 주던
종이쪼각 잊지 않았소

질은 풀내에 입맛 당겨
스르르 눈 뜨니
밭이랑에 조싹이
파랗게 보이우

《신동아》 1933. 6.

오늘 문득

강 경 애

가을이 오며는
내 고향 그리워
이 마음 단풍잎같이
빨개집니다

오늘 문득 일어나는 생각에 이런 노래를 적어보았지요.

《신가정》 1934. 12.

산 딸 기

강 경 애

딸기 딸기 산딸기
심심산촌의 산딸기
나는 산골색시요
숫처녀였소

님께 한번 바쳤길래

변치 안했소
정말로 진정으로
변치 안했소

몸은 꼬치꼬치 댓가지요
잎은 쇠잔하며 반백이지만
님 향한 이 맘만은
붉게 타지요

송이송이 피덩이로
타고 남지요

(병석에서 지은 마지막시)

북별 10유여년

혜 원

1

그대 북으로 가신지
이미 10년하고도 또 몇해
그동안 날과 달이 몇천번 몇백번
곤두박질하였으려든 시로 각으로는
얼마나 많이 꼬리를 물었사오리까
손꼽아 헤이기에만도
아마 정신 아득할따름이외다

몇만 몇백만 토막의 시각이
기나긴 세월을 아로새기는 동안

그대 그리는 마음의 애달픈 실마리는
몇천만 몇억만 줄기의 가닥으로 얼키여
가슴속 골골이 뿌리박히였사오리

봄 되여 꽃피고 피리를 불 때나
가을이 되여 잎이 지고 기러기 날 때면
행여나 그대 소식 있을가 하고
얼마나 머나먼 그곳을 바라다보며
이 가슴 졸이였사온지? 눈물 지였사온지?

2

옛날에 전하는 말에
하늘의 견우와 직녀란 별은
죄짓고 작별을 진 몸이로되
그래도 1년에 한번 기약은 있어
칠월칠석을 가졌다 하옵기

별 맑고 바람 자 가슴아플 때면
그에나 대하여 호소하고저
조용히 이웃집 동무네를 찾아
슬그머니 물어도 본적이
어찌 한두번이라 하오리까

그대여 나의 님이여
그대여 나의 님이여
이런줄이나 아시나이까
이런줄이나 아시나이까
다만 한번만이라도 좋사오니
꿈에라도 생각하여주소서
꿈에라도 생각하여주소서

3

그러나 그대의 가신 뜻이
작은 일을 위함이 아니옵고
그대의 가신 길이
또한 더욱 험난한 길이 오니
어찌 그 뜻 그 길의
위대함과 어려움을 잊삽고
작은 살림살이의 괴로움과
조고마한 방구석만의 회포에 끌리여
이편 사정만을 생각하오리까
지더린 눈물인들 흘리오리까

큰 뜻—장한 결심을 가지고
험난한 길—이역길에 오르신
그대의 안해된 자랑으로써라도
10년이라도 참사오리다
20년이라도 한생전이라도
참사오리다

그대여, 나의 님이여!
그대여, 나의 님이여!
북국의 한설이
맵기도 몹시 맵다지마는
겁내지 말고 나가소서
굽히지 말고 나가소서
오직 하나 그대가 남기고 가신 선물
그것은 지금 어미의 품—

옛터전의 가슴에 안기여
고이고이 자라나고있사오니

그것이 그대의 뒤를 이어
이바지할 날도 머지않을것이외다
이곳에 어미된 의무를 잊지 않사오리니

그대여 나의 님이여!
그대여 나의 님이여!
북국의 한설이
맵기도 몹시 맵다 하다마는
겁내지 말고 나가소서
굽히지 말고 나가소서

《조선일보》 1934. 1. 11.

국 화 제

로 천 명

들녘 비탈진 언덕에
네가 없었던들 가을은 얼마나 적적했으랴
아모도 너를 녀왕이라 부르지 않는데
봄의 화려한 동산을 사양하고
이름조차 없는 풀틈에 섞여
외로운 절개를 호올로 지키는 황야의 시악씨야

갈꽃보다 부드러운 네 마음이 사랑스러워
거치른 들녘에 두고싶지 않았다
한아름 고이 꺾어안고 돌아와
책상우 화병에다 너를 옮겨놓고
거기서 맘대로 화창하라 빌었더니

들에서 보든 그 생기 나갈이 잃어버리고

웃음거둔 네 얼굴 수그러져
빛나든 네 모양은 한잎두잎 병들어갔다
아침마다 병이 넘게 부어주는 맑은 물도
들녘의 한방울 이슬만 못하드냐
너는 끝내 거치른 들녘 정든 흙냄새속에서
맘대로 퍼지고 멋대로 자랐어야 할것을

시들고 마른 너를 다시 안고
높은 하늘 시원한 언덕아래로
묻어주려 나왔다 들국화야!
저기 너의 푸른 천정이 있다
여기 너의 포근한 갈방석이 있다

《현대조선녀류문학선집》 1937.

바다의 향수

로 천 명

기억에 잠긴 남빛바다는 아득하고
그리는 정열은 걷잡지 못한채
낯선 하늘 머언 뭍우에서
오늘도 떠가는 구름으로 마음을 달래보다

지금쯤 바다 저편엔 7월의 태양이 물우에 빛나고
항해의 지친 육중스런 몸뚱이는
집시의 퇴색한 꿈을 안고 푸른 요우에
딩굴며 낯익은 섬들을 뒤적거리리

푸른 밭을 갈아 흰 이랑을 뒤에 남기며
장엄한 출범은 이 아침에도 있었으리

늡실거리는 파도 바다의 호흡 흰 물새
오늘도 내 마음을 차지하다

《현대조선녀류문학선집》 1937.

밤의 찬미

로 천 명

삶의 즐거움이여! 삶의 괴로움이여!
이제는 아우성소리 그쳐진 밤
죽은듯 다 잠들고 고요한 깊은 밤

미움과 시기의 낚시눈도 감기고
원쑤와 사랑이 한가지 코를 고나니
밤은 거룩하여라

땅에서도 이밤만은
별 반짝이는 하늘과
그 깨끗함을 그 향기를 겨누나니

오! 밤이여 거룩한 밤이여
영원히 네 눈을 뜨지 말어라
네가 눈 뜨면 고통도 눈 뜨리
밤이여 네 거룩한 벼개를 빼지 말고
고요히 고요히 잠들어버려라

《현대조선녀류문학선집》 1937.

자 장 가

홍 순 옥

자장자장 우리 애기
착한 애기 잠 잘 자거라
무럭무럭 얼른 자라서
삼천리에 꽃이 되여라

자장자장 우리 애기
착한 애기 잠 잘 자거라
삼천리에 꽃이 되여서
2천겨레 웃게 하여라

자장자장 우리 애기
착한 애기 잠 잘 자거라

《조선문단》1935. 8.

평 양 가

홍 순 옥

대동강 푸르게 잔잔히 흘러서
청류벽 절경을 스치며 지나고
모란봉 을밀대 하늘우에 솟아
평양의 시가를 굽어들보나니
우리의 평양은 금수의 강산

단군도읍때엔 락랑의 옛 서울

××도읍때엔 서경의 옛 서울
관서의 옛도읍 사천년 옛 력사
오래된 력사로 유명한 옛 도읍
우리의 평양은 제일의 서울

이 산천절승에 정기를 타고서
아들이 나며는 영웅이 나고요
딸이 나며는요 일색이 나나니
십삼도중에서 유명한 명승지
우리의 평양은 제일의 강산

《조선문단》1935. 6.

달 밤

리해월

기다릴이는 없는데도
밖에서 누가 기다리는듯 하여
창문을 열고서 내다보며는
달빛만 한없이 명랑합니다

부를이는 없는데도
밖에서 누가 부르는듯 하여
창문을 열고서 내다보며는
바람만 숲으로 지나갑니다

노래할 이는 없는데도
밖에서 누구가 노래하는듯 하여
창문을 열고서 내다보며는
샘물만 뒤산서 흘러나옵니다

《조선문단》1938. 12.

맑은 그 눈

장 정 심

내게 당신이 한마디도 안했어도
오늘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말은 없었어도 당신의 눈동자에
맑고 진실한 사랑을 알았습니다

래일이나 모레이나 영원까지라도
행여나 한마디라도 내게 말한다면
고상하고 맑은 그 사랑은 변할지니
부대 아무 말도 말고 침묵만 해주시오

《현대조선녀류문학선집》 1937.

편 물

주 수 원

한코 우로 한코 아래로
실을 걸어서 빼여냅니다
이 바늘에서 그 바늘로
옮기고옮기는 동안
생각한 그 무늬가 나타납니다

나의 하루도 이 한코같이
생명의 실에 걸려 짜여갑니다

삼백하고 예순다섯 옮기고보니
덧없이 한해가 지나갔어요
슬픔과 기쁨이 얽어진 무늬
이렇게 요란하게 남겨놓고서

생각없는 말로써 벗을 울리고
꿈속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일
하나도 남김없이 력력하게도
짜내인 무늬로 남아있어요
손에 든 편물은 풀수 있으나
풀수 없는 나의 날은 어찌할가요

한코 우로 한코 아래로
생명의 실에 걸려 짜올립니다
나머지 실끝이 언제 올른지
그때까지 고운 무늬 짜보렵니다
엄숙하고 상쾌한 새날의 해빛
오늘도 웃으며 재촉합니다

《녀류문학선집》1937.

내 맘은 나에게 왕국이외다

주 수 원

가진것 하나 없어
사람이 비웃어도
내 마음 한결같이 편안합니다
내 마음은 나에게 왕국이외다
큰산이 앞을 가려
갈길이 아득해도

이 마음 구름같이
거침없이 넘어가니

피곤한 내 몸도
괴로움을 다 잊은듯
내 마음 나에게 왕국이웨다

오해의 물결이 치밀려와도
그 물결 내 마음 범치 못하고
아지 못할 압력이 답답하게 눌러도
내 마음 한결같이 자유로워요
내 마음은 나에게 왕국이외다

나의 도피성!
나의 왕국
아― 이 마음 병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

《녀류문학선집》1937.

바 늘

주 수 원

가늘다고 웃지 마오 적다고 멸시 마오
저된 그대로 쓰일 일이 많은것이
작다고 숨어있든들 어이 옷이 되였으리

《녀류문학선집》1937.

실 패

주 수 원

풀려라 한바람씩 어서 풀려라
이 실이 끝이 나면 내 설음도 끝나려나
풀어도 다함없으니 가슴 답답하여라

《녀류문학선집》 1937.

원 망

김 오 남

깊은 산 찾아들어
접동새 될량이면
가슴에 맺힌 한을
울어 풀어보련마는
띠끌에 사람 못되여
어이할 길 없어라

매몰타 정이 없다
사람아 말을 마소
속된 무리속에
마음 붙일 곳이 없어
평생을 울고 갔다고
간뒤 적어주시소

《녀류문학선집》 1937.

산변정경

김 오 남

머리에 빨래 이고 치마에 락엽 안고
다박솔사이로 꾸부리고 가는 로파
가련한 그 뒤모양을 울며 보고섰노라

《조선문학》 1936. 10.

그리던 곳

김 오 남

예놀던 터이로세
그리던 거기로세
풍경은 그대로나
찾는 동무 하나 없네
해지네 새마저 날아가네
혼자 우뚝 섰노라

《현대조선녀류문학선집》 1937.

고 적

김 오 남

청산이 제 있거늘 록수 너 웨 울며예나
달이 저기 밝았거늘 두견 너는 무삼한고
내 외롬 네 곧 당하면 어찌하랴 하느냐

《신동아》1933. 8.

실 제

김 오 남

달 가고 해가 바뀌여 이 몸 늙음 한이오나
움돋는 우리 문화 세월과 함께 자라
꽃피여 어서 붉기를 고대고대

이 저것 다 없기로 단성조차 없으리까
자라는 고운 싹에 지성 북주사이다
봄 맞아 웃는 송이야 누가 본다

《신동아》 1935. 1.